

13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장산면

長山面



도서문화연구원

신안군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13

장산면

長山面

책을 내면서

이 보고서는 신안군의 ‘도서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장산면 편) 연구용역 최종성과물이다. 이 연구용역은 2003년 압해읍을 대상으로 시작하였고, 이번 2014년 자은면과 장산면 편을 끝으로 14개 읍·면 13권의 보고서로 마무리 되었다.

도서문화연구원에서는 신안군의 의뢰를 받아 장산면의 문화유적을 조사하고 자원화를 위한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를 위해 자연생태, 고고유적, 역사문화, 민속문화, 어로문화, 구비전승, 방언문화, 주거문화 등 8개의 분야 전공자들이 공동으로 조사하였고, 각각의 주제별 자원 현황과 활용방안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주제별 연구를 종합적인 관광자원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연생태 조사에서는 곰솔이 발달한 오음산과 막금도의 산림식생을 비롯하여 도창리의 노거수림, 저수지의 식생 등을 조사하였다. 고고유적 조사에서는 청동기시대 지석묘부터 삼국시대 고분, 토성지, 산성지, 봉수대, 목장지, 민묘군 등을 조사하였다. 장산도는 고대의 바닷길의 길목이면서 백제부터 고려시대까지 현(縣)이 있었던 곳이어서 다양한 유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역사문화유적으로는 신안군에서 가장 대표적인 효열각인 팽진리 효자각을 비롯하여 섬에 소재한 효자각, 불망비, 송덕비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전략적으로 머물렀던 장소임을 지명과 관련하여 파악하고 관련성을 추정하였다. 민속문화로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씨깃 곳을 비롯하여 농악과 마을의 당제, 세시풍속, 가정신앙 등을 조사하였다. 어로문화에서는 갯벌의 현황과 특산물로 생산되는 해산물을 파악하고, 낙지박사로 불리는 강대용 씨의 생애를 조사하였다. 구비전승으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장산들노래와 다양한 유희요를 중심으로 민요, 설화 등을 조사하였다. 방언문화로는 친족어와 해산물의 이름, 무당 은어 등을 조사하였다. 특별한 방언으로 태호를 사용하지 않고 ‘성’이나 ‘동승’ 과 같은 친족명칭을 즐겨 사용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주거문화 분야에서는 1800년대에 건립된 민가의 1980년대 모습과 2014년의 모습을 비교하여 생활문화를 조명하였다.

도서문화연구원에서 진행해 온 ‘도서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는 신안군의 시간자원을 찾아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의 첨단기술과 대중문화가 꿈과 미래를 찾아 자원화 하는 것이라면, 도서문화 지표조사는 섬사람들이 살아온 궤적을 찾아 그것을 기억하고 자원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가 신안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시간자원으로서 기능하기를 바라마지않는다. 그런 만큼 조사·연구의 기회를 부여해 준 신안군 고길호 군수님과 담당 공무원 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심성의껏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 준 참여 연구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2014년 11월

전체 연구진을 대표하여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HK교수 **송기태**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13 **장산**^{長山面}



목 차 CONTENTS

- 자연생태
홍선기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교수 23
- 고고유적
최성락 / 목포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37
- 역사문화유적
최성환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교수 61
- 민속문화
송기태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교수 93
- 어로문화
김경완 / 신안문화원 사무국장 147
- 구비전승
홍순일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163
- 방언문화
이기갑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279
- 주거문화
김지민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305
- 관광자원화
강봉룡 /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 도서관문화연구원장 335
- 부록 355
- 문화자원 분포지도
김재은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443

연구개요 및 기본현황

1. 연구개요

- 사업명 : 도서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용역
「자은면·장산면 편」
- 사업기간 : 2013. 12. 27. ~ 2014. 11. 22. (11개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에서는 신안군이 지원하는 연구사업으로 '도서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용역(장산면·자은면 편)'을 수행하였다. 본 사업은 신안군의 자연자원을 비롯한 유·무형의 문화자원을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파악·정리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자연생태, 고고유적, 역사문화, 민속문화, 어로문화, 구비전승, 방언문화, 주거문화 등 8개의 분야 전공자들이 모여 공동 조사와 전공별 조사를 진행하여 그 내용을 기록하였다.

본 사업은 지표조사에 그치지 않고 자원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2차적 목적이 있다. 그래서 각각의 전공 연구자들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분야별 활용방안을 집필하였고, 전체를 아우르는 자원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관광자원화' 항목을 별도로 집필하였다. 이를 통해 자연 및 문화자원에 대한 장·단기 전승·보존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은면 조사는 2014년 1월 사전조사를 진행하였고, 2월 19일~20일에 공동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단은 압해도 송공항에서 배를 타고 압태도에 도착하여 자동차로 자은면사무소로 이동하였다. 면사무소에서는 면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조사단을 맞이하여 면 현황을 소개하였다. 이후 조사단과 면사무소 직원들이 동행하여 자은도 일대의 문화자원들을 돌면서 답사를 진행하였다. 주요 문화자원들을 돌아보면서 넓게 발달한 해수욕장들을 답사하였다. 자은도는 해안 사구가 발달하여 해수욕장 9개가 조성되어 있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투자 및 관리를 하고 있었다.

조사단의 공동조사 이후 각 분야의 집필진들이 개별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야별로 2~4회 정도 답사를 진행하고, 중간중간 원고를 검토하고 집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2. 연구진 구성

역 할	성 명	직 책	담 당
책임연구원	송기태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HK교수	총괄, 민속문화
공동연구원	강봉룡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장, 사학과 교수	관광자원화
	최성락	목포대 고고학과 교수	고고유적
	이기갑	목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방언문화
	김지민	목포대 건축학과 교수	건축문화
	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HK교수	자연생태
	최성환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HK교수	역사문화
	김재은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문화자원 분포지도
	홍순일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구비문학
	김경완	신안문화원 사무국장	어로문화
연구보조원	임은옥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주무관	예산 관리
	김은주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연구원	연구팀 관리

3. 공동답사

1) 공동답사

- 기 간 : 2014년 2월 18일 ~ 20일
- 조사자 : 강봉룡, 송기태, 홍선기, 김경옥, 최성환, 홍순일, 김재은, 김인희,
김경완, 한은선, 김은주 (이상 집필진 및 도서문화연구원 연구진), 김진오(전 장산면장)

날짜	시간	내용	장소	비고
2/18 火	09:20	압해도 송공항 집결	압해도 송공항	
	10:00 ~ 10:30	압해 송공 → 압태 신석	선상 이동	압태, 자은도로 이동
	10:45 ~ 11:40	자은면사무소 간담회	자은면사무소	
	11:40 ~ 13:00	점심식사	자은면 솔식당	
	13:00 ~ 18:30	분야별 조사	자은면	
	18:30 ~ 19:30	저녁식사	자은면 식당	
	19:30 ~ 20:30	자은면 조사팀 워크숍	자은면 밀알촌	
	20:30 ~	휴식	자은면 밀알촌	
2/19 水	08:00 ~ 09:00	아침식사	자은면 식당	
	09:00 ~ 11:00	분야별 조사 후 안좌면 복호항 집결	자은면	
	11:15 ~ 11:45	안좌(복호) → 장산(북강)	안좌면 복호항	장산도로 이동
	11:55 ~ 13:00	점심식사	장산면 강촌식당	북강선착장 부근
	13:00 ~ 14:00	장산면사무소 간담회	장산면사무소	
	14:20 ~ 14:30	장산(앤두) → 장산(막금)	장산면 앤두항	막금도로 이동
	14:30 ~ 18:00	막금도 공동답사 및 분야별 조사	장산면 막금도	
	18:00 ~ 18:10	장산(막금) → 장산(앤두)	장산면 막금항	장산도로 이동
	18:30 ~ 19:30	저녁식사	장산면 무지개식당	
	19:30 ~ 20:30	장산면 조사팀 워크숍	장산면 무지개민박	
	20:30 ~	휴식	장산면 무지개민박	
2/20 木	07:30 ~ 08:30	아침식사	장산면 무지개식당	
	09:00 ~ 09:20	장산(축강) → 장산(마진)	장산면 마진도	마진도로 이동 (마을이장 사선)
	09:30 ~ 10:30	마진도 간담회	마진도 마을회관	
	10:30 ~ 12:00	마진도 분야별 조사	마진도	말바위 등등
	12:00 ~ 13:30	점심식사	마진도 마을회관	
	13:30 ~ 16:00	마진도 분야별 조사	장산면 마진도	
	16:12 ~ 19:05	장산(마진) → 장산축강 · 상태동리 · 장산축강 → 목포	장산면 마진도 마진항	
19:30	목포에서 저녁식사			



〈사진 1〉 안좌도를 거쳐 장산도로 출발



〈사진 2〉 장산면사무소



〈사진 3〉 도창리 우슬잔승



〈사진 4〉 막금도 원두



〈사진 5〉 막금도에서 고구마 간식



〈사진 6〉 막금도를 왕래하는 나룻배



〈사진 7〉 장산도에서 마진도로 이동



〈사진 8〉 마진도 경로당



〈사진 9〉 마진도 말바위

2) 찾아가는 섬 포럼

- 사업명 : 2014년 제3회 찾아가는 섬 포럼 '장산도 편'
- 제 목 : 장산도 문화자원과 민속예술
- 기 간 : 2014년 10월 3일(금)
- 참가자 :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마을이장단, 노인회장단, 일반주민, 들노래보존회, 장산면사무소
- 주 최 :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신안군 장산면
- 장 소 : 장산도들노래보존회 전수관



〈사진 10〉 목포에서 장산으로 출발



〈사진 11〉 장산도 가는 여객선 내부



〈사진 12〉 장산도들노래 전수관

구분	시간	내용	진행
점심	12:00~12:50	〈점심식사〉 도서관화연구원, 이장단, 노인회장단, 보존회원, 면사무소	장소 : 보존회전수관
개회식	13:00~13:10	개회식	사회 : 홍선기 (목포대 도서관화연구 구원 HK교수)
		개회사 : 목포대 도서관화연구원장 강봉룡 환영사 : 장산도들노래보존회장	
1부 발표	13:10~13:30	제1부 장산면 문화자원의 가치 조명	사회 : 최성환 (목포대 도서관화연구 구원 HK교수)
		발표 1 장산면의 문화자원의 현황과 그 가치 발표 : 송기태 (목포대 도서관화연구원 HK교수)	
		발표 2 장산면의 민속문화의 아름다움과 그 내력 발표 : 김진오 (前장산면장)	
		열린토론 장산도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자유발언 자유발표 : 장산도 이장단, 노인회장단	
		〈휴식 및 장내 정리〉	
2부 공연	14:20~14:50	제2부 장산면의 민속예술 공연	사회 : 송기태 (목포대 도서관화연구 구원 HK교수)
		공연 1 장산도 건굿(농악) 지도 : 이귀인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52호 예능보유자) 공연 : 이귀인 김상용 외 건굿(농악) 연행자들 내용 : 들당산, 마당밭이, 판굿, 날당산	
		공연 2 장산도 씻김굿 : 오구굿 공연 공연 : 진금순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52호 예능보유자) 내용 : 씻김굿 中 오구굿	
		공연 3 장산도 들노래 지도 : 강부자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1호 예능보유자) 공연 : 윤순심 외 장산도들노래 보존회원 내용 : 모든소리-모심는소리-논매는소리-질꼬내기	
		공연 4 강강술래 공연 : 장산도들노래 보존회원 내용 : 참석자 전체 함께 강강술래	



〈사진 13〉 농악(건구) 공연



〈사진 14〉 농악(건구) 공연



〈사진 15〉 장산도 씻김굿 中 오구굿 시연



〈사진 16〉 강강술래 체험



〈사진 17〉 장산도 들노래 시연



〈사진 18〉 장산도 들노래 시연



〈사진 19〉 기념사진

4. 기본현황

1) 여객선 운항 시간표

■ 여객선 운항 시간표(안좌 · 장산 · 하의 · 신의 방면)

※요금문의 [조양페리:061)244-0038]

※소요시간: 1시간 20분

※요금: 승객-6,600원, 차량-28,000원

항차	목포출발	자라	장산북강	자라	안좌(복호)	목포도착
1	06:10	07:30	07:50	08:10	08:20	09:35

항차	목포출발	안좌(복호)	하의	장병	옥도	장산	자라	안좌(복호)	목포도착
2	06:50	08:05	09:20	09:40	09:55	10:35	10:55	11:05	12:15

항차	목포출발	안좌(복호)	자라	장산북강	자라	안좌(복호)	목포도착
3	10:00	11:20	11:30	16:00	16:20	16:30	09:35

항차	목포출발	안좌(복호)	자라	장산북강	옥도	장병	하의	목포도착
4	13:30	14:45	14:55	15:15	15:55	16:30	16:30	09:35

■ 여객선 운항 시간표(신의 · 장산 방면)

※요금문의[신인페리:061) 242-9542]

※소요시간: 1시간 20분

※요금: 승객-6,400원, 차량-26,000원

항차	목포출발	장산(죽강)	상태(동리)	장산(죽강)	장산(마진)	목포도착
1	06:00	07:25	08:10	08:45	08:55	10:15

항차	목포출발	장산(죽강)	상태(동리)	장산(죽강)	목포도착
1	10:30	11:55	12:40	13:15	14:35

항차	목포출발	장산(마진)	장산(죽강)	상태(동리)	장산(죽강)	목포도착
1	15:00	16:12	16:20	17:00	17:35	19:05

2) 마을버스 및 택시

▪ 마을버스 운행 시간표

노선	운행현황	운행시간	비고
제1노선 (북강방면)	[1회] 대머리 - 우체국 - 앤두 - 우체국 - 오음1 - 북강 - 우체국 - 앤두 - 우체국 - 대머리	6:30	장산여객 061)271-2573
	[2회] 도창 - 오음1 - 북강 - 우체국 - 앤두 - 우체국 - 대머리-면사무소	11:20	
	[3회] 도창 - 앤두 - 우체국 - 오음1 - 북강 - 우체국 - 대머리 - 우체국 - 앤두	14:20	
제2노선 (축강방면)	[1~3회] 축강 - 활목 - 중산 - 오음1 - 신촌 - 다수1 - 상용 - 팽진1리경로당-축강	07:40 11:50 16:20	

▪ 택시

- 장산택시 : 061) 271-2573

3) 관내기관 및 자생조직

▪ 관내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팩스	홈페이지
장산면사무소	장산면 장산중앙길 2	061)240-4011	http://www.shinan.go.kr
		061)271-2532	
장산중학교	장산면 장산대리길 64	061)271-2508	http://sa-jangsan.ms.jne.kr
		061)271-2536	
장산초등학교	장산면 장산로 277	061)271-2546	http://jangsan.es.jne.kr
		061)271-5161	
장산우체국	장산면 장산중앙길 11-22	061)271-2788	
		061)271-3412	
장산파출소	장산면 장산로 265	061)271-2612	
장산예비군중대	장산면 장산로 373	061)271-5113	

▪ 자생조직단체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팩스
장산농업협동조합	장산면 아미산길 9-16	061)271-2516
장산면청년회		061)271-7905
장산개발자문위원회	장산면 장산중앙길 2	061)271-2532
장산면새마을부녀회		061)271-2532
장산면바르게살기협의회	장산면 장산중앙길 2	061)271-2532
장산면자원봉사회		061)271-2532
장산면의용소방대	장산면 장산중앙길 11	061)271-2532
장산면농촌지도자회		061)271-2532
장산면농업경영인회	장산면 장산중앙길 11	061)271-2532
장산면생활개선회	장산면 장산중앙길 11	061)271-2532

4) 행정구역 및 인구

▪ 위치

목포에서 41.3km 거리이며, 동쪽으로 입자·증도, 서남쪽으로 비금, 동남쪽으로 암태면과 은암대교로 연결되어 있다.

▪ 행정구역

(단위: 개)

면적(km ²)	구성비(%)	읍면동			통리		출장소	
		읍	면	동	통	리		
						행정		법정
29.19	4.45	-	1	-	-	15	7	-

▪ 토지 지목별 현황

(단위: m²)

계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19,189,321	6,154,912	5,619,033.60	12,558	1,735

■ 해안선 및 도서

해안선(km)	도서현황					
	도서(개)	유인도(개)	무인도(개)	면적(km ²)	세대	인구(명)
76.93	43	5	38	27.46	945	1,754

■ 인구

세대수	인구					
	계	남	여	인구밀도	세대 당 인구	65세 이상 고령자
945	1,781	908	873	1,754	904	850

■ 읍면리별 세대 및 인구

행정 구역	합계				한국인			외국인		
	세대	인구			인구			인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5	945	1,781	908	873	1,754	904	850	27	4	23
오음1	99	195	101	94	191	101	90	4	-	4
오음2	52	106	54	52	104	54	50	2	-	2
대1	125	209	103	106	206	101	105	3	2	1
대2	38	66	37	29	66	37	29	-	-	-
도창1	64	137	73	64	135	73	62	2	-	2
도창2	79	138	70	68	138	70	68	-	-	-
공수1	58	101	39	62	100	39	61	1	-	1
공수2	66	128	65	63	127	65	62	1	-	1
팽진1	119	248	127	121	244	127	117	4	-	4
팽진2	69	135	65	70	129	64	65	6	1	5
다수1	65	101	52	49	100	52	48	1	-	1
다수2	25	55	34	21	52	33	19	3	1	2
다수3	36	71	37	34	71	37	34	-	-	-



I 자연생태

홍 선 기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HK교수

- | | |
|-------------------|----|
| 1. 산림식생과 식물 | 24 |
| 2. 부속도서(무인도) 식생 | 28 |
| 3. 갯벌과 해수욕장 | 29 |
| 4. 마을숲 | 29 |
| 5. 둠벙(저수지, 습지) 식생 | 33 |
| 6. 생태자원의 활용 | 35 |

I. 자연생태

1. 산림식생과 식물

장산면에는 오음산(208.2m)을 비롯하여 대성산(196.1m), 아미산(137.1m), 부학산(108.1m), 兎尾山(95.0m) 등이 장산면의 동서남북에 걸쳐 있다(사진 1). 신안군의 다른 도서의 지질형성과정과 동일하며, 지질기반이 화강암이라 토양층이 매우 빈약하다. 따라서 척박한 섬 환경에서 잘 적응하며 번식하는 곶솔이 섬 전체 주요 우점식생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부분적으로 2000년대 이후부터 수행된 조림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숲도 있다. 등산로 주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림이 칩이나 넝쿨성 식물에 의하여 감겨있거나 고사하고 있는 상황이라 마을숲 관리가 요구된다.

오음산과 대성산에 분포하는 교목층은 주로 곶솔이었고, 부분적으로 리기다소나무가 조림된 곳이 있었다. 곶솔과 리기다소나무 군락에서는 진달래, 청미래덩굴, 생강나무, 아그배나무, 등나무, 예덕나무, 검노린재나무, 참싸리, 사스레피나무, 노간주나무, 쥐똥나무 등 관목류가 조사되었고, 작은 면적으로 분포하는 굴참나무와 같은 활엽수에는 청미래덩굴, 예덕나무, 담쟁이덩굴, 노간주나무, 마삭줄, 쥐똥나무, 산딸나무, 검노린재나무, 으름덩굴, 개웃나무, 사스레피나무, 짚레, 사철나무 등 관목류가

조사되었다. 초본류로는 새, 억새, 참취, 마삭줄, 골무꽃, 잔대, 좁닥취, 큰까지수영, 그늘사초, 양지꽃, 제비꽃, 자금우, 계요동, 마, 담쟁이덩굴, 쑥, 인동, 송악, 그늘사초, 쇠뜨기, 방울사초, 땅채송화, 골무꽃, 팽이밥, 애기나리, 으아리, 고사리, 으름, 닭의덩굴, 개구리발톱, 천문동, 닭의장풀 등이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화강암 지반의 특성과 산성토양의 특성 때문에 주로 곰솔과 같은 산성토양 적합 식생이 우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곰솔과 같은 식생에 동반하는 이들 하층식생과 초본식생의 특성은 신안군 도서의 대표적인 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아미산과 부학산 등 주변 야산의 식생은 곰솔군락이 우점식생인데, 대부분이 수령이 작은 조림식생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특별종이나 희귀식물들은 발견되지 않았고, 남도 식생의 대표적인 상록활엽수림 군락도 매우 미비하였다.



〈사진 1〉 장산면의 대표적인 식생지역인 대성산 등산로. 주로 곰솔이 우점하고 있음

본 연구자는 2014년 10월 3일 대성산 등산로 입구에서 정상부근까지 식생조사를 수행하였다. 해발 80~100m에는 곰솔이 교목층(수고 8m 이상)과 아교목층(수고 3~8m)에서 우점하였다. 아교목층에는 송악이 발달하였는데, 대부분의 곰솔이 송악, 칩과 같은 낙엽성 식물에 의하여 덮이고 있었다. 관목층에는 사스레피나무, 팡나무,

후박나무, 감태나무, 산벚나무, 청미래덩굴, 검노린재, 붉나무, 짚레, 두릅나무, 참빛살나무, 노박덩굴, 산가막살나무, 명석딸기, 생달나무, 밤나무 등이 출현하였다. 초본층으로는 송악이 우점하였고, 사위질빵, 맥문동, 고사리삼, 파리풀, 계요등, 억새, 새, 단풍마, 담쟁이덩굴, 주름조개풀, 영경귀, 으아리, 여우콩, 산박하, 덩댕이덩굴, 쑥, 산국 등이 출현하였다. 대성산 정상(해발 196m)에서는 곰솔이 교목층에서 우점하였고, 관목층으로는 예덕나무가 우점종으로 출현하였고, 붉나무, 자귀나무, 꾸지뽕나무, 칩, 까마귀베개, 누리장나무, 짚레, 마삭줄, 명석딸기가 출현하였다. 초본층에서는 그늘사초가 우점종으로, 그리고 며느리밑씻개, 새, 향유, 쑥이 우점하였다.

그밖에 으아리, 파리풀, 팽이밥, 주름조개풀, 마, 고사리, 고사리삼, 짚신나물, 반디지치, 사위질빵, 담쟁이덩굴이 출현하였다. 대성산 부근은 주로 곰솔군락이 우점하고 있었지만, 송악, 칩, 남오미자, 으름덩굴, 당귀, 애기등과 같은 녁쿨성 식물이 감싸고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교란을 받고 있으며, 직경 30cm이상의 곰솔은 이러한 녁쿨식물의 영향으로 고사하고 있는 상황이다(사진 2).



〈사진 2〉 송악, 칩 등에 의하여 고사되고 있는 곰솔군락(대성산 등산로)

등산로 주변에는 고사리삼이 제법 발견되었는데, 대체로 남쪽 해안가 깊은 산속에 서식하는 고사리삼이 발견된 것은 등산로 개발이 최근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사진 3).



〈사진 3〉 고사리삼(대성산 등산로)

이러한 특산 식물은 민감한 환경에서는 멸종되기 쉽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대성산 정상부 대성산성 주변에는 팽나무 10여주가 서식하는데 가장 큰 것은 직경이 35~40cm이며, 높이가 8m로서 수령이 약 100여년 정도 된다(사진 4).

이러한 수림은 산 정상부에서는 매우 드문 분포양식이기 때문에 대성산성의 보전과 함께 팽나무 보전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사진 4〉 대성산 주변 팽나무 고목 숲

〈표 1〉 대성산 등산로 입구~정상부근의 식생

자료 번호	조사지역	지형	식생형	우점종 (단위: m)			
				교목종 (8~)	아교목종 (8~3)	관목종 (3~1.5)	초본종 (1.5이하)
1	대성산 등산로 입구 (해발80~100m)	사면	곰솔	곰솔	곰솔	사스레피나무	송악
2	대성산 정상 (196m)	정상	곰솔	곰솔	곰솔	예덕나무	그늘사초
3	대성산 등산로 (150m)	사면	곰솔	곰솔	곰솔	사스레피나무	마삭줄
4	대성산 등산로 (100m)	사면	곰솔	곰솔	곰솔	예덕나무	마삭줄

2. 부속도서와 무인도의 식생

대부분의 부속도서의 식생도 곰솔이다. 화강암류 암반 때문에 표토층이 빈약하여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활엽수 종류의 군락은 매우 드물다. 섬막금은 10~15년전 도시인들이 섬의 토지를 매입하기 이전에는 유인도였으나 이후 무인도가 되었다. 이 섬은 막금도 주민들이 나무를 하러 입도할 때마다 제를 올렸다는 섬으로서 당목(신목)으로 쓰였던 곰솔 거목이 있다(사진 5).



〈사진 5〉 부속도서 섬막금의 490년생 곰솔

직경 120cm, 높이 15m(수령 490년 추정)이상 되는 이 곰솔은 최근 장산면 주민들에 의하여 입구와 주변이 정리되어 시야를 확보하였으나 가파른 사면에 의하여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섬막금에는 현재 이러한 고목이 남아있지 않다. 막금도 또한 곰솔이 우점하고 있다(사진 6).



〈사진 6〉 막금도의 식생경관

3. 갯벌과 해수욕장

장산면은 사방이 갯벌로 되어있어서 제대로 된 해수욕장은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장산면에 부속된 작은 섬인 굴배도와 마진도, 백야도 등에는 작은 백사장이 있다. 특히 무인도인 굴배도의 경우 200m의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어서 조용히 힐링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장산도의 다수리나 축강에서 이 섬까지 보트로 10~20분 정도 걸린다.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야영준비와 식음료를 준비해야 한다. 장산면은 이러한 주변의 작은 섬과 연계한 유·무인도 생태관광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장산면에는 갯벌이 주요한 생태자원이지만, 한편으로 백사장이 있는 작은 섬들이 있다.

4. 마을숲

1) 도창리 노거수림

도창리 우실 잔등이라고 불리우는 마을숲이 있다(사진 7). 도창리 노거수림으로 명명되어 전라남도 기념물 제100호로 지정되었다(1987년 1월 15일 지정). 숲 길이는 352m, 폭 36m, 면적 3,467㎡로 띠형으로 되어 있는 도창리 노거수림은 숲 구성에 대한 여러가지 설이 있으나 마을 보호를 위한 방풍림의 기능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현재 팽나무(직경 20~80cm 이상 60주), 곶솔(직경 60~100cm 이상 5주), 주엽나무(15~65cm 이상 9주)이 오랜 시간을 버티고 있으며, 보전상태는 양호하며 최근 느티나무, 배롱나무, 모과나무 등 타 수목을 심고 있다. 가능하면 우점종인 팽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낙엽 청소 등에 주변 마을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으나 마을의 자랑거리로서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사진 7〉 도창리 노거수림



2) 마을숲과 노거수 관리

팽진리 虎皮마을 성기(性器)바위에는 암수 큰 바위로 구성되어 있다. 암반은 화강암이고, 주변에는 곰솔이 많이 조림되어 있었다(사진 8).

1969년도에는 소나무를 많이 벌목하여 땔감으로 사용하였고, 일부는 진도에 팔기도 하였다고 한다. 주변 도서에도 소나무를 판매하여 소금 굽는데 이용하였다. 현재 호피마을 소나무숲은 소 방목으로 초지가 관리되고 있다. 장산면의 지반이 화강암류의 산성토양이기 때문에 상록활엽수와 같은 뿌리 깊은 나무는 성장하기가 곤란하다(사진 9).



〈사진 8〉 팽진리 호피마을 성기바위



〈사진 9〉 성기바위 부근 소나무 숲 관리형태

그러나 이러한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성장 할 수 있는 곰솔이나 리기다소나무는 어느 시점까지 속성으로 성장하여 산림을 綠化하는데 크게 공헌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뿌리성장을 못하여 무게를 못이기고 바람에 의하여 쓰러지는 경우가 많다. 향후 신안군에서는 장기적인 조림계획을 수립하여 경제적이고, 생태적이며, 지역특화적인 수종을 발굴하여 適地適所에 맞게 수종갱신을 할 필요가 있다.

마을과 관련된 재미있는 설화도 있는데, 팽진리 虎皮마을(호피방조제)에는 호랑이가 해남에서 건너와 “싼물코병이”라는 곳으로 건너오다 대변을 보니 산신령님이 노하시어 호랑이를 물에 빠뜨려 죽였다고 하는 설화가 전해내려오고 있다(김동월, 오부길 제보). 그 밖에 노거수로는 다수1리에 팽나무 1그루가 있는데, 마을에서 바닷가로 향하는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아직 크기와 수령 등을 보아 등재는 어렵겠지만, 마을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다수리에는 또 다른 노거수가 있는데, 34번길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팽나무 2그루 (직경 55cm 높이 13m, 직경 70cm 높이 10m)이다. 마을 주민들이 거대한 팽나무의 피음효과 때문에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고 하면서 가지치기를 요구하고 있다.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5. 둌병(저수지, 습지) 식생

장산면에는 장산저수지(상수원댐 부근)를 비롯하여 마초저수지, 공수저수지, 시미저수지 등 크고 작은 저수지와 소류지 등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장산면은 주로 농사가 많기 때문에 마을 마다 둌병과 저수지, 소류지가 있어서 논과 밭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공간은 물을 모아서 공급하는 기능 외에도 다양한 생태환경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주변의 식물들은 물의 정화와 곤충 등 생물의 서식처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은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결과이다. 독일이나 유럽, 일본에서는 이러한 마을의 작은 수공간을 생물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보전하고 있다(biotop: 생물서식공간).



〈사진 10〉 장산저수지 경관과 식물상

장산저수지(상수원댐 부근)에서 조사된 식물상은 다음과 같다(사진 10). 정수식물(挺水植物, 물에 사는 식물이나 얇은 물에서 자라며 뿌리는 물 밑의 토양 중에 있고 잎이나 줄기의 일부 또는 대부분이 공중으로 뻗은 생활형 식물)로는 부들, 물참새피, 미나리, 여뀌 등이 조사되었고, 부유식물(浮遊植物, 줄기나 잎이 수면 아래에 있고 뿌리가 없는 식물. 또는 있어도 빈약한 식물)에는 마름, 침수식물(沈水植物, 식물체 전체가 물속에 잠겨서 살아가는 수중 식물)에는 물수세미, 수변식물(水邊植物, 육지와 접해있는 물가에서 서식하는 식물)에는 쭉, 쭉부쟁이, 역새, 환삼덩쿨, 강아지풀, 가막살이, 서양민들레, 비수리, 큰씀배, 고마리, 닭의장풀, 도깨비바늘, 여우팔, 박주가리 등이 발견되었다. 둠병은 그 면적과 깊이에 따라서 생물다양성이 달라진다. 따라서 장산면(신안군의 다른 도서포함)의 경우, 둠병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신안군 섬 마을의 둠병과 수로는 생물학적으로, 생태적으로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생태자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수로의 경우, 매립된 육지면에 물을 공급할 뿐 아니라 생물의 이동에도 중요한 네트워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둠병은 고유한 식물들의 보고이며, 이미 노랑어리연꽃을 비롯하여 자생식물과 곤충들이 서식하는 공간이다. 신안군 섬에는 육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섬 둠병과 저수공간이 있다. 이러한 인공적인 것도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조사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

6. 생태자원의 활용

-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나라 마을숲의 중요성: 장산면 도창리 숲 뿐 아니라 신안군 섬 전체의 노거수, 방풍림, 우실 등 마을숲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귀중한 생태자원이다. 이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유네스코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 주요 생태자원의 발굴필요: 무인도인 섬막금에서 발굴된 490년된 곰솔과 마찬가지로 유·무인도에는 미발굴된 노거수와 거목, 둠병(龍沼)들이 있기 때문에 신안군 도서에 전수조사를 통하여 상태를 명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음.

- 섬 생물자원의 보고인 신안군의 기초데이터 부족: 신안군은 타 육지와는 다르게 해양성기후에 영향을 받는 섬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고유의 희귀생물자원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어서 주요 생물자원에 대한 정확한 기초데이터가 없음.

- 장산면의 작은섬(굴배도, 마진도, 백야도, 노루섬)과 연계한 유·무인도 생태관 광활성화.

- 신안군 전반의 식생조사가 필요함(3년): 1980년대부터 시작된 조립, 관광객 증가, 개발 등 다양한 교란을 받고 있는 섬 생태계의 종합적인 관리와 보전, 복원 전략이 필요함. 섬 생태자원 관광을 위한 適地適所, 效率性 강화, 최적화를 위해서는 정밀조사 필요함.

[참고문헌]

김준민, 김철수, 박봉규 (역)

「식생조사법- 식물사회학적 연구법」, 171쪽. 일신사. 1987.

김종홍, 이호준

「한반도 도서의 식물자원연구 I - 동해, 동남해, 서해의 식물상과 식생」, 순천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2004.

이창복, 이용보, 이창희

「신안군 도서지역의 식물상」, 한국자연보존협회 조사보고서 제16호: 31-54, 1980.

이창복

대한식물도감. 향문사. 1980.



Ⅱ 고고유적

최 성 략

목포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 | | |
|--------------|----|
| 1. 조사개요 | 38 |
| 2. 고고유적 | 40 |
| 3. 보존 및 활용방안 | 57 |

II. 고고유적

1. 조사개요

1) 개요

신안군 장산면의 고고유적에 대한 조사는 문헌조사, 지표조사, 자료 정리 순으로 진행되었다. 문헌조사는 사전에 각종 보고서와 학술잡지 등 문헌에 나타나는 기존의 고고유적을 찾아보는 준비작업이다. 지표조사는 기존에 알려진 고고유적의 확인과 더불어 새로운 고고유적을 찾기 위한 현장 답사를 말한다.

지표조사는 2월 18일~20일과 4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자료 정리는 현지에서 수습된 유물을 연구실에 가져와 세척하고, 사진을 촬영하면서 유물의 특성을 기술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고고유적에 대한 보고서 작업이 진행되었다.

지표조사에서는 이승현(목포대학교 대학원)과 한정훈(세종대학교 대학원)이 동행하였고, 유물의 정리 작업과 보고서 작업에서는 이승현의 도움이 있었다.

현재까지 장산면에서 알려진 고고유적은 18개소로 청동기시대 지식묘 4개소, 삼국시대 고분 3개소, 유물산포지 6개소, 토성지, 산성지, 봉수대, 목장지, 민묘군 각 1개소 등 비교적 다양하다. 이번 조사보고서에서는 현장 지표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와 지금까지 보고된 각종 학술보고서를 바탕으로 장산면 지역 고고유적의 현황과 성격을 파악한 후에 이들 유적의 보존 및 활용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답사일정

- 2월 18~20일 : 합동조사
- 4월 8일 : 개별조사
- 5월~9월 : 자료 정리 및 보고서 작성

3) 고고유적 목록

번호	명칭	성격	위치	비고
1	장산면 다수리 대성산봉수대	봉수	신안 장산면 다수리	
2	장산면 대성산성지	산성	신안 장산면 다수리	향토자료 제15호
3	장산면 다수리 통머리고분	분묘	신안 장산면 다수리	
4	장산면 다수리 통머리민묘	분묘	신안 장산면 다수리	
5	장산면 다수리 목장지	목장지	신안 장산면 다수리	향토자료 제29호
6	장산면 대리 지석묘①	지석묘	신안 장산면 대리	향토자료 제5호
7	장산면 대리 지석묘②	지석묘	신안 장산면 대리	
8	장산면 대리 유물산포지(장산현지)	유물산포지	신안 장산면 대리	
9	장산면 대리 대신터지석묘	지석묘	신안 장산면 대리	
10	장산면 도창리 도창고분군	분묘	신안 장산면 도창리	
11	장산면 도창리 백제석실분	분묘	신안 장산면 도창리	전라남도 기념물 제107호
12	장산면 도창리 도창유물산포지①	유물산포지	신안 장산면 도창리	
13	장산면 도창리 도창유물산포지②	유물산포지	신안 장산면 도창리 산 37	
14	장산면 도창리 두동유물산포지	유물산포지	신안 장산면 도창리	
15	장산면 도창리 두동지석묘	지석묘	신안 장산면 도창리	
16	장산면 오음리 오음유물산포지	유물산포지	신안 장산면 오음리	
17	장산면 장산토성지	토성지	신안 장산면 오음리, 도창리, 대리, 다수리, 공수리 일대	향토자료 제17호
18	장산면 팽진리 공수유물산포지	유물산포지	신안 장산면 공수리 535	
19	장산면 대리 지석묘③	지석묘	신안 장산면 대리	추가조사 확인자료



〈도면 1〉 장산도 유적현황 (1:25,000 축척부동)

2. 고고유적

1) 조사현황

(1) 장산면 다수리 대성산봉수대

대성산(189m)의 중간에 이순신 장군의 부하인 이장기(이억기)가 봉화대를 쌓고 왜 병선이 인천 방향으로 향해하는 것을 감시하여 서울로 연락했다고 하며, 진도·완도와 연결하는 봉화의 주봉이었다고 한다. 이곳은 대성산성지의 정상부에 위치한다고 보고되어 조사결과 현재는 헬기착륙장과 통신 중계소 건설로 인해 심하게 훼손되어 원형을 추정하기 어렵다. 이전 조사에서도 과거 봉수대를 상·하면이 평평한 할석을 사용하여 쌓아 올린 것으로 판단되나, 주변에 잡목과 수풀이 우거져 있고 등산로로 이용되면서 봉수의 일부분이 훼손되어 정확한 형태나 규모는 파악할 수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헬기장 주변에 잔존해 있는 석축이 확인되어 봉수대의 잔존부로 추정된다.

※ 참고문헌 : 최성락 1985, 「장산도·하의도의 유적·유물」, 『도서문화』3,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이길룡 1999, 「신안군은 소왕국-장산을 중심으로-」, 유적보존관리위원회.



〈사진 1〉 대성산 봉수대 전경(헬기착륙장 일대)



〈사진 2〉 잔존한 봉수대(추정) 석축

(2) 장산면 대성산성지

장산도 남단에 위치한 대성산(189m)의 정상에 있는 테피식 산성이다. 성축은 급경사의 정상부에 50x20cm 정도의 석재를 장방향으로 치석하여 ‘물림쌓기’ 방식에 의해 결구축석하였다. 내탁법에 의해 구축된 성벽은 현재 남·서벽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축이 도괴된 상태이며 가장 양호한 남벽의 경우는 현 높이 2~4m, 너비 250cm 정도이다. 배미산-대성산-용골-공수리-활목을 연결하는 산정의 안쪽으로는 저평한 평야지대에 백제 때 居知山縣(장산현의 옛 이름)의 읍치지로 비정되는 도창리, 대리를 비롯하여 장산면의 행정리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상에는 헬기 착륙장이 만들어졌으나 구전에 의하면 이순신장군의 부장인 이장기(이억기)가 봉수대를 만들었다고 한다. 현재 산성에 근접한 등산로에는 삼국~조선시대에 걸친 기와편들이 산재하여 있다.

기와편들 중 비교적 상태가 좋은 기와편 몇 점을 확인하였으며 특징은 다음과 같다. 기와편①은 연질의 수키와편이다. 색조는 태토가 흑색을 띠고 내외면은 회백색을 띤다. 내면에 합철흔이 확인되며, 외면은 사격자로 타날되었다. 기와편②는 연질의 수키와편이다. 색조는 태토가 백색을 띠고 내외면은 회백색을 띤다. 내면에 포목흔, 합철흔, 지두흔, 와도흔이 확인되며, 외면은 사격자로 타날되었다. 기와편③은 연질의 암키와편이다. 색조는 태토가 적갈색을 띠고 내외면은 회백색을 띤다. 내면에 포목흔과 와도흔이 확인되며, 외면은 사선문+복합문이 타날되었다. 기와편④는 경질의 수키와편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흑색을 띤다. 내면은 포목흔, 연철흔, 와도흔이 확인

되며, 외면은 복합문이 확인된다. 이 유적은 현재 신안군 향토자료 제15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또한 정상부 가운데에 봉수터가 있었다고 구전되지만 그 원형은 찾기 힘들다. 산성주변에서 조선시대의 기와와 자기편들이 수습된 것을 미루어 조선시대 산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 참고문헌 : 최성락 1985, 『장산도 · 하의도의 유적 · 유물』, 『도서문화』3,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이길룡 1999, 『신안군은 소왕국-장산을 중심으로-』, 유적보존관리위원회.



〈사진 3〉 대성산성지 원경



〈사진 4〉 성벽 근경 1



〈사진 5〉 등산로에 위치한 성벽 잔존부



〈사진 6〉 수습유물

(3) 신안 다수리 통머리고분

이 고분은 대리에서 다수리로 가는 고개를 넘어가면 통머리마을에 위치한다. 이 마을 앞에 양씨 선산이 있고, 그 가운데 고분이 있다. 이 고분은 1985년 조사 시 직경 8.8m, 높이 1m 전후의 규모이며, 주위에 호석으로 보이는 석재가 2개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중앙부에 구덩이가 파져 있어 도굴된 것으로 보았다.



〈사진 7〉 통머리 고분 전경

주민들에 의하면 이곳에서 일제강점기에 향아리와 동전이 나왔다고 한다. 현재는 소나무와 잡초가 무성하여 고분의 정확한 위치나 형태는 확인할 수 없었다.

※ 참고문헌 : 최성락 1985, 『장산도 · 하의도의 유적 · 유물』, 『도서문화』3,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4) 장산면 다수리 통머리민묘

이 민묘는 대성산 동편 기슭 장희윤씨 소유의 밭에 있다. 이 민묘는 1985년 조사 당시 반파된 것을 밭 소유주가 돌과 흙으로 메꿔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의 조사에서 묘실은 길이 176cm, 너비 47cm, 높이 55cm이고, 방향은 동-서 방향이었다. 내부에 목관을 사용했는지의 여부는 그 흔적을 확인해 볼 수 없으나 폭이 좁기 때문에 별도의 관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었



〈사진 8〉 통머리 민묘 전경

다. 그리고 묘실을 이루는 벽은 진흙과 조개껍질을 잘게 부수어 발라 단단하며 이러한 양식으로 보아 조선시대 민묘로 추정하여 보고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을 시도하였으나 민묘가 있었던 밭이 수풀로 우거져 유구는 확인할 수 없었고 인근 주민들의 도움으로 위치만 확인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최성락 1985, 『장산도 · 하의도의 유적 · 유물』, 『도서문화』3,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5) 신안 장산목장지

대성산 중턱에 목장터의 돌담이 흩어져 있다. 마장은 국가에서 사용하는 우마를 사육하는 장소로 소보다는 말을 사육하여 군마, 역마를 공급해 왔다. 여기에는 왕의 가마와 말 외양간에 목장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사복사에서 감목관을 배치하여 운영하였다. 장산목



〈사진 9〉 목장터 전경

장은 망운목장 소속으로 『輿地圖書』 「나주읍지」에는 '牧子가 27명' 이라고 기록되어 『大典會通』의 정원수(21명) 보다 많은 것으로 보아 규모가 다른 목장보다 방대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잡목이 우거져서 목장터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는 확인할 수 없다. 이 유적은 신안군 향토자료 제29호로 지정되어 있다.

※ 참고문헌 : 최성락 1985, 『장산도 · 하의도의 유적 · 유물』, 『도서문화』3,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이길룡 1999, 『신안군은 소왕국-장산을 중심으로-』, 유적보존관리위원회.

(6) 장산면 대리 지석묘①

이 지석묘는 대리 2구 삼방마을에서 목에마을로 가는 길 중간부에 있다. 현재 고광준씨 소유의 밭에 놓여 있는데, 상석은 남북방향이고 크기는 장축 365cm, 단축 305cm, 두께 80cm의 부정원형을 이루고 있다. 남쪽은 땅에 닿고 북쪽은 지상에서 1.4m 높이로 들려 있



〈사진 10〉 대리 지석묘 전경

다. 하부는 지석이 1개 받치고 있다. 최초 1985년 조사에서 남-북으로 2기가 있는 것이 보고되었으나 현재는 북쪽의 1기만이 남아 있다. 남쪽의 1기는 김현출 소유의 밭에 위치하였고 크기는 장축 200cm, 단축 305cm, 두께 50cm로 상석의 형태는 원형으로 북쪽이 낮게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현재는 확인할 수 없다. 이 유적은 신안군 향토자료 제5호로 지정되어 있다.

※ 참고문헌 : 최성락 1985, 『장산도 · 하의도의 유적 · 유물』, 『도서문화』3,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7) 장산면 대리 지석묘②

장산초등학교 서쪽 구릉에 있는 정씨 선산에 위치하고 있다. 상석만 노출되었는데 상석의 크기는 장축 530cm, 단축 170cm, 두께 50cm의 마름모형이며, 장축방향은 남서-동북 방향이다. 하부는 노출되어 있어 훼손된 것으로 보이며 지석은 보이지 않는다. 마을주민의



〈사진 11〉 대리 지석묘 원경

말에 의하면 과거 이곳에서 당제를 지내기도 했으나 교회가 들어서면서 제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현재는 기존 밭을 개간하면서 나온 흙을 지석묘일대에 복토하여 지석묘의 규모나 형태를 확인하기 어렵다.

※ 참고문헌 : 최성락 1985, 『장산도 · 하의도의 유적 · 유물』, 『도서문화』3,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8) 장산면 대리 유물산포지(장산현터)

이 유물산포지는 장산초등학교 맞은편에 넓게 개간되고 있는 논과 밭에 위치한다. 유물산포지는 남쪽에 형성된 대성산(196m)에서 뺏어 나온 산맥이 동서 양방향으로 감싸고 있는 형태를 띠며 북쪽으로는 넓은 들이 형성되어 있다. 기존조사에서는 장산현터가 있던 곳으로 보고되었으며, 2003년 조사에서는 적갈색연질토기편, 회청색경질토기편 등 삼국시대의 유물과 고려시대의 청자해무리굽완, 도기편, 기와편 등이 확인되었다고 보고 있어 장산현터를 포함한 유물산포지로 정정되었다. 또한 기존의 조사에서 ‘도창리 장산현터’로 보고되었으나 행정리가 대리로 되어 있어 이를 정정하여 ‘대리 유물산포지’로 명명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수습된 유물들은 옹관편, 도기편을 비롯하여 대부분 경질토기편으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옹관편은 회백색을 띠는 동체부 편으로 저부와 인접한 부분이다. 외면은 격자문으로 타날되어 있으며, 여타의 거치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내면은 훼손되어 굵은 사립질의 태토가 육안으로 확인된다. 저부와 가까워질수록 격자문이 모이며, 소성과정에서 생기는 동체부 색의 변화 등 5세기대의 전형적인 U자형 옹관의

특징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장산 내에 위치한 도창리 석실고분과 관련이 있는 유물로 판단된다. 경질토기편들은 대부분 격자문으로 타날되어 있으며, 내면에 물레흔이 확인된다. 수습된 도기편은 단사선문과 거치문이 확인되며, 소성시 흘러내린 자연 유에 의한 유광이 확인된다. 자기편은 백자편으로 굽 일부가 확인된다.

※ 참고문헌 : 목포대학교박물관 2008, 『문화유적분포지도-전남 신안군-』.



〈사진 12〉 유물산포지 전경



〈사진 13〉 수습유물

(9) 장산면 대리 대신터 지석묘

지석묘는 대리 대신터 마을 북쪽 김창인씨 소유의 밭에 위치한다. 지석묘의 상석은 장축 470cm, 단축 250cm, 두께 95cm로 타원형이다. 장축방향은 북서-동남이고 지석은 보이지 않는다. 기존조사 시 지석묘 부근에는 토기편과 자기편들이 흩어져 있었다고 하나 이번



〈사진 14〉 대리 대신터 지석묘 전경

조사에서는 지석묘와 관련된 유물은 확인할 수 없었다. 주민들에 의하면 이곳에 모두 7개의 지석묘가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1기만 남아있다.

※ 참고문헌 : 최성락 1985, 『장산도 · 하의도의 유적 · 유물』, 『도서문화』3,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0) 장산면 도창리 도창고분군

장산면 면소재지에서 귀미산(95.0m)쪽으로 500m정도 가면 도로 좌측 구릉(72.0m)의 남측사면에 위치한다. 기존의 조사에서는 4~5기의 봉분이 확인되었으며 크기는 대략 직경 4~5m, 높이 1m 정도라고 보고되었다. 당시에 이들 봉분위에 석재가 노출되어 있어 삼국시대 석실분으로 추정하였다. 현재는 밭을 경작하면서 봉분이 모두 삭토된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적갈색연질토기편과 회청색경질토기편 등이 확인된다. 현재 고분군의 추정범위 내에 농업용수를 위한 둠병이 설치되었으며, 단면 내에 다듬어진 판석으로 의심되는 석재들이 위치하고 있다. 마을주민의 말에 의하면 이 웅덩이는 2009년경에 설치되었다고 한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은 적갈색 연질토기, 도기편, 기와편, 자기편, 미상석기 등으로 유물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적갈색연질토기편은 동체부로 외면에 선문 혹은 타날문이 확인된다. 도기편 3점은 저부편이다. 문양은 확인되지 않고, 물레흔이 확인된다.

그밖에 용도미상 석기는 유문암제 마연석기로 잔존형태는 판석형이다. 수습당시 좁은 한쪽면이 마연되어있어 연석으로 판단했으나, 세척 후 관찰에서 형태를 조성하기 위한 타격흔과 chipping된 흔적들이 석기 곳곳에서 확인되었다. 정확한 기능은 미상이나 석기에서 확인되는 제작기법 등을 고려할 때 청동기시대의 유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최성락 1985, 『장산도 · 하의도의 유적 · 유물』, 『도서문화』3,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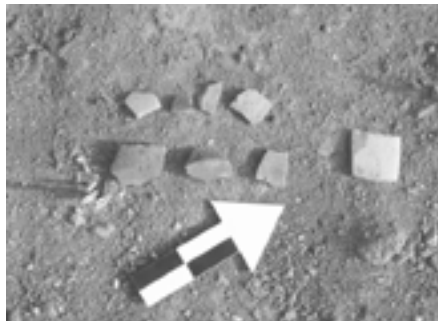
〈사진 15〉 도창고분군 원경



〈사진 16〉 도창고분군 전경



〈사진 17〉 고분군 지역 내 축조된 둥방 단면



〈사진 18〉 수습유물

(11) 장산면 도창리 백제석실분

장산중학교 동북쪽으로 약 60m 지점, 즉 아미산(137.1m) 남쪽 기슭에 있다. 이 고분은 1966년 3월 마을 청년들이 독서회관을 세우기 위해 봉토를 파내다가 발견되었고, 같은 해 서울대학교 조사팀에 의해 조사·보고되었다.



〈사진 19〉 도창리 백제석실분 표지석

현재 봉분의 절반가량이 없어져 석실이 노출되어 있고, 뒤쪽은 밭으로 경작되어 많이 훼손되었다. 봉분의 규모는

길이 18m, 너비 20m, 높이 2.8m인데 묘실의 장축방향은 남동-북서이다. 이 고분은 괴임식 석실분으로 맞조림식 석실분에서 발전된 양식인데 주로 부여 지방에 분포되어 있어 사비로 천도된 이후인 6세기 중엽 이후부터 축조된 양식이다.

따라서 이 고분의 연대도 6세기 중엽~7세기 초에 걸친 시기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전남 지역에서 최초로 발견된 판석을 사용한 괴임식 석실분이다. 현재 석실고분은 현재 장산면에 의해 관리되어 표지석과 펜스를 둘러 보존되고 있다. 이 고분은 전라남도 기념물 제107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 참고문헌 : 김원용·임효재 1968, 『남해도서고고학』,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최성락 1985, 『장산도·하의도의 유적·유물』, 『도서문화』3,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사진 20〉 도창리 백제석실분 전경

(12) 장산면 도창리 도창유물산포지①

이 유적은 도창마을에서 장산중앙노인정 뒤편 우측으로 난 소로를 따라 올라가면 장산면 KT지소가 있는 동쪽산기슭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동쪽에 형성된 浮鶴山(108.1m)에서 서쪽으로 뻗어 나온 산맥의 동쪽 산기슭으로 남쪽의 대성산 산맥과 맞닿아 있다. 유물산포지의 남서쪽 평지에는 도창마을이 자리잡고 있으며 도창마을과 두동마을 사이로 천이 흐르고 있다. 수습유물은 적갈색연질토



〈사진 21〉 수습유물

기편, 회청색경질토기편, 기와편, 청자편등 삼국에서 근세에 이르는 유물들이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으며, 현재는 민묘와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유물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토기편은 회청색의 타날문토기편으로 동체부편 3점이 수습되었다. 도기편은 흑갈색과 회백색의 도기편으로 시유가 되어있다. 자기편①은 녹청자편으로 동체부에 돌기가 확인되며 내면에는 백토로 분장되어 원형의 문양이 확인된다. 자기편②는 백자 저부편 2점으로 저부만 남아있으며, 다른 한점은 반파되어 있다. 그리고 기와편은 외면에 사선이 시문되어 있으며 배면에 포목흔이 일부 확인된다. 측면에 와도흔이 안쪽에서 확인되며, 포목이 촘촘한 것으로 보아 비교적 늦은 시기에 제작되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 참고문헌 : 최성락 1985, 『장산도 · 하의도의 유적 · 유물』, 『도서문화』3,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사진 22〉 도창유물산포지 1 전경

(13) 장산면 도창리 도창유물산포지②

장산우체국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도로를 따라 이동하면 ‘도창저수지’가 위치한다. 유물산포지는 도창저수지 뒤편의 개간된 경작지 일대이다. 이곳은 ‘부학산(100m)’의 서쪽 가지능선에 형성된 구릉에 해당한다. 현재 밭으로 개간되어 사용 중이다. 동쪽으로 ‘공수마을’, 서쪽으로 ‘도창저수지’, 북쪽으로 ‘동산메골’과 ‘도창들’이 위치한다. 수습된 유물은 적갈색연질토기편, 도기편 등이다.



〈사진 23〉 도창유물산포지2 전경

※ 참고문헌 : 최성락 1985, 『장산도 · 하의도의 유적 · 유물』, 『도서문화』3,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4) 장산면 도창리 두동유물산포지

장산우체국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도로를 따라 이동하면 ‘도창저수지’가 위치한다. 유물산포지는 도창저수지 뒤편의 개간된 경작지 일대이다. 이곳은 ‘부학산(100m)’의 서쪽 가지능선에 형성된 구릉에 해당한다. 현재 밭으로 개간되어 사용 중이다. 동쪽으로 ‘공수마을’, 서쪽으로 ‘도창저수지’, 북쪽으로 ‘동산메골’과 ‘도창들’이 위치한다. 수습된 유물은 적갈색연질토기편, 도기편 등이다.



〈사진 24〉 두동유물산포지 전경

※ 참고문헌 : 최성락 1985, 『장산도 · 하의도의 유적 · 유물』, 『도서문화』3,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5) 장산면 도창리 두동지석묘

장산중학교에서 서쪽으로 1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기존의 조사에서 4기가 확인되었으나 현재는 1기만 남아있다. 지석묘가 있었던 곳에는 지석으로 보이는 석재들이 산재되어 있다. 남아있는 지석묘 상석 크기는 장축 305cm, 단축 243cm, 두께 50cm인 타원형이며, 장축방향은 남서-북동이다. 하부구조는 잡석과 수풀에 덮여있어 확인할 수 없었다.



〈사진 25〉 두동지석묘 전경

※ 참고문헌 : 최성락 1985, 『장산도 · 하의도의 유적 · 유물』, 『도서문화』3,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6) 장산면 오음리 오음유물산포지

유물산포지는 오음마을 북쪽에 위치한 ‘오음산(208.2m)’의 남쪽 산사면에 위치한다. 북쪽에 위치한 ‘오음산(208.2m)’과 남쪽의 ‘토미산(95.0m)’ 사이에 마을이 자리하고, 동쪽으로는 간척된 ‘와사지들’이 형성되어 있다.



〈사진 26〉 오음유물산포지 전경

유물산포지는 마을의 북쪽과 오음산 사이의 밭 주변으로 1985년 조사에서 장석반암제의 석부가 수습되었다고 보고되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 참고문헌 : 최성락 1987, 『선사유적 · 고분』, 『신안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17) 장산면 장산토성지

장산토성지는 배미산·대성산·용골·공수리·활목의 산정을 연결한 知山縣의 외곽방어를 위한 토성으로 그 길이는 약 8km에 이른다. 현재는 전체적으로 그 흔적을 찾기 어려우나 삭토법에 의해 축성한 성벽의 가장 양호한 부분은 높이 1m 내외, 폭 2.5~3m 정



〈사진 27〉 통머리 민묘 주변 토성 추정지

도이다. 한편 촌로들에 의하면, 두말이 마을이 ‘북문지’였으며, 살장박이 ‘동문지’, 통머리 잔등이 ‘남문지’, 대리 삼베잔등이 ‘서문지’였다고 한다. 또한 ‘현지’로 비정되는 상기 김병섭, 장하명, 김동기씨 소유 밭에서 문지초석 6~7개가 발견되었다 하나 현재는 확인할 수 없다. 확인한 통머리 민묘 주변의 성벽추정지는 잡목이 있었으나 지형이 주위보다 1m 가량 높으며 잡석들이 섞여있었다. 현재 성벽 확인은 기존 밭의 경계나 조성시 복토 혹은 삭토되는 과정에서 지형이 기존 성벽과 유사하여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 유적은 신안군 향토자료 제14호로 지정되어 있다.

※ 참고문헌 : 최성락 1987, 『선사유적·고분』, 『신안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18) 신안 팽진리 공수유물산포지

장산초등학교 장산동분교장(폐교)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도로를 따라가면 공수마을이 나온다. 유물산포지는 공수마을 동쪽편에 형성된 구릉일대에 위치한다. 산포지는 동쪽에 있는 ‘야산(36m)’의 나지막한 구릉 일대이다. 현재는 밭으로 개간되어져 있으며, 동쪽



〈사진 28〉 공수유물산포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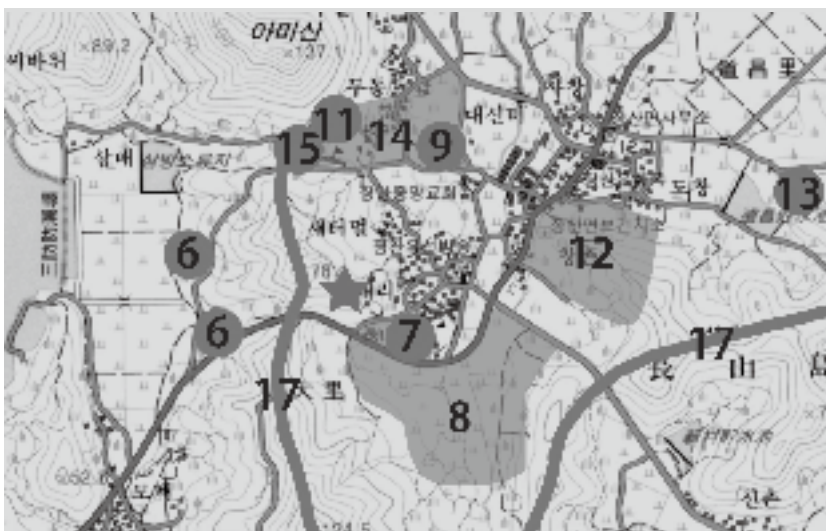
으로 ‘큰장안들’, 서쪽으로 ‘공수마을’, 남쪽으로 ‘공수저수지’, 북쪽으로 ‘천주교 장산성당’이 위치한다. 수습된 유물은 도기편, 청자편 등이다.

※ 참고문헌 : 목포대학교박물관 2008, 『문화유적분포지도-전남 신안군-』.

(19) 장산면 대리 지석묘③

장산면 대리의 서쪽편으로 대성산성 등산로 입구 도로를 마주한 구릉에 위치한다. 2013년 산책로 조성 중에 노출되었던 것을 최근 김진오 전면장님의 제보와 안내로 조사하게 되었다. 이 지석묘군은 구릉 정상부(78m)의 남사면 중턱에 평평한 지대에서 사면을 따라 최소 5기 이상의 지석묘가 확인되고 있다. 역암과 안산암계로 이루어진 암반이 군데군데 노출되어 있어 지석묘들은 노두를 채석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석묘로 판단되는 것은 5기이지만 매몰로 인해 세밀한 관찰이 불가하여 지석묘로 판단하기 어려운 암괴들이 주변에 다수 확인되고 있어 추후 면밀한 학술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유구명	평면형태	단면형태	장축방향	장축길이	단축길이	두께	지석갯수	비고
1호	장방형	장방형	남동-북서	180	90	75	1	기반식
2호	장방형	장방형	동-서	195	150	63	1	
3호	타원형	세장방형	동-서	273	240	92	3	기반식
4호	장타원형	세장방형	남동-북서	260	240	80	3	기반식/반파
5호	장방형	장방형	남동-북서	330	310	120	2	기반식



〈도면 2〉 장산면 대리 지석묘③ 위치(★표)



〈사진 29〉 1호 지석묘



〈사진 30〉 3호 지석묘



〈사진 31〉 4호 지석묘



〈사진 32〉 대리 지석묘군 전경

2) 고고유적의 성격

장산면에는 청동기시대 지석묘, 삼국시대 고분, 유물산포지, 산성 및 봉수대, 목장지 등 비교적 다양한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이 중 대다수 유적이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 유적들의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동기시대 무덤인 지석묘가 분포하는 점이다. 지석묘는 모두 4개군 10여기가 있었다고 추정되지만 현재는 불과 3기만 확인되었고, 나머지는 파괴되거나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안지역에서 지석묘는 모두 42개군 192기가 확인된 바가 있으며 압해면(12개군 53기)과 안좌면(9개군 72기)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신안지역에서 발견되는 지석묘는 전남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지석묘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당시 도서지역과 육지지역은 서로 교류가 가능하였고, 육지로부터 다수의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유입되어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물 산포지나 수습유물로 보아 선사시대의 주거지도 분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식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확인된 바가 없다. 당시 주거지는 유일하게 압해면 학교리에 서 송국리형 주거지가 확인된 바 있다. 이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원형이고 내부에 타원형수혈이 있는 형식이며 청동기시대 중기에서 후기에 걸쳐 축조되었다(목포대학교박물관 2014).

다음은 유물산포지에서는 유구석부 등 다양한 유물이 수습된 점이다. 특히 대리 유물산포지(장산현터)에서는 적갈색연질토기편, 회청색경질토기편 등 삼국시대의 유물과 고려시대의 청자해무리굽완, 도기편, 기와편 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삼국시대 고분으로는 도창리 백제석실분과 고분군이 있다. 도창리 석실분은 판석조의 평사천정(平斜天井)을 가진 석실분으로 신안지역에서 최초로 확인된 백제고분이다.

이후 안좌면 읍동고분(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 2011), 신의면 상서고분군(목포대학교박물관 2008b) 등이 조사되었다. 특히 최근 조사된 바에 의하면 안좌면 읍동고분은 도창리 석실분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고분으로 밝혀져서 백제의 세력이 도서지역에 넓게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연구에 의하면 백제계 석실분은 그 형식이 매우 다양하다.

백제고분인 횡혈식 석실분은 궁륭상천정, 맞배천정, 터널형천정, 평석천정으로 분류되고, 평석천정을 다시 맞조임식, 괴임식, 사벽수직식 등으로 세분된다(안승주 1975). 전남지방의 횡혈식 석실분은 대체로 평석천정식(平石天井式)인 맞조임식, 괴임식 및 사벽수직식에 속하는 데 해남 월송리 고분과 장성 영천리 고분은 맞조임식이고, 장산 도창리 고분은 괴임식에 속하며, 나주 흥덕리와 나주 대안리고분은 사면수직식에 속한다(최성락 1985). 이 고분들은 모두 백제가 공주나 부여로 천도한 이후의 것으로 5세기 말 이후에 축조되었지만 장산 도창리 고분의 경우 대체로 6세기 중엽에서 7세기 초에 축조된 것이다.

이외에도 다수의 분묘군이 확인되었고, 토성지, 산성지, 봉수대 및 목장지 등이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서 보면 통일신라시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보존 및 활용방안

1) 고고유적의 보존 및 활용방안

우선적으로 3기밖에 남아있지 아니한 지식묘의 보존대책이 시급하다. 이것은 지식묘가 청동기시대의 무덤으로 장산면에서는 가장 오래된 유적이기 때문이다. 장산면에는 전라남도 지정문화재인 기념물 1건과 신안군 향토문화재로 4건이 지정·보호되고 있다. 향토문화재의 경우 학술조사를 통해 성격이 밝혀진다면 도지정문화재로 승격이 필요하다. 장산면의 경우, 최근 등산로를 정비하면서 등산로 주변에 인접한 유적들에 표지석이나 안내판이 설치되는 등 유적 정비가 일부 이루어져 있으나 보고된 유적들 다수가 방치된 채 훼손되고 있다. 앞으로 이들 고고유적에 대한 적절한 보존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를 교육자원이나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2) 학술조사의 필요성

도서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섬이라는 고립된 지역의 특성상 생활에 유리한 입지 조건에서 사람이 정주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동일한 지역에 입지하여 거주하고 있다. 장산도에서 확인되는 유적들 중 일부 유적을 제외하면 면소재지 주위의 구릉일대에 집중적으로 확인되며 지속적인 유물들이 공반되어 확인되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최근 장산도 내 등산로가 정비되어 장산도를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등산 경로에는 대성산성을 비롯한 여러 유적들이 인접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적들이 교육과 관광자원으로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학술조사가 필요하고, 다음으로 유적의 보존과 정비복원을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산성과 봉수대나 토성 등은 아직 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그 성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장산도에서는 별다른 개발사업이 없으나 만약 어떠한 개발에 있다면 사전에 지표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고, 그 속에 유물산포지 등 유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당연히 시·발굴조사를 통해 그 성격을 밝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원용 · 임효재

『남해도서고고학』,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968.

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

『신안 안좌도 읍동리 및 대리 고분 발굴조사 회의자료』, 2011.

목포대학교박물관

『신안군의 문화유적』, 1987.

목포대학교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전남 신안군-』, 2008a.

목포대학교박물관

『신안 안산성지 상서고분군』, 2008b.

목포대학교박물관

『신안 압해도 학동유적』, 2014.

안승주

『백제고분의 연구』, 『백제문화』7.8,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1975.

이길룡

『신안군은 소왕국-장산을 중심으로-』, 유적보존관리위원회, 1999.

최성락

『장산도 · 하의도의 유적 · 유물』, 『도서문화-신안군 장산도 · 하의도 조사보고-』3,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85.

최성락

『선사유적 · 고분』, 『신안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1987.

최성락

『서남해도서지역의 선사문화』, 『도서문화』7,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90.



III

역사문화유적

최 성 환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HK교수

- | | |
|------------|----|
| 1. 역사유적 | 62 |
| 2. 장산면의 인물 | 74 |
| 3. 활용방안 | 90 |

Ⅲ. 역사문화유적

1. 역사유적

1) 조사 개요

장산도는 목포에서 남동쪽으로 26.2km 떨어져 있는 섬이다. 장산면은 오음, 대리, 도창, 공수, 팽진, 다수, 마진도의 7개 법정리에, 15개 행정리, 그리고 37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장산이란 지명은 산줄기가 오음산, 아미산, 대성산, 비둘기산, 부학산, 중용뒷산, 활목 마을의 산까지 끊기는 곳 없이 연결되었다고 하여 장산이라 칭하였다고 전해져온다. 삼국시대에는 백제 도서(島嶼)의 한 현(縣)인 거지산현(居知山縣)으로 상·하태도, 하의도, 안창도 등 주변 섬들을 아우르는 중심지였다. 통일신라 때는 안파현(安波縣)이었고, 고려 태조에 들어 장산현(長山縣)으로 개칭되었다. 이후 장산이라는 명칭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대리마을의 고인돌, 도창리 석실분, 대성산성 등이 남아 있어 일찍부터 장산도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주변 도서지역의 중심이 되는 섬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에 제작된 각종 지도에 장산도는 거의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어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섬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리적 장점이 가장 잘 활용된 사례는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장산도에 머물렀던 역사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난중일기에 등장하는 ‘안편도[安便島, 즉 발음도(發音島)]’ 지명과 관련하여 이순신이 이곳에 전략적으로 머물렀던 장소로 추정되고 있다. 그 기간 동안에 아들 면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난중일기에는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매우 애절하게 기록되어 있다. 장산도는 757년(통일신라 경덕왕 16)에 지명이 바뀌어 ‘안파현(安波縣)’으

로 변경되었고, 또 ‘안편도(安便島)’ 라는 지명으로 불렸다고 한다. 장산면 출신 향토사연구자인 김진오에 의하면 이는 “진도 울돌목의 파도가 장산도 부근에 이르면 잔잔해진다는 뜻이다. 또 다른 이름인 발음도는 울돌목의 소용돌이 치는 물 울음소리가 장산도까지 들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전하고 있다. 실제 울돌목과 장산도의 거리는 약 9.3km정도이다.

현재 장산도에는 신안군에서 가장 대표적인 효열각인 팽진리 효자각을 비롯하여, 20세기 초 섬사람들의 생활상을 살필 수 있는 각종 공덕비가 많이 남아 있다. 특히 장산도는 섬이면서도 장산들노래가 발달한 곳인데, 일제강점기 다른 섬들이 소작쟁의로 지역민간의 갈등구조가 높아졌을 때도 장산도는 지주와 섬 주민들과의 관계가 매우 좋았던 지역이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한 사회상을 반영하는 각종 공덕비가 곳곳에 남아 있다.

2) 역사유적 목록

장산면에 현존하는 문화유적 가운데 역사 유적의 목록(선사 및 고대유적, 민속유적을 제외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장산도 역사유적 일람

번호	명칭	위치	연대	비고
1	팽진리 김희중효자각	건넛돔마을	1935년 이건	
2	이용익불망비	도창마을	1901년	
3	고시언불망비	도창마을	1906년	
4	도창리 공덕비(미상)	도창마을	1901년	
5	장진방송덕비	대리마을	1909년	
	장진방송덕비	대리마을	1910년	
	장진백불망비	대리마을	1906년	
	가선대부겸오위장장공진백지송덕비	대리마을	1909년	
	가선대부겸오위장장공진백지송덕비	대리마을	1911년	
6	마진도 김용진시혜추모비	마진도	1968년	신규
7	전도사장공진방기념비	대리마을	1941년	신규
8	광산김씨 열행비	도창마을	1964년	신규
9	장병준묘역	대리마을	1972년	

(1) 신안 팽진리 김희중효자각(彭津里 金喜重孝子閣)

소재지 : 장산면 팽진리 건넛돔마을

팽진리 건넛돔 마을 앞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효자 김희중(金喜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온다. 김희중은 장산도에서 부친과 딸을 데리고 해남 우수영 본가에 가기 위해 목선을 이용 항해하던 중 돌풍을 만났다. 강한 바람에 의해 배가 침몰위기에 처하자 부친을 구하고자 8살 된 딸을 용왕에게 제물로 바쳤다. 그러나 파도가 더욱 거세어졌다. 이에 김희중은 선원에게 자신의 부친을 보살펴 줄 것을 부탁하고 스스로 제물이 되기 위해 바다로 뛰어내렸다. 부친 또한 바다에 투신하였는데, 당일 밤 전라우수사의 꿈에 우수영 내동 해변에서 한사람을 구하라하였다. 꿈에서 본 내동 해변가로 가서 구한 사람은 김희중의 부친이었다. 이를 전라 우수사가 조정에 알려 1753년(영조29)에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에 효자각이 건립되었다가 1935년 김해김씨 문중에 의해 장산도로 이건 되었다. 효자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이다. 내부에는 비가 세워져 있고, 효행 사실이 적힌 편액이 걸려있다. 효자각과 관련된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孝子贈春秋館事承政院左承旨金公喜重之閣(효자증춘추관사승정원좌승지김공희중지어) : 1753년 영조가 김희중에게 효자를 포상한 내용이다. 김희중은 춘추관사 승정원 좌승지에 추증 되었다.
- ② 孝子金君旌閣記(효자김군정려기) : 김희중의 효행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 ③ 孝子金喜重之閣(효자김희중지려) : 효자 정려를 포상한 사실이 기재 된 편액이다.

신안군의 섬마다 효열비와 각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장산도 팽진리 김희중 효자각 처럼 조성 내력을 증명하는 각종 기록과 비, 전각 등이 한 세트를 이루어 보존되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김희중효자각은 신안군을 대표하는 효자각으로서 상징성이 높아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 현장으로서 활용가치가 높다. 또한 해남우수영과 장산도 사람들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유적으로서도 의미가 크다.



〈사진 1-1〉 팽진리 김희중효자각 전경



〈사진 1-2〉 팽진리 김희중효자각 내부



〈사진 1-3〉 효자 김희중 정려 편액



〈사진 1-4〉 효자 김희중 정려기

(2) 이용익 불망비(李容翊 不忘碑)

소재지 : 장산면 도창리 도창마을

도창마을 장산면 복지회관 맞은편 노거수림 공원 내에 3기의 비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 이용익(李容翊, 1854~1907) 불망비(不忘碑)는 1901년에 건립된 것이다. 비의 전면에는 ‘內藏院卿臨時署理警部協辦李公容翊○德不忘碑(내장원경임시서리경부협판 이공용익○덕불망비)’라 새겨져 있으며, 공의 행적이 4언 절구로 기록되어 있다. 비의 규모는 높이 183cm, 너비 52cm, 두께 12cm이다. 뒷면에 ‘大韓光武 辛丑 二月 日 (대한광무 신축 이월 일)’이라 건립년대가 중앙에 기록되어 있고, 하단에는 건립에 관계한 인물들의 인물이 적혀 있다. ‘幼學 高八鉉 撰誦, 監董 長道奎 朴元圭, 有司 朴景春(유학 고팔현 찬송, 감동 장도규 박원규, 유사 박경춘)’이라 새겨져 있다. 이 비는

이용익의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기억하고, 대대손손 널리 전하고자 장산도 주민들이 건립한 것이다. 이용익은 한말의 정치가이다. 보부상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훗날 황실의 재정을 담당하는 등 중요업무를 수행한 공직자였다. 국가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정책을 주도하였고, 개혁당을 조직하여 친일파와 맞서기도 하였다. 보성학원(고려대학교)을 설립했으며 해외에서 구국운동을 펼치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사망하였다. 이 비가 건립될 무렵에 이용익은 황실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각 지역의 궁장토를 내장원에 편입시키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하의도를 비롯한 현 신안군의 섬 주민들은 내장원으로 소작료를 납부해야 했는데, 장산도에 건립된 이 비는 당시 섬 주민들의 어려움을 배려하여 준 이용익의 공덕을 선양하기 위해 건립한 것이다. 섬 지역의 궁방전이 국가소유로 편입됨으로서 이중과세로 시름하던 섬 지역 농민들의 부담은 감소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사진 2〉 이용익 불망비

(3) 고시언 불망비(高時彦 不忘碑)

소재지 : 장산면 도창리 도창마을

도창마을 장산면 복지회관 맞은편 노거수림 내에 3기의 비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 고시언(高時彦) 불망비(不忘碑)는 섬 주민들의 생활곤란에 도움을 준 은혜에 보답하고자 1906년에 건립되었다. 비의 전면에는 ‘景福宮五衛將高公時彦永世不忘碑(경복궁오위장고공시언영세불망비)’라 새겨져있으며, 공의 행적이 4언 절구로 기록되어 있다. 비의 규모는 높이 163cm, 너비 45cm, 두께 16cm이다. 뒷면에 ‘大韓光武十年 丙午 四月 日 時鄉員 朴景春(대한광무 십년 병오 사월 일 시향원 박경춘)’이라 새겨져 있다.



〈사진 3〉 고시언 불망비

(4) 1901년 불망비

소재지 : 장산면 도창리 도창마을

도창마을 장산면 복지회관 맞은편 노거수림 내에 3기의 비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 이용익 불망비, 고시연 불망비와 함께 나란히 서 있다. 비의 전면부 표면의 손상이 심하고 관련 글씨의 마모가 심하여 비의 명칭과 내력에 대한 확인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다만 뒷면에 ‘大韓光武 辛丑’이라는 글자가 확인되어 이 비의 건립년대 1901년임을 알 수 있다. 비의 규모는 높이 90cm, 너비 48cm, 두께 14cm이다. 유사 비의 성격과 흡사하게 섬 주민들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준 어떤이의 은덕을 기리고자 주민들이 건립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4〉 1901년 불망비

(5) 대리 송덕비군(大里 頌德碑群)

소재지 : 장산면 대리 265-3(대리마을)

대리마을에는 5기의 송덕비가 한 곳에 밀집되어 자리하고 있다. 이 비들은 한말 기근이 심하게 들었을 때 주민들에게 선정을 베푼 사람들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비이다.

총 5기가 세워져 있는데 이중 장진방송덕비(張鎭邦頌德碑)가 2기(1909년과 1910년 각각 건립), 장진백송덕비(張鎭伯頌德碑)가 3기(1906년, 1909년, 1911년 각각 건립)가 3기이다. 비의 명칭과 규모는 다음과 같다.

번호	비석명	년대	규모(cm)			비고
			높이	너비	두께	
1	張鎭邦頌德碑	1909	170	53	18	
2	張鎭邦頌德碑	1910	163	53	18	
3	張鎭伯不忘碑	1906	130	53	19	
4	嘉善大父兼五衛將長公鎭伯之頌德碑	1909	160	53	17	
5	嘉善大父兼五衛將長公鎭伯之頌德碑	1911	170	50	17	

이 비들이 가지는 의미는 일제강점기 장산도 소작인들과 지주들의 관계를 살필 수 있다는 점이다. 타 지역의 섬들은 일제강점기 특히 1920년대 중후반 소작쟁의 문제가 크게 대두 되었으나, 장산도의 상황은 달랐다.

1929년 12월 10일 동아일보 기사에는 “무안군 장산면 대리 장진방씨는 항상 극빈한 농민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설로 많은 편익을 도아 오던 중 금년의 무서운 한재로 인하여 삼백여병 소작인에게 가능한 그들의 형편을 동정하여 다시금 평년작 최고 4할이 내이든 재지에 한하여는 소작작료를 전부 면제하여 주었음으로 소작인 일반은 평년 농작보담 오히려 낫다하여 육십호 농민들은 장지주의 칭송”은 내용이 실려 있어 장지주가 소작인들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23년 3월 25일 동아일보 기사에는 “장산면 사실학교 신설, 장동식 외 유지들이 발기하여 학교

설립, 작년 가을 이래 노력 중. 장산면 대리에 교실을 신축하고, 오는 사월 개교 예정. 생도 모집중인데 입학 지원자 백오십명. 장진방, 장동식 각 육백원으로 가장 많은 육백원 기부했다”는 내용도 실려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당시 장산도 대리마을 장씨들이 지역 유지로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가늠할 수 있다.

이 비들은 일제강점기 장산도의 사회상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그러나 현재는 보존상태 매우 부적절하다. 위치가 비닐하우스와 붙어있어 비문을 확인하기 어렵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다. 보존과 활용을 위해 주변 정비와 위치이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진 5〉 대리 송덕비군

(6) 마진도 김용진 시혜추모비

소재지 : 장산면 마진도 마을 초입

마진도 마을 초입 소나무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1968년 마진도민 일동이 건립한 것으로 비의 규모는 높이 148cm, 가로 28.5cm, 너비 27cm이며, 기둥형태를 하고 있다. 비의 아래에는 단에 조성되어 있다. 비를 건립한 내력에서 주민들은 “마진도 교사로 온 박문기가 자신의 은사인 김용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비 건립을 추진했다”고 한다. 김용진은 당시 전라남도교육위원으로 서울사대 출신이고, 당시 마진도 학교지원, 지붕개량 지원 등에 도움을 주었다고 전하고 있다.



〈사진 6〉 마진도 김용진 시혜추모비

(7) 장진방 기념비

소재지 : 대리마을 장산초등학교 정문

장산초등학교 정문 계단 왼쪽 옆 화단에 자리하고 있다. 지역 유지인 장진방이 학교 교육에 이바지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장산면 유지들이 건립한 것이다. 건립시기는 1941년 8월이다. 비의 전면에 ‘前都事張公鎮邦紀念碑(전도사장공진방기념비)’라 적혀있고, 뒷면에 ‘辛巳八月日 長山面有志謹暨(신사팔월 일 장산면 유지근수)’라고 새겨져 있다. 비의 규모는 높이 232cm, 가로 57cm, 너비 31cm이다.



〈사진 7〉 장진방 기념비

(8) 광산 김씨 효열비

소재지 : 도창리 비둘산 아래 밭

도창리 비둘기산 전신탐 아래 밭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1964년 건립한 효열비이고, 주변에 비를 보호하기 위한 담장이 둘러져 있다. 비의 전면에 ‘贈 貞夫人光山金氏烈行碑(증 정부인광산김씨열행비)’라 새겨져 있다.

비의 뒷면에 열행내력이 적혀 있고, 비의 측면에는 건립년도가 표시되어 있다. 측면 하단에는 ‘光州 盧道基 謹識’이라 적혀있다. 노도기라는 인물이 광산김씨의 열행기록을 작성하였는데, 노도기는 비금도 출신의 재야유학자이다. 이 비와 관련된 내력은

다음과 같다. “남편 정대율이 역적에 쫓겨 바다에 투신한 후 시신이 떠오르지 않아 부인 김씨가 날마다 바닷가를 돌며 애통해 하니 시신이 바닷가로 떠내려 와서 장사한 후 3년간 시묘살이를 하였다.” 이에 여러 사람의 모범이 되니 광주향교에서 찬양문을 내려 주었고, 가문에서 장산면 도창리 마을 앞에 열녀각을 세웠던 것으로 전한다. 비의 규모는 전체 높이 280cm, 몸돌의 높이 130cm, 가로 45cm, 너비 20cm이다.



〈사진 8-1〉 광산 김씨 열행비



〈사진 8-2〉 광산 김씨 열행비 원경

(9) 장병준 묘(張柄俊墓)

소재지 : 장산면 대리 137-3(대리마을)

장병준(1893~1972)은 장산면 대리에서 인동장씨 진섭과 하동정씨 사이의 4형제 중 맏아들로 태어났다. 1919년 3월 18일 무안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여 일경의 체포령이 내리자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 의정원 재무부차장으로 활약하였다. 1920년 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내로 잠입하여 3·1운동 1주년 기념식 때 유달산에 태극기를 꽂고 만세를 주동하다가 체포되어 3년간 옥고를 치렀다. 1927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정원의원으로 선임되어 독립운동에 힘썼다. 광복 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 전남지부 부위원장, 한민당 광주지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해방 조국의 통일과 민주화에 헌신하였다. 1972년 3월 16일 79세의 일기로 서거하였으며, 1980년 건국포장·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 되었다. 선생의 묘소는 고향인 대리마을 양지바른 곳에 조성되었는데, 지난 2006년에 유해가 국립묘지로 이장되었다. 묘는 이장되었으나, 그 상징성을 보존하기 위해 원래의 묘역은 지금도 보존관리 되고 있다. 이외 대리마을에 장병준의 생가터 건물이 복원되어 있다. 기념비는 1999년 신안문화원에서 건립하였다. 이 비는 현재 면사무소 앞 도창리 노거수 공원 내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 9-1〉 장병준 묘역



〈사진 9-2〉 장병준 기념비

2. 장산면의 인물

장산면 출신 역사문화인물과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들의 면모를 소개합니다. 본 자료는 인물들의 활동 내력을 통해 장산면의 역사문화에 이해를 돕고, 자은면의 역사와 문화를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정리차원에서 첨부한 것입니다. 『신안군지(2000년 발간)』에 수록된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롭게 추가 조사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누락된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추가한 후 향후 새롭게 발간 예정인 『신안군지』 인물편에 수록할 계획입니다. 누락된 인물에 대해서는 도서문화연구원으로 정보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강부자(姜富子)

1944년생. 장산면의 민속예술인이자 도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진도군 의신면 금감리 출신으로 1964년 장산도로 시집와서 시어머니에게 굿을 전수 받았다. 장산지역의 무속인으로 활동하였으며, 특히 민요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신안지역의 토속 민요 전승에 많은 공을 세웠다. 전라남도무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된 장산도들노래의 기능 보유자이고, 장산도 발매기 노래, 등당애타령 등을 전승하고 있다.

강지숙

장산면 출신의 체육인. 94아시안게임 연식정구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1998년 방콕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연식정구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고교 졸업 후 로켓트전기를 거쳐 전남도청에 입단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연식정구선수로 활약하였다. ※참고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3년 9월

고제빈(高濟彬)

1890.07.07.~1967.07.16. 장산면 출신의 독립운동가. 1919년 도창리, 송곡리에 서 장병준, 김극태, 김은섭, 김영철, 고인봉 등과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주민들과

같이 독립만세시위 운동을 전개하며, 조선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부르면서 마을을 행진하였다. 이로 인하여 징역 4월의 수형을 받았다. 1992년 대통령표창이 수여 되었다.

※ 참고자료: 대구복심법원 판결문, 1919년 06월 17일 / 『한민족독립운동사료집』 47권 / 공훈록 홈페이지, 2013년 9월 / 한국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 2013년 10월

김내육

장산면 출신 교육인. 교장을 지냈다. ※참고자료 : 『신안군지』, 2000

김동신 金東信

장산면 출신의 한국화가. 호는 청호(淸濠). 서예를 공부하다 아름다운 채색이 들어가는 문인화에 매료되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목포에서 ‘청호 화랑·화실’을 운영하면서, 제자 양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화전과 신유발표전 등의 개인전을 열었고, 프랑스 앙탕벵탕 초대전과 필리핀 마닐라시 초대전 등 다수 단체전에 참여한 바 있다. 국제문화예술대전 심사위원과 한국예술제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문인화협회 전남 부지회장을 맡고 있다.

※참고자료: 굿뉴스피플, 청호 김동신 화백 기사, 2007.11.02

김두옥(金斗玉)

1944년 9월 23일생. 장산면 대리 출신의 지역의원. 제2대 신안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였다. 재임기간은 1995년 06월 27일부터 1998년 06월 04일까지 였다.

※참고자료: 신안군의회 홈페이지, 2013년 9월 / 신안군지, 2000

김문철

장산면 출신의 문학인. 시인으로서 신안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참고자료: 나의살던고향 비금도사랑 블로그, 2013년 9월 / 石山 블로그, 2013년 9월 / 천지일보, 2011년 05월 01일 기사

김봉산

장산면 출신의 교육인. 교육청 장학사로 활동하였다. ※참고자료: 『신안군지』, 2000

김봉일

장산면 출신의 교육인. 안양과학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구분야는 건축계획설계이다. ※참고자료: 안양과학대학교 건축학과 홈페이지, 2013년 9월

김봉진

장산면 출신의 교수. 한양대학교 교수로 활동하였다. ※참고자료: 『신안군지』, 2000

김상근(金相根)

1934년 생. 장산면 출신의 교수. 1954년에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1959년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어학 학사, 1965년에는 국립정치대학교 대학원 석사를, 1970년에는 타이완대학교 대학원 문학 석사, 1983년에는 국립대만사범대학교 대학원 문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주요 경력으로는 중화민국 국립정치대 강사(1965~1967), 중화민국 국립정치대 교수(1978~1981), 중앙대 중국어과 교수(1985~1990), 중앙대 외국어대 학장(1987.09~1989.02), 한국외국어대 동양어대 중국어과 교수(1991.03~1999.08), 한국외국어대 동양어대 학장(1994.03~1996.02)으로 활동하였다. 상훈으로는 중화민국교육부장 자심교사사유장(1978)이 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중어학 기초』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중국인의 종교관」이 있다.

※참고자료: 조인스 인물정보, 2013년 9월

김순겸

장산면 출신의 교육인. 초등학교 교장으로 활동하였다. ※참고자료: 『신안군지』, 2000

김영우

장산면 출신의 교육인. 장산중학교 교장으로 활동하였다. ※참고자료: 『신안군지』, 2000

김영준

장산면 출신의 금융인. 중소기업은행 지점장으로 활동하였다. ※참고자료: 『신안군지』, 2000

김윤덕(金胤德)

1937년생. 장산면 출신의 정치인이자 국회의원. 목포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1964년에는 성균관대학교 법학 학사를 졸업하였다. 제8대 국회의원(신민, 전국)(1971.07~1972.10), 제9대 국회의원(신민, 나주·광산)(1973.03~1979.03), 제10대 국회의원(신민, 나주·광산)(1979.03~1980.10), 신한국당 당무위원(1995.12~1996.08), 국민회의 지도위원(1998.09~2000.01)으로 활동하였다. 저서로는 『농촌가정의 자녀교육』이 있다. ※참고자료: 조인스 인물정보, 2013년 9월

김정석(金井石)

1955년 02월 07일생. 장산면 출신의 교수. 정밀가공시스템을 전공한 학자이다. 1973년 광주제일고등학교, 1977년 서울대학교 공업교육 학사를 졸업하였다. 1979년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 석사, 1991년에는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주요 경력으로는 부산대 공과대 정밀기계학과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1980.03~1993.03), 부산대 공과대 기계공학부 정밀가공시스템전공 교수로 활동하였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종합평가위원(2004.10~2004.12), 2007년부터 현재까지 부산대 산학협력단 단장, 한국정밀공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상훈으로는 부산대 공과대 산학협동상(2003)이 있다. 저서로는 『공작기계』, 『기계공학실험』, 『기계공작법실습』, 『Auto CAD 2000 활용』, 『절삭가공』이 있다. 주요 논문은 「단속 절삭에서 AE신호를 이용한 공구마멸의 감시」(1997), 「엔드밀 가공시 동적 절삭력 모델에 의한 절삭력 및 표면형상 예측」(1997), 「와이어컷 방전가공에서 가공조건에 따른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가공성평가」(1997)가 있다. ※참고자료: 조인스 인물정보, 2013년 9월

김정태

장산면 출신의 교육인. 교장으로 활동하였다. ※참고자료: 『신안군지』, 2000

김진오(金璿午)

1953년 8월 7일생. 장산면 출신 공무원이자 향토사연구가. 장산도 공수리에서 태어나 신안군청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신안군 행정담당, 서무담당, 문화체육담당, 재산관리담당, 비서실장, 장산면장 등을 지냈다. 향토사연구가로 활동하면서, 장산도의 민요와 설화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작업에 열중하였다. 장산면장 시절 장산도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내안에 살아 숨 쉬는 장산(2008, 신안문화원)』이라는 홍보책자를 기획하고 직접 원고를 집필하였다. 대표 저서로는 『장산도의 민요와 민속(참글문화, 2013)』가 있으며, 현재 신안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장산들노래보존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창완(金昌完)

1942년 07월 19일생. 장산면 도창리 출신의 시인이자 문학인. 호는 금오(金烏). 조선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했다. 1973년 서울신문 신춘 문예에 「개화」가 당선되고, 같은 해 '풀과 별'에 「꽃계」 등의 시가 추천되면서 등단했다. 1976년 반시 동인을 결성하여 활동했다. 서울시 변두리에서 노동자로 떠돌며 살다가, 1978년 첫 시집으로 『인동일기』를 펴냈다. 이 시집은 1970년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도시 노동자들의 궁핍한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어 현대시문학사에 중요한 작품집으로 호평을 받았다. 한국문인협회 사무국장을 지냈으며, 현재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참고자료: 위키백과, 2013년 9월 / 한국문인협회 홈페이지, 2013년 10월

김춘일

장산면 출신의 군인. 현재 예비역 육군대령으로 활동하고 있다.

※참고자료: 『신안군지』, 2000

김태인

장산면 출신의 군인. 현재 예비역 대령으로 활동하고 있다. (참고자료: 『신안군지』, 2000)

김희중(金喜重)

장산면 출신의 효자. 장산에서 부친과 딸을 데리고 해남 우수영 본가로 가는 도중 배가 침몰위기에 이르자 용왕에게 딸을 제물로 바치고, 그래도 파도가 거세자 아버지를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었다. 1753년 전라좌수사가 이를 알고 조정에 알려 1753년 (영조 29) 우수영에 효자각이 건립되었다가, 1935년 고향인 장산도로 이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참고자료: 『신안군문화유적분포지도』, 2008 / 신안문화원 홈페이지, 2013년 9월

전현배

장산면 출신의 시인. 신안문화회 회장을 지냈다. 현재 신안문화회 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참고자료: 인터넷신안신문, 2006년 12월 28일 기사

송명호

1952년생. 장산면 출신의 작가. 서울대학교 국문학 학사를 졸업하였다. 1988년 MBC 시문학 우수신인상을 받았으며, 1991년 우린정서당(雨麟亭書堂)에서 동양철학 원전 강독을 강의하였다. 민족문학작가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참고자료: 네이버 인물정보, 2013년 9월

송홍범

1958년 9월 18일생. 장산면 출신의 서예가. 호는 죽전.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명정(銘旌)을 쓰기도 하였으며, 한글을 현대예술에 접목시키는 실험적인 작업을 펼치고 있는 서예가이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전라남도 민족예술인총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사회단체 활동도 왕성하게 전개하여 2010년 목포포럼 공동대표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목포포럼 상임대표를 맡았다. 현재 목포문화재단 상임이사와 전남문화예술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참고자료: 네이버 인물정보, 2013년 9월

윤창옥(尹昌玉)

장산면 출신의 공무원. 2005년 보국훈장을 받았다. 2007년 방위사업청 국제계약부장을 지냈고, 2010년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을 맡았다. ※참고자료: 조인스 인물정보, 2013년 9월

이귀인(李貴人)

1928년 10월 31일 생. 장산면 공수리 출신의 전통세습무. 신안군 장산도에 거주하며 신안 섬 지역은 물론 전남 전역에 걸쳐 활발하게 굿을 연행하고 있는 전라도의 전통세습무이다. 이귀인은 부인 강부자와 함께 굿연행을 할 때, 굿음악을 담당하는 고인으로 장고와 피리 연주에 능하다. 그는 마을의 잔치나 초상이 났을 때 중심이 되는 인물로 인근마을까지 상여소리를 부르러 다니기도 했다.

그런 활동을 통해 장산도의 예술인으로 인정받았으며, 1982년 장산들노래를 지도하여 한국민속예술제에 출전하여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전통농악에 대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구와 상쇠에 특히 출중한 재능을 지녔다.

※참고자료: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자료보고서-이귀인

이동훈

장산면 출신의 교육인. 교장으로 활동하였다. ※참고자료: 『신안군지』, 2000

이미경

장산면 출신의 체육인. 같은 장산 출신인 강지숙과 복식파트너를 구성하여, 98년 아시안게임 정식정구부문에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구은행에 실업팀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정구대회에서 우승하였다.

이연분

장산면 출신의 문학인. 도서출판 운향 대표이며,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참고자료: 인터넷신안신문, 2006년 12월 28일 기사

장병준(張炳俊)

1893~1972. 장산면 대리에서 출생. 독립운동가. 그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유학중인 일본에서 급히 귀국하여 3월 18일 신안군 장산면에서 대한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다 잡혀 3년의 옥고를 치렀다. 그 뒤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으로 선임되어 독립운동에 힘썼다. 1920년 초 군자금 조달 목적으로 귀국하여 3·1운동 1주년 만세시위를 계획하다 일경에 붙잡혀 다시 3년의 옥고를 치렀으며, 1929년에는 신간회 목포지회장에 취임하고 뒤에 중앙대표로 선출되었다. 그는 또다시 광주학생항일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민중대회운동에 관련되어 붙잡혀 모진 고문과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80년 건국포장을 수여했다.

※참고자료: 『신안군지』, 2000

장왕호

장산면 출신의 교육인. 2013년 9월 1일 제9대 부천부곡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여 활동하고 있다. ※참고자료: 부천시민신문, 2013년 08월 20일 기사 / 『2013재경신안군향우회 회원록, 2013

장영식(張榮植)

장산면 출신의 교육인. 1998년 한국전력 첫 공채 사장이 되었다. 미국 뉴욕주립대 경제학과 교수로 활동하였다. ※참고자료: 매일경제, 1998년 05월 05일 기사

장응철(張應哲)

1940년생. 장산면 출신의 종교인. 1940년 9월8일 장산면 다수리에서 부친 장상봉 선생과 모친 김출진옥 여사의 2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960년 전주에 거주하는 이종형인 최덕근 선생의 권유로 원불교 2대 종법사인 정산종사를 뵈고 입교하는 동시에 출가를 결심했다. 1964년 원광대 원불교학과에 입학했고, 1968년 영산선원 교사로 전무출신의 길을 걷게 된다. 1973년 교정원 총무부 과장으로 부임하여 이 시기 교단 전반의 상황을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서울사무소 사무장으로 발령받아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종교계와 폭넓게 교류하며 교단 발전에 유익한 정보와 학식을 쌓게 된다. 1982년 교정원 총무부장에 부임해 교단의 순환제 인사제도를 정착시켰고, 1988년에는 청주교구장으로 봉직하면서 교구청을 신축하는 등 남다른 교화열정을 불사르며 열악한 충청지역의 교화 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1991년 영산사무소 소장 겸 영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여 영산대학을 4년제 정규대학으로 승격시켰고 영산원불교대학교의 본관 건물을 신축하는 데 불사를 강행했다. 1994년 서울교구장에 부임하여 서울 교화발전에 성심을 다하다가 2000년에는 교단 행정수반인 교정원장에 취임하게 된다. 2000년에는 '출가위'로 사정돼 종사의 법훈을 서훈했고 수위단원에 2번 피선됐다.

2006년 중앙중도후련원장으로 재직 중에 좌산상사의 뒤를 이어 종법사에 오르게 되었다. '교화대불공, 교법 인격화, 은혜 확산, 준법 운영, 결복 백년대'를 5대 경륜으로 교단을 성장시켰다. 저서로는 금강경을 해설한 <부처님의 마음작용>, <노자의 세계(도덕경)>, <마음 소 길들이기(목우십도송)>, <자유의 언덕(반야심경)>, <마음달 허공에 뜨다(일원상서원문)>, <죄업으로부터 자유(참회문)>, <중도의 길 성인의 길(중용)>, <수심결, 마음을 깨달아 닦는 길>, <육조단경 덕이본 해설>, <작은 창에 달빛 가득하니> 등이 있다.

※참고자료: 조인스 인물정보, 2013년 9월 / 네이버 인물정보, 2013년 9월 / 소통뉴스, 2012.11.04)

장자순

장산면 출신의 금융인. 신한 수협조합장으로 활동하였다. ※참고자료: 『신안군지』, 2000

장재식(張在植)

1935년생. 장산면 출신의 국회의원이자 장관. 3선 국회의원이자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명사이다.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를 취득하였다. 1973년 국세청 차장을 지냈으며, 1992년에는 제14대 국회의원, 1996년에는 제15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2000년에는 제16대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2001년에는 제5대 산업자원부 장관이 되었다.

※참고자료: 조인스 인물정보, 2013년 9월 / 네이버 인물정보, 2013년 9월

장주영(張朱煥)

1963년생. 장산면 출신의 변호사. 1982년에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6년에는 서울대학교 공법학을 졸업하였다. 워싱턴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하였다. 1985년에는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8년에는 법무법인 상록 대표변호사가 되었다. 2004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이 되었으며, 2006년부터 2007년 8월까지 제17기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이었다. 2008년부터 2010년 5월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을 맡았고, 2009년부터 언론인권센터 이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었으며, 2012년 5월부터 제10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참고자료: 조인스 인물정보, 2013년 9월 / 네이버 인물정보, 2013년 9월

장진방(張鎭邦)

장산면 대리 출신의 지역공로자. 한말 기근이 심하게 들었을 때 주민들에게 선정과 덕을 베풀었다. 이를 기리기 위해 1909년과 1910년에 지역민들이 송덕비를 건립하였다. ※참고자료: 『신안군문화유적분포지도』, 2008

장진백(張鎭伯)

장산면 대리 출신의 지역공로자. 한말 기근이 심하게 들었을 때 주민들에게 선정을 베풀어서 이를 기리기 위해 1906년, 1909년, 1911년에 송덕비를 건립하였다.

※참고자료: 『신안군문화유적분포지도』, 2008

장창균

1961년생. 장산면 출신의 학자이자 대학교수. 현재 목포과학대학교 관광경영정보 계열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참고자료: 조인스 인물정보, 2013년 9월

장하범

장산면 출신의 경제인. 범양토건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참고자료: 『신안군지』, 2000

장하준

1963년 10월 7일 출생. 장산면 출신의 경제학자. 장산도 출신의 독립운동가 장병상이 조부이고, 아버지는 국회의원이자 장관을 지낸 장재식이다. 동생은 물리학자 장하석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를 졸업한 후, 캠브리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90년부터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이 배출한 대표적인 경제학자이다. 2005년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2011 제5회 포니정 혁신상, 2005 레온티에프상, 2004 유럽진보정치경제학회 뮌헨상, 2002 경제학상 등을 수상하였다. 대표저서로 『나쁜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등 다수가 있다. ※참고자료: 네이버 인물정보, 2013년 12월

장하진

1951년 12월 20일생. 최초의 여성부 장관. 장산도 대리 마을 출신 독립운동가 장병상이 조부이고, 도의원을 지낸 장충식이 아버지이다. 고려대 교수 장하성의 누이이다. 전남여고를 졸업 후, 이화여자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공은 사회학이다.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한국어린이도서관 협회 이사장,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제9대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제1대와 제3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냈다. 2011 올해의 명가상, 2009청조근정훈장, 2007자랑스러운 전남여고인상, 2002자랑스러운 광주전남향우인상 등을 수상하였다. ※참고자료: 네이버 인물정보, 2013년 12월

장하석

1967년생. 물리학자이자 대학교수. '21세기의 토머스 쿤' 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장산도 출신의 독립운동가 장병상이 조부이고, 아버지는 국회의원이자 장관을 지낸 장재식이다. 형은 경제학자 장하준이다. 캘리포니아공과대학교 물리학 학사를 졸업했으며, 스탠퍼드대학교 대학원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영국 런던대학교 과학철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2010년부터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한국인 최초로 케임브리지 대학교 석좌교수가 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2007년에는 과학철학 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최고권위의 '라카토슈상' 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하였다. 대표적인 저술로 『온도계에 담긴 철학』 등이 있다.

※참고자료: 네이버 인물정보, 2013년 12월

장하성

1953년 9월 19일 출생. 경영학자이자 대학교수. 장산도 대리 마을 출신 독립운동가 장병상이 조부이고, 도의원을 지낸 장충식이 아버지이다. 2010년부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이다.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와튼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8 한국재무학회 회장, 2006.07~2008 국제지배구조네트워크 이사, 2005~2010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 2005~2010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2002~2003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정책네트워크 내일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참고자료: 네이버 인물정보, 2013년 12월

장희명(張熙明)

1941년 3월 12일생. 장산면 다수리 출신의 기초의원. 제3대(1998.06.04~2002.06.13), 제4대(2002.06.13~2006.05.31) 신안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였다.

※참고자료: 신안군의회 홈페이지, 2013년 9월 / 조인스 인물정보, 2013년 9월

장홍염(張洪琰)

1910~1990. 장산출신의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 목포공립보통학교, 사립영흥학교, 휘문고등보통학교를 다녔다. 1928년 11월 전조선 학생스트라이크 옹호 전국 동맹에 참여하여 학생의 쫓기와 식민지 교육 철폐를 요구하는 전단을 살포하는 활동을 하다가 체포 구속되었다. 1929년 5월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상무집행위원이 되었으며, 1929년 11월 시작된 광주학생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서울 지역 학교들의 시위를 조직하는 지도부 역할과 함께 현장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광주학생운동 이후 도피에 나섰던 장홍염은 일본으로 유학이 여의치 않자, 중국으로 망명의 길을 선택했다. 베이징에서 민국대학(民國大學)을 다녔고, 1930년 5월 ‘재중국조선무정부공산주의자연맹’이라는 ана키스트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와는 거리를 두었다. 광복 이후 장홍염은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였다. 소작인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나눠주는 한편, 장동식과 함께 장산중학교를 설립하기도 했다. 1948년 무안을구에서 제헌국회의원이 되었고, 1950년 2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농지개혁법안에서 농민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 농민의 위한 정책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후 사회민주주의 정치활동과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주력하다 1990년 교통사고로 타계했다. 정부에서는 일제하 학생운동의 공로를 인정하여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자료 : 신안군, 『장병준 역사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 2013

정관희(鄭官熹)

1948년 07월 21일생. 장산면 출신의 교육인. 조선대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1972년에는 동국대학교 통계학 학사, 1974년에는 동국대학교 대학원 응용통계학 석사를, 1988년에는 동국대학교 대학원 전산통계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주요 경력으로는 경기대 이과대 전자계산학과 부교수·교수(1980.03~1997), 경기대 제2대 전산소 소장(1983.03~1985.02), 미국 피츠버그대 연구교수(1985.08~1986.08), 경기대 제5대 전산소 소장(1987.10~1988.07),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민주당 수원시장 후보경선 1등 당선, 진남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 공동본부장으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경기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상훈으로는 법무부연수원장 감사패(1988), 재경 신안군향우회 효행상, 경기대총장

공로패(1991), 교육부장관 공로패(1994), 대통령당선자 감사패(1998)가 있다. 주요 저서는 『컴퓨터프로그래밍』(1992)이 있다.

※참고자료: 조인스 인물정보, 2013년 9월

정대우

장산면 출신의 의사. 현재 목포 정피부과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삼배(鄭衫培)

장산면 출신의 공무원. 산업자원부 서기관으로 활동하였다. ※참고자료: 『신안군지』, 2000

정석산

장산면 출신의 교육인. 목포과학대 교수로 있으면서 많은 활동을 하였다.

※참고자료: 『신안군지』, 2000

정성민(鄭聖珉)

1930년 7월 10일생. 장산면 팽진리 출신의 지역의원. 제1대 신안군의회 의원 (1991.03.26~1995.06.27)으로 활동하였다.

※참고자료: 신안군의회 홈페이지, 2013년 9월 ; 『신안군지』, 2000

정정웅

장산면 출신의 의사. 미국버지니아주에서 병원장으로 활동하였다.

※참고자료: 『신안군지』, 2000

정찬경

1943년생. 장산면 출신의 화가. 홍익대학교 서양화과를 1968년에 졸업하였다. 청주척화비를 발견(충북지방문화재 제23호)하였다. 한국미술협회 회원이며, (사)전업미술가협회 자문위원이다. 2010년 경남 미술관 작품 선정위원이 되었고 2010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참고자료: 정찬경화백 블로그, 2013년 9월

정태영(丁泰榮)

1967년 1월 5일생. 장산 출신 언론인. 광주일고와 전남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였다. 전남대 행정학 석사, 목포대 문화관광학 박사수료, 대불대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사)한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과 목포투데이신문 대표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목포문화예술CEO대학 학장, 전국자영업살리기운동본부 위원장, 투데이포럼 공동대표, 목포생명의숲 공동대표, 사랑의 책보내기운동 공동대표, (사)전남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목포백년회 이사, 목포시생활체육회·전남장애인재활수련협회·목포시 장애인체육회 이사, 목포대충동문화 부회장 등을 맡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전남대, 동아인재대, 동신대, 목포과학대 등에 출강하였으며, 지구촌희망펜싱, 희망의 풀뿌리 언론인상, 한국지역신문협회 우수기자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주요 저서로는 『목포팔경과 목포문화의 수수께끼』, 『목포발 청춘열차』 등 14편이 있다.

※참고자료 : 목포투데이 2014년 3월 12일 목포시장 예비후보인터뷰 기사

조장남(趙章南)

1950년 03월 27일생. 장산면 출신의 음악인. 1975년에 영남대학교 성악 학사를 졸업하였다. 주요 경력으로는 호남오페라단 단장, 이탈리아 비오티시립아카데미 오페라 연구원(1990.01~1990.12), 군산대 예술대 음악학과 교수로 활동하였다.

현재에는 (사단)호남오페라단 단장, 메세나 전북지회 연구위원, 우리문화진흥회 연구위원, 군산대 예술대 음악과 성악전공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1992년에 전라북도 문화장(음악부문)을 수상했다. ※참고자료: 조인스 인물정보, 2013년 9월

진금순(晉今順)

1943년 01월 10일 생. 장산면 공수리 출신의 전통세습무. 신안군 장산도에 거주하며 신안 섬 지역은 물론 전남 전역에 걸쳐 활발하게 굿을 연행하고 있는 전라도의 전통세습무이다. 이귀인의 조카며느리로 안좌도 세습무계인 진씨 집안이 친정이다.

4남 6녀의 10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나 24세 때 장산도 세습무계 집안의 이충윤과 결혼하였다. 친정어머니와 시댁 사람들을 통해 무업을 배웠다. 현재 비금의 유점자와 함께 굿을 연행하기도 하며 신안문화원의 민속예술전승 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2013년 7월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52호 신안씻김굿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참고자료: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자료 보고서-진금순, 2013년 10월 / 아시아경제, 2013년 08월 04일 기사

최근호

장산면 출신의 군인. 예비역 해군 대령으로 활동하고 있다. ※참고자료: 『신안군지』, 2000

최무정(崔武正)

1940년생. 장산면 출신의 군인. 예비역 육군 준장이다. 2006년 육군ROTC성우회 회장이 되었고, 재향군인회 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참고자료: 경향신문, 2006년 08월 03일 기사

3. 활용방안

1) 이순신 사적지 발굴 및 자원화

- 이순신 장군 주둔 기념비 건립 및 대성산성 개발

(1) 사업개요 및 방향

- 위치 : 장산면 일대
- 사업의 목표 :
 - 장산도가 이순신 장군이 전란 중 머물던 역사적인 사적임을 상징하는 기념물을 건립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
- 사업의 방향 :
 - 이순신 관련 장산도와의 관련성을 발굴하고, 그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념물을 건립함.
 - 대성산성 등과 연계하여 관광코스로 발전시킴.

(2) 사업내용

도입시설	주요내용
이순신 장군 사적비	장산도가 이순신 장군의 사적지임을 상징하는 기념물 조성.
대성산성 탐방로	대성산성 탐방로를 정비하고, 이순신 장군의 장산도 스토리와 연계하여 관광코스화 함.
대성산성 전망대	대성산성 부근에 인근 다도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설치.

(3) 기본계획

- 난중일기에 '안편도(발음도)' 라는 이름으로 장산도가 등장함.
- 장산도 선착장 등에 상징물을 조성하고, 이곳이 호국사적지로서 의미있음을 홍보.
- 이순신 장군이 장산도에 머물러 있을 당시 아들 '면' 이 왜적과의 싸움에서 전사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당시의 슬픈 감정을 기록에 남겨 놓았음. 난중일기 기록 가운데 가장 애절한 현장이 '장산도' 였다는 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
- 대성산성 등 조선시대 수군관련 유적과 연결하여 관광코스로 발전.
- 산성의 흔적이 잘 남아 있는 대성산성 유적을 정비하고, 주변 바닷길을 살필 수 있는 전망대로 활용. 임진왜란, 바닷길의 요충지 등 의미 부여.
- 난중일기에 나오는 기록을 토대로 다양한 관광포인트 및 안내문 설치.

2) 장산도 역사문화의 길 조성

(1) 사업개요 및 방향

■ 위치 : 장산면 일대

■ 사업의 목표 :

- 장산도에 산재해 있는 역사문화 자원을 연결하는 동선을 설정하고, 이를 방문객들이 탐방할 수 있는 역사문화의 길을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함.

■ 사업의 방향 :

- 도창리 노거수림, 들노래 전수관, 석실고분, 대리 고인돌, 장산사창터 등을 연계하여 탐방코스를 개발, 관광자원으로 활용.
- 도창리, 대리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장산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활용해야 함.
- 장산도의 마을 탐방과 역사유적 탐방코스를 융합하여 방문객들이 걸으면서, 섬의 역사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코스로 개발.

(2) 사업내용

도입시설	주요내용
유적지 정비	도창리 공덕비, 석실분, 대리 고인돌, 대리공덕비, 장병준 묘 등 유적 안내문 설치 및 정비.
이동 동선 사인물 설치	역사유적지를 연결하는 동선을 설정하고, 탐방객들을 안내하는 이정표 개념의 사인물 설치
유적지 탐방 안내물 제작	장산도의 유적지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동선에 대한 설명이 기재된 안내물 제작

(3) 기본계획

- 도창리와 대리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유적을 연결하는 길 개념의 탐방로드 개설.
- 고대 서남해 도서지역의 중심지로 장산도의 위상을 살필 수 있는 고대유적 자원화.
- 일제강점기 섬 사람들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각종 공덕비의 주변 환경 정비



IV 민속문화

송기태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HK교수

- | | |
|--------------------------------|-----|
| 1. 조사개요 | 94 |
| 2. 마을공동체의 당제와
줄다리기 | 95 |
| 3. 신명풀이와 공공기부로
진행된 '농약(건구)' | 103 |
| 4. 무속의례와 씻김굿 | 116 |
| 5. 열두 달 세시풍속 | 125 |
| 6. 집안의 가정신앙 | 140 |
| 7. 활용방안 | 143 |

IV. 민속문화

1. 조사개요

장산면은 민속예술로 유명한 섬이다. 씻김굿과 들노래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농악 또한 왕성하게 전승되었던 곳이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는 농악과 씻김굿 등의 예능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서남해 도서지역에서는 경우 마을의 동제와 농악이 결합되어 있는데, 장산도의 경우 최소 1950~60년대 이전에 동제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악이나 씻김굿 등의 예능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점에서 민속예술이 발달한 섬으로서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 조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14년 2월 18일~20일 공동답사
- 2014년 7월 27일 팽진리, 공수리 답사
- 2014년 9월 12일~13일 공수리, 오음리, 도창리 답사
- 2014년 10월 3일 찾아가는 섬 포럼 및 답사

번호	명칭	지역	현존유무
1	건구(농악)	장산면 공수리 마초마을	이귀인 상쇠 전승, 보존 필요
2	막금도 당제	장산면 다수리 막금도	중단
3	율도 당제	장산면 마진리 율도	중단
4	줄다리기	장산면 호피마을, 사근마을	중단
5	무속의례와 씻김굿	장산면 공수리 마초마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52호 지정, 보존 대책 필요
6	가정신앙	장산면 공수리, 도창리, 팽진리 외	부분적으로 전승
7	세시풍속	장산면 공수리, 팽진리, 다수리 외	부분적으로 전승

2. 마을공동체의 당제와 줄다리기

■ 현지조사

- 조사일시 : 2014년 7월 27일
- 조사장소 : 신안군 장산면 마초리, 팽진리
- 제 보 자 : 마초리 이귀인(남, 1931년생), 팽진리 황인봉(남, 1935년생), 최영호(남, 1937년생)

■ 참고문헌

- 이종철 · 조경만, 『민속자료』, 『신안군의 문화유적』, 목포대 박물관, 1987.
- 김진오, 『장산도의 민요와 민속』, 참글문화, 2013.
- 이종철 외 『신안군 장산도 · 하의도 신앙민속』, 『도서문화』3집, 1985.

장산면의 당제는 장산도를 제외한 부속섬(마진도, 울도, 막금도)들의 사례만 확인된다. 장산면의 중심인 장산도는 대부분 1950년대 이전에 중단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85년에 발간된 『도서문화』 3집에서도 장산도에는 당제가 전승되지 않고 있었으며, 그 흔적도 오래 전에 중단되어서 70대 노인이 희미하게 기억하는 정도였다.

팽진리 중룡마을의 경우 과거에는 마을에 당이 있어 깨끗한 사람을 데리고 동제를 지냈다고 한다. 그리고 다수리에도 당은 없었지만 당샘이 있었고 300년 된 팽나무가 샘 부근에 있어서 당제가 오래 전에 없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필자도 마초리 이귀인(남, 1931년생) 씨와 면담을 하였는데, 마을의 당제나 당곳에 대해 윗대 어른들에게 들었을 뿐 실제 경험해본 적은 없다고 하였다. 또 팽진리의 경우도 80세 가까운 노인들이 당제는 경험하지 못했고, 줄다리기와 농약만을 기억하고 있었다.

당제는 1987년에 발간된 『신안군의 문화유적』 자료를 원용하고, 2013년에 발간된 『장산도의 민요와 민속』을 참조하여 마진도와 울도의 사례를 소개한다. 줄다리기는 『도서문화』 제3집에 소개된 자료와 『장산도의 민요와 민속』을 참고하여 소개한다.

1) 장산면 다수리 막금마을 당제

막금마을은 장산 본도에서 남쪽으로 약 5.5km쯤 되는 곳에 위치한 소촌이다. 동쪽으로는 성주골과 대성산(해발 149m)이 있고, 서로는 바다 건너 신의면 상태서리가, 남으로는 섬막금이, 북으로는 개펄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

막금마을에서는 음력 정월 초 길일을 택해 마을의 평안과 제액을 기원하는 당제를 지냈다. 마을에 조직되어 있는 '막금운영회'가 매년 2회 즉 6월과 12월에 정기총회를 여는데, 이 중 12월의 총회에서 제일과 제관을 결정한다. 제신은 산신과 당산할아버지·당산할머니이며 제장은 마을 동남쪽 산봉우리의 '당산'에 있다. 당산은 오래된 활엽수림으로 둘러져 있고, 그 내부에는 상·하 140cm의 간격을 둔 2개의 석단이 있다. 이 석단 중 맨 위에 있는 것은 산신단이며, 아래에 있는 것은 당할아버지·당산할머니 단이다.

과거에 주민들은 당산에 대해 상당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 옛부터 당이 매우 영험해서 당산의 나무를 베어 연료로 쓰면 크게 동티가 난다고 믿고, 실제로 주민들은 당산에서의 벌목을 지금까지 삼가하고 있다. 또한 주민 중 입대하는 자는 반드시 당산을 향해 재배하고 마을을 떠난다고 한다.

제관은 마을 총회에서 생기복덕이 좋은 자로 두 명을 선정한다. 이렇게 제주가 선정되면 이들은 그날부터 제일까지 모든 행동을 조심하고 정성을 드려야 한다. 이러한 규칙과 금기는 매우 까다로우며 서로 제관 맡기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일단 제주로 선정되면 이를 자신의 운으로 여기고 온갖 정성을 다한다. 제관이 준수해야 할 것들을 포괄적으로 표현한다면 '부정한 행위나 음식은 절대로 삼가한다'는 것이다. 즉 개고기 등 추하다고 여겨지는 육류를 먹어서는 안 되며 잡인을 만나 대화하는 것도 금하며, 대소변 시 목욕재계를 해야 한다. 또한 제관들은 이 기간 동안 상가나 출산한 집의 출입을 금한다. 혹 마을 부녀자 중 임신부나 산일이 제일 무렵인 사람이 있을 때는 제의 기간 동안 마을에서 떠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무렵에 상고나 산고가 발생하면, 제를 포기하고 2월 초의 좋은 날로 다시 택일해야 한다.

제일 하루 전에 제관들은 제장을 제관 중 1명의 집을 청소하고 잡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금줄을 친다. 이전에는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렸다고 하나, 나중에 금줄만으로

간소화되었다. 제일이 되면 한 제관의 집에 2명의 제관만 남고 그 식구들은 집을 떠나 거처를 옮긴다. 제물은 제관 중 1명이 전날 목포에서 구입해와 장만한다. 이때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 제의 비용은 각 호당 5,000원씩(1986년 조사 당시) 각출해 충당하고 여기서 남는 돈은 마을공동자금으로 썼다고 한다. 준비되는 제물에는 메, 쇠고기, 과일, 술 등이 있으며 생선은 비리다 하여 쓰지 않는다.

제의는 <진설→재배→소지→헌식>의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당산 맨 꼭대기에 산신의 상을 차리고 재배한다. 그리고 나서 그 아랫쪽에 촛불을 켜 다음, 당할아버지와 당할머니의 상을 차리고 재배한다. 소지는 마을을 위한 소지 각 가정을 위한 소지의 순이다. 각 가정을 위한 소지를 예를 들면, 제관들은 불을 붙여 올리면서 각 가정의 세대주 이름을 대며 “○○○ 소지요”라고 외친다. 이때 소지가 잘 오르면 한 해의 운세가 좋고 잘 오르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여긴다. 헌식은 제물의 일부를 거두어 동서남북으로 짚을 놓고 그 위에 소뻬와 밥 4그릇을 진설하는 것이다. 제가 끝나면 제관들은 당산에 남은 제물을 모두 음복하고 음식을 마을로 가져가지 않는다 이 점이 다른 마을의 경우와 다른데 이는 혹시 부정할 사람이 제물을 음복하게 되면 마을이 재앙을 입게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당제는 옛부터 간소하게 지내며 당제가 끝나고 풍물놀이나 다른 의식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속되던 당제는 주민이주와 가구수 감소로 마을 주민들의 뜻에 따라 1997년경부터 당제가 중단되었다. 당산의 제단은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으며, 2012년 현재 막금은 8세대가 살고 있다.

〈사진 1〉 장산도 앤두 선착장에서 바라본 막금도





〈사진 2〉 막금도 당이 있는 당산(2014년)



〈사진 3〉 막금도 당 (1987년)

2) 장산면 마진리 율도 당제

장산 본도의 측강 포구에서 배를 타고 약 30분을 가면, 면소재지에서 남동쪽으로 약 12km되는 지점에 율도가 있다. ‘율도’는 한자명이고 토속명은 ‘밤섬’이다. 이 섬에서 포구쪽으로 총 16호에 92명(1986년 조사 당시)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 하나만이 형성되어 있다. 마을에는 텃밭들 외에는 농경지가 없어, 주민들은 거의 전적으로 외지에서 식량을 조달한다.

율도마을의 당제는 매년 정월 초사흘날 새벽 3~4시 사이에 거행되었다. 주민들이 신봉하는 제신은 당할아버지, 당할머니, 백야도신이다. 당할아버지와 당할머니는 오래 전부터 율도 당제에서 모셔온 신격들이나 이중 당할아버지와 당할머니의 좌정 내력은 상세하지 않다. 다만 옛날 어느 노부부가 현재의 당집 부근, 소나무에 목을 매어 죽으면서 ‘이곳에 당집을 세워 제를 지내면 마을에 복과 평안이 깃든다’는 말을 남겨, 마을 사람들이 당집을 짓고 이들을 당신으로 하여 제를 지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전할 뿐이다. 백야도신은 1949년부터 신봉되어 온 신격이다. 백야도신의 자정내력에 관해서 제보자가 전하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장산 본도와 율도 사이에 백야도가 있다. 아주 오랜 옛날에는 이섬에도 당제가 있었는지 모르나 1948년경까지만 해도 ‘당터’라는 지명을 가진 장소만 있었을 뿐 당제는 없었다. 그러다가 1948년에는 이 ‘당터’에 국민학교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 무렵, 율도에 살던 백씨라는 성을 가진 한 주민의 꿈에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 “이제는 갈 곳도 없고 배가 고파 견딜 수 없다. 너희가 제를 지내주면 너희 마을이 평안해질 것이다.”라는 내용의 말을 하고 사라졌다. 백씨가 꿈 이야기를 율도 주민들에게 하자, 주민들이 백씨 꿈에 나타난 노인을 제신으로 모시는데 동의했고, 그 후 이 노인은 백야도신이라는 신명을 갖고 율도 당제의 제신으로 좌정하게 되었다.

당집은 마을 뒷산 능선 아래편에 있다. 이 당집에는 영험이 있어, 아이들이 당집 주위에 오줌을 누면 성기가 붓는다는 속신이 있다. 당집은 돌로 된 벽에 기와를 얹은 맞배지붕의 단칸집으로 실내에는 나무로 짠 제단이 있고 그 위에 제기들이 놓여 있다. 천정 서까래에는, ‘당미’라 하여, 한줌 가량의 쌀을 천으로 싸서 매달아 놓았다. 한편 팽나무소나무 등이 우거진 당집 주위에서 약 10여m 아래에 당샘이 있고, 그 옆에 당제 때 제관들이 숙식하는 노지가 있다.

당제의 제관은 2명으로서 제를 주관하는 사람을 ‘당주’, 그의 보좌역을 ‘당조수’라 부른다. 주민들은 음력 동짓달에 열리는 마을회의에서 생기복덕이 맞고 부정이 없는 사람들로 당주와 당조수를 선정한다. 당주와 당조수는 온갖 금기와 정성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당제 1일 전인 정월 초이튿날부터, 한겨울에 당샘 근처 노지에 차일을 치고 제물을 마련하면서 숙식해야 하므로 매우 고통스럽다. 이는 옛부터 지켜온 관습인데 근래에 들어서 당주·당조수로 선정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 누구이건 간에 당주나 당조수 역할을 맡을 때는 당제를 지냄으로써 자신에게 어떤 효험을 얻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데 실제로 별반 효험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당제를 준비하면서 겪는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이 역할들을 맡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보자의 설명이다. 당주·당조수의 선정이 점차 어려워지자 금년(1986년 현재)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민 모두가 합동으로 당제를 지냈다 한다.

당제를 준비하기 위해, 우선 마을 이장이 가급적이면 목포로, 여의치 않을 때는 바다 건너 가까이 있는 진도읍에서 제물용 물품을 구입하며, 장산면 소재지의 상점을 이용하려 하지 않는다. 목포의 상점들이 특별히 선호되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이 마을 주민들은 바다 건너 진도의 진도읍이 다니기에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생활권의 중심을 장산면 소재지만큼보다 진도읍에 두고 있다. 당제용 물품을 구입할 때는 상점도 임신·출산·월경 등의 부정이 없는 곳으로 골라야 한다. 평상적으로 진도읍의 시장이 장산면 소재지보다 훨씬 이용도가 높다.

면소재지의 상점이 그리 발달되지 않았다는 점도 읍도주민이 면소재지에서 물품을 구입하지 않는 부분적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제물용품을 구입할 때 장산면 소재지에 가지 않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된다. 문제는 변화한 진도읍의 시장이 평시에는 잘 이용되다가도 제물용품을 구입할 때는 되도록 기피하려는 곳이라는 점이다. 이곳 주민들은 진도읍내 상점들의 사정을 상당한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이장이 제물용품을 구입할 때는 바로 이 점이 문제가 된다. 진도읍에서 당제용 제품을 사러 어느 상점에 어떤 부정이 있는지를 일일이 신경써야 하는 것이다. 물건을 샀을 때 이장은 몰랐지만 다른 주민이 그 상점에 부정이 끼었다고 하면 난감해지기 때문이다. 반면에 목포의 상점들은 거의 지면이 없기 때문에 이장이 부정 여부에 신경을 쓸 수가 없어 차라리 편하다. 그래서 되도록 목포의 상점을 택하려 하는 것이다.

제물의 마련에 드는 비용은 우선 마을공동자금에서 충당하고 나중에 호당 거출하여 쓰여진 공동자금을 채워 넣는다. 준비되는 제물은 메·술·떡·마른명태·오징어이다. 떡은 '3돌금', '5돌금' 식으로 홀수로 익힌다.

제물이 마련되면 당주와 이를 당집으로 옮겨 진설한다. 당제는 당주가 단독으로 행하고 당조수는 밖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기다린다. 헌작(獻酌) - 삼배(三拜) - 헌작(獻酌) - 삼배(三拜) - 첨작(添酌) - 헌다(獻茶) - 소지(燒紙)의 순이다. 소지 절차에서는 호별로 가구주의 이름을 들어 '누구소지요' 하면서 종이를 태워 올린다. 이때 당주는 밖의 당조수가 듣지 못할 정도로 작은 목소리를 낸다. 당조수 자신을 비롯한 모든 주민이 소지가 잘 오르는지의 여부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만약 잘 오르지 않는 가정의 경우 이 사실을 당조수가 나중에라도 발설하면 그 가족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줄 것이기 때문이다. 당주는 소지가 한 해의 운세를 예측하는 방법이라는 점보다도, 마을 주민들의 심리적 평안을 더 중시하고 그들의 소지 결과를 모르는 채, 다만 자기 가정을 위해 소지를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안도감을 갖기 원하는 것이다.

당주는 당제를 마치고 당조수와 함께 마을로 내려오면서 뒷산 이곳 저곳에 제물을 조금씩 던져주면서 헌식을 한다. 새벽에 집으로 돌아온 당주와 당조수는 잠시 휴식을 하고, 날이 새면 주민들과 함께 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이 마을 당제는 끝난다.

울도 당제는 1993년경부터 중단되었으며 당집은 관리를 하지 않아 무너진 채 방치되고 있다. 장산과출소 울도출장소와 울도분교(1996. 3. 1폐교)는 폐쇄되고 없다. 2007년부터 35kw급 태양광발전소가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문화혜택을 누리고 있다. 주민들도 대부분 목포 등지로 이주하고 5세대만(2012년 현재) 이 울도를 지키고 있다.

3) 호피마을과 사근마을의 줄다리기

호피마을에서는 추석과 정월보름에 농악을 치면서 줄다리기를 하였다. 정월 보름 전이나 추석 전에 “들주”를 동네에서 뽑아 그로 하여금 모든 준비를 하도록 했다. 줄은 명절 전에 마을에서 짚을 걷어 여럿이 두껍게 틀어서 만들어 준비한다. 줄은 잘못

틀면 떨어지기 쉬우므로 잘 맞추어 만들어야 한다.

사근에서는 저녁을 먹고나서 20m 정도 되는 줄을 가지고 남녀들이 20~30명으로 갈라서 줄다리기를 했다. 호피마을은 두리부락과 협조해서 했는데 줄이 염전있는 곳 까지 갔으며 꼭 패는 가르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저절로 마을별로 패가 갈라지기 마련 이었다고 한다. 줄다리를 할 때는 흥을 돋구기 위해 징과 팽매기를 두들면서 하고 농악을 치기도 했다.

줄다리기의 승부는 ‘여자가 이겨야 풍년이 든다’ 고 하여 여자가 꼭 이기도록 진행 한다. 여자들은 이기려고 남자들에게 간지럼을 태우거나 나무로 쑤시는 장난을 한다. 줄다리가 끝났을 때에 줄이 떨어지면 문제가 없으나(줄이 끊어져야 좋다고 함) 떨어 지지 않았을 경우는 줄을 칼로 썰어서 거름이 되게 눈에 버리거나 불로 태웠다. 때에 따라서는 줄을 푼말아서 들주집에 갖다놓기도 했다. 줄다리가 끝난 후에는 가가 호호에서 음식을 내어와 수수밥 등을 먹었다.

줄다리가 완전히 끝나면 동네 어른끼리 모여서 마을 공동 관심사를 의논하는 동 네회의를 열었다. 호피마을은 지금(1986년 당시) 농악은 하지만 줄다리는 하지 않 는다. 줄다리를 하지 않으니까 동네회의도 자연 없어졌다.

마을에서 진행하던 줄다리는 1980년대에 중단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줄다 리기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운동회, 그리고 민민의날 등의 행사에서 행해지고 있다.



〈사진 4〉 울도의 당 내부 제기(1987년)



〈사진 5〉 2008년 민민의날 줄다리기(김진오 제공)

3. 신명풀이와 공공기부로 진행된 '농악(건구)'

1) 전승현황

장산도에서는 농악을 '건구' 또는 '건굿' 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마을마다 정월에 당산굿과 마당밧이, 줄다리기 등을 하면서 전승하였으나, 현재 마을 단위 전승은 중단된 상태다. 신안지역 일대에서 농악은 동제와 결합되어 전승되었다. 장산도의 경우 동제는 대부분의 1950~60년대 이전에 중단되었지만, 농악은 80~90년대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대개 동제를 진행할 때 유교식 제사나 무당굿 후에 농악을 연행하는데, 장산도의 경우 오래 전에 유교식제사는 중단되었고 농악으로서 행해지는 당산굿이나 당굿 등은 근래에까지 전승되었던 것 같다.

농사와 관련되어 여름철 드레굿(두레굿)을 연행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과거 1950~60년대까지 마을마다 20~40대 청년들이 드레(두레)를 조직하여 풀베기와 김매기를 하였다. 이들은 일터에 나갈 때 사물악기로 쇠, 징, 장구, 북 등을 마련하여 길굿을 치면서 이동하였다. 그리고 김매기를 할 때 들노래에 맞춰 사물악기를 연주하고, 세 벌 김매기를 마친 후에는 머슴을 소에 태우고 들어와서 농악을 치며 놀았다. 드레굿의 형태는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장산도 들노래의 공연으로 행해지고 있다.

농악은 공공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걸궁으로도 자주 연행되었다. 대개 마을마다 마당밧이를 하여 걷은 자금으로 공공기금을 마련하고 공적 시설물들을 보수하였다. 오음리의 경우 걸궁을 하여 마을 뒤 우슬(방풍림) 부지를 매입하였다고 한다. 이외에도 마을의 다리를 놓거나 노인정을 건립하고, 학교를 세우기 위해 타 마을과 인근 지역을 돌면서 걸궁을 하였다. 근래에 면 단위로 행해진 걸궁으로는 예비군 중대본부 걸궁과 장산도들노래전수관 걸궁을 들 수 있다. 현재 원불교 교당이 있는 자리에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었는데, 처음 자리에 건물을 세울 때 걸궁패를 꾸려서 기금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1991년 장산도들노래 전수관 건물을 지을 때 부지 구입을 위해 걸궁을 하였다고 한다.

농악의 전승자로는 이귀인(남, 1928년생) 씨와 김상용(남, 1949년생) 씨를 들 수

있다. 이귀인 씨는 장산도들노래 보존회에서 초창기부터 상쇠를 하면서 회원들을 지도하였고, 김상용 씨는 최근에 뒤를 이어 상쇠를 하고 있다. 이귀인 상쇠의 경우 무계 출신으로서 농악과 무속을 포함한 민속음악 전 분야에 소질이 있다. 그래서 2013년에는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52호 신안씻김굿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젊어서부터 걸궁패 상쇠로 활동하면서 목포와 무안 등지에서 상쇠로 초청을 받거나 걸궁을 하였다. 1991년에는 무안군 청계면에 걸립패 상쇠로 초청받아 의용소방대 소방차를 구입하는 걸궁을 해주었고, 같은 해에 장산도들노래보존회에서 기금마련을 위해 걸궁을 할 때 상쇠로 활동하였다.

이귀인 상쇠는 현재 연로한 상태여서 농악대를 지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앓은 상태에서 가락을 연주하고 대화를 진행하였다. 본고에서는 이귀인 상쇠와의 면담 내용을 토대로 장산도의 농악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도록 한다.

2) 치배의 편성

농악대의 치배들은 ‘군중’이라고 호칭한다. 그래서 ‘군중들’ 하면 으레 농악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통용되었다.

광대들 - 농기 - 영기 - 나발 - 설쇠 - 종쇠 - 끝쇠 - 징 - 설장구 - 종장구 - 종장구 - 설북 - 중북 - 소고

광대가 기보다도 앞장서서 들어간다. 그래야 거기서 인도를 하면 모도 따라 들어간다. 광대에는 모도 팔리다.

(1) 기수

- 농기 1명 : ‘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쓰인 만장 형식의 깃발이다.
- 영기 2명 : 깃발에 ‘승’이라고 쓰여있고, 깃발 위에는 삼지창이 꽂혀있으며 2개가 세트처럼 함께 움직인다.

(2) 취수

- **나발** : 나발을 쇠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명칭은 나발이다. 마을에 들어갈 때나 집안으로 들어갈 때 길게 불어서 신호를 한다. 복색은 고깔을 착용하고 삼색띠를 맨다.

(3) 악기수

- **쇠 2~3명** : 상쇠(설쇠), 중쇠, 끝쇠의 순으로 상모를 착용하고 삼색띠를 맨다.
- **징 1~2명** : 설징, 부징으로 편성된다. 고깔을 착용하고 삼색띠를 맨다.
- **장구 3~4명** : 상장구, 중장구, 종장구 순으로 편성된다. 상모를 착용하고 삼색띠를 맨다.
- **북 3~4명** : 설북, 중북, 끝북으로 편성된다. 고깔을 착용하고 삼색띠를 맨다.
- **소고 10여명** : 설소고와 소고들로 편성된다. 고깔을 착용하고 삼색띠를 맨다.

(4) 잡색(광대)

장산도에서는 잡색을 통합하여 부르는 명칭은 없다. 다만 비슷한 의미로 ‘광대들’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잡색들 전체를 광대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잡색들은 마당밧이를 할 때 앞잡이로서 선두에서 이동하여 집주인과 상의를 하고, 춤을 추거나 우스개소리를 하면서 판의 흥을 돋운다. 마당밧이나 판굿 등에서 놀이판이 벌어지면, 잡색들끼리 짝을 지어서 연극적인 놀이를 하며 좌중을 웃긴다. 대개 비비각시가 조리중이나 광대들과 짝을 이루어 서로를 희롱하고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는다. 예를 들어 광대가 “너 죽어도 나 못살고, 나 죽어도 너 못사니, 너와나 100년 가약 살아보세.”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어째 너와 나와 언약을 해서 너는 죽어서 꽃이 되고, 나는 죽어서 나비되어 이삼사월 춘풍시절 니 꽃 위에 날아들든 주야 사랑... 나인줄 알아.”라는 식으로 노래를 부르면, 비비각시도 그에 맞춰서 실랑이를 하듯이 대꾸를 하거나 우스개소리를 한다. 또 광대들끼리 서로 비비각시를 차지하기 위해 실랑이를 하는 장면도 연출된다.

- **조리증(조리광대)**

조리증 또는 조리광대라고 부른다. 광대를 쓰는데 수염이 없고 눈을 동그랗게 그린다. 광대는 언뜻 보면 새나 짐승처럼 보일 정도로 간단하게 그렸다. 모자는 짚으로 간단히 짚어서 삿갓형태로 만들어 착용하고, 옷은 중처럼 장삼을 입는다.

- **양반광대**

얼굴에 종이로 광대를 만들어 착용한다. 양반처럼 보이도록 도포를 입고 관을 쓰고, 얼굴에는 광대 위에 수염을 달았다.

- **상놈광대**

얼굴에 광대를 착용한다. 짚으로 짠 벌떼집 형태의 모자를 만들어서 착용하고 모자 옆에 핑털을 끼운다. 옷은 보통의 바지저고리를 입는다.

- **비비각시**

빨강치마에 노랑저고리를 입고 여자처럼 화장을 하며 머리에 수건을 쓴다. 걸궁을 갈 때는 마을과 서신을 주고받는 심부름꾼 역할을 한다.

- **총잡이(포수)**

모자를 크게 세워서 꽃처럼 술을 단다. 총을 메고 다니며 총쏘는 시늉을 한다.

- **무동**

긴 장삼을 입고 갓을 쓰고 양반춤을 추고 다닌다.

3) 농악의 종류와 연행내용

농악의 종류는 크게 정월 보름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보름굿과 농사철의 드레굿, 공공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걸궁굿 등이 있다.

- 보름굿 : 당산굿, 새미굿, 판굿, 마당밧이
(새미굿, 새립굿, 마당굿, 성주굿, 조왕굿, 오방굿, 철룽굿, 노적굿, 마구간굿)
- 드레굿 : 농사철에 사물악기를 편성하여 드레꾼들이 이동할 때 길굿 연행. 마지막 김매기 때 마을잔치를 하며 드레굿
- 걸궁굿 : 문전굿, 들당산굿, 새미굿, 판굿, 마당밧이(위와 같음)

• 문전굿

절차 : 길굿-모임굿(절)-빠른장단-음마깡깡-맺음굿

내용 : 농악대가 마을로 들어갈 때 주민들로부터 허락을 구하는 절차다. 농악대가 마을 입구에 도착하면 비비각시를 시켜서 걸궁의 목적과 사유를 담은 문서를 마을로 보낸다. 그러면 마을에서는 회의를 하여 ‘너희들은 들어오면 안된다’ 또는 ‘들어와도 좋소’ 라는 답서를 써서 보낸다. 허락을 받아내면 감사하다는 의미로 문전굿을 친다.

• 들당산굿

절차 : 쟁풀이(쟁풀이 가락에 맞춰 진풀이와 덕석몰이 등을 연행함)

내용 : 마을로 들어가면서 치는 농악을 들당산굿이라고 한다. 영기를 앞세우고 쟁풀이를 하면서 마을로 들어간다. 이때 조리중이나 비비각시, 광대 등이 춤을 추면서 들어간다.

• 인사굿

순서 : 모임굿(절)-빠른장단-음마갱갱-모임굿(절)

내용 : 걸립농악대가 마을로 들어서서 마을과 주민들을 향해 인사를 하는 절차다. 농악대가 일렬로 서서 “동중 문안이요~”라고 인사를 한다. 예를 들어 마초마을 앞에서 인사굿을 치게 되면 “마초머리 문안이요~”라고 외치며 인사를 한다.

• 새미굿

순서 : 빠른장단-음마갱갱-빠른장단-음마갱갱-빠른장단-음마갱갱-맺음굿-축원과 구음-쌈굿-빠른장단-음마갱갱

내용 : 마을 우물을 돌면서 치는 농악이다. 도착하면 상쇠가 “일 년은 열두 달이요, 날로 치면 365일이요, 하루도 쉬지 않고 물이 콩콩 솟아라”라는 축원을 하면서 마지막에 “콩콩 솟아라”라고 농악대가 함께 외치고, 새미굿을 친다.

• 당굿

순서 : (11채굿과 12채굿 가락을 연주하는데 정확한 순서와 가락을 파악하지 못함)

내용 : 당산에 올라서 당할아버지와 당할머니께 인사하고 농악을 치게 되었음을 고하는 절차다. ‘일 년이면 12달 날로 치면 365일, 부락민을 무사태평하게 해주시고, 부락민을 만수무강하게 해주시라’ 라고 기원하는 의미로 농악을 연행한다.

• 새립굿

순서 : 길굿-모임굿-새립굿-빠른장단-음마갱갱

내용 : 집 대문 앞에서 치는 농악이다. 농악대가 문 앞에 도착해서 “권권 계시오”라는 구음의 문굿 가락을 연주한다.

• 마당굿

순서 : 길굿(1채)-2채-3채-4채-5채

내용 : 집안에 들어선 농악대가 마당을 돌면서 치는 농악이다. 집에 들어서면서부터 갈-자-모양으로 마당을 돌면, 광대가 짚을 깔고 그 위에 상을 놓으며 물을 한 그릇을 떠놓으며 절을 한다. 광대가 절을 하면 집주인이 상에 쌀과 돈을 놓으면서 춤을 춘다. 그러면 광대가 돈을 양손에 쥐고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춤을 춘다.

마당굿에서는 1채부터 5채까지 순서대로 치는데, 마당이 넓은 집에서는 판굿에서 하듯이 상쇠-설장구-설징-설북-설소고-잡색 등이 차례대로 나와서 개인놀이를 한다. 상쇠가 1채부터 5채까지 연주하는 가락에 맞춰서 개인놀이를 하고, 설장구가 똑같은 순서대로 개인놀이를 하는 형식이다. 그리고 마당굿 중간에 집주인이 술과 음식을 들고 나와서 대접을 한다. 그러면 상쇠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런 볼자구 없는 곳을 보람있게 봐주신...” 등등의 말을 하여 감사를 표하고, 광대와 군중들이 술타령이나 우스개소리를 하며 흥겹게 논다. 노래는 아래와 같은 사설의 노래를 부른다.

[노 래]

막걸리 한 잔에

내 중신 현 놈아

오뉴월 삼복에

염병을 앓어라

너도 념의집 귀동자요

나도 남의집 귀동자라

너와 나와 연애를 걸라믄

화초밭에서 연애를 걸고

너와 나와 이별 재판을 할라믄

재판소 문앞을 거쳐보세

• 조왕굿

순서 : 빠른장단-음마갯갯-빠른장단-음마갯갯-축원-빠른장단-음마갯갯

내용 : 부엌의 조왕신에 인사하고 축원하는 농악이다. 상쇠와 군중들이 부엌에서 “식사같은 것 밥해먹는 것은 이상 없이 잘 해주쇼”라는 말과 함께 “정재구석도 네 구석 마래구석도 네 구석 방구석도 네구석 삼사십이 열두구석 잡귀잡귀 몰아다가 흑수 바닥에 던지고 명과 복은 끌어보세.”라고 외친 후 농악을 친다.

• 성주굿

순서 : 빠른장단-음마갯갯-삼채-축원-성주풀이 노래-1채-2채-3채-4채-5채

내용 : 집 안의 성주신과 조상신을 모시고 있는 마래로 들어가서 성주굿을 친다. 성주굿에서는 성주풀이 노래를 부른다. 성주에 들어서면 상쇠가 “이 집 좌향을 살펴보니 좌청룡 우백호라 용의 머리 터를 닦고 등에 집에 빌려 명당의 씨가 분명하구나. 일년은 열두 달 날로서는 365일에 무사태평으로 점지하십시오.” 하고 축원을 한 후 성주풀이 노래를 한다.

[성주풀이]

에라만수 에라 대신아

대활연으로 설설이 나립소사

성주야 성주야

성주 근본이 어디든가

경상동 안동땅

제비전의 술씨 받아

무등산에 던졌더니

밤으로는 이슬맞고

낮으로는 양기쫓여

그 술 점점 자라나
 황장목이 되었구나
 청장목이 되었구나
 도리지동이 다 되었네
 웃넙에는 진주야
 아랫넙에는 박지우야
 삼십먹고 대양받고
 연장망태 옆에찌고
 서산에 올라 서목 비고
 대신에 올라 대목 비고
 금띠 띄고 씻는 나무
 어기영차 띠머다가
 먹통 자대를 옆에 놓고
 굽은 나무는 잡어들고
 잡던 나무는 곱다듬아
 한 도막을 갈랐네
 상기등을 세우시고
 또 한도막을 갈랐네
 중기등을 세우기고
 삼시도락을 갈라내어
 지동 몇이 때를 올려
 머리 위에 씨클 걸고
 씨클 위에 알매 얹고
 알매 위에다 황토 받아
 황토 위에 지와 얹어
 이 댁 명당이 분명하구나

이 집 짓은 삼일만에
복덕새가 날아들어
날개 한 번 똑딱 치면
천석궁이 불어나고
날개 두 번 똑딱 치면
이천석이 불어나고
날개 세 번 똑딱 치면
산천석만 불어만 난구나
에라 만수
에라 대신아
대환연으로 설설이 나립소사

• 철룽굿

순서 : (성주굿과 유사한 순서로 진행한다.)

내용 : 집 뒤편(뒤뜰)에서 치는 농악이다. 일반적으로 철룽은 터주나 뒤뜰의 장독대에 좌정한 신을 의미한다. 이귀인 상쇠는 “개괴기도 안먹고 옷줄에서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추한 고기를 안먹어. 그랑께 거그따 철룽을 모시고 물 떠놓고 항상 촛불 켜놓고 거그따 공을 드려. 그랑께 ‘공긔’ 을 거그다 쳐주고 가.”¹⁾ 라고 설명한다.

• 노적긔

순서 : (성주굿과 유사한 순서로 진행한다.)

내용 : 부잣집의 경우 노적긔를 치기도 한다. 노적(곡식)을 쌓아놓은 창고에 들어가서 축원하는 농악이다. 상쇠가 “앞 노적도 천 석이요, 뒷 노적도 천 석이요. 동서남북 노적을 이 창고로 모도 몰아들여서 우환작착 근심걱정은 몰아래로 자살하고 명과복은 끌어들여보세~”라고 축원을 하고 노적긔를 친다.

1 박흥주, 「장산긔의 지킴이 이귀인 선생」, 「긔」, 긔연구소.

• 마구간굿

순서 : (성주굿과 유사한 순서로 진행한다.)

내용 : 우마가 있고 마구간이 마련되어 있는 집에서는 가축들이 건강하기를 기원하며 마구간굿을 친다. 상쇠가 “좌형은 천리마요 우형은 백로천이라 잡귀잡귀 몰아내고 명과복은 끌어들여보세~”라고 축원을 하고 농악을 친다.

• 오방굿

순서 : 1채(길굿)-3채-4채-5채

내용 : 가정집의 마당밭이를 마치면서 집 둘레를 돌며 치는 농악이다. 오방신에게 오방 잡귀들의 액을 막아달라고 기원한다. 상쇠가 오방의 용왕을 부른 후에 축원과 액막이를 한다.

동에 청제용왕 ~

남에 적제용왕 ~

서에 백제용왕 ~

북에 흑제용왕 ~

중앙 황제용왕 ~

황와동심(和祐同心)해서 잡귀잡귀는 허수바닥에 던지고 명과복은 끌어들여보세.

• 판굿

순서 : 1채-2채-3채-4채-5채

내용 : 판굿은 낮에 연행했던 농악 전체를 종합하여 연행하는 종합굿이다. 판굿은 밤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새도록 노는 굿이기 때문에 마당이 넓고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부잣집을 섭외하여 연행한다. 판굿을 치면 마을의 남녀노소 모두 구경하러 나와서 밤새도록 춤을 추며 논다. 그러면 집주인이 나와서 막걸리를 동우채로 걸러서 대접하고, 닭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음식을 대접한다. 한 판 즐겁게 노는 굿을 한 다음에는 영기를 마당 가운데에 세워놓고 술과 안주를 부으면서 농악대 군중들이 사고 없이 그날그날 무사하기를 기원한다. 고사를 마친 후 다시 갓은 장난의 놀이판을 벌인다.

- 1채 (길굿)

쇠	갠	갠		갠		갠		갠		지	갠	갠		갠	
	갠	갠	지	갠	지	갠		갠	지	갠	지	갠	갠	갓	갠
징	등														
장구	등	등			등		등	리	등	등	등	등		딱	딱
	덩	다	구	다	구	덩		다	구	다	구	덩		딱	

- 2채

쇠	개	갠	지	개	갠	지	개	갠	지	개	갠	지	변형반복
	갠	지	갠	지	갠	지	갠	지	갠	지	갠	지	
	개	갠	지	개	갠	지	갠	지	개	갠	지		

- 3채

쇠	갠		갠		개	개	갠	지	개	개	갠		암수 형태로 자유롭게 변주
	개	갠		개	갠		갠	지	개	개	갠		
	갠		갠		갠	지	갠	지	개	개	갠		
	개	갠		지르	갓		갠	지	개	개	갠	지	
	갠		개	개	갠	지	갠	지	개	개	갠	지	
개	갠		갠		개	갠	지	개	개	갠			

- 4채 (2채와 가락의 구성은 비슷하지만, 가락의 속도가 빠르다.)

쇠	개	갠	지	개	갠	지	개	갠	지	개	갠	지	변형반복
	갠	지	갠	지	갠	지	갠	지	갠	지	갠	지	
	개	갠	지	개	갠	지	갠	지	개	갠	지		

- 5채

쇠	갠			갠		지	갠		지	갠			반복
	갱		갱		갱		갱		갱		갱		맺음
	갱			갠		지	갱		갓				
징	징			징			징			징			



《사진 6》 문전굿 (1991년, 김진오 제공)

4. 무속의례와 씻김굿

■ 참고문헌

- 이경엽, 『장산도의 무속』, 『남도민속연구』 3집, 남도민속학회, 1995.
- 김진오, 『장산도의 민요와 민속』, 참글문화, 2013.

1) 굿을 전승하는 예인들

장산도의 씻김굿을 전승하는 무속예인으로는 이귀인(남, 1928년생), 강부자(여, 1938년생), 진금순(여, 1940년생) 등 세 명이 있다. 이귀인 씨가의 경우 8대조인 이원택(?) 대에서부터 무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한다. 이귀인의 설명에 따르면, 이원택은 왕족이었는데 죄를 지어서 흑산도로 귀양을 왔다가 생계를 위해 단골행세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흑산도 예리에 정착한 이원택에게 아들이 셋 있었는데, 두 사람은 육지로 돌아가고 한 사람만 남아 그 후손들이 무업을 잇고 있다고 한다. 이후 조부 이기홍 대에 도초도에서 장산도로 이주하면서 이귀인까지 이어졌다.

이귀인은 굿음악의 반주를 맡는 鼓人으로 장구와 피리 등의 연주에 능하다. 마을에 놀이판이 벌어질 때 중심이 되는 인물로, 인근마을에까지 상여소리를 부르러 다니기도 한다. 부부의 활동으로 이름이 알려져 장산도의 ‘예술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강부자 씨는 진도군 의신면 금갑리에서 태어나 장산도로 시집왔다. 처녀 때에는 무업에 관여하지 않다가 시집와서 시어머니에게 무속을 배웠다. 그는 현재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장산도 들노래>의 기능보유자로서 무굿 뿐만 아니라 민요에도 뛰어나 그 예능을 인정받고 있다.

진금순은 결혼 후부터 무굿을 익히기 시작했다. ‘시집와서 보니 가정형편이 곤란해서 책피를 무릅쓰고 무업을 잇기로 작정하여 기능을 익히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의 예능은 친정과 시가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다. 친정으로는 어머니와 작은어머니에게 배웠다. 작은어머니가 써준 육갑을 배웠으며, 지금 알고 있는 ‘좋은 말’은 그녀에게 배운 것이라고 한다. 시가로는 시할머니 박말례와 올케 이귀덕에게서 배웠다.

진금순의 경우도 본래 무업을 하던 집안이 아니라고 한다. 과거 윗대 할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도초도로 귀양을 왔고, 무업을 하던 할머니를 만나 무계집안이 되었다고 한다. 진금순의 부친 진진옥과 작은아버지 진진수는 명인으로 널리 이름을 날린 사람이었다. 부친 진진옥은 젊었을 때 ‘협률’을 다녔다고 하며, 중국, 일본까지 나가서 활동했다고 한다. 예능으로는 특히 피리를 잘 불었다고 한다. 그는 늙어서는 낫이나 호미를 만드는 성냥간을 했는데, 진금순이 어렸을 때 본 부친의 모습이라고 한다. 장산도에서 활동하는 세습무들과 그들의 특징은 무계 성립과정이 유배와 관련되는 점이다. 윗 조상은 신분이 왕족이거나 벼슬아치였는데, 귀양살이를 왔다가 나중에 무계와 관련되었다고 한다. 이 유래담은 무가의 <공심전설>을 생각나게 한다. 세습무들은 <안당굿>에 나오는 인물 ‘공심’에 대한 구전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이 <공심 전설>도 무당이 본래는 천인이 아니라 공주였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세습무계에 속한 사람들이 당대의 예술가로서 활동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진금순 씨의 무계에서 보듯이 당대의 명창들과 전문예인들이 유랑을 하던 협률사에 관여하였고, 이귀인 씨도 걸궁패의 상쇠로서 장산도 뿐만 아니라 목포 일대까지 공연을 다녔다.

2) 굿의 종류

굿의 종류는 크게 씻김굿, 혼건지기굿, 망자혼사굿, 호강굿, 성주굿, 도신, 지양풀이, 액막이굿, 영신굿 등이 있다.

• 광머리씻김굿

광머리씻김굿은 초상이 나서 관을 두고 진행되는 씻김굿을 말한다. 광머리씻김을 해주는 것이 다른 때 열 번하는 것보다 좋다고 한다. 사람이 죽으면 손발을 묶고 목욕하고 소다름(소렴)을 한다. 사망 후 곧 망자의 옷을 지붕에 던지면서 “신안군 장산면 공수리 ○○○댁 복! 복! 복!”이라고 외친다. 이것을 ‘혼 뿌린다’ 또는 ‘혼 얹힌다’라고 한다. 그리고 망자를 저승으로 데리고 가는 저승사자를 위해 사자밥을 놓는다. 저승사자는 3명이 함께 다니기 때문에 밥 세 그릇, 짚신 세 켤레, 나물 세 접시, 동전 세 개를 놓는다. 망자가 입관할 때에는 ‘봉패줄’로 묶고 동십자가 되게 한다. 동십자란 앞은 田자가 되게 하고, 뒤는 十자가 되게 묶는 것을 말한다. 이후 관을 놓고 씻김굿을 한다.

- **날받이 씻김**

망자가 죽은 후 소상이 되는 날 소상씻김굿을 하고, 대상이 되어 탈복을 하면서 대상씻김굿을 한다. 이외에도 곱머리씻김이나 소상·대상씻김을 하지 못했을 때는 별도로 날을 받아서 씻김굿을 한다.

- **혼건지기굿(용굿)**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었을 때 바다에서 혼을 건져 천도하는 혼건지기굿을 한다. 혼건지기굿을 하게되면 먼저 잎사귀 있는 장죽대를 준비하여 “전라남도 신안군 장산면 〇〇리 〇〇〇 씨댁이 수사하였으니 혼을 건진다.”고 명필을 써서 오대용왕께 빌고, 작은 종이를 잘라서 동서남북을 쓴다. 제상은 죽은 망자를 위한 망자상과 동해청제장군, 북해흑제장군, 남방적제장군, 서해백제장군, 중앙황제장군 등 오대용왕을 위한 용왕상을 차린다. 제상 옆에 헌식상도 놓는다. 진설을 마치면 용왕밥을 깨끗한 백지에 5개에 싸서 바다에 던진다. 제수는 옛날에는 통돼지였으나 요새는 산 닭을 넣는다고 한다. 산 닭은 죽은 사람 혼을 건져낸 대신으로 넣는 것이다.

굿을 할 준비를 마치면 바다의 5대용왕을 청하여 망자를 놓아달라고 빈다. 바다에 냇그릇을 묶은 신대를 넣고 가족이 신대를 잡게하면 굿을 할 준비가 끝난다. 이후 무녀와 악사가 무가와 악기를 연주하며 굿을 하면 신대로 신호가 와서 냇을 건져올리게 된다. 냇을 건져올리면 이를 집안으로 모셔서 씻김굿을 하여 천도시킨다.

- **호강굿**

사람이 죽거나 아파서 하는 굿이 아니라 산 사람을 직접 위해서 하는 굿이다.

- **성주굿**

집을 새로 지었을 때 하는 굿이다.

- 도신

정초에 새해의 운수를 비는 곳이다.

- 지양풀이

애를 갖게 해달라고 기원하거나, 태어난 아이의 명이 길고 탈 없이 자라도록 기원하는 곳이다.

- 액땀이굿

정초에 선영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집안에서 부인네들이 안굿을 하여 일년신수 나쁜 것을 막는다. 진금순 씨에 의하면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까지도 액땀이굿을 청하는 집들이 더러 있었으나 현재는 그마저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 영신굿

영신굿은 뱃굿으로서 행해지는 곳이다. 정월이나 가을에 흥도나 태도 등 바닷가에서 고기가 많이 잡히라고 사해용왕, 각시서낭, 영감서낭, 배서낭께 기원하는 곳이다. 굿의 진행은 안서낭(안탁굿), 용왕제, 사대용왕, 서낭풀이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 혼백굿

죽은 망자가 처녀나 총각인 상태로 죽었을 경우 저승에서의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영혼들을 결혼시키는 혼백굿을 한다.

허수아비로 죽은 망자들의 신체를 만들고 그 위에 신랑신부의 사모관대를 입혀서 영혼을 결혼시키는 씻김굿(혼백굿)을 진행한다. 혼백굿을 한 후에는 두 망자가 저승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어 살게된다. 이때 죽은 영혼들의 결혼으로 인해 살아있는 가족들도 사돈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 뱃고사

옛날에는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뱃고사를 지냈으나, 현재는 거의 없어진 상태다. 주로 봄철 출어시에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상차려놓고 굿을 한다. 굿을 하지 않고 선주나 선장이 간단히 고사를 지내기도 한다.

3) 씻김굿의 절차와 내용

씻김굿은 크게 진굿과 마른굿으로 구분된다. 진굿은 초상이 나거나 비통한 죽음일 경우에 하는 씻김굿을 말하고, 마른굿은 재수굿으로서 날받이를 하여 씻김굿을 하는 것을 말한다. 진굿일 경우 조왕굿이나 제석굿 등을 생략한다.

조왕굿의 경우 진굿의 상황과 부정하다고 하여 생략하는 경우가 많고, 제석굿은 재수굿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간단히 날받이 씻김굿의 절차와 내용을 파악해본다.

〈표 1〉 장산도 씻김굿의 절차

절차				
순서	황루시(1995) 조사자료	최덕원(1990) 조사자료	이경엽(1995) 조사 이귀인 구술	이경엽(1995) 조사 진금순 구술
1	조왕반	조왕굿	조왕굿	조왕반
2	안당	안당굿	성주굿	안당
3	성주굿	성주굿	안당굿	성주굿
4	초가망	초가망상	초가망석	초가망석
5	손굿	손굿	손굿	손굿
6	제석굿	제석굿	오구굿	제석굿
7	고풀이	오구머리굿	제석굿	고풀이
8	넛풀이	고풀이	고풀이	넛올리기
9	오구머리	넛풀이	넛올리기	오구굿
10	씻김	씻김굿	씻김	씻김
11	길뒹음	길뒹음굿	길뒹음	길뒹음
12	망자놀이	망자굿	해원굿	망자놀이
13	오방굿	오방굿(설양굿)		해원
14	사자굿	중천해원굿(거리굿)		
15	해원굿(중천맥이)			

- 조왕굿

부엌에서 조왕신께 굿을 하게되었음을 고하고 액막이를 한다.

- 성주굿(안당굿, 안굿)

조상신과 집안의 가택신에게 굿하는 것을 알리고, 성주를 위한 굿으로서 말리(마루)에서 연행한다. 안당굿과 성주굿은 연이어져 진행하기 때문에 연결된 굿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 초가망석(마당굿)

마당에다 굿 당을 만들고 고조부부터 아래 조상까지 상을 차려 놓고 인사를 하는 데서부터 굿이 시작된다.

- 손굿

손굿은 마마를 옮기는 손님신을 달래는 굿이다. 마마는 열이 몹시 나고 몸에 발진이 생기는 급성전염병이고 사망률이 높아서 아주 무서워했다. 발진이 생긴 자리는 딱지가 생기는데 저절로 떨어지기 전에 긁으면 얽게 된다. 그래서 손님굿을 하여 자손이 마마로부터 무사하기를 기원하는 굿이다.

- 제석굿(중굿)

제석굿은 중굿이라고도 한다. 제석은 본래 천신의 계통인데 불교신과 습합되면서 불교의 신으로 인식되고 있다. 제석은 생산과 생명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긴다. 즉 한 집안 사람들의 수명, 곡물, 의복 등 모든 재물과 길흉화복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신이다. 집안에 복을 가져다주는 신이기 때문에 날받이로 하는 재수굿 형태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굿거리다. 씻김굿에서 무녀는 흰색의 치마저고리만 입고 굿을 하는데, 제석굿에서 유일하게 장삼과 고깔을 쓴다.

- 오구굿

다른 지역에서는 오구굿이 큰 굿의 이름이지만, 호남에서는 씻김굿의 한 절차 이름이다. 오구는, ‘귀신을 즐겁게 한다.’(오귀 娛鬼)라는 말에서 나온 이름으로 짐작된다. 오구굿은 저승세계를 다스리는 바리데기 신을 청해 망자의 극락 천도를 축원하는 절차다. 이 굿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바리데기의 내력을 풀어가는 ‘바리데기 신화’다.

- 고평이

죽은 명인의 원한을 풀어주는 거리다. 흰 면포로 일곱 개 또는 열두 개의 매듭을 만들었다가 무가를 가창하면서 풀어낸다. 이때 매듭을 ‘고’ 라고 하고, 고가 풀리듯이 망자의 원한이 풀리라는 의미에서 고평이를 하는 것이다.

- 냇올리기

일명 냇올리기라고 한다. 망자의 신체를 한지로 오려서 인간의 모습으로 만드는데 이것을 냇이라 한다. 망자로 상징되는 냇을 가족들의 머리위에 올려놓고 신칼로 들어 올린다. 이러한 냇올림은 망자의 한을 풀어주어 죽은이와 산 사람을 절연시켜주는 것이다.

- 씻김

씻김은 망자를 정화시켜주는 절차다. 고평이와 냇올리기 등을 통해 망자의 원한을 풀어준 후 저승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썩물과 향물, 맑은물로 씻겨주는 것이다. 망자의 옷을 띠자리로 말아서 일곱 매듭으로 묶어 망자를 상징하는 영돈을 만든다. 영돈의 가장 윗부분에는 냇을 담은 냇그릇과 솔뚜껑이 놓인다. 영돈이 완성되면 가족들이 영돈을 잡고 꿰어얹고, 무녀가 무가를 가창하면서 썩물과 향물, 맑은물로 영돈을 씻어낸다.

- 길뒹음

망자의 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곳이다. 질베(무명천)를 길게 펼쳐서 망자가 저승으로 가는 길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질베 위에 상여 모형을 축소해서 만든 넋상자인 당석과 지전을 올려놓고 서서히 밀고 다니면서 망자를 극락세계로 인도한다. 이때 가족과 구경꾼들이 망자의 저승 가는 노자 돈을 질 베 위에 놓는다.

- 망자놀음

망자의 옷을 양손에 춤을 추는 곳이다. 망자의 한을 풀어주고 정화하여 저승으로 인도하였으니 마지막으로 즐겁게 놀고 가라는 의미의 곳이다.

- 오방굿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굿에 따라들어온 잡귀들을 몰아내고 복을 기원하는 곳이다.

- 해원

씻김굿의 마지막 절차로 닭과 신갈을 들고 방과 마루 부엌 등 집안을 돌면서 온갖 잡귀들을 집 밖으로 쫓아내는 곳이다. 그런가 하면 잡귀와 잡신들을 잘 달래 풀어먹이는 거리가기도 하다. 굿판에는 머물 곳 없이 떠도는 객귀들이 굿하는 소리를 듣고 몰려와 있는데, 마지막 절차에서 이들을 잘 풀어먹여 보내게 된다.



〈사진 7〉 2014년 광주예술난장 초청공연에서 굿을 하는 진금순 씨.



〈사진 8〉 2014년 장산도 찾아가는 섬포럼 행사에서 오구굿을 하는 진금순 씨



〈사진 9〉 2014년 목포대학교 행사 때 씻김굿 약사로 공연을 하고 있는 이귀인 씨

5. 열두 달 세시풍속

■ 현지조사

- 조사일시 : 2014년 9월 12~13일
- 조사장소 : 신안군 장산면 마초리
- 제 보 자 : 진금순

■ 참고문헌

- 이종철 외, 『신안군 장산도 · 하의도 신앙민속』, 『도서문화』 제3집, 1985.
- 김진오, 『장산도의 민요와 민속』, 참글문화, 2013.

장산면의 세시풍속은 1985년 이종철 · 선영란 등이 조사하여 『도서문화』 제3집에 보고되었고, 2013년 김진오 전 면장이 『장산도의 민요와 민속』을 통해 정리하여 보고하였다. 기존의 보고서를 통해 세시풍속 전반이 파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는 과거의 상황 등을 파악하고, 변화된 상황을 점검하며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도서문화』 제3집과 『장산도의 민요와 민속』에서 파악한 것을 종합하고, 필자가 조사한 부분을 일부 추가하여 정리한다.

장산면의 세시풍속은 농촌 절기를 중심으로 전승되었고, 대부분의 절기마다 차례를 지낸 것으로 파악된다. 그중에서 가장 큰 명절은 설, 보름, 단오, 유두, 백중, 한가위 등이었다. 지금은 과거에 전승되던 다양한 세시풍속이 중단되고 축소되었다.

명절도 설과 한가위만 크게 전승되고 있고, 나머지 명절과 명절에 행하던 놀이들은 중단되었다. 근래에 새로이 변화된 양상이 발견되는데,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를 마을의 잔치로 행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표 2〉 세시풍속 목록

시기		세시풍속	음식	전승 현황
(음력)월	절기	내용		
1월	설	차례, 성묘, 세배, 복소리 걸기, 머리카락 사르기	떡국	전승
	초순 및 정월 중	웃놀이, 연날리기, 햇불놀이, 널뛰기, 득신 풍년 점치기, 입춘		중단
	보름	보름차례, 더위팔기, 찰밥먹기, 귀밝이술, 부럼깨기, 우지지 세우기, 괘룻점, 줄다리기, 강강술래, 불놀이, 보라지 지지기, 달맞이, 잠 안자기, 사내기 밥주기, 배암갯자 진대갯자, 장 담그기	찰밥 (오곡밥)	약화
2월	초하루	차례, 콩볶아먹기, 영등내림 (바람영등·물영등·불영등)	볶은 콩	중단
	한식	조상묘 산일, 찬밥먹기	숙떡, 흰떡	약화
3월	삼짇날	성주상, 제비가 고향에서 돌아오는 날	시루떡	중단
4월	초파일	공들이기		개별진행
	곡우	곡우		개별진행
	양력 5월 8일	어버이날 마을잔치		신설
5월	단오	차례, 상추이슬로 얼굴 문지르기, 익모초 뜯어 말리기, 창포물 머리감기, 줄다리기, 농악, 그네타기, 널뛰기, 씨름	밀가루전	중단
6월	유두	차례, 메밀전과 시루떡을 하여 마을잔치, 유두살 원독 정비	메밀전, 시루떡	중단
	삼복	삼복날 복다름, 날씨 점치기	개장국, 삼계탕	전승
7월	칠석	차례, 벌초, 대나무 불피우기	밀가루죽, 밀가루전	중단
	백중	차례, 문지지, 마을잔치	문지지(전)	중단
	창호바르기	방문 창호바르기		중단
8월	한가위	차례, 성묘, 강강술래, 달맞이	송편	전승
9월	중구	중구차례, 올벼심리	올벼쌀	중단
10월	문중제사	문중 시제		개별진행
	메주썬기	메주썬기		개별진행
	초가지붕 이영 없기	지붕 이영 없기		중단
11월	동지	동지차례, 팔죽 점보기	팔떡, 팔죽	진행
	성탄절	교회 행사		신설
12월	섣달 그믐	마을청소, 불켜놓기, 염전고사		진행
윤달		수의 만들기, 관 만들기		개별진행

1) 1월

• 설 차례와 세배

설 차례상은 '귀신들 밥은 밤에 차린다' 고 하여 선달그믐 밤이나 정월 초하루 이른 새벽 때 마래에 차린다. 마래는 조상과 성주 등의 가정신이 좌정해 있는 곳이다. 집안에 따라서는 이른 새벽이나 아침에 차리는 집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선달그믐에 차리는 것이 장산을 비롯한 다도해의 풍습이다. 제상에는 국, 밥, 떡, 송어, 해모치(참모치), 장대, 조구, 쇠고기, 돼지고기, 꽃감, 밤, 은행, 잣, 과실, 뜯부기나물, 고사리나물, 도라지나물, 전 등을 올린다. 현재는 떡국을 먹는 경우가 많지만, 과거에는 특별히 떡국을 만들어 먹지 않고 제상에도 밥과 국을 올렸다. 정월 초하루가 되면 아침부터 오후까지 친척과 마을의 어른들을 찾아 세배하고 산소에 성묘를 간다. 집안에 상방이 있을 경우 상방에도 가서 재배를 한다. 세배를 할 때는 덕담을 주고받았다. 집안에서 세배가 끝나면 일가친척 가운데 향렬이 높고 나이가 많은 어른부터 찾아 세배를 한다.

설날에는 설빔이라고 하여 새 옷을 마련하여 갈아입었다.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가 있다. 설빔을 마련하기 위해 부인들은 설을 앞두고 밤을 새워 바느질을 했다. 설빔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며 색동저고리를 까치저고리라고 한다.

• 복조리 걸기

설날 이른 아침 또는 선달 그믐날 밤 자정이 지나서 복조리를 샀다. 조리는 쌀을 이는 기구로 조리에 쌀이 가득히 쌓이듯이 재물이 일 년 내내 쌓이기를 바라는 뜻에서 복조리를 사서 걸어 두었다.

• 머리카락 사르기(燒髮)

일 년 동안 머리를 빗을 때 빠진 머리카락을 모아 두었다가 설날 저녁에 태우는 풍습이 있었다. 이렇게 머리카락을 사르면 염병(장티푸스)에 걸리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었다. 염병을 앓고 나면 머리카락이 빠지는데, 빠진 머리카락을 태우므로 액땀을 한다고 믿었다.

- 연날리기, 옷놀이, 햇불놀이, 널뛰기

정초부터 보름까지 다양한 놀이들이 행해졌다. 연날리기와 옷놀이, 햇불놀이, 널뛰기 등을 하였다.

- 정초의 금기

정월 초하루부터 열 이틀 사이에 든 십이지신(十二支神)중 쥐, 소, 호랑이, 용, 뱀, 돼지날에는 다음과 같은 금기사항을 지키면서 정초를 보냈다.

- (1) 쥐날(子日) - 일찍 저녁밥을 먹고 이날은 밤에 불을 켜지 않았다. 불을 켜면 쥐가 눈이 밝아져서 쥐가 성하고 집에 피해를 많이 준다고 한다.
- (2) 소날(丑日) - 이 날은 방아를 찧으면 집에서 기르는 소가 기침을 한다고 하여 방아를 찧지 않았다.
- (3) 호랑이날(寅日) - 호랑이날 바깥출입을 하면 호환을 입는다고하여 출입을 금지하였다.
- (4) 용날(辰日) - 용날 물을 길으면 집안의 농사일이나 큰일을 할 때 마다 비가 온다고 하여 전날 물을 길어다 놓고 사용하였다.
- (5) 뱀날(巳日) - 새끼나 긴 지푸라기를 손대면 뱀이 집안에 들어온다고 하여 이 날은 손대지 않았으며 이발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뱀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금기속(禁忌俗)으로 뱀입춘문을 붙였다. 참 종이를 조그맣게 잘라서 붓으로 써서 붙였다.

뱀입춘은 “赤帝子斬之 沛公 巳 江南閻氏速去千里 李三萬斬之”(적제자참지 패공 사 강남각 씨속거천리 이삼만참지)라는 글귀다. 대개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집의 기둥 밑이나 집 주위, 장광(장독대), 뒤뜰, 우물, 축사, 담장 등 곳곳에 거꾸로 붙였다. “적제자”는 뱀을 잘 죽였다고 하는 중국 전한시대 유방을 말하고, “패공”은 유방이 왕위에 오르기 전의 칭호다. “강남각씨속거천리”는 뱀이 멀리 사라지기를 바라는 뜻이고, “이삼만참지”는 뱀에게 물려 죽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뱀을 많이 죽였다는 이삼만을 지칭한다.

그리고 정초에 여자들이 바깥출입하면 집안에 재수가 없다고 하여, 여자들의 외부출입을 금하거나 삼가도록 하였다.

• 득신(得辛) 풍년 점치기

음력 정월 초하루부터 열흘까지 10일간을 이틀씩 묶어 첫 번째 드는 신일(辛日)을 보고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점쳤다. 신(辛)일이 정월 초하루이면 일일득신(一日得辛), 초열흘날이면 십일득신(十日得辛)이라 한다.

예를 들어 1일득신이면 벼의 꽃이 피어 있는 동안이 하루이고, 5일득신이면 벼의 꽃이 피어있는 동안이 닷새, 10일 득신이면 그 기간이 열흘이라는 것이다. 득신이 짧으면 벼의 개화기간이 짧고, 득신이 길면 개화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득신이 중간쯤에 들어야 풍년이 된다고 생각한다.

• 보름차례

보름은 설, 추석과 함께 대표적인 명절이었다. 보름이 되면 콩, 돈부, 찹쌀, 수수, 팥 등을 넣어 오곡밥을 하여 차례를 지냈다. 차례를 지낼 때 음식상을 바깥에도 조금씩 놓는데, 아이들이 조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얻어먹거나 훔쳐먹었다.

조리에 얻어온 밥을 가지고 도구통 위에 올라앉아서 개 한 번 떼어주고 먹으면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어 아이들이 따라하곤 했다. 차례를 마치면 솔잎을 꺾어서 지붕 위에 던지는데, 이를 보고 그 집이 보름을 쇠었는지 안 쇠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

• 더위팔기

보름날 아침에 만나는 사람의 상대방 이름을 먼저 불러서 대답하면 “내더우”라고 한다. 그러면 여름날의 더위를 상대방에게 파는 것이 된다. 상대방이 물었을 때 대답을 하지 않고 “네 한애비 깔다구”라고 응수하기도 한다.

• 귀밝이술

보름날 아침 귀밝이술을 한잔 마시면 귀가 밝아져 잘 들리고 좋은 소리를 많이 듣게 된다고 하여 귀밝이술을 마셨다.

- 부림 깨기

껍질이 단단한 견과류를 한 번에 이빨로 깨물어 마당에 버리면 이가 튼튼해지고 부스럼을 앓지 않는다고 하였다.

- 우지지 세우기

정월 보름에 간짓대에 짚을 묶고 종이를 길게 달고, 알맹이를 털어낸 조와 수수대를 꽃아 놓는다. 이를 우지지라고 하여 마당에 세워놓는다.

- 쾌웁점

정월 보름이 되면 미영대(목화)로 옷 5쪽을 만들어 金, 木, 水, 火, 土를 각각 써놓는다. 이 옷을 두 손에 넣고 일년 행운을 기원하며 방바닥에 던지고, 그중에서 글자가 보이는 것으로 쾌를 찾아 1년 길흉을 점친다. 일반적인 타지역의 쾌점은 도·개·걸·옷을 숫자로 변환하여 점을 치는데, 장산도에서는 오행과 관련하여 점괘를 푸는 것으로 추정된다.

- 줄다리기

호피마을과 사근마을에서는 과거에 줄다리기를 했다. 대개 남녀가 편을 갈라서 줄다리기를 하는데, 여자편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하여 여자편이 이기도록 하였다.

- 강강술래

마을마다 처녀들이나 각시들, 남자들이 모여 함께 강강술래를 했다. 주로 추석에 강강술래를 하는데, 정월 보름에도 강강술래를 했다.

- 불놀이

보름날 저녁에 논이나 밭에 장작을 모아놓고 불을 피웠다. 이때 옆마을이나 건너편

마을과 불피우기 시합을 하는데, 불이 안 꺼지고 오랫동안 타는 쪽이 이긴다. 호피마을의 경우 마진도와 불싸움을 하였다. 이외에도 마을마다 논두렁에 불을 질렀다.

- 보라지 지지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도충을 구제하는 풍속으로 보름날 저녁 텃밭에서 고추대로 불을 피우면서 뜻보라지 지지기를 하는 풍습이다.

- 달맞이

보름달이 떠오르면 언덕에 올라 보름달을 맞으며 새해 소원을 빌고 한해 농사를 접쳤다. 달 아래쪽이 여물면 아랫녔 풍년이 들고 위쪽이 여물면 웃녔에 풍년이 든다고 하였다. 또 달이 붉으면 가뭄이 들고 달이 희면 장마가 든다고 하였으며, 달빛이 맑고 환해야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

- 잠 안자기

정월 보름 저녁에 잠을 자면 눈썹이 희어진다고 못자게 하였다.

- 사내기 밥주기

옛날 집들은 거의 대부분 초가집으로 사내기(노래기)는 짚단이나 초가지붕의 음습한 곳에서 주로 서식하는데 냄새가 아주 고약하다. 그래서 사내기의 서식을 방지하기 위해 산에서 소나무 가지를 꺾어 와서 보름날 아침 일찍 지붕에 던지면서 “사내기 밥주자” 하고 외쳤다.

- 배암꽃자 진대꽃자

원새끼에 머리카락을 군데군데 끼워서 피마자대 끝에 묶는다. 그리고는 한 사람이 피마자대를 끌고가고 다른 한 사람이 피마자대로 새끼줄을 두드리며 따라간다. 이때 “진대꽃자 뱀꽃자”하고 소리친다. 피마자대는 집을 한 바퀴 돈 후에 동구밖에 버린다.

- 장 담그기

지난해 10월 메주를 썬서 잘 발효된 메주로 장을 담그는데 아주 정성을 드려서 한다. 장을 담그기 위해 음력으로 닷새, 열닷새, 스무닷새날 천일염으로 소금물을 풀었다. 닷새가 드는 날에 소금물을 풀면 장이 달고, 장 담그는 옛새날이 되면 옛같이 단 장이 된다고 믿었다.

- 입춘

입춘날은 “立春”이라고 써서 기둥에다 붙인다. 이때는 상을 차리지 않는다. “배암 뱀애”란 글씨를 써서 뱀이 못 들어오게 벽에다 붙인다.

2) 2월

- 콩 볶아먹기

2월 1일은 특별히 이월 초하루라 부르고, 손에 끄시럼이(부스럼이) 일지 않기를 바라며 콩을 볶아먹는다.

- 영등내림

2월 초하루에는 영등할머니가 내린다고 한다. 영등이 내리는 날 바람이 불면 바람 영등이 내렸다고 하고, 비가 내리면 물영등이 내렸다고 하며, 햇볕이 쬐면 불영등이 내렸다고 한다. 바람영등이 들면 그 해에 바람이 많이 불고 추울 것으로 점치고, 물영등이 들면 비가 자주 올 것이라고 점치고, 불영등이 들면 가뭄이 들 것이라고 점친다.

예를 들어서 바람영등이 내리면 “선다섯 하루 아적을 더 불고 올라간다”고 한다. 즉 55일동안 바람이 불고 다음날 아침까지 바람이 분다는 뜻이다. 이 바람이 매서워서 “정월 바람에 댓잎이 마르고 이월 바람에 돌이 튼다.”는 말이 전해져 온다. 그만큼 이월 바람이 매섭고 춥다는 뜻이다. 그래서 비영등이 들어야 농사에 좋다고 생각하였다.

- 한식 쇄기

한식은 四名日(한식, 단오, 추석, 동지)의 하나로서 지켜졌으나 지금은 전혀 행하지 않는다. 한식일은 좋은날이라 하여 조상의 묘를 쓰거나 이장도 하고, 선산에 가투(가토)한다. 한식날은 새벽 일찍 하루 식사량을 지어 온종일 찬밥을 먹으며 불을 피우지 않았는데 “개자추” 추모의 뜻이라 한다. 이날은 떡추름, 썩떡, 흰떡, 밥과 반찬을 장만한다. 그리고 한식날 비가 오면 풍년이 들고 천둥이 치면 흉년이 든다고 하였다.

3) 3월

- 삼월삼진

삼진날은 제비가 고향에서 돌아오는 날이라고 한다. 삼진날은 한식과 마찬가지로 좋은날이라 하여 이장을 하여도 해가 없다고 한다. 이날 성주상을 마래에 차려놓고 쉬는 사람이 많았다. 성주상의 음식은 밥, 시루떡, 나물, 고기 등을 장만하여 올렸다.

4) 4월

- 곡우

곡우날은 하느님이 비를 내리는 날이다.

- 초파일

초파일에는 공을 드리는 사람이 있고,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 대리마을에 있는 원불교로 공을 드리러 가는 사람들도 있다.

- 5월 8일 어버이날

최근에 들어서 어버이날이 되면 마을의 연장자들을 모시고 마을잔치를 한다. 마을마다 자체적으로 회관에 모여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음식을 장만하여 즐겁게 하루를 보낸다.

5) 5월

- 단오

단오는 집안에 따라서 명절로 생각하여 차례를 올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집도 있었다. 차례를 지내는 집에서는 성주상을 차리고, 밀가루전을 부쳐먹었다. 이날 상추 앞에 묻은 이슬로 머리카락이나 얼굴을 문지르면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또 해 뜨기 전 익모초를 뜯어다 말려서 여름에 먹으면 배가 아픈 데 효험이 있었다. 단오날이라고 하여 창포물로 머리를 감고, 밥을 장만하여 마을사람들이 함께 놀기도 했다. 마을에 따라서는 이날 줄다리기와 농악도 하였다. 대개 부녀자들은 그네타기와 널뛰기를 하고, 남자들은 씨름을 했다.

6) 6월

- 유두

마래의 조상들께 밥을 차리고 메밀전이나 시루떡을 하여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다. 조상상과 함께 성주상과 지양상을 차린다. 이날은 마을사람들이 함께 잔치를 하면서 하루를 쉬었다. 유두는 칠월백중과 함께 일 년 중 바닷물이 가장 많이 밀려드는 때로 “유두살”(유두사리)이라 한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이 유두 전에 원둑(방조제)을 울력으로 정비하였다. 섬의 원둑은 염전이나 논을 바닷물로부터 보호해주는 생명선이나 다름없어 이 시기에는 원둑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다.

- 삼복

6월에는 삼복이 드는데 하지로부터 셋째 경일(庚日)이 초복이며, 넷째 경일이 중복, 입추(立秋)로부터 첫째 경일이 말복이다. 삼복은 30일간으로 초복과 중복은 10일, 중복과 말복은 20일간이다. 그러나 입추 날이 경일이면 중복과 말복은 10일 간격이다. 예로부터 삼복이 들면 오던 비로 그친다고 하고, 삼복 농사는 소나기로 지은다고 하였다. 그러나 장산은 높은 산이 없어서 삼복에 소나가는 거의 내리지 않는다.

삼복은 가장 더운 시기로 허해진 몸을 보호하기 위해 복날 보통 개장국이나 삼계탕을 먹으며 원기를 회복하였다. 대부분의 세시풍속이 중단되거나 약해지고 있는데, 복날만큼은 여전히 마을의 잔치로 행해지고 있다.

- 삼복날 날씨 짐치기

삼복에 비가 오면 대추 흉년이 든다. 대추는 초복 무렵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이때 비가 오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삼복에 장마가 지면 콩, 팥, 녹두 등 밭농사가 잘 안되는데 이때는 농작물이 한창 자랄 때이므로 일조량이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흉년이 든다고 하였다.

7) 7월

- 칠석

7월 7일을 칠석이라 부르며 조상님 또는 칠성님께 제사하는 날로 생각하였다. 차례를 올리면서 자식들의 번창과 영달을 위해 기원하였다. 이날은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 또는 '하느님이 할멈 만나는 날'이라 하며 마을에서는 쉬며, 춤을 추고 장만한 음식을 먹고 놀았다. 음식은 밀을 갈아서 가루를 쳐가지고 죽도 쑤어먹고 부침개도 만들어먹는다. 칠석날에 오는 비는 견우와 직녀가 흘리는 눈물이라는 말이 전해져 오고 있으며, 이때 비가 내려야 시절이 좋다고 하였다. 그러나 칠월에 자주 오는 비를 벌초장마가 졌다고 한다. 벌초장마가 저서 많은 비가 내리면 각종 농작물의 결실이 좋지

않다. 이때가 온갖 곡식의 결실기이기 때문이다. 칠성님께 자식들이 잘되기를 기원하였으며, 밤에 대나무로 불을 피우면 딱딱 소리가 나는데 이는 잡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피웠다고 한다.

부녀자들은 저녁에 견우와 직녀 두 별에게 바느질과 길쌈을 잘하게 하여 달라고 기원하였다.

- 백중

7월 15일을 백중이라 하는데 옛날에는 조상님께 밥을 차려놓았다. 백중 무렵은 논 의 김매기도 세불(3회) 마치고 추수를 기다리는 잠시 한가한 때다. 이날은 일 년 농사를 도맡아 지은 머슴을 위로하기 위해 음식과 술을 장만하여 머슴들이 먹고 쉬게 하였다. 음식은 맷돌에 밀을 갈아서 치로 쳐가지고 문지지(전)를 해먹었다.

- 창호 바르기

7월 말경에 날씨가 쾌청하면 한지로 큰방, 사랑방, 작은방 등 창문을 바른다. 음력 팔월에 문을 바르면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도둑이 든다하여 칠월에 바른다. 문짝을 문 설주에서 떼어내어 묵은 창호지를 제거하고 깨끗이 씻은 다음 풀비로 한지에 풀칠을 해서 문짝에 바른다.

8) 8월

- 한가위

예부터 한가위는 설, 대보름과 함께 큰 명절로 쇠어왔다. 한가위가 다가오면 온 동네가 한 사흘씩 쉬면서 음식으로 밥, 떡, 과일, 고기 등을 장만하였다. 머슴들은 주인 집에서 잘 먹고 옷도 해주며 돈도 주었다. 한가위 상차림과 차례를 지내는 방식은 설날과 같으며, 차례상에 메와 국을 비롯하여 송편을 빚어 올렸다. 8월 15일 한가위

아침에는 성묘를 가는데, 성묘 때 사용할 음식은 차례상에 놓지않은 음식으로 준비하였다.

한가위를 기준으로 며칠 동안 강강술래와 농악을 하면서 놀았다. 특히 처녀들과 젊은 부인들, 남자들이 함께 강강술래를 하며 놀았다. 그리고 달을 보러 산에 올라갔다. 달이 높이 뜨면 가뭄이 든다고 하고, 달이 낮게 뜨면 비가 많을 것이라고 점쳤다.

9) 9월

• 중구

예부터 9월 9일을 중구라 하였다. 중구를 특별한 명절로 취급치 않은 가정도 있었으나, 가정에 따라 중구날은 새 쌀과 새 팔으로 떡을 해서 조상께 제사를 올렸다. 새 쌀을 수확한 경우 중구날과 상관없이 올벼심리를 하는 집도 있었다.

10) 10월

• 문중제사

10월에는 문중마다 선산에서 시제를 모신다. 문중에 속한 친척들이 다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나눠먹는다.

• 메주 쭈기

음력 10월말이면 콩을 선별해서 메주를 쭈었다. 콩을 24시간 정도 물에 불린 뒤 가마솥에서 삶고, 도구통(절구통)에서 찼어 둥그렇게 또는 네모지게 메주덩이를 만들었다. 메주는 방안에 잘 다듬은 벧짚을 깔고 한 달 정도 발효시킨다.

- 초가지붕 이엉 엮기

겨울을 앞두고 음력 10월 하순경부터 동짓달 초순경까지 초가지붕 지붕을 새 이엉으로 덮었다. 이엉 엮기는 일 년에 한번 씩 하는데 매우 번거로운 일이었다.

11) 11월

- 동지 쇠기

동지에는 찹쌀로 새알을 만들어 팔죽을 쑤고 차례를 올린다. 차례를 올릴 때 열두그릇의 팔죽을 떠놓고 명년 농사짐을 쳤다. 만약 팔죽이 마르면서 갈라지면 가뭄이 들 것이라고 점쳤다. 그리고 집 울타리에 솔잎으로 팔죽을 뿌렸다. 귀신(왕손님 즉 천연두, 마마의 여신)이 팔죽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뿌린 것이다. 팔죽은 뿌리는 시간도 맞추어서 뿌렸다. 동지는 초순에 들면 애동지, 중순에 들면 중동지, 하순에 들면 노동지라 했다.

애기동지가 들면 팔죽을 쓰지 않고 떡을 해 먹는 관습이 있었으며 이듬해 농사가 잘 안되고, 노동지가 들면 농사가 풍년이 들어 시절이 좋다고 하였다.

- 성탄절

양력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교인들은 성당과 교회를 찾아 성탄절 예배를 올린다.

12) 12월

- 선달그믐

목욕재계하고 마을과 집안을 청소하고 설준비를 한다. 저녁내내 밖에까지 불을 켜 놓는다.

- **염전고사**

염전고사는 선달 그믐날 염전에서 고사를 지낸다. 소금창고와 함수를 결정지에 보내기 위해 임시로 저장하는 자고, 함수를 저장해 놓은 방죽의 세 곳에서 음식을 놓고 지낸다. 음식은 돼지고기, 떡, 밥, 나물, 술 등을 준비한다. 고사 때는 새해부터 염전에 종사하는 염부들이 참여하며 고사 후 집에 와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새해 염전 운영에 대해서 의논한다.

13) 윤달

윤달은 4년만에 한 번씩 드는데, 이 달을 공달이라고도 부른다. 윤달에는 나이드신 분들의 수의를 만들거나 관을 만들어놓는다.

6. 집안의 가정신앙

■ 현지조사

- 조사일시 : 2014년 7월 27일
- 조사장소 : 신안군 장산면 마초리
- 제보자 : 진금순

■ 참고문헌

- 이종철 외, 『신안군 장산도 · 하의도 신앙민속』, 『도서문화』3집, 1985.
- 최덕원, 『민속예술』, 『신안군의 문화유적』, 목포대 박물관, 1987.
- 김진오, 『장산도의 민요와 민속』, 참글문화, 2013.

장산면의 가정신앙은 『도서문화』 제3집(1985)과 『신안군의 문화유적』(1987), 『장산도의 민요와 민속』(2013)에서 조사보고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과거의 상황 등을 파악하고, 변화된 상황을 점검하며 조사하였다.

장산면의 가정신앙으로는 조상, 성주, 조왕, 지양 등에 대해서 파악하였다. 조상의 경우 현재는 지방이나 영정사진으로 지속되고 있고, 성주단지는 없어졌으나 명절이나 제사 때 성주상을 차리고 있다. 조왕은 ‘공 들인다’는 개념으로 일부 가정에서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지양의 경우 거의 사라졌으나 아이가 태어나면 의례적으로 상을 차리는 집이 있다.

1) 조상단지

조상단지는 부녀자들이 주관했던 가정신앙으로 방 머리맡 시렁(선반)에 푹배기로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덮어서 놓았다. 명칭으로는 조상단지, 신주단지, 신주오가리, 귀뚝오가리로 부르고 있으며 단지 안에는 쌀을 넣어두었다. 매년 9월~10월중 좋은날

에 새 쌀로 갈아주고 단지의 쌀은 밥을 해먹었다고 한다. 조상단지를 모시는 목적은 자식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조상단지는 조상신앙과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조상과는 거리가 있다. 진금순 씨에 의하면, 홍도나 태도 등지에서는 조상 중에 남자들은 지방으로 써서 보관하고, 여자들은 조상단지로 만들어 보관했다고 하는데 장산도의 경우 긴밀한 관련성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제사를 지낼 때도 조상단지 위나 아래에 상을 차려놓기도 하는데, 실제 개별 조상에 대한 제사는 감실의 위패나 지방을 붙여놓고 상을 차린다.

2) 성주동우

성주는 집을 수호하는 신으로 새로 집을 지을 때 마래의 상기둥 밑에 성주동우를 놓아 고사를 지내고 신을 좌정시킨다. 성주동우에는 나락이나 보리를 넣어둔다. 곡식의 철에 맞게 나락을 추수하면 나락을 넣고, 보리를 추수하면 보리를 넣어둔다. 그리고 성주동우 위쪽 기둥이나 벽에는 대나무 가지에 참종이를 묶어서 꽂아놓는다. 가정에 따라서는 성주동우 위에 시루를 올려놓은 사람도 있었다.

성주에 대한 의례는 명절차례나 조상제사를 지낼 때 간소하게 상을 차려놓고 자식들의 건강과 안녕을 비는 정도다. 현재 성주동우는 없어졌지만 제사를 지내는 집에서는 명절이나 제사 때 성주상을 차려놓는다.

3) 조왕중발

조왕은 부엌의 신이다. 시어머니나 며느리들이 중발에 물을 떠서 부뚜막 옆에 놓고 가족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하였다. 진금순 씨에 따르면, 부엌은 음식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별도의 음식을 장만하여 상을 차리지 않는다도 한다. 조왕에 대한 정례화 된

의례는 없고, ‘공 들인다’는 개념으로 개인의 의지에 따라 매일같이 물을 떠놓고 빌거나 특별히 기원할 일이 있을 때 물을 떠놓았다. 현재도 자식들에 대해 공을 들이는 사람은 물을 떠놓는다고 한다.

부엌은 음식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부정을 가린다고 한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건 등으로 인해 탈이 났다고 생각할 때는 부엌에서 동정잡이를 하였다. 동정잡이를 하게 되면 당골이나 주부가 부엌에서 칼로 도긋대를 두드리면서 액막이를 하였다.

4) 지양동우, 문전지양

지양은 아이의 잉태와 생명을 관장하는 삼신이다. 그래서 임신을 하여 산달이 되면 지양동우를 마련한다. 지양동우는 동우에 쌀을 넣고 위에 미역을 올려놓은 형태로 방안에 놓는다. 산모가 해산을 할 때는 지양동우 옆에 물을 떠놓고 빌고, 아이가 태어나면 세 이레 동안 상을 차려놓는다.

지양상에는 밥과 미역국, 물 등을 세 그릇씩 놓는다. 지양신이 천신, 인신, 삼신 세 분이기 때문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날로부터 7일 후에 첫이레상을 놓고, 14일이 되는날 두 이레를 쇠고, 21일째 되는날 세 이레를 쇠다. 대부분의 집에서는 세 이레를 쇠는데, 자손이 귀한 집에서는 일곱 이레를 쇠기도 한다. 그리고 지양상은 백일날과 돌에도 차린다.

지양신앙과 관련하여 문전지양을 별도로 위하기도 한다. 지양신과 손님신은 상극이라고 생각하여 ‘지양이 있을 때 손님이 들면 아이들이 죽는다’고 한다. 이 말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천연두가 발생하면 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천연두를 옮기는 손님신이 방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전지양을 마련하여 손님을 막는다. 문전지양은 상을 차려놓기도 하고, 짚 다발 위에 증발을 올려놓기도 한다.



〈사진 10〉 진금순 씨택 가정신앙의 신체
(왼쪽부터 조상단지, 조상독, 성주동우, 지양동우, 문전지앙 - 1981년 도서문화연구원 故최덕원 기증자료)

7. 활용방안

1) 장산도의 농악을 보존하고, 신안군의 농악으로 확장

(1) 장산도의 농악을 보존하고 현장의 기능 유지

신안군은 20~30여년 전까지 곳곳의 섬에서 농악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장산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전승이 중단된 상태다. 장산도의 경우 1990년대까지 농악 걸궁으로 지역의 기금을 모금하고, 지역민들이 신명을 발현하였다. 농악의 예능과 규칙에서도 체계적이고 지역색이 뚜렷하다. 그러나 이귀인 상쇠가 매우 연로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농악 전승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농악은 행위로 전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승 대책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신안군의 지역농악으로 확대

농악은 집단예능으로서 여러명이 함께 즐기고 관람하는 민속이다. 그래서 2014년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에 이르렀다. 신안군에는 섬마다 농악이 전승되었으나 현재는 장산도에서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장산도 이귀인 상쇠의 농악을 지역의 농악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신안군 일대에서 전승할 수 있도록 활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

2) 씻김굿의 현장을 강화하고 후속세대 양성

(1) 씻김굿의 현장성 강화

씻김굿은 2013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52호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전승상황은 위기에 처해있다. 불과 20여년 전까지만 해도 쉬는 날이 없이 지역에서 비손이나 굿을 하였으나, 현재는 씻김굿을 할 수 있는 현장이 사라진 상태다. 교인들의 수가 늘어나고 가정에서 굿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과 면에서 전승주체와 협의하여 현장에서 굿이 연행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후속세대의 양성

씻김굿은 종교의례이면서 뛰어난 민속예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예능은 아니다. 따라서 기존에 판소리나 민요 등을 전공하는 젊은 예인들이 씻김굿을 전승하도록 기회를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실제 진금순, 이귀인, 강부자 등의 예능을 배우고자 찾아오는 외부의 젊은 예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적극적으로 끌어들이 씻김굿이 전승될 수 있도록 활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

3) 들노래와 농악, 씻김굿의 종합적 전승지원체계 구축

(1) 장산면 민속예술의 종합적 전승

현재 무형문화 전승에 힘을 쏟는 지자체는 민속예술을 종합적으로 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존에는 종목마다 보존회와 전수관을 두었다면, 근래에 들어서는 시군 단위로 종합적인 ‘무형문화재 전수관’이나 ‘농악마을’, 무형유산 전승센터 ‘등을 구축하여 종합적인 전승을 유도하고 있다.

씻김굿의 경우 전문예능이기 때문에 사정이 조금 다르지만, 들노래나 농악을 비롯한 다양한 민속예능은 함께 전승될 때 힘을 발휘한다. 따라서 들노래와 농악, 씻김굿 등이 함께 전승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지역민을 위한 축제콘텐츠로서 활용과 교육

면민의 날이나 장산면 단위의 축제를 기획할 때 마당뺨이를 활용하여 농악이 지속되게 하고, 들노래와 씻김굿 등의 예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산면 뿐만 아니라 신안군 일대에 들노래와 농악 등을 교육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V 어로문화

김 경 완
신안문화원 사무국장

1. 개요	148
2. 갯벌	151
3. 특산해산물	152
4. 어민조직(어촌계)	154
5. 어민구술사	155
6. 활용방안	160

V. 어로문화

1. 개요

장산도는 팔구포의 서쪽 어귀를 막고 동쪽으로 시아바다를 면하는 곳에 위치해 있어 해남과 진도와는 가장 가까운 신안 섬이다. 장산도에는 2013년 말 현재 984가구, 1,783명이 거주하고 있다. 유인도 5개(장산도, 백야도, 막금도, 마진도, 울도)와 무인도 38개로 이루어졌으며, 해안선의 길이가 76.93km로 신의도와 팔금도 보다는 길지만 다른 11개 읍면보다는 월등하게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장산도의 어선보유는 189척으로 흑산도, 압해도, 안좌도, 지도, 임자도, 하의도, 암태도 다음으로 많은 어선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141척이 1톤 미만의 소형선박으로 연안에서 어로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한국수산지』에서는 장산도가 ‘농업과 염업이 활발하다’고 기록하고 있을 뿐 어업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만 화렴을 통해 소금을 생산하는 제염이 발달한 사실을 통해 연안을 중심으로 소규모 어업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당시 장산도는 ‘목동, 비소리, 사근리, 하룻, 막금, 상룻, 통두, 삼방동, 국수당, 광포, 후포 등을 중심으로 화렴이 활성화 되어 염전 면적이 22정에 이르고 가마는 20여 개가 있으며 1년 제염량은 640만근을 상회하는’ 정도였다. 이중 ‘가장 번성한 곳은 통두, 비소리, 사근리, 하룻’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네 마을 중 비소리를 뺀 세 마을이 장산의 남쪽 연안에 위치해 있다.

실제 다수리를 비롯한 장산도 남쪽이 현재도 김양식, 톳 생산, 낚시터 등이 발달해 있다.

수심과 연안의 환경이 어장형성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바다와 연안에 익숙한 문화적인 요인도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사진 1〉 카세섬에서 바라본 뱀목갯벌



〈사진 2〉 막금도 갯벌

장산도의 부속 유인도인 마진도와 백야도, 울도가 장산도의 남쪽 바다에 위치한 것도 남쪽 연안이 어업과 항구로 발달될 수 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장산도 남쪽 측강에 여객선이 운항하기 전까지 사근선착장을 통해 외부와 연결되었다는데, 그만큼 남쪽 연안이 활발하게 이용되면서, 장산도의 어업도 남쪽을 중심으로 발달한 것으로 생각된다.

어업생산력이 뛰어난 갯벌은 장산도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지만, 특히 서쪽 연안인 대머리의 북쪽과 남쪽에 특히 잘 발달되었고, 맨손어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머리 북쪽의 갯벌을 ‘밴녹갯벌’ 이라고 부르며, 낙지맨손어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다. 대머리 남쪽의 ‘저잠갯벌’ 도 밴녹갯벌과 더불어 중요한 갯벌어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밖에 동쪽의 ‘비소리갯벌’ 과 ‘호피빨’, 남쪽의 ‘다수리큰빨’ 에서 낙지를 잡아 전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주민들이 10여명 이상 활동하고 있다.

이밖에도 마진도와 막금도에도 갯벌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어로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 갯벌

1) 뱀늬갯벌(윗구지)

가세섬의 바로 북쪽 갯벌을 지칭하며, 윗구지라고도 부른다. 둠병개, 꿀쩍개, 느른개, 찌개, 둥구섬개, 미륵섬개, 한새골개 등의 수로들이 잘 발달되어 있다. 낙지 맨손어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갯벌이다. 후포는 마을 뒤편의 포구(뒫뺨)란 뜻으로 오음마을 뒤에 위치한다. 1946년 갯벌의 일부가 방조제 간척으로 논과 염전으로 바뀌었다.

2) 저잠갯벌(아랫구지)

가세섬 남쪽에서부터 막금도까지의 갯벌로 아랫구지라고도 부른다. 남쪽에는 ‘홍애뺨’이라는 높은 등이 있으며, 섬 연안쪽으로는 ‘속뺨’이라 불리는 곳도 있다. 이곳에서도 낙지를 비롯한 갯벌생물들의 채취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3) 다수리큰뺨

면적은 넓지 않지만 인근에 작은 섬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김양식을 비롯해 다양한 해조류 양식이 진행되는 곳이다. 수심이 얕아 긴 방조제가 만들어져 있어 갯벌의 물리적인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다. 두두개, 뺨등 등의 이름을 가진 갯골과 갯등이 존재한다.

4) 마진도갯벌

마진도는 장산도의 동남쪽 1km에 위치한 유인도로 갯벌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노랑석개, 옷녀, 아랫녀, 큰골여, 투망개 등의 수로가 발달되어 있다.

5) 막금도갯벌

과거 염전을 조정했다가 1959년 사라호 태풍으로 유실된 이후 지금은 완벽하게 갯벌로 복원된 곳이 있다. 당시 독을 조성했던 흔적만 겨우 남아 있지만, 염전 자리는 펄갯벌로 칠게를 비롯한 갯벌생물들의 천국으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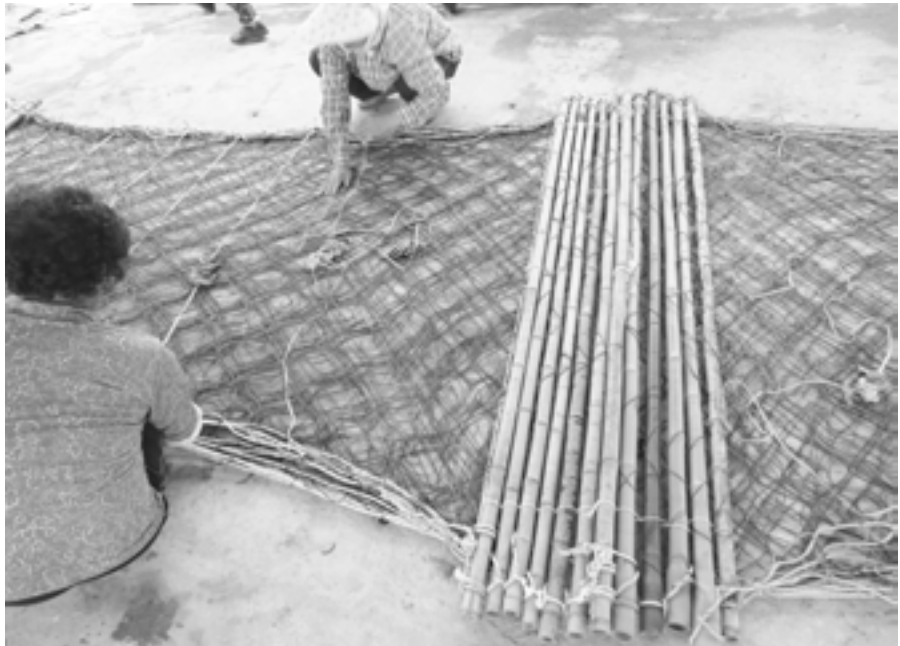
3. 특산해산물

1) 김, 툇, 미역, 모자반 등

1986년 자료를 보면 김을 생산하던 호수가 321세대에 이르렀고, 호당 소득이 360여만원으로 추정되었다. 툇 생산어가도 25세대였으며 김의 반에 해당되는 세대당 수입을 올렸다. 당시, 완도에서 온 외지인들이 미역가공 공장을 직접 운영할 정도로 장산도의 해조류 생산량은 대단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현재 김양식 어가는 6가구로 한해 900톤의 김을 생산하고, 생산액은 7억 2천만원에 이른다. 과거에는 많은 가구가 소규모로 종사했다면, 이제는 적은 가구가 대규모로 김을 생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산된 물김은 장산도내 유일한 가공공장 에서 마른김으로 생산된다.

툇양식에는 3가구가 종사하며, 생산량 전체를 일본으로 수출한다. 다시마 양식은 전북양식장에 제공할 먹이로 주로 이용하고 있다.



〈사진 3〉 김포자를 매다는 작업



〈사진 4〉 가세섬의 새우양식장

2) 낙지

낙지는 장산도를 대표할 수 있는 바다생물로 맨손어업으로 낙지를 잡는 가구가 30여호에 이른다. 이들 중 전업으로 낙지를 잡는 이들이 10여명인데 개인별 격차가 크지만 낙지를 가래나 맨손으로 채취해 연간 2,000만원에서 5천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기도 한다. 이밖에도 주낙으로 낙지를 잡는 소형어선들이 10여척 조업하고 있다.

3) 전복, 새우양식 외

새우생산 어가는 29가구로 연간 264톤의 새우를 출하하며 42억여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전복의 경우 8가구가 양식에 종사하며 연간 63톤의 생산량으로 25억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밖에 천일염 생산가구가 6가구에 1,255톤을 생산해 총 생산액은 4억6천여만원에 이른다.

4. 어민조직(어촌계)

1) 다수어촌계

1962년 9월 28일 목포수협 다수어촌계로 설립인가를 받아 1965년 무안군어협 다수어촌계로 개편 발족되었다. 1977년이 되어서야 신안군수협 다수어촌계로 명칭을 변경했다. 65ha의 해조류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어업을 199ha를 운영중이다. 어촌계장은 강선호이고 58명의 계원이 어촌계를 구성하고 있다.

2) 오음어촌계

1981년 다수어촌계에서 분계되어 설립되었다. 해조류양식이 283ha로 장산도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패류양식이 20ha, 마을어업이 251ha를 차지하고 있다. 어촌계장은 황준배이고 31명의 어촌계원으로 구성되었다.

3) 팽진어촌계

1962년 9월 28일 목포수협 팽진어촌계로 설립인가를 받아 1965년 무안군어협 팽진어촌계로 개편 발족되었다. 1977년이 되어서야 신안군수협 다수어촌계로 명칭을 변경했다. 해조류양식장이 246ha 있으며, 패류양식과 마을어업이 각각 73ha, 79ha 관리되고 있다. 어촌계장은 최송필이고, 30명의 계원이 어촌계를 구성하고 있다.

4) 마진도어촌계

1984년 신안군수협 팽진어촌계에서 분계되어 설립되었다. 해조류양식장이 105ha 운영중이며, 마을어업으로 28ha가 관리되고 있다. 어촌계장은 최은호이고 30명의 계원이 어촌계를 구성하고 있다.

5. 어민구술사

세계최초 낙지인공부화 성공한 강대용씨

강대용(1950년생)은 신안군 장산면 오음리가 고향이지만, 현재는 다수리 통머리에 거주하고 있다. 20대에 부모님이 거주하는 인천에서 생활하며 동국제강에 근무했지만,

공장생활보다는 고향에서 사는 것이 그리워 스물아홉살에 고향 장산도로 귀향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누구나 서울로 올라가던 시절이라 ‘오죽 못났으면 고향에 내려오냐’는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다.

1979년에 장산에 정착한 이후 농사보다는 갯벌에서 가래를 이용해 낙지를 채취하는 일에 전념했다. 농사수입보다 낙지를 잡아 파는 것이 더 수입이 좋았기 때문이다. 당시 갯벌에 나가보면 낙지구멍이 30센티마다 하나씩 있었다. 그만큼 낙지가 흔했기 때문에 한 물 때에 20점(400마리)까지 잡은 적이 있었다. 낙지가 귀할 때는 씨알이 굵고, 많이 나면 씨알이 작다. 지금도 장산에는 10여명이 낙지만 전업으로 잡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지만 낙지만 잡아 가지고도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다. 부업으로 낙지를 잡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30여명 될 것이다.

하지만, 10여년 전부터 낙지 생산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낙지는 한해는 많이 잡히고, 다음해에는 줄어드는 일명 ‘해거리’가 있었는데, 그 즈음부터 해거리가 사라지고,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아마, 목포에서 내려온 낙지주낙배가 장산도 일대 갯벌에 대거 늘어나기 시작한 시기와 비슷한 것 같다. 전문적으로 잡는 그 배들이 밤샘 작업으로 10점 이상씩, 심지어 20~30점씩 잡아다니 장산지역의 낙지가 배겨날 재간이 없는 실정이다.

1985년경 농협에서 600만원을 대출받아 40평 규모의 육상 낙지축양장을 지었다. 수조를 마련하고, 냉각기를 설치해 낙지를 넣어두고 1~2개월 보관한 다음 시간차를 두고 출하하기 위해서였다. 즉, 수조 내에서 원하는 만큼 출하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였다.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낙지 가격이 ‘W’ 자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폭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보통 1월~3월은 낙지 가격이 높고, 4월~6월은 연중 가장 싸며, 7월~9월은 타지역에서는 잡히지 않고, 신안에서도 가래로 파는 빨낙지만 잡히기 때문에 가장 비쌀 때다. 그러다가 10월부터는 전국에서 일제히 낙지가 생산되기 때문에 또 가격이 떨어진다. 가격이 낮을 때는 생산자가 너무 억울하고, 비쌀 때는 소비자 불만이 크는 등 가격 편차가 너무 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축양장을 운영하면서 낙지의 생태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다.



〈사진 5〉 낙지를 잡아 올리는 강대용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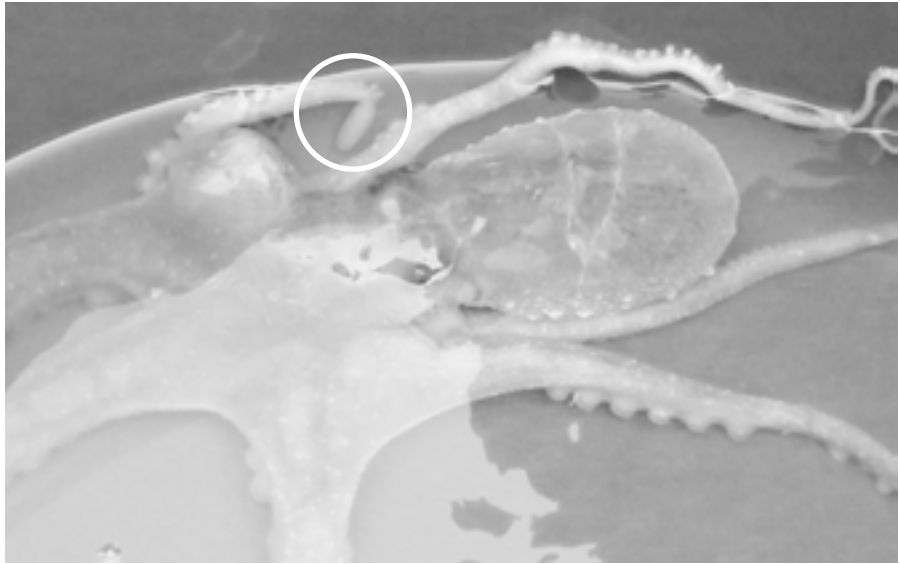
〈사진 6〉 칠게가 많으면 낙지도 많다.

축양장에서 낙지를 키우는 것은 무척 어려웠다. 수조 안에 넣어둔 낙지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끊임없이 머리를 수조에 부딪쳐 결국 죽고 말았다. 머리 부위가 다 벗겨질 정도까지 씬 없이 부딪히는 것을 봤다. 그래도 많은 실험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낙지의 인공부화를 시도하게 됐다. 우리보다 수산과학이 수 십 년 앞선 일본을 비롯해 전세계 어디에서도 낙지부화를 성공시킨 사례는 없다. 이 때문에 신안군과 수산 전문가들로부터 손가락질도 받기도 했다. 되지도 않을 일을 시도한다며 바보 취급을 받았다. 그래도 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끊임없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때가 1990년대 중반이었다.

처음에는 1마리로 시작했는데, 1주일 만에 폐사되고 말았다. 이때 갯벌을 같이 넣어 두었는데, 낙지가 갯벌을 계속 파헤치는 바람에 물이 흠탕물이 되어 실험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다음에는 3마리로 시작했다. 이때는 뿔을 넣지 않았다. 그리고 이때 첫 인공부화에 성공했다. 3차로 30마리를 시작했다. 성공적으로 새끼들이 부화했다. 계를 잡아다가 등껍질을 제거해 넣어 주거나, 맛조개의 속살을 넣어주면 낙지 새끼들이 잘 먹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먹이는 먹지만 성장은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부화한 낙지 새끼들이 공식(서로 잡아먹음)한 탓에 다리 없는 어린 새끼들이 많았다. 아마도 먹이 외에도 바닷물 내에 알 수 없는 성장인자가 있는 것 같다. 한 해는 20,000 마리를 부화시키기도 했다. 암컷 한 마리가 70마리 정도 부화시키는 비율이었다. 수조 내에 서로 잡아먹히고 폐사된 것을 제외하고 1만 7천여마리를 양식장 밑에 방류시켜 보았다. 그러나 워낙 어린 개체라 그 녀석들이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 해 낙지는 큰 흥작이었다. 옥도의 큰뿔에도 낙지가 없을 정도였는데, 유독 어린 개체를 방류한 그 앞 갯벌(벤녹갯벌)에만 낙지가 많았다. 혹시나 해서 확인해 보니 낙지다리가 잘린 것들이 많이 잡혔다. 결국, 낙지가 상당부분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류는 대부분 체외수정이지만, 낙지는 체내수정일 것이라고 짐작하고 자세히 관찰해 보았다. 모든 낙지 암컷은 알을 가지고 있지만, 수컷과 수정해 유정란이 될 수 있고, 수정 없이 무정란으로 그칠 수 있다. 수컷 낙지의 생식기는 8개의 다리 중 가장 작은 다리 둘 중의 하나인 끝에 마이신처럼 달려있다. 다른 짧은 다리는 실처럼 가늘지만, 생식기가 달린 다리는 뭉툭하고, 안쪽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짧은 다리 두 개가 모두 실처럼 가늘면 암컷이다. 수컷 생식기가 암컷 아가미를

통해 들어가 난소와 접촉하면서 정자를 사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암컷의 난소가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 수정이 되었느냐에 따라 부화속도가 달라지는데, 성숙할 때 수정하면 부화가 빠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늦어진다.



〈사진 7〉 슷컷 낙지의 생식기가 위쪽에 보인다.



〈사진 8〉 강대용씨가 슷컷 낙지의 생식기를 보여주고 있다.

낙지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 가장 많이 잘못하는 것은 낙지가 1년에 1번 부화한다는 것이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낙지가 봄, 가을 아니 1년 내내 번식하는 것 같다. 또 낙지가 1년만 산다는 것도 오해다. 정확하게 말하면 낙지는 반년만 산다. 이는 수컷에 한정된 말이다. 암컷은 수컷보다 135일 정도 더 산다. 암컷은 수정된 알이 부화될 때까지 발로 알을 계속 만져주는 일을 한다. 이와 같은 행동이 알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것도 있겠지만, 모성이라는 에너지를 전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낙지는 식탐이 강하다. 계와 같은 먹이를 보면 더벅지(혹은 ‘치마’ 라고도 한다)로 덮어 입으로 게걸스럽게 먹는다. 입에는 강한 이빨이 있다. 먹이를 먹고 난 후 배설물은 빨대기를 통해서 내 뱉는다. 빨때기는 먹물을 내뱉기도 하고, 코 역할을 한다. 낙지머리 표면에 돌기가 보이는데, 이는 물속에 있을 때만 보이고, 손을 집어넣거나, 낙지를 물 밖으로 빼면 바로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낙지가 움직이는 것도 빨때기를 통해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다리로 움직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장산으로 귀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낙지를 가래로 잡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장산을 비롯해 갯벌에서 낙지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6. 활용방안

1) 수조 속에서 낙지 인공부화장면 관찰하기

강대용 ‘낙지박사’ 와 함께하는 낙지생태 관찰하기, 낙지라는 생물종을 통해 해양생물의 적응방식과 신비로운 생명의 진화과정을 배울 수 있다. 직접 갯벌 위를 걸으며 낙지를 가래로 잡는 것을 배울 수도 있다.

2) 장산도 해변과 뽕을 이용한 갯벌생태교육장

대머리에서 둑으로 연결된 가세섬(장산도의 서쪽) 주위는 경관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남북의 갯벌생태가 완전해 갯벌생태체험을 하기에는 적지임. 남쪽의 두두리를 비롯한 다수리 일대는 인근 섬들의 경관이 아름답고, 어업이 활발해 어촌체험마을로 활용이 가능함

3) 섬의 로컬푸드 체험 및 안정적 판로마련

지역 원산지 음식을 먹으며 먼 거리를 수송할 때 소모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각종 수산물과 해조류의 원재료 확보에서 요리까지 안정적 공급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임. 수산물 외에도 유기농산물의 제공, 판매가 도시와 섬 주민들간의 간격을 줄여줄 수 있음



VI 구비전승

홍 순 일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 | | |
|-----------------|-----|
| 1. 조사개요 | 164 |
| 2. 장산도의 이야기 | 167 |
| 3. 장산도의 소리 | 198 |
| 4. 장산도의 관용어와 문학 | 242 |
| 5. 장산도의 민요공동체 | 252 |
| 6. 활용방안 | 257 |

Ⅵ. 구비전승

1. 조사개요

1) 개요

필자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도서문화자원화연구단에서 「장산도의 문화자원조사와 자원화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장산도의 문화자원을 조사하고, 이를 자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4년 2월과 8월, 그리고 2014년 10월 등 세 차례 전남 신안군 장산면에서 장산도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안군의 구비문학을 현지조사하고 이를 채록했다. 특히 필자는 현지조사와 함께 문헌자료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다.

공동조사(2014.02.19~20) 때 장산도¹⁾의 오음리(1리), 대리(2리), 도창리, 공수리(1리 마초, 2리 막금·비소), 다수리(1리 다수), 마진리(1리 마진) 등의 사람들 10인을 면담했다. 개별조사(2014.08.28.~29) 첫 번째 때 오음리(1리 마초, 2리), 대리(2리), 공수리(1리, 2리) 등의 사람들 10인을 면담했다. 그리고 개별조사(2014.10.02.~10.03) 두 번째 때 도창리, 다수리(3리) 등의 사람들 11인 외 장산도 들노래보존회 회원들, 장산도 사람들을 면담했다.

오음리, 대리, 도창리, 공수리, 다수리, 마진리 등의 사람들이 제보한 자료들은 공

¹ 장산도는 2010년 현재 42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고, 893세대 1,674명이 거주하고 있다. 장산면의 법정리 7개, 행정리 15개이다. 오음리(오음1리, 오음2리), 도창리(도창1리, 도창2리), 대리(대리1리, 대리2리), 다수리(다수1리, 다수2리, 다수3리), 공수리(공수1리, 공수2리), 팽진리(팽진1리, 팽진2리), 마진도리(마진도1리, 마진도2리) 등이다. 필자는 오음리, 대리, 도창리, 공수리, 다수리, 마진도리 등 장산면 일대를 답사했다.

동조사 때인 2014년 10월 3일(장산도들노래전수관),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2014년 제3회 찾아가는 섬 포럼> 포럼장에서 공연하는 장산도 사람들을 만나 면담한 내용²⁾을 반영하는 동시에 문헌자료를 조사하여 필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하고자 했다.

그 결과 필자가 문헌·현지에서 조사한 장산도의 구비전승물은 크게 이야기, 소리, 관용어와 문학, 민요공동체 등으로 구분된다. 이야기의 경우 7개 리 34개 마을의 지명(地名)설화, 4유형 34편의 인물설화, 7편의 경험담이다. 소리의 경우 민요는 4종의 노동요, 1종의 의식요, 1종의 유희요, 타령류 26편(<육자배기>, <한풀이> 포함)의 비기능요, <<유행가>>, <통일가> 등 기타 노래이다. 2종 5인(4인의 소리와 1인의 구술)의 판소리, 1인이 구연한 장산도 씻김굿의 무가(그림 포함), 1인이 기록한 민속문화정보 등의 무가 등이다. 관용어와 문학의 경우 속담 2수, 금기어 4수 등의 관용어, 문학의 경우 장산팔경, 일기 등 2종의 문학, 고문서, 가계부 등 2종의 문서 등이다. 민요공동체의 경우 1회의 산다이, 4회의 다리(밤달애) 등이다.

여기에서 주로 인용된 자료는 리길용의 책 2권, 허경희의 책 1권, 김진오의 책 3권, 문화방송의 책 1권(CD포함) 등이 있는데, 서술할 때는 출판년도를 기준으로 리길용(1985, 1999), 허경희(1996)³⁾, 김진오(1991, 2008, 2013), 문화방송(1993)순으로 한다. 제보자를 소개할 때는 성명의 우측에 가능한 한 성별, 나이, 출생년도를 괄호 속에 표기하는데, 이때 나이는 채록 당시의 나이로 한다. 그리고 민요의 경우 필요시 원문에 /, //표시를 가하여 다시 제시하기로 한다.



〈사진 1〉 오음1리 문석철(남, 84)씨가 보여준 리길용의 『장산의 뿌리』(1985) 표지 모습 (2014.08.28촬영)

2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2014년 제3회 찾아가는 섬 포럼-신안군 장산도 편(주제: 장산도 문화자원과 민속예술),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신안군 장산면(주최)·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주관)·한국연구재단·신안군(후원), 장산도들노래보존회 전수관, 2014.10.03(금) 13:00~16:50.

3 인용자료 『신안지역의 설화와 민요』(1996)의 발간은 1984년 6월 19일부터 26까지(1984년 8월), 신안군 장산·하의면 조사활동(추가활동)을 거쳐 1983년 11월, 『도서문화』 제3집(1983.11)에 게재되는 과정이 있었다.

조사자는 조사시 「장산도의 민속공동체와 구비전승물」을 주제로 장산도의 구비전승자원을 조사하여 조사목록, 내용, 활용 등을 작성하고자 했다. 다른 분야인 생태, 고고, 역사, 민속, 문화인류학, 방언, 건축, 관광자원화 등과의 관계⁴⁾를 고려하면서 활용이라는 자원화에 도달하고자 했다.

이렇게 얻은 자료는 제보자별·구역별·주제별로 유형화된 후 주제별로 소개하기로 한다. 주제별은 설화, 민요, 무가, 판소리, 민속극, 속담, 수수께끼 등으로 구분되는데, 장산도의 구비전승자원과 관련하여 장산도의 이야기(설화, 경험담), 장산도의 소리(민요, 판소리, 무가), 장산도의 관용어와 문학(속담, 금기어, 문학, 문서), 장산도 구비연행자의 민요공동체(산다이, 다리(밤달애)), 장산도 구비전승자원의 활용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장산도 사람들의 의식과 장산도의 자원화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 결과 한 목소리로 말하고, 노래하는 장산도민의 섬문화를 살피고, 특히 민속공동체 속 구비전승물 각 편들의 지속과 변화도 함께 살피고자 했다. 동시에 구비전승물에 나타난 장산도 사람들의 해역·지역의 정서를 연구하는 토대가 되고자 했다. 이번 “도서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용역(장산면 편)”(기간 2013.12.27~2014.11.21)의 성과물은 각종 지역개발계획과 신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나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의 제1차 압해도·비금도·흑산도(2003.03.03~12.31), 제2차 도초도·안좌도·팔금도(2005.01.05~09.30), 제3차 지도·증도·임자도(2006.01.12~06.11), 제4차 하의도(2010.07.28~2011.01.23), 제5차 신의도(2011.07.13~2012.04.12), 제6차 압태도(2012.12.27~2013.09.23), 제7차 자은도(2013.12.27~2014.11.21)의 같은 사업을 이어받은 것이다.

이와 함께 한 전남 신안군 장산도 사람들, 특히 장산도들노래보존회(단장: 정연배, 회장: 김진오, 부회장: 김상용) 회원들, 장산면 민요단(회장: 윤순심) 단원들,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도서문화자원화연구단 참여연구자들, 신안군청(특히 문화예술계, 문화관광과) 관계자, 장산면사무소 직원들께 감사드린다.

4 참여연구자는 강봉룡, 김경완, 김재은, 김지민, 송기태, 이기갑, 최성락, 최성환, 홍선기, 홍순일 등이다.

2) 답사일정

- 2014년 2월 19~20일 장산도 제1차 공동조사 내용보고
- 2014년 8월 28~29일 장산도 제2차 개별조사
- 2014년 10월 2~3일 장산도 제3차 개별조사 및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2014년 제3회 찾아가는 섬 포럼-장산면 편(주제: 장산도의 문화자원과 민속예술)〉

2. 장산도의 이야기

1) 장산도 이야기의 유형과 특징

[개요]

장산도의 이야기는 크게 설화, 경험담으로 구분된다. 설화와 경험담은 장산도 사람들이 모두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이야기이나, 설화는 경험담과 달리, 일정한 구조를 가진 꾸며낸 이야기라는 점에서 다르다.

필자는 장산도 구비전승자원인 이야기의 활용방안을 염두에 두고, 장산도 사람들의 의식을 드러내는 설화(지명, 인물), 경험담(영험담 포함) 등의 조사현황과 조사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문헌·현지에서 조사된 장산도 이야기의 경우 지명설화는 7개 리 34개 마을, 인물설화는 4유형 34편, 경험담은 7편 등이다.

필자가 문헌·현지에서 조사한 장산도 이야기 중 장산도 사람들의 의식과 장산도의 특징을 이야기로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것을 선별·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의 목록과 같다.

2) 설화

(1) 지명설화

필자가 문헌·현지에서 조사한 장산도의 지명(地名)설화는 7리 43개 마을 중 7개 리 34개 마을이다. 7개리 34개 마을은 마을이름 앞에 *표시를 하기로 한다.

지명설화의 경우 장산면 공수2리 비소마을 김진오씨(목포 최성환씨 포함), 장산도 장형철씨의 제보로, 오음리의 경우 오음1리는 *오음, *북강, 앞면, 발마구지, *한셋골, 뒷벌(後浦), 오음2리는 *시미, *광포, 동구섬, 신촌, *대머리[竹頭] 등 6개 마을의 이야기가 조사되었다. 대리의 경우 대리1리는 *대리, *창몰[倉村], 새트몰[新村], 대신터, 대리2리는 *목에[項里], *삼배[三防] 등 4개 마을의 이야기가 조사되었다. 도창리의 경우 도창1리는 *도창, 도창2리는 *사창, *두동 등 3개 마을의 이야기가 조사되었다.

공수리의 경우 공수1리는 *공수, *마초, 공수2리는 *중산, *비소 등 4개 마을의 이야기가 조사되었다. 팽진리의 경우 팽진1리는 *팽진, *궁항, *중용, 신촌, *두루메, *호피, 팽진2리는 *상용, *하용, *사근, 백야도 등 8개 마을의 이야기가 조사되었다. 다수리의 경우 다수1리는 *다수동, 다수2리는 *어도[앤두], *성주골, *막금, 다수3리는 *통두, *월산, *신촌 등 7개 마을의 이야기가 조사되었다. 마진리의 경우 마진1리는 *마진, 마진2리는 *울도 등 2개 마을의 이야기가 조사되었다.

총 7개 리 43개 마을 중 7개 리 34개 마을의 이야기이다.

〈목록〉

번호	분류	제 목	제보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참고문헌
1	지명설화	- 오음리 = 오음1리: 오음, 북강, 앞면, 발마구지, 한셋골, 뒷벌(後浦) = 오음2리: 시미, 광포, 동구섬, 신촌, 대머리[竹頭]	장형철 (남, 53)	장산면 장산중 양길2 면사무소	2014. 02.19	김진오·최성환 2008: 26~30

번호	분류	제 목	제보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참고문헌
1	지명 설화	- 대리 = 대리1리: 대리, 창물[倉村], 새트물[新村], 대신터 = 대리2리: 목에[項里], 삼배[三防]	장형철 (남, 53)	장산면 장산중 양길2 면사무소	2014. 02.19	김진오 · 최성환 2008: 30~42
		- 도창리 = 도창1리: 도창 = 도창2리: 사창, 두동	장형철 (남, 53)	장산면 장산중 양길2 면사무소	2014. 02.19	김진오 · 최성환 2008: 33~35
		- 공수리 = 공수1리: 공수, 마초 = 공수2리: 중산, 비소	이귀인 (남, 57)	장산면 공수리	1984	허경희 1996: 86~87
			장형철 (남, 53)	장산면 장산중 양길2 면사무소	2014. 02.19	김진오 · 최성환 2008: 35~37
		- 팽진리 = 팽진1리: 팽진, 궁항, 중용, 신촌, 두루메, 호피 = 팽진2리: 상용, 하용, 사근, 백야도	장형철 (남, 53)	장산면 장산중 양길2 면사무소	2014. 02.19	김진오 · 최성환 2008: 37~42
		- 다수리 = 다수1리: 다수동 = 다수2리: 어도[앤두], 성주골, 막금 = 다수3리: 통두, 월산, 신촌	장형철 (남, 53)	장산면 장산중 양길2 면사무소	2014. 02.19	김진오 · 최성환 2008: 43~46
- 마진도리 = 마진도1리: 마진도 = 마진도2리: 울도	장형철 (남, 53)	장산면 장산중 양길2 면사무소	2014. 02.19	김진오 · 최성환 2008: 46~47		

● 오음리

현재 오음, 북강, 앞면, 발미구지, 한삿골, 뒷벌(後浦)은 오음1리, 시미, 광포, 동구섬, 신촌, 대머리[竹頭]는 오음2리로 묶여진 마을이다.

● 오음리(1)-오음마을(오음1리)

이 마을은 오음산이 다섯 봉우리이고, 예로부터 노래를 잘 하는 명창이 많이 배출되었다. 이 마을의 앞 안산(案山)이 장구형으로 소리의 고장이라고 하여 오음이라고 하였다.

● **오음리(2)-북강마을(오음1리)**

이 마을이 장산도의 북쪽 첫머리에 있고, 바다로 나가는 길목이라고 하여 처음에는 윤구지(尹衢地)라고 하였다. 그러나 1930년 면의 관문인 선착장이 생기면서 현재의 마을이 형성되었고, 북쪽 어귀 바닷가에 위치한다고 하여 북강(北江)이라고 하였다.

● **오음리(3)-한샛골마을(오음1리)**

이 마을은 마을 뒤쪽 오음산 골짜기에서 내려온 지세가 한새(황새) 형국과 같다고 하여 한샛골이라고 불려졌으며, 크기에 따라 큰 한샛골과 작은 한샛골로 나누어 불려졌다.

● **오음리(4)-후포마을(오음1리)**

옛날에는 마을의 터가 포구(浦口)이고 오음마을 뒤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후포(後浦) 또는 뒷벌이라고 부른다.

● **오음리(5)-시미마을(오음2리)**

마을 앞에 우물이 있어서 심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물맛이 좋다고 하여 시미(匙味)라고 하였으며, 한자어가 바뀌어 시미(是味)라고 부르고 있다.

● **오음리(6)-대머리마을(오음2리)**

장산도에서 가장 먼저 선박을 대었던 뱃머리이며, 옛날 대나무가 많이 있었고, 면의 서쪽 끝머리여서 죽두(竹頭) 또는 대머리라고 칭한다.

● **대리**

현재 대리, 창몰[倉村], 새트몰[新村], 대신터는 대리1리, 목에[項里], 삼배[三防]는 대리2리로 묶여진 마을이다.

● **대리(1)-대리마을(대리1리)**

면의 중앙에 있는 마을로, 예로부터 마을이 크다고 해서 큰물, 큰말, 큰동네라고 하여 대리라고 하였다.

● **대리(2)-창촌마을(대리1리)**

장산현의 곳집이 있었다고 하여 창촌(倉村), 창물이라고 하였다.

● **대리(3)-목에마을(대리1리)**

장산목장을 관리하는 목부(牧夫)가 살던 곳으로, 목장의 통문이었으며, 목장의 말이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는 중심지라고 하여 목에[項里]라고 하였다는 설과, 마을 안쪽 안 고랑이 물이 많아서 장산목장의 말들이 이곳에서 물을 먹던 곳이라고 하여 목계(牧溪) 또는 모개라고 하였다는 설이 있다.

● **대리(4)-삼배마을(대리2리)**

마을 앞 제방이 두 차례 붕괴되고, 세 번째로 완공되었다고 하여 삼방(三防) 또는 삼배라고 하였다.

● **도창리**

현재 도창마을은 도창1리, 사창, 두동은 도창2리로 묶여진 마을이다.

● **도창리(1)-도창마을(도창1리)**

이 마을은 세금을 미곡으로 장수하여 저장했던 창고가 있었다고 하여 도창이라고 하였다. 도창(都倉)이라고 추정되기도 하나, 현재는 도창(道昌)이라고 한다.

● 도창리(2)–사창마을(도창2리)

조세(租稅)를 운반하던 배가 옛날 이곳에서 환곡(還穀)을 실었으며, 또한 환곡을 보관하던 곳집이 있는 곳이라고 하여 사창(社倉), 또는 건너몰이라고 하였다.

● 도창리(3)–두동마을(도창2리)

마을 뒤 아미산(배미산 137m)이 말[斗]에다 곡식을 가득 담아 놓은 형국이라고 하여 두동(斗洞), 또는 두말이라고 하였다.

● 공수리

현재 공수, 마초는 공수1리, 중산, 비소는 공수2리로 묶여진 마을이다.

● 공수리(1)–공수마을(공수1리)

고려시대 장산현의 공수전(公須田) 토지가 있어 공수촌, 공수라고 하였고, 면소재지 동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동면(東面)이라고도 했다. 구전에 의하면 마을 뒷산의 모양이 양손을 두르고 있는 형국이어서 공수(拱手)라고 하였다고 전하나, 현재는 공수(公需)라고 한다.

● 공수리(2)–마초마을(공수1리)

마을 앞산이 말[馬] 모양으로 아마식초(餓馬食草), 즉 배고픈 말이 풀을 먹는 형국이라고 하여 마초(馬草) 또는 마추머리, 마치머리라고 하였다.

마치머리의 경우 『신안지역의 설화와 민요』에 의하면 줄거리는 백제시대부터 장산면 대성산에서 말을 많이 길러 육지에 갖다 팔아서 마을이 마초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이고, 구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치머리는 왜 마치머리라 했냐면 부학산 정기를 받어서 뜰부자 학학자를 받아뜰 형국이라 해서 큰 부자가 안나요. 왜 마초리라 했냐면 우리 장산면 대성산이라고 산에

서 백제시대 때 말을 많이 길러가지고, 그 말을 뜯어서 이 마초리에서 주둔시켜서 임사 수양 지금으로 말하든 수양한데서 말을 거그서 이틀이고 사흘이고 맥여 가지고 조수관계로 물이 쓰다든지 든다든지 조수관계를 기다려가지고 조수가 맞으면 그 말을 육지에다 갖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부락을 마초리라 했어요.”

● **공수리(3)–중산마을(공수2리)**

길게 형성되어 있는 마을 가운데에 산이 있어서 중산(中山)이라고 하였다.

● **공수리(4)–비소마을(공수2리)**

마을 뒷산의 지형이 비소모금(飛巢暮禽), 즉 저녁에 새가 집으로 날아 들어오는 새 집 형국이라고 비소(飛巢)라고 부른다는 설과, 부유한 마을이 된다고 하여 한자어를 비소(肥巢)라고 한다는 설이 있다. 비소는 안[內]비소와 밖[外]비소로 형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팽진리**

현재 팽진, 궁항, 중용, 신촌, 두루메, 호피는 팽진1리, 상용, 하용, 사근, 백야도는 팽진2리로 형성되어 있는 마을이다.

● **팽진리(1)–팽진마을(팽진1리)**

옛날 마을 앞에 팽나무군이 있었고, 이곳에 나루터가 있어 팽진(彭津), 팽나리, 팽나루라고 부르고 있다.

● **팽진리(2)–중용마을(팽진1리)**

마을 뒷산 지형이 용의 형국이고, 마을의 터가 가운데에 형성되었다고 하여 중용(中龍)이라고 하였다.

● 팽진리(3)–두루메마을(팽진1리)

마을에 있는 산이 병풍을 펴놓은 것처럼, 마을을 감싸고 있어 두루메, 또는 주산(周山)이라고 하였다.

● 팽진리(4)–궁항마을(팽진1리)

마을의 터가 활의 생김새와 같다고 하여 궁항(弓項), 또는 활목이라고 하였다.

● 팽진리(5)–호피마을(팽진1리)

해남의 호랑이가 장산으로 건너왔는데, 산신령이 나타나 호랑이를 잡아 껍질을 벗겨 주저앉혔다고 해서 호피, 또는 범주젠이라고 하였다.

● 팽진리(6)–상용마을(팽진2리)

마을 뒷산의 지형이 용머리처럼 생겼고, 마을의 터가 위쪽에 형성되어 있다고 하여 상용 또는 용호동이라고 하였다.

● 팽진리(7)–사근마을(팽진2리)

마을 동편 나지막한 산의 생김새가 낚시대형이고, 마을 앞바다에 있는 홀아비여가 벽수[찌]의 형태이며, 고깃배와 소금배를 대던 뱃머리, 또는 남쪽 끝머리라고 하여 벽수머리, 또는 마을 앞에 벽수[장승]가 있었다고 하여 벽수머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후 마을 앞 바닷가의 모래가 가깝다고 하여 사근(沙近)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팽진리(8)–하용마을(팽진2리)

마을 뒷산의 생김새가 용의 꼬리 모양이고, 마을의 터가 용의 꼬리 모양이고, 마을의 터가 아래쪽에 있다고 하여 하용이라고 하였다.

● 다수리

현재 다수동은 다수1리, 어도[앤두], 성주골, 막금은 다수2리, 통두, 월산, 신촌은 다수3리로 묶여진 마을이다.

● 다수리(1)-다수마을(다수1리)

마을 뒤 대성산의 숲이 울창하고, 사철 물이 많이 흐른다고 하여 다수동(多水洞), 다수라고 하였다.

● 다수리(2)-어도(앤두)마을(다수2리)

옛날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 상태(현 신의면)와 이 마을에 나룻배가 건너다니던 나루터라고 하여 어도(於渡) 또는 앤두라고 하였다.

● 다수리(3)-성주골마을(다수2리)

대성산에는 성(城)이 있어 옛날 성을 관리하는 성주(城主)가 살았던 곳이라고 하여 성주골 또는 성자동이라고 한다.

● 다수리(4)-막금마을(다수2리)

섬에 금줄기가 있다고 해서 막금이라고 하였다고 하나, 금맥은 찾을 수 없고, 현재는 막금(莫今)으로 표기되어 부르고 있다.

● 다수리(5)-통두마을(다수3리)

마을의 생김새가 통과 같이 생겼다고 하여 통두(桶頭) 또는 통머리라고 하였다.

● 다수리(6)-월산마을(다수3리)

마을 동쪽에 있는 작은 산이 서산으로 넘어가는 반달처럼, 보이는 형국이라고 하여 월산(月山) 또는 달메라고 하였다.

● 다수리(7)-신촌마을(다수3리)

마을이 새로 형성되었다고 하여 신촌(新村)이라고 하였다.

● 마진도리

현재 마진은 마진도1리, 읍도는 마진도2리로 형성된 마을이다.

● 마진도리(1)-마진도마을(마진도1리)

섬의 형태와 마을 뒷산의 바위가 말 모양이고, 나루터가 있어 마진(馬津)이라고 하였다.

● 마진도리(2)-율도마을(마진도2리)

섬의 형태가 밤[栗]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옛날 섬에 밤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하여 율도(栗島) 또는 밤섬이라고 한다.

(2) 인물설화

필자가 문헌·현지에서 조사한 장산도의 인물설화는 4유형 34편[인물 25편, 동물(용 1편, 말 4편, 범 2편), 식물(0편), 사물(2편)]이다.

인물설화의 경우 인물유형(25편)은 노루섬, 도깨비, 효자, 연평바다, 재명명덕, 똥개, 외쪽쟁이, 신부, 사랍, 며느리, 서숙 두 모가지, 남생이, 칫바쿠 산, 사위와 장모, 석준내 굴청, 닭도둑, 양반과 중, 보선-신-×, 효자, 차씨와 여우, 구렁이 신랑, 딸죽

인 계모, 수봉이 이야기, 정승 아들과 개쟁이 딸, 바리섬[죽도] 등의 삽화¹⁾들인데, 공수리 정을룡씨, 도창1리 정공심씨, 도창리 정석심씨, 도창리 김영만씨, 도창2리 박원식씨, 대리 김대유씨, 도창리 이춘옥씨, 공수2리 비소마을 김진오씨 등의 제보로 여러 화소들이 조사되었다.

동물유형(6편)은 용(1편)의 할미섬, 말(3편)의 말바위, 범(2편)의 범바위 등의 삽화인데, 공수2리 비소마을 김진오씨, 마진1리 김종남씨, 마진1리 장필재씨, 공수리 김영만씨, 도창2리 두마리 박동석씨 등의 제보로 여러 화소들이 조사되었다.

사물유형(2편)은 중(2편)의 중바위, 맴비산 등의 삽화인데, 공수리 정을룡씨, 도창리 김영만씨 등의 제보로 화소들이 조사되었다.

총 4유형, 33편이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제보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참고문헌
2	인물 설화	연평바다	정을룡 (남, 59)	장산면 공수리	1984	허경회 1996:81~85
		쫓겨 난 신부	정공심 (여, 59)	장산면 도창리 1리	1984	허경회 1996:92~94
		서숙 두 모가지	정공심 (여, 59)	장산면 도창리 1리	1984	허경회 1996:97~101
		말하는 남생이	정공심 (여, 59)	장산면 도창리 1리	1984	허경회 1996:101~103
		바리섬[죽도] 이야기	김진오 (남, 62)	장산면 공수2리 비소마을	2014. 02.20	현지공동조사 (축강선착장 설화구술)

1 설화 분절 단위의 크기로 보면, 가장 큰 단위로 '설화형'(혹은 '유형', type)이 있고 그보다 작은 '삽화'(挿話, episode), 그 밑에 '화소'가 있는 구조이다. 모티프(motif)의 번역어인 화소(話素)는 행위자(行爲者, actors)의 어떤 사항(事項, certain items)과 단일한 사건(single incidents)이다. 가령 보통 '어머니'는 모티프가 아니지만, '계모 같이 잔인한 어머니'는 이야기거리를 만들기 때문에 모티프가 된다. (최래욱, 「화소」,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 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20573&cid=50223&categoryId=51051>

번호	분류	제목	제보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참고문헌	
2	인물 설화	용	할미섬 이야기	김진오 (남, 62)	장산면 공수2리 비소마을	2014. 02.20	현지공동조사 (축강선착장 설화구술)
		말	마진도 말 바위	문석철 (남, 84)	장산면 오음1리	2014. 08.28	리길용 1985.10:93
			말바위 이야기	김진오 (남, 62)	장산면 공수2리 비소마을	2014. 02.20	현지공동조사 (축강선착장 설화구술)
		범	[미수록] 범바우	(남, 64)	장산면 공수리	1984	허경희 1996:105
	사물	[미수록] 종바우	정을룡 (남, 59)	장산면 공수리	1984	허경희 1996:81	

● 연평바다

<줄거리>

십 년을 일해 새경이 엄청난 머슴이 갑부주인에게 떠나기를 원하고, 겨우 무명배 한 필만 받아들고, 가족 중 아들 하나와 함께 떠나자 관상쟁이가 따라 붙고, 산에 오르자 비가 내려 7개 군이 모두 바다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핵심어는 머슴, 갑부 하나, 배, 지팡이, 가족, 아들 하나, 관상쟁이 등이다.

<구술내용>

연평바다에 거가 옛날에 칠군이 있다는 전설이 있어요. 일곱 군이 있어요. 연평바다가 옛날에 일곱 개 군이 있었는데 거그 인자 어느 군에 아주 갑부 하나가 있었는데 후원에 연못도 맨들아 놓고 봉어도 키고 이랬는데, 오늘도 내일도 모르고 머슴살이 하는 사람 하나가 십 년간을 그 집서 머슴을 살았는데 십 년이 지난 후 설을 딱 새고는 주인을 보고,

“나갈랍니다” 이렇게 한께.

“아니 이 사람아, 나갈라든 진직 얘기를 했으믄 내가 자네 새경을 해줘야 된텐디 갑자기 나갈라하믄 이 도대체 으뜨께 하는가. 돈도 없고 한디. 그란디 으째 이렇게 말도 없이 갈락하냐?” 한께

“아니 그러케 아쇼” 하고,

“여그는 살 때가 인자 다 되었으께 가랍니다” 하고 나설락 한께 그랑께 그 주인이 고진한 사람이제.

“자네하고 나하고 십 년간 산 새경을 개레보세.” 개레노코 본께 자기 살림이 다 그 갑부의 살림에도 다 없애도 모자르단 말이여. 이자 다 타산해 본께 십 년간인께 그래서

“이렇게 되니 이 거액을 솔직히 내가 으뜨께 주겠는가.” 한께

그 머심 하는 말이

“내가 몸뚱이 하나뿐이 와가꼬 주인이 해 준 옷입고, 밥 얻어 묵고 시킨 일이나 했을 뿐인디, 새경이 무슨 필요있냐.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으께 나갈랍니다.” 한께

“노무 임금 띠어 묵은 놈이 잘산디 없는디 쓰겠냐. 그러니 단 그래도 머신간 보답이 있어야 쓰겠다.”

“필요없다.” 고 나선께

“그라든 가되 가는 것도 좋지만은 자네가 당장 나가믄 그래도 입고 벗을 옷은 있어야 되께 아니냐. 당장 입을 옷 한나 갖고 나가믄 어찌 껴이냐?” 그러니 불러 가지고 앞단이를 꺼내 가꼬 미영베 한 필을 줌서 으따가 지어 입든지 옷 한물 지어서

“입은 옷이 더럽혀지면 갈아 입도록 하쇼.” 하고 준께

“주인 양반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가거든. 대문 밖까지 나갔다가 대문을 나갈 사람이 지팽이를 한나 가꼬 오거든 갖고 있어서 주인을 주면서

“여그는 살 때가 다 되었으니 금년 봄 날씨가 풀려 가꼬 인자 화장할 때 되면 당신 후원에 봉어가 몽땅 뜰 때가 있을 것이요. 그땐 시간이 바쁘니 가족들을 데리고 속히

이 지팽이가 인도한 데로 가시오. 그라믄 생명을 구제할 것이요.” 그라고 인자 가거든 그란께

“그라냐.” 그란디 대문밖에 나갔다가 지팽이를 갖고 와서 주거든 기어이 간직해 놔단 말이여. 그랬는디 그해 삼월달이 다친디 아 거 아들놈이, 큰 아들놈이 아버지한테 아침인사 드릴라고 후원에 가본게는 붕어가 몽땅 죽어 떠 부렸습시다. 으짢 일인가 모르겠다.“

함께 그날 날자까지 다 가르쳐 줬거든 그 사람이 감서

“아무달 아무날 아무시에 이렇게 되께 그때는 여그를 떠나야 되요. 이 지팽이를 짚고 나가시오. 이 지팽이가 대문밖에를 나가믄 안도를 할 것이요. 이 지팽이가 끄는 데로만 가시오. 그레가꼬 으디까지 가든지 이 지팽이를 짚고 가다가 이 지팽이가 딱 백해가꼬 스톱할 때까지만 가시오. 그땐 거그서만 사요.” 그래서 인자 그렇게만 알고 간직했다가 그날 그르케 되께는 즈그 가족들 마누라나 아들이 모이락 해 놓고,

“이 사람이 우리 집서 십 년간 머슴 산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갔다. 여그를 뜨자.” 그런께 아따 아들놈들이 무락하고 하니 양꿏또 모르고 밥만 먹고 일만 하고 십 년간 살다 기양 산 사람을 그런 사람 말을 으뜨께 믿냐고, 그러니 나는 안간다. 즈그 마누라도 안간다. 즈그는 안간다고 그란디 아홉 살 먹은 아들 한나가 있는디, 그 아들 보고 너는 으짤래 그란께 나는 아버지 따라 갈란다고. 가자고. 자기 일시 먹을 각자 소지품을 갖고 간디, 지팽이 끝이 끄서요. 사람 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지팽이 끝이 끄서간다 그말이여. 연평 칠군 중 어느 군인 줄 모르나 그 날 그 군이 장날이었어. 인자 해름판 한 오후 세시 경이나 이렇게 된 참인데, 중천에 해가 비친디 그날은 유난히 장꾼이 수만 명이나 왔드래요.

근디 아, 그 인자 시장을 가다가 장꾼이 물건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있는디, 그 장을 지나서 저쪽 벗어나서 가는 그 어느 술집마당을 시장기가 있어서 애를 안자 손을 쥐고는 주모를 불러서 술 한 잔 주락한께, 거기애가 누구 있었는고 하니, 일등 관상 잘 본 관상쟁이가 있었어. 그란디 관상객이 자기는 인자 시방 돌아 멩기다 그 장을 지내는데, 장에 와 수만 명 돌아멩기는 사람을 본디, 전부 다 그날 디질 놉이여, 전부다 디질 놉이여.

“내 눈이 그란디냐.” 하고 그날 술집이 와 술 한 잔 주락해서 묵음서 거울을 놓고
 짝 본께, 저도 그날 금방 죽겠거든.

“으짤 일로 멀쩡한디 죽는다냐. 이 장꾼이 다 죽고 나도 죽을 얼굴인디.” 하고 인자
 한탄을 한고 술 한 잔 먹고 있는디, 아, 영감 한나가 우리 세대나 되는 60세 먹은 영감
 한나가, 문약으로 아들 한나 데꼬 서서

“주모 여그 술 한 잔 주소.” 하고 돈 손에 집서 술 한 잔 주락한다. 아, 그 관상쟁이
 가 딱 쳐다본께 그 영감하고 그 어린이하고는 살 상이여. 죽을 성은 아니여.

“묘한 일이다. 만 사람이 다 죽을 상인디 어째 이 영감하고 애기 하고는 살 얼굴인
 고. 허이 영감님, 이리 와서 내가 술 한 잔 받아주께.”

“아이 내 술 나묵고 내 아들 나주제. 먼남의 술 먹는다.”냐고 한 잔 돈줍서 묵고는
 죽 가드라고. 그래 이 관상객이

“아 여그는 곡절이 있구나.” 하고는 그 영감 뒤를 따랐어요. 따랐는디 안산 산봉아
 를 올라 가는디, 그래 인자 슬라가자 내려다 본께, 저 서해바다에서 산터미 같은 막
 파도가 밀려오는디 막 물어 오거든, 그란께, 집이고 머시고 막 물어 오거든. 그래 인
 제 사람들이 전멸하자 장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불제. 그 관상객은 물이 물려온
 데 보고 앞서서 막 뛰어갔단 말이여. 백메타, 오백메타, 앞서서 뛰어갔단 말이여, 뛰
 어가서 산에 높이 올랐는디 이 영감이 중턱에서 물이 떨어져 오는디 쉬어가자고 하고 앉
 거든. 그란께 저 우에 높이 올라와 있는 관상객이

“아니 영감님, 영감님, 아니 물이 들어온디 어째 거가 앉아 있냐고 얼릉 올라오라.”
 한께

“아니 내 일 나 알아서 하고, 자네 일 자네 알아서 하제. 먼 여러 소리냐.”고 한께
 그 영감님이 이라고 앉아서 쉰디 그 밀려오던 물이 이라고 발등에서 딱 스그든, 그래
 서 그 높은 자기가 죽을 상인디 그 영감님 옆에 딱 붙어서 살았어. 연평 7군이 다 없어
 졌는디 그 속에서 관상쟁이 하나하고 그 영감님 부자하고 살았다 그 말이여.

● 쫓겨 난 신부

<줄거리>

김정승의 아들이 곧잘 생긱생긱 웃는 박정승의 딸을 소박하자, 김정승이 신부의 집에 와서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며느리의 능력을 확인하고 오해를 푸는 이야기이다. 핵심어는 박정승의 딸과 김정승의 아들, 까마귀 등이다.

<구술내용>

옛날에 김정승 아들이 박정승 딸한테로 장개를 갔는데 첫날적에 김정승네 아들이 이렇게 신부를 차다본께 양반이라하든 신부가 웃기도 힘이 들었제. 옛날에는 웃음도 함부로 못 웃었제. 그란디 신부가 앉아서 빼기작작 웃음을 웃고 있거든. 그랑께

“암찍해도 저 큰애기가 옛날에 즈그 셋서방하고 하는 일을 생각해 갖고 저렇게 무심결에 나온 거이다.” 그라고는 아무말없이 즈그 집으로 가부렀네. 가부러서 인자 참 양반집에서 시집도 못가고 징할 일이제. 하루는 즈그 시암시가 메늘아가 으찌게 되 았는가 보자 그라고는 쌀쌀 온께는

“아부님 오시오?”

요렇게 인사를 하거든, 아, 점심을 받고 있은께, 사돈 영감이 즈그 씨암시 곁에 았 아다가 새팍에서 까마구가 까옥까옥하고 온께 친정 아버지 하는 말씀이

“아무개야”

“예.”

“저 까마구가 므시라 하나?”

그라예 즈그 씨암시가

“믄 말씀이요?”

“우리 딸이 까막까치가 한 말, 쥐가 한 말, 내가 한 말 다 알아묵소.”

일테면 만물박사라 이것이제.

“아부님 올해는 승년이 든께 전답을 다 풀아서 곤석으로 두쇼.”

그랬어, 김정승이 집에 가 갖고는 집밑에 깨퐁논, 개퐁밭을 모도 다 풀아 먹었어.

“저 사람 사돈네 집 갔다 오더니 저런 존 눈을 풀고 미쳤는갑다.”

아, 그랬어. 인자 곡석으로 걷어 들여서는 해논께는 6·7월에 눈이 내려서 옴막 사
그라져 버렸네. 승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논께는 밭 한 마지기 잡혀놓고도 곡석 댓
말 주고 열 마지기 잡혀놓고 한 가마니 주고 배가 고평께, 그렇게 해서 일테면 장산이
른 장산을 다 사부렸제, 그래서 인자 그런 메느리를 이때끔 반대했다. 그라고는 그때
는 박정승이 딸을 데려다가 시상답게 살었어. 그란디 신부가 으째서 첫날밤에 웃었나
른 신부가 방에서 카만 들어본께 쥐가 하는 말이 즈그 왕쥐보고,

“조부시.”

“못할라냐?”

“정재냄비에는 돼야지고기 볶음이 있는디 똥쟁이를 못 열 것소.”

그렇게 왕쥐하는 말이

“그라믄 그 부숭을 헐어라. 그라믄 냄비가 자빠지믄 똥쟁이가 열어질 것이다.”

짐상하는 말이 하도 얼척 우서서 웃음을 웃어부렸제, 그랬는디 무심결에 셋서방을
얻어놓고 셋서방하고 하는 일 생각해서 웃음이 나왔다 그라고 신랑이 가부엌제, 찬 짐
상도 얼척없제.

● 서숙 두 모가지

〈줄거리〉

무위도식하는 똥개라는 사람은 어머니가 화를 내자 밭을 일구러 나가지만 겨우 한
이랑만 일귀놓고 잠을 잔다. 그 뒷날은 아들이 서숙을 부리지만, 어머니가 똥을 많이
싸서 냄새가 고약한 서숙을 내쫓는다. 아들은 서숙을 가지고 주유천하(周遊天下)를 하
는데, 쥐가 서숙을 먹어 쥐를 가지고 가다가, 개가 되고, 소가 되고 마침내 아가씨가
된다. 그래서 똥개는 아가씨를 데리고 고향에 돌아온다. 핵심어는 똥개, 어머니, 서숙
→쥐→개→소→아가씨 등이다.

〈구술내용〉

옛날에 한 똥개가 살았어. 옛날에 한 똥개가 살았는디, 그야말로 여간 멍청해. 옷묵에다 똥싸고 아랫묵에서 밥 묵고, 즈그 어메가 하루는,

“너 이 느낌 씨발놈아! 노므는 니 동갑에 떼밭도 파고 돈도 벌고 한디, 어째 너는 옷묵에도 똥싸고 아랫묵에서 밥 묵냐아!”

그라고 조진께,

“어메, 그라믄 장자네 집에 가서 꼭쟁이 한나 얻어다 줘. 나 떼밭 팔라네.”

“그래라.”

“그라믄 어메는 걸게 장만해 갖고 낮에 오쇼 잉?”

“그래라.”

그라고 즈그 아들 떼밭 판다고 아주 자기 속으로는 걸게 장만해 갖고, 이고, 지고 물뜨고 해서 갔어. 맛 간께는 꼭쟁이로 한 번 찍어 놓고 잠퍼자고 있거든,

“에끼 느낌 씨발놈! 인제까지 이것 봤냐. 밥 빌어 묵겠다.”

“어메 카만 있어봐. 날마다 파믄 이래도 많이 파.”

그라거든,

“그래야?”

날마지 떼밭 판다고 즈그 어메는 내자식 오랜만에 사람되어서 떼밭 판다고 걸게이고 가믄 퍼묵고 하루에 꼭쟁이로 한나씩 파서 얼마나 봤든가 뉘 있으믄 꼭 맞게 봤어. 그래서 인자 서숙 갈 때가 되었든가

“어메, 장자네 집에 가서 서숙씨 좀 얻어다 주게.” 그랑께,

“그래라 많이 봤냐?”

“여간 많이 봤어라우.”

그래서 인자 서숙씨를 얻어다 준께 얼마나 얻어다 줬든가,

“서숙씨는 배든 못쓴단다. 푹푹 숨어 부러라.”

그렇게 꼭 서숙 두 모가지를 거그다 셔 낚든가 날마지 거그다 푹을 얼마나 썩든가 기름이 되어갓고 막 요렇게 커. 모가지가 요만했제. 하루는

“어메 나 오늘 서숙 가실하러 갈라네, 어메는 빠친께 오지 말게.”

옛날에는 어메보고 하게도 했거든.

“안 갈란다, 니가 해갓고 온나.”

그렇게 요런놈 두 목을 해가지고 돌아왔거든

“어메, 서숙 가실 다 해갓고 오네.”

“예끼 이 오살놈! 서숙 두 모가지 해 갓고 서숙 가실 한 대냐?”

그러면서

“그놈 갓고 기 나가거라.”

그렇게

“나가야제.”

인자 나가서 으디만큼 강께, 해가 저물어진께 큰 대문 달린 집으로 들어갔어.

“짐 잠 합시다.”

“우리집 진 못하요.”

그렇게

“여물청도 좋고 소청도 좋소.”

“그래야?”

그렇게 서숙 두 모가지를 맏기면서

“취가 까묵으믄 안돼요”

“못할라 쥐가 까묵으까?”

그랬어, 그랬는디 하룻적 자고 일어난께 쥐가 싹 묵어 부렸네.

“서숙 모가지 내노쇼.”

“아이 으차까 쥐가 까묵어서…….”

“그라믄 그 쥐라도 잡아주쇼.”

쥐를 잡아준께, 편매서 쥐를 찌찍 낫고 갔어. 그러다 으디만큼 가다가 해가 저물어진께.

“진 잠 합시다.”

그랑께

“그릅시다.”

하라 했어. 그랑께 쥐를 맬겨 났어.

“이 쥐 개가 잡아 묵으믄 안돼요. 잉?”

“뭇 잡아묵겼소?”

찌그다 찌매났는디 아닐싸 개가 확 잡아 묵어 부렸네. 아적에,

“내 쥐 내놓으쇼.”

그랑께,

“위메, 그라믄 개라도 내놓으쇼.”

개를 주거든, 아이 으디만큼 또 간께는 해가 저물어졌어. 저물어진께는

“진 잠 합시다.”

그랑께

“진 못해라우.”

“아이 여물청도 좋고 소총도 좋소. 나는 아무데 자도 좋소.”

그랑께

“집 깔어 놓고 나무청에서 자쇼.”

그러거든, 나뭇청에서 자고 개를 빨겨 낫는다, 아직에 부삭에다 고기를 찢든가 가시나가 때려갔고 개가 죽어 부렀네.

“개 내노쇼”

그랑께

“으차까 우리 가시나가 죽여부렀는다. 부삭에다 반찬 꺾 낫는다 개가 목어 부러서…….”

“그라믄 큰애기라도 내 놓으쇼”

그랑께,

텔꼬 으디만큼 간께는 또 큰 애기를 잠 잘라나 텔꼬 갔는다 하룻적에 자고난께 으찌게 해서 큰 애기가 죽어 부렀네. 죽어분께 샘이 갖에다 이렇게 꽃자리 땡기 들어서 이쁘게 해서 양쪽으로 갈라 묶어서 샘이 갖에다 이렇게 셔 낫어. 그랑께 으쁜 이쁜 큰애기가 물질러와서 뒤를 이렇게 잡음시로

“어따 어따 큰애기도 징하게 이쁘다. 머리도 좋고.”

잡어댕긴께 핵 자빠졌어. 죽은 송장을 친께 자빠져 블제.

“워따 저 큰 애기가 우리 각시 죽였다데.”

인자 막 따라 가자고 했어. 따라가 갖고는 인자 즈그 집으로 텔꼬 갔제. 참 즈그집 가서는 각시 얻었다고 각시 얻었다고, 온다고 든 화첩 뺑뺑 둘러쓰고 첼치고 대사 친다하고 막 난리고 한디 그라믄 으찌게 해서 이 큰 애기를 얻었냐 한께 서숙 두 모가지에 쥐 한 마리, 쥐 한 마리에 개 한 마리, 개 한 마리에 큰 애기 한 마리, 큰 애기 한 마리에 각시를 얻어갖고 왔다고 그렇게 대답했어. 똥개도 피가 있어갖고 그렇게 멍청했어도 이쁜 각시를 얻었어.

〈조사자: 그런데 '진 잠 합시다' 가 무슨 말이에요?〉

〈제보자: 일테면 نوم집 가서 잠을 잔다 그것이지, 일본말로는 고멘구다 사이 그래.〉

※일본어로 표현된 대문은 풀이에 안 맞는 말이다.

● 말하는 남생이

〈줄거리〉

설이 닥쳐 푸념을 하던 가난한 사람은 따라가서 사는 남생이를 한양대감에게 팔지만, 한양대감은 남생이가 말을 앓자 죽인다는 것, 가난한 사람은 마루 밑에 심은 남생이의 쪼가리가 대나무가 되어 천국의 쌀창고를 뚫어주자 부자가 된다는 것 등의 이야기이다. 핵심어는 빈자→부자, 한양대감, 남생이→대나무 등이다.

〈구술내용〉

전에 한 사람이 있었어. 전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삼네도 우리 같이 웅색하게 살었던 모양이지, 그란디 지계통장을 짊어지고 산에 가서 인자 설은 다 다치제 널 모래 설인디 설을 썰 건더구가 없제.

“설은 다 다친디 우리 늙은 부모는 으짜건나.”

그랑께 남생이가,

“설은 다 다친디 우리 늙은 부모는 으자끄냐.”

그라거든, 또

“설은 다 다친디 우리 늙은 부모는 으자끄냐”

그라거든, 차츰차츰 가 보니까 남생이가 그라고 있거든.

“남생아 나 따러 가끄냐?”

“그라쇼”

“가자.”

인자 남생이를 텔꼬 서울 대감네 집을 갔네. 가서 문간에서

“말한 남생이 사쑤! 말한 남생이 사쑤!”

그랑께 대감이 종 보고

“중아, 무 사라 한가 내다봐라.”

“말한 남생이 사라 합니다.”

그랑께

“그람 이리 텔꼬 온나.”

텔꼬 왔제,

“어디 자네, 저 남생이 말 한 번 시켜봐라.”

“설은 다 다친디 우리 늙은 부모는 으자끄냐.”

그랑께 남생이가

“설은 다 다친디 우리 늙은 부모는 으자끄냐.”

영락없이 말을 하거든,

“자네 나한테 풀게, 얼마든지 주겠네.”

“돈을 내 징에 한나 지고 가게 주쑤.”

옛날에는 엽전이제, 엽전에 꼬쟁이 낀 놈을 한나 저준께 집으로 갔어.

아, 지고 간 다음에 인자,

“설은 다 다친디 우리 늙은 부모는 으자끄냐.”

해도 절대 말을 안하네. 돈을 많이 주고 샀는디 말을 안한께 니미혈 것 딱 뚜드러
깨부렸어.

한 번은 그 사람이 남생이가 으찌게 산가 불라고 서울 장안에 가본게,

“어째 자네 말한 남생이 말도 안한당가?”

“아 당신이 본게 내가 말할 때 합디여, 뭇할라 뚜드러 깨불고 그라요?”

그라거든

“부해난게 그랬다.”

“그라믄 그 남생이 쪼가리 으파 뵘소?”

“저그다 내부렀다.”

그놈을 주워갖고 와서는 글로 부자됐다고 즈그 사랑 밑에다 물어놔어.

그란디 그 남생이 쪼가리에서 왕대 죽순이 나와 갖고 하나님 쌀 곡간을 쭈셔 부렸네.

그래서 날마다 그 삼네 집으로 쌀이 풍풍풍 풍풍풍 내려오네. 그래서 사철 농사도 안짓고 잘 묵고 잘살제.

즈그 성님이 그것을 알었든가

“너 으찌께 해서 부자 됐냐?”

“예, 남생이 쪼가리 깨진 것 주워다가 물어놔더니 그 후 왕대 죽순이 나와 갖고 하나님 쌀 곡간을 쭈셔불어서 쌀이 내려오요.”

즈그 성님이 놀보거든, 그래서 남생이 쪼가리 뺏다가 사랑밑에다 물어놔어. 인자 맘씨가 불량한게는 거그서 왕대 죽순이 나와 갖고 하나님 똥 곡간을 쭈셔 부렸네. 날마다 똥이 막 내려오제. “아이 아시야, 똥쳐라. 원앙생 가래야.” 하고 밥낫 쳐도 똥만 나왔어. 그래서 인자 동생은 쌀 곡간 쭈셔 갖고 잘 살고, 형은 마음씨가 불량한게 똥 곡간 쭈셔서 날마다 똥만 치고 그랬어.

● **바리섬[족도] 이야기**

〈줄거리〉

섬을 머리에 이고 물 위를 걸어서 장산쪽으로 오던 장사 아주머니는 누가 옆에서 힘이 세다는 말에 놀라서 섬을 떨어뜨리는데, 섬이 발등을 맞고 발등과 같이 바리섬[족도(足島)]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핵심어는 아주머니, 섬 등이다.

〈구술내용〉

아주머니가, 아주 장사인 아주머니가 저 섬을 머리에 이고, 물 위로 침병침병 걸어서 이렇게 쪽 장산쪽으로 오는데, 누가 옆에서 “우매 저 아주머니가 힘 세다.” (아주머니가) 그 소리에 놀라서 (섬을) 푹 떨어버렸는디, (섬이) 발등을 맞고 바리섬이 되었다고. 발등 같이 생겨서 ‘바리섬’ 이고, 한자로도 발족자, ‘족도(足島)’ 라고 했다고, 지금 지도상으로는 족도라고 나오죠.

● **할미섬이야기**

〈줄거리〉

날씨가 좋아서 갯갯을 하러 갔으나 비가 억수로 쏟아져 노를 저어 우리 장산 본도로 오던 다수리 동네사람들이 물기둥을 타고 승천하는 이무기를 보지만, 이무기는 소리 치는 한 처녀 때문에 승천을 못하고 바다에 떨어지고, 사람들한테 처녀를 내달라고 해 섬에서 평생 살게 하는 바람에 할미섬[노파도(老婆島)]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핵심어는 처녀, 용 등이다.

〈구술내용〉

날씨가 좀 좋아가지고 바다 갯갯, 우리 시골에서 말하면 갯갯인데, 고동을 잡는단든지, 미역을 판다든지, 톳을 판다든지를 갯갯인데, 다수리 동네사람들이 갯갯을 하러 가서 한참 갯갯을 하고 있는데, 아주 하늘이 까매지면서, 천둥 번개를 치면서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동네사람들이 빨리 서둘러서 오는데, 노를, 그때는 노를 젓은 배라서 노를 젓어서 우리 본섬으로 오는데,

큰 물기둥이 들어서면서 이무기, 구렁기가 용, 승천을 할라고 물기둥을 타고 올라가는데, 배에서 처녀가 "와 저기 이무기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소리를 치자 말자 그 이

무기가 바다에 폭 떨어져서 인제 온 주민들이 무서워 가지고 빨리 우리 섬으로 올라고 노를 저어 오는데, 중간 조금 더 와서 배가 절대 움직이지 않아서 인제 배 그 밑을 들여다 보니까 이무기가 그 배를 칭칭 감고 있으면서 꼼짝도 안해서

인제 그 사람들이 아 살려달라고 빌으니까 그 처녀를, 아까 소리쳤던 그 처녀를 “저 섬에다 내려놓고 가라” 그래서 다시 배를 저어서 그 처녀를 섬에다가 내려놓으니까 인자 배가 인자 이무기가 풀어줘 가지고 다시 이리 본섬으로 오고 그 처녀는 거기서 평생을 늙어 죽어가지고 할미섬이라고 했다고. 한자로는 노파도(老婆島).

● 말바위 이야기(1)

『장산의 뿌리』²⁾에 나오는 말바위 이야기는 이렇다.

〈줄거리〉

어떤 장군이 해남에서 장산으로 말을 타고 왔을 때 말이 절벽 위에서 앞으로 가지 않자 장군이 채찍으로 금이 생길 정도로 말의 잔등을 때렸으나 말이 가지 못하고 그대로 바위로 굳었고, 바위에 금이 생겼다는 이야기이다. 핵심어는 장군, 말, 채찍, 말바위, 마진 등이다.

〈구술내용〉

이에 대한 전설은 옛날 어떤 장군이 해남에서 말을 타고 이 바위를 지나서 공바위 가까이 왔을 때, 절벽 위인지라 무서워 말이 앞으로 가지 않자 채찍으로 말의 잔등을 때려서 생겼다는 금이 바위에 70cm 정도 있으며, 말이 가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져서 바위가 되었다고 한다.

2 리길용, 「(19) 당제: 마진도 말 바위」, 「13. 민속」, 『장산의 뿌리』, 장산동초등학교 향토문화연구회, 1985, 93쪽.

● 말바위 이야기(2)

공수2리 비소마을 김진오씨가 구술하는 말바위³⁾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줄거리〉

마진도, 장산, 해남 화원반도가 육지로 되어 있을 때 말을 타고 마진도에서 장산으로 오던 어느 장군이 마진도 동네 위의 산에서 말이 돌맹이 앞에서 갑자기 멈추고 가지 않자, 화가 나서 말의 목을 칼로 쳤더니 그 말이 돌로 변해 말바위, 그런 곳에 나룻배가 있어 마진이라고 했다는 이야기이다. 핵심어는 장군, 말, 말바위, 마진 등이다.

〈구술내용〉

그전에, 아주 옛날에 마진도하고, 장산하고, 해남 화원반도하고, 화원하고 육지로 되어 있을 때 어느 장군이 말을 타고 마진도를 거쳐서 장산으로 오는데, 마진도 동네 위에 산에서 말이 갑자기 멈춰 서서 아무리 채찍을 해도 안가니까 밑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앞애가 그 동그란 돌맹이가 하나 있는데, 그 돌맹이 때문에 절대 말이 안가서 그냥 장수가 화가 나서 칼로, 단칼에 그냥 목을 쳐 버렸는데, 그 말이 돌로 변했다고 그래서 ‘말바위’ 이고, 그 말바위에다가 지형이 말과 같이 생겨서 그런 곳애가 나룻터가 있어서 ‘마진’ 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3) 경험담

필자가 문헌·현지에서 조사한 장산도의 경험담은 7편이다.

경험담의 경우 화렴(火鹽), 혼육(魂肉), 자료[책], 창극(唱劇), 작사(作詞), 계(契), 낙지잡이 등의 삽화이다. 특히 공수2리 비소마을 김진오씨가 화렴 도구 이야기를, 공수1리 이귀인씨가 혼이 육체를 지배하며, 죄가 있으면 좋은 곳에 가지 못하는 혼과 육

3 홍순일 외 조사, 김진오(남, 62, 1953) 제보, 현지공동조사내용 〈말바위 이야기〉, 장산면 공수2리 비소마을 거주→축강선착장 채록, 2014.02.20(목) 17:34

체의 관계 이야기를, 오음1리 문석철씨가 자료[리길용⁴⁾, 『장산의 뿌리』(장산동초등학교 향토문화연구회, 1985.10) 이야기를, 오음1리 하중숙씨는 창극(역할: 춘향, 황봉사) 활동 이야기와 신앙간증집 『하나님 보는 방식』(시와사람, 2002) 속에 들어 있는 <통일가>(1980.11.13)의 작사(作詞)이야기를, 대리2리 최춘식씨가 계[운상계(발인계), 친목계] 이야기를, 다수3리 낙지박사 강대용씨가 낙지잡이 이야기를 제보해 주었다. 총 7편이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제보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참고문헌
3	전통문화유산	화렴 도구 이야기	김진오(남, 62)	장산면 공수2리 비소마을 김진오씨택	2014. 02.20	현지공동조사
		훈과 육체의 관계 이야기	이귀인(남, 87)	장산면 공수1리 마초마을 이귀인씨택	2014. 08.28	현지개별조사
		인물 이야기	문석철(남, 84)	장산면 오음1리	2014. 08.28	리길용 1985.10:12~13
			김경완(남, 45)	목포대 목포캠퍼스 도서관문화연구원	2014. 07.29	리길용 1999.07:67~75
		창극 활동 이야기	하중숙(남, 91)	장산면 오음1리	2014. 08.28	현지개별조사
		<통일가> 작사 이야기				
		계 이야기	최춘식(남, 71)	장산면 대리2리	2014. 08.29	현지개별조사
		낙지박사의 낙지잡이 이야기	강대용(남, 64)	장산면 다수3리	2014. 10.02	현지개별조사

4 김경완 신안문화원 사무국장은 2014년 7월 29일, 목포대 목포캠퍼스 도서관문화연구원에서 이 책의 증보편인 리길용의 『신안군은 소왕국-장산을 중심으로-』(장산 유적 보존(관리)위원회, 1999.07)를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도서관문화연구원 참여연구자들에게 소개해 주었고, 필자는 이 책을 복사·제본해서 살필 수 있었다.

(1) 화렴 도구 이야기

〈줄거리〉

김진오씨 집안에서 화렴 도구를 이용하여 소금을 생산했다는 이야기이다.

〈구술내용〉

공수2리 비소마을 김진오씨는 자택에서 화렴 도구의 부분을 참여연구자들에게 보여주었다.⁵⁾ 김진오씨의 집안에서 화렴을 했다고 전한다. 세계 소금생산량의 대부분은 광산의 암염으로부터 공급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천일염의 제조가 활발하였다. 서해안 지방에는 염전이 발달하였으며, 특히 주안·남양·아산만 등은 유명하였다.⁶⁾ 신안군 장산면은 이것의 한 지점이었고, 장산도 사람들은 장산도에서 소금을 만든 것이다.

(2) 혼과 육체의 관계 이야기

〈줄거리〉

사람은 혼이 육체를 지배하며, 죄가 있으면 좋은 곳에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구술내용〉

공수1리 마초마을 이귀인씨에 의하면 혼(魂)은 중요하다. 혼이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이 육체에서 빠져 버리면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죄가 있으면 좋은 곳에 가지 못한다. 그래서 곳의 마지막 거리에서 해원곳을 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

5 홍순일 외 조사, 김진오(남, 62, 1953) 제보, 현지공동조사내용 〈화렴 도구 이야기〉, 장산면 공수2리 비소마을 김진오씨택, 2014.02.20.목 12:46.

6 안희수, 「바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3) 인물 이야기

〈줄거리〉

장산도에는 책을 통해 역대 면장, 전대 인물뿐만 아니라 주부 김순국, 강효자, 정별감, 백일장을 개최한 인물, 여와 각의 주인공, 최준영 등의 인물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구술내용〉

장산도의 인물을 소개하는 대표적인 책은 리길용의 2권이다. 하나는 오음1리 문석철씨가 보여준 소책자⁷⁾이다. 여기에는 일제강점기, 정부수립 때 역대 면장, 김정범, 박원근, 장병준, 장홍엽, 고제빈, 장홍재 등 전대 인물 등이 소개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전술한 바가 있는 김정완씨를 통해 받은 위의 증보판⁸⁾이다. 여기에는 역대 면장, 전대 인물, 김일평의 11대조 주부 김순국(종6품), 최범규(남, 1912)씨가 고증했다는 강효자, 정별감이라고 불려온 정채언, 백일장을 개최한 장병문(장자순씨의 조부), 효자 여와 열녀 각, 둘다리를 만든 최준영 등이 소개되어 있다.

(4) 창극 활동 이야기

〈줄거리〉

오음1리 하중숙씨가 춘향, 황봉사 역할을 하면서 창극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이다.

〈구술내용〉

오음1리 하중숙씨는 노래를 다 잘한다는 오음리 사람이다. 하중숙씨는 해방 후 집에 돌아왔으나, 노래에 미쳐서 노래만 하였다. 하중숙씨는 창극을 차려 주도하기도 했는데, 주로 춘향, 황봉사 역할을 맡았다. 이 일은 하중숙씨가 25살 때 김연수 명창을 만나 〈육자배기〉를 부른 이야기와 관련된다.

7 리길용, 「인물 편」, 앞의 책, 1985, 12~13쪽; 홍순일 외 조사, 문석철(남, 84, 1931) 제보, 현지개별조사내용 〈책 『장산의 뿌리』 이야기〉, 장산면 오음1리, 2014.08.28.목 15:20.

8 리길용, 『신안군은 소왕국-장산을 중심으로-』, 장산 유적 보존(관리)위원회, 1999, 67~75쪽; 홍순일 외 조사, 김정완(남, 45) 제보, 현지개별조사내용 〈책 『신안군은 소왕국-장산을 중심으로-』 이야기〉, 목포대 목포캠퍼스 도서관화연구원, 2014.07.29(화) 11:00.

그런데 하중숙씨는 20살 때 혼인하고 28살 때 신앙을 갖기까지 노래에만 전념한다. 하중숙씨가 김연수 명창을 만난 것은 25살인 이때였다. 하중숙씨가 <육자배기>를 부르자, 김연수 명창은 “되었다”고 했다. 이후 사정이 생겨서 방자역을 했던 사람과 함께 자라도에 가지 않을 수 없었는데, 여기에서도 연극 활동을 계속했다.



〈사진 2〉 창극활동을 한 오음1리 하중숙(남, 91)씨가 이야기하는 모습(2014.08.28촬영)

(5) <통일가> 작사 이야기

<줄거리>

하중숙씨가 <통일가> 등 여러 곡을 작사했다는 이야기이다.

<구술내용>

작곡(作曲)이 아니라 작사(作詞)를 한다고 밝힌 오음1리 하중숙씨는 2002년, 출판사 시와사람에서 신앙간증집 『하나님 보는 방식』을 발간했는데, 이 속에 직접 작사한 <하나님의 사랑>과 <통일가> 등을 넣었다. 이 중 1980년 11월 13일에 작사된 <통일가>의 1절 가사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사진 3〉 오음1리 하중숙(남, 91)씨가 작사(1980.11.13)한 <통일가>의 악보(2014.08.28촬영)

우리나라 금수강산 삼천리 반도는
 온 천하에 명예인은 화려한 땅인데
 아 원한에 삼팔선이 남북을 갈라놓아
 동쪽끼리 양단되어 피눈물 영키네

(6) 계 이야기

<줄거리>

대리2리 최춘식씨가 마을에서 발인계인 운상계와 친목계 등 계(契)를 운영했다는 이야기이다.

<구술내용>

최춘식씨는 2~3년 이장을 한 적이 있는 마을사람이다. 운상계의 경우 자녀들이 조부모, 부모를 위해 가입을 한다. 계원은 13~15명인데, 10년 전까지 했다. 여기서는 운상계를 '발인계' 라고 한다. 대리마을에 친목계도 있었고, 쌀, 팔죽을 냈다.

(7) 낙지박사의 낙지잡이 이야기

<줄거리>

다수 3리 강대용씨가 낙지를 잡는 이야기이다.

<구술내용>

다수 3리 강대용씨의 말에 의하면 낙지는 여자의 생리, 빈혈 등의 치료에 좋은 효능이 있다. 2014년 현재 29살 때부터 만 34년 동안 낙지를 잡았는데, 요새 30~40만원 씩 번다. 강대용씨는 세계최초로 낙지를 부화시켰다. 그래서 남들은 강대용씨를 '낙지박사' 라고 부른다.

3. 장산도의 소리

1) 장산도 소리의 전승과 특징

[개요]

장산도의 소리는 크게 민요, 판소리, 무가로 구분된다. 필자는 장산도 구비전승자

원인 소리의 활용방안을 염두에 두고, 장산도 사람들의 의식을 드러내는 민요, 판소리, 무가 등의 조사현황과 조사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문헌·현지에서 조사된 장산도 소리의 경우 민요, 판소리, 무가 등이 조사되었다. 민요는 노동요(장산도들노래, 하중밭매기노래, 길쌈노래, 자장가), 의식요(상여소리), 유희요(강강술래), 비기능요(주로 타령류), 기타 노래 《유행가》, 〈통일가〉 등이 조사되었다. 판소리는 판소리와 그 외연인 창극인데, 판소리는 1종 4인의 소리, 창극은 1종 1인의 민속문화정보이다. 총 2종 5인이다. 무가는 1인이 구연한 장산도 씻김굿의 무가(그림 포함), 1인이 기록한 민속문화정보 등이다. 총 1종 2인이다.



〈사진 4〉 장산면 이귀인, 강부자님의 무형문화재 비석(2014.08.28촬영)

필자가 조사한 장산도 소리 중 장산도 사람들의 의식과 장산도의 특징을 소리로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것을 선별·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의 목록과 같다.

2) 민요

필자가 문헌·현지에서 조사한 장산도의 소리 중 민요는 노동요가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민요의 경우 노동요는 장산도들노래(5인) 하중밭매기노래(5회), 길쌈노래(2회), 자장가(2편) 등인데, 총 4종 14회이다. 의식요는 상여소리인데, 총 1종 2회이다. 유희요는 강강술래인데, 총 1종 2회이다. 그리고 비기능요는 주로 타령류, 즉 동당기(동당애, 동당이), 산방장수, 아들, 산, 개구리, 신세, 아리랑(아리롱), [필자: 무명(無名)]타령, 품바(성주풀이, 장모타령, 화투타령, 사랑타령 포함), 비둘기, 다리, 장, 장모, 시어머니, 곰보, 도라지 등과 〈육자배기〉, 〈한풀이〉 등인데, 총 타령류 26편이다. 여기서의 〈육자배기〉, 〈한풀이〉의 경우 편의상 위의 타령류에 넣어 편수를 계산하기로 한다. 필자는 이것들을 일단 비기능요에 넣었지만 이는 현지조사를 통해 확정되어야 한다. 기타 노래로 다수1리 김복단씨, 황정례씨의 《유행가》, 오음1리 하중숙씨의 〈통일가〉 등도 있다.

한편 노동, 의식, 유희의 생활현장에서 기능요가 비기능요로, 비기능요가 기능요로 불려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를 현장에서 살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1) 노동요

필자가 문헌·현지에서 조사한 장산도의 민요 중 노동요는 장산도들노래, 하중발매기노래, 길쌈노래, 자장가 등이다.

노동요는 농사를 짓고, 길쌈을 하고, 고기잡이를 하는 등의 일을 하면서 행동을 통일하고 흥을 돋우기 위한 민요¹⁾이다.

장산도 노동요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장산도들노래는 5인, 하중발매기노래는 5회, 길쌈노래는 2회, 자장가는 2편인데, 총 4종 14회이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제보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참고문헌	
1-1	노동요	장산 들노래	장산면 민요자료: 7. 장산 들노래	이귀인(남, 57, 소1), 강부자(여, 47, 선창), 박금단(여, 47, 후창), 윤화덕(여, 54, 후창), 이철동(남, 52, 장구), 진금순(여, 45)	장산면 공수리	1984	허경희 1996:130~135
		하중 발매기 노래	《하중발매기 노래》	이귀인(남, 87), 강부자(여, 77)	장산면 공수1리,	2014. 02.19 ~ 02.20	현지공동조사 (마초경로당, 자택)
		길쌈 노래	길쌈노래	김진오(남, 62)	장산면 도창리 1리	2014. 02.20	김진오 2013: 102~105
		자장가	자장가	박동애(여, 62)	장산면 도창리 1리	1984.08	허경희 1996:145~146

1 조동일, 「구비문학」,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 장산도들노래

장산도들노래(1종 5인)는 리길용(2권), 허경회(1권), 김진오(3권), 문화방송(6편), 장산도 사람들(3회) 등이 이를 다루고 있다.

리길용(1985, 1999) 자료(2권)²⁾의 경우 장산 들노래가 책³⁾에 담겨져 있다.

허경회(1996) 자료(1권)⁴⁾의 경우 이귀인(남, 57, 소1)씨, 강부자(여, 47, 선창)씨, 박금단(여, 47, 후창)씨, 윤화덕(여, 54, 후창)씨, 이철동(남, 52, 장구)씨, 진금순(여, 45)씨의 소리가 장산도들노래⁵⁾가 채록되어 있다.

김진오(1991, 2008, 2013) 자료(3권)⁶⁾의 경우 장산도 사람들의 소리가 장산도들노래-[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1호]-로 수록되어 있다.

문화방송(1993) 자료(6편)⁷⁾의 경우 팽진리 최달덕씨의 CD 8-1 신안 모찌는 소리(1)-먼데소리, 오음리 정석심씨의 CD 8-2 신안 모찌는 소리(2)-무언디소리/절레소리, 오음리 정석심씨의 CD 8-6 신안 모심는 소리(1)-상사소리, 공수리 마초 강부자씨의 CD 8-9 신안 논매는 소리(1)-‘어이코난지나혜’, 오음리 정석심씨, 정남임씨 외의 CD 8-11 신안 논매는 소리(2), 공수리 마초 강부자씨의 CD 8-10 신안 풍장소리-질꼬내기 등이 각각 문화방송 CD에 담겨져 있다.

장산도 사람들(2014)이 직접 부른 소리(3회)의 경우 이귀인씨, 강부자씨의 <<장산도들노래>>〈모똥소리〉(늦은 소리→잡은 소리), 〈모심은 소리〉(늦은 소리→잡은 소

2 리길용, 앞의 책, 1985; 리길용, 앞의 책, 1999, 96~103쪽. 이때 뒤의 책은 앞의 책의 증보판이고, 오음리 문석철씨가 보여준 앞의 책에는 장산도들노래, 동당기타령 등이 민요에 수록되었고, 뒤의 책에는 여기에 하중밭매기노래가 추가되어 민요에 수록되었다.

3 리길용, 『장산 들노래(28), 동당기타령(28~30)』, 『12. 민요(28)』, 앞의 책, 1985, 28~30쪽; 리길용, 『(1) 장산 들노래(무형 문화재)』, 『14. 민요』, 앞의 책, 1999, 96~98쪽.

4 허경회, 『신안지역의 설화와 민요』,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96.

5 모똥 소리(늦은 소리, 잡은 소리), 모심은 소리(늦은 소리, 잡은 소리), 논매 소리(늦은 소리), 논매고 일어서기(잡은 소리), 질꼬내기 등이다. (허경회, 『7. 장산들노래』, 『V. 장산면 민요자료』, 『I. 하의·장산의 설화와 민요』, 『제2부 자료 편』, 허경회, 앞의 책, 1996, 122~156쪽)

6 김진오, 『1. 장산 들노래-지방무형 문화재 제21호-』, 『IV. 민요』, 앞의 책, 1991, 36~41쪽; 김진오·최성환, 『1. 장산들노래-지방무형문화재 제21호-』, 『V. 장산면의 민속문화』, 앞의 책, 2008, 48~52쪽; 김진오, 『8. 장산들노래』, 『제2장 민요』, 앞의 책, 2013, 83~93쪽.

7 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전남민요해설집』, (주)문화방송, 1993.

리), 〈논맨 소리〉(늦은 소리), 〈논매고 일어서기〉(잡은 소리), 〈질꼬내기〉, 최춘식씨, 문경순씨, 김순진씨, 한옥순씨, 장하금씨, 흥연심씨, 장춘재씨, 정춘식씨의 〈모심는 소리=상사소리〉, 〈논매는 소리〉 등이 있고, 장산도 진금순씨, 박금단씨, 윤순심씨, 최막례씨 외 장산도 사람들이 공연한 것은 〈장산도들노래〉이다.

〈구연상황〉

《장산도들노래》가 1981년 11월 11일, 제12회 남도문화제에 신안군 대표로 출연하여 최우수상에 입상되고, 1982년 10월 26일, 제2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전라남도 대표로 출연하여 국무총리상에 입상되었다. 그리고 1988년 12월 21일,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1호] 지정되었다. 현재 장산도들노래 강부자 기능보유자의 전수교육을 받은 마초마을 박금단 이수자⁸⁾와 전수장학생 교육을 받은 후포마을 윤순심 이수자가 활발히 전수·공연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 5〉 공수1리 마초 강부자 (여, 77)씨의 모습(2014.02.19촬영)



〈사진 6〉 공수1리 마초 박금단 (여, 77)씨의 모습(2014.02.19촬영)

필자가 장산도 사람들이 직접 장산도들노래를 부르는 소리⁹⁾를 들은 것은 2014년 2월 19일(장산면 공수1리 마초경로당)과 2014년 10월 2일~3일(장산면 도창리 장산도들노래전수관)¹⁰⁾이었다. 앞의 경우 이귀인씨와 강부자씨가 《장산도들노래》의 선소리를 하면 김일평씨, 윤화덕씨, 장정숙씨, 김귀금씨 등을 포함한 전체가 이것의 받는소리를 했다.

8 김진오, 「8. 장산들노래-[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1호]-」, 앞의 책, 2013, 93쪽 참조; 홍순일 외, 「전수 장학생의 이수내용 심사평가」,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이수 심사 평가회-제21호 장산도들노래-』, 목포대 목포캠퍼스 도서문화연구원, 2015.02.15(수) 11:00.

9 홍순일 조사, 이귀인(남, 87, 1928), 강부자(여, 77, 1938), 김일평(남, 79), 윤화덕(여, 82, 1933), 장정숙(여, 78), 김귀금(여, 85) 제보, 현지공동조사내용 〈《장산도들노래》〉, 장산면 공수1리 마초 경로당, 2014.02.19.수 15:40.

10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앞의 2014년 제3회 찾아가는 섬 포럼-신안군 장산도 편(주제: 장산도 문화자원과 민속예술).

강부자씨의 하중밭매기노래, 이귀인씨의 상여소리 등이 이어졌다. 뒤의 경우 10월 2일 밤에 장산도들노래보존회(단장: 정연배, 회장: 김진오, 부회장: 김상용) 회원들과 장산면 민요단(회장: 윤순심) 단원들을 중심으로 공연을 준비하고, 3일 오후에 같은 장산도 사람들이 공연을 했다. 장산도들노래 공연시 선소리 박금단씨, 받는소리(일명 후소리) 윤순심씨, 최막례씨 등 26명이 출연했다.



〈사진 7〉 오음1리 윤순임(여, 59)씨의 모습(2014.02.19촬영)

여기에서 소개되는 장산 들노래의 사실은 허경회교수가 이귀인씨의 소리를 1984년에 채록하고 1996년 책에 담은 것이다. 1982년 당시 앞소리는 강부자(여, 45)씨가, 받는소리는 윤희덕(여, 52)씨, 박금단(여, 45)씨, 진금순(여, 43)씨 등이 했다. 아래와 같이 모뎨 소리(늦은 소리), 모뎨 소리(잡은 소리), 모심은 소리(늦은 소리), 모심은 소리(잡은 소리), 논뎨 소리(늦은 소리), 논매고 일어서기(잡은 소리), 질꼬내기 등이다.

보통 장산도들노래는 40명이 연행에 참여한다. 배역은 노래(4), 주인(주인영감, 안주인)(2), 머슴(썰레질)(1), 기수(2), 밥 바꾸니(2), 인조 소(2), 모심기(20), 팽과리(2), 장구 (2), 북(2), 징(1) 등이다. 이들이 쓰는 소품은 중의(홀바지)(11), 통치마(29), 탕건(1), 기(들노래기, 농자천하지대본기)(2), 인조 소(1), 썰레(1), 옹기그릇(1), 팽과리(2), 장구(2), 북(2), 적삼(홀저고리)(40), 수건(40), 수염(상, 하)(1), 담뱃대(1) 우장(30), 지게(1), 인조 모(200), 밥 바꾸니(1), 징(1), 대나무 장대(2) 등이다.

〈사 설〉

▶ 모뎨 소리(늦은 소리)

이때는 어느뎨가/ 녹음방초 호시절이라/
아~ 아하~ 아라~ 아~ 어에~ 헤~ 요

이여처 디여처/ 외라와락 무어나내세/
아~ 아하~ 아라~ 아~ 어에~ 헤~ 요

소리로 봐서 맞이말고/ 일거리로봐서 맞아주시오/

아~ 아하~ 아라~ 아~ 어에~ 헤~ 요

천금같은 두폴개로/ 밀어다달혔다 무어나내세/

아~ 아하~ 아라~ 아~ 어에~ 헤~ 요

아나농부 말들어라/ 아나농부야 내말들어라/

아~ 아하~ 아라~ 아~ 어에~ 헤~ 요

서마지기 논배미가/ 반달만큼 남아있네/

아~ 아하~ 아라~ 아~ 어에~ 헤~ 요

▶ 모든 소리(찾은 소리)

무엇네 소리는 어디를 갔다가/ 때만찾아 돌아온데/

어~ 여~ 라 무엇네

이 논배미를 무어다가/ 장구배미로 건너가세/

어~ 여~ 라 무엇네

이농사를 지어갖고/ 나랏님께 바쳐보세/

어~ 여~ 라 무엇네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삼천리 강산에 풍년이 왔네/

어~ 여~ 라 무엇네

▶ 모심은 소리(늦은 소리)

상사소리는 어디를 갔다가/ 때만 찾아서 돌아를 오는데/

에헤 어어루 상사아디이요

에헤 어어루 상사아디이요
 여기도 심기고/ 저기도 심기세/
 에헤 어어루 상사아디이요

앞산은 점점 멀어나지고/ 뒷산은 점점 가까워진다/
 에헤 어어루 상사아디이요

▶ 모심은 소리(짓은 소리)

우리네 농부들 다 잘한다/
 에헤 어어루 상사아디이요

저건네라 갈비봉에/ 안개끼고 비가 온다/
 에헤 어어루 상사아디이요

허리에다 우장을 두르고/ 우리 농부들 다 잘한다/
 에헤 어어루 상사아디이요

▶ 논맨 소리(늦은 소리)

오동추야 달은밝고/ 님의생각 절로 만난다/
 어이꼬 난지나 해~ 어이꼬 난지나 해~
 난지나 난지나 지난달 상사디로고나

개사가게 개사가게/ 돈닷돈에 개사가게/
 어이꼬 난지나 해~ 어이꼬 난지나 해~
 난지나 난지나 지난달 상사디로고나

개폰단가 개폰단가/ 돈닷돈에 개폰단가/
 어이꼬 난지나 해~ 어이꼬 난지나 해~
 난지나 난지나 지난달 상사디로고나

건너가세 건너가세/ 보리다리로 건너를 가세/
어이꼬 난지나 해~ 어이꼬 난지나 해~
난지나 난지나 지난달 상사디로고나

둘러서로 둘러서라/ 엉덕밑으로 둘러서라/
어이꼬 난지나 해~ 어이꼬 난지나 해~
난지나 난지나 지난달 상사디로고나

해는지고 해저문날에/ 캐피없는 소름몰고/
어이꼬 난지나 해~ 어이꼬 난지나 해~
난지나 난지나 지난달 상사디로고나

간다간다 나는간다/ 정든 내고향으로 돌아서간다/
어이꼬 난지나 해~ 어이꼬 난지나 해~
난지나 난지나 지난달 상사디로고나

▶ **논매고 일어서기(жат은 소리)**

오동추야~
에헤야 에헤야 오동추야
달은밝고 님의생각이 절로난다
에헤야 에헤야 얼싸좋다
내날이로구나
옴메사세~

▶ **질꼬내기**

오란데는 밤에 밤에 나가고
동네주막 술집은
이야기 낮에나간다 이헤야
에~ 히여 히여라 아이고 건네농사야~ 에헤야

잔둥너메 산에 산마루는
 앵두같이 같이도
 아이고 붉어나졌네 에헤야
 에~ 히여 히여라 아이고 건네농사야~ 에헤야

저달뒤에 저별 저별만보라
 달만 잡고 잡고서
 아이고 희롱만한다 에헤야
 에~ 히여 히여라 아이고 건네농사야~ 에헤야
 언떡번떡 은비네꼭지
 담장너메 너메서
 아이고 날속에낸다 에헤야
 에~ 히여 히여라 아이고 건네농사야~ 에헤야

간다간다 내가 돌아서간다
 님을따라 따라서
 아이고 내돌아간다 에헤야
 에~ 히여 히여라 아이고 건네농사야~ 에헤야

● **하중밭매기 노래**

하중밭매기노래(1종 5회)는 리길용(1권), 김진오(1권), 문화방송(1편), 장산도 사람들(2회) 등이 이를 다루고 있다.

리길용(1999) 자료(1권)¹¹⁾의 경우 하중밭매기 노래가 책에 담겨져 있다. 김진오(1991, 2008, 2013) 자료(1권)¹²⁾의 경우, 장산도 사람들의 소리가 하중밭매기노래

11 리길용, 「(2) 하중밭매기 노래」, 「14. 민요」, 앞의 책, 1999, 98~100쪽.

12 김진오, 「2. 하중밭매기 노래」, 「Ⅳ. 민요」, 앞의 책, 1991, 41~43쪽; 김진오·최성환, 「2. 하중밭매기 노래」, 「Ⅴ. 장산면의 민속문화」, 앞의 책, 2008, 52~55쪽; 김진오, 「9. 하중밭매기노래」, 「제2장 민요」, 앞의 책, 2013, 94~101쪽.

로 수록되어 있다. 문화방송(1993) 자료(1편)¹³⁾의 경우, 공수리 마초 강부자씨의 CD 8-16 신안 발매는 소리-밈주¹⁴⁾가 문화방송 CD에 담겨져 있다. 장산도 사람들(2014)이 직접 부른 소리(2회)의 경우 이귀인씨, 강부자씨의 《하중발매기노래》〈발매기소리(늦은 소리), 발매기소리(잡은 소리), 발매고 일어서기, 동덩기타령(늦은 소리), 동덩기타령(잡은 소리), 미영 따는 소리〉, 박금단씨, 진금순씨, 윤순심씨의 〈미영 따라가는 소리〉 등이 있다.

〈구연상황〉

김진오씨가 1985년에 발굴한 《하중발매기노래》는 1987년 10월 24일, 제16회 남도문화제에서 민요부문 우수상이 수상된다. 그 이후 2013년에 제39회 전남민속축제에서 입상된 이후 현재 장산도들노래 강부자 기능보유자의 전수교육을 받은 마초마을 박금단 이수자와 전수장학생 교육을 받은 후포마을 윤순심 이수자¹⁵⁾가 활발히 전승활동을 하고 있다.

필자가 장산도 사람들이 직접 장산도들노래를 부르는 소리¹⁶⁾를 들은 것은 2014년 2월 19일, 장산면 공수리 마초경로당이였다. 여기에서 강부자씨가 《하중발매기노래》의 선소리를 하면 이귀인씨, 김일평씨, 윤화덕씨, 장정숙씨, 김귀금씨 등을 포함한 전체가 이것의 받느소리를 했다. 강부자씨는 이귀인씨와 함께 장산도들노래를 부른 후 하중발매기노래를 했고, 이후 이귀인씨가 상여소리를 했다.

여기에서 소개되는 장산 들노래의 사설은 2014년 2월 19일에 부른 강부자씨의 소리이다. 1985년 8월 당시 김진오씨가 채록할 수 있도록 사설을 제보한 사람은 공수리 이철동씨 모친 정통례(여, 78)씨였다. 1987년 당시 앞소리는 강부자(여, 50)씨가,

13 문화방송, 앞의 『한국민요대전-전남민요해설집』.

14 밈주는 미영이고, 미영은 목화이다. (김진오 조사, 정통례(여, 78) 제보, 현지개별조사내용 〈밭에서 부르는 노래의 발굴과정〉, 공수리 마초마을, 1985.08을 인용한 김진오, 「9. 하중발매기노래」, 『제2장 민요』, 앞의 책, 2013, 94~101쪽 중 98~99쪽 재인용)

15 김진오, 「8. 장산도들노래-[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1호]-」, 앞의 책, 2013, 93쪽 참조; 홍순일 외, 「전수 장학생의 이수내용 심사평가」, 앞의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이수 심사 평가회-제21호 장산도들노래-』.

16 홍순일 조사, 이귀인(남, 87, 1928), 강부자(여, 77, 1938), 김일평(남, 79), 윤화덕(여, 82, 1933), 장정숙(여, 78), 김귀금(여, 85) 제보, 현지공동조사내용 <<하중발매기노래>>, 장산면 공수리 마초경로당, 2014.02.19.수 15:40

받는소리는 박금단(여, 50)씨, 윤희덕(여, 57)씨, 정금자(여, 44)씨 등이 했다. 1992년 당시 앞소리는 강부자(여, 55)씨가, 받는소리는 윤희덕(여, 62)씨, 박금단(여, 55)씨 등이 했다. 아래와 같이 발매기소리(늦은 소리, 잦은 소리), 발매고 일어서기, 등덩기타령(늦은 소리, 잦은 소리), 미영 따는 소리 등이다. <물레노래¹⁷⁾>는 2013년 제39회 전남민속예술축제에서 있었던 장산도 하중발매기노래 경연에서 있었던 것처럼, <미영 따는 소리> 다음에 들어가지만, 여기에서는 <물레노래>를 넣지 않았다.

<사 설>

▶ 발매기소리(늦은 소리)

불러서라 불러서~라<떠드령 쿵~덩> 노래 한 자리 불러나서라,
 앞동산도 울긋불~긋<떠드령 쿵~덩> 뒷동산도 울긋나불긋,
 향아도아 단바랍~에<떠드령 쿵~덩> 꽃을 찾는 저 나비아,
 맑고푸른 창공중~에<떠드령 쿵~덩> 종달새는 지지나배배,
 버들가지 깊은속~에<떠드령 쿵~덩> 금빛 옷을 덮쳐나 입고,
 피끌피끌 우는피~끌<떠드령 쿵~덩> 봄을 혼자 즐기는고나,
 성개성개 말올타~고<떠드령 쿵~덩> 성재골을 들어나가니,
 옥사장아 물얼어~라<떠드령 쿵~덩> 반달각시 만나나보자,
 니가무슨 반달이~야<떠드령 쿵~덩> 초생달이 반달이로구나,
 둘러서라 둘러서~라<떠드령 쿵~덩> 아리골로 둘러나서라,
 ※후렴: 알이시구나 에헤여~ 허허~ 에야~ 에야 먼동~네로구나

▶ 발매기소리(잦은 소리)

육날미를 집세기~도<떠드령 쿵~덩> 신다 두면 헌신이요,

17 장산도 사람들, <장산도 하중발매기 노래>, 《제39회 전남민속예술축제》, 전라남도·신안군·신안문화원, 나주시 음성권 일원, 2013.10.25(금) 16:00.

하늘에서 별난것~도<떠드렁 쿵~덩> 구름 없는 탓이로고나,
 내몸에 병난것~도<떠드렁 쿵~덩> 임이 없는 탓이로고나,
 석세베도 간직한~이<떠드렁 쿵~덩> 금빛은빛 찬란하~고,
 짙은산중 고드름~은<떠드렁 쿵~덩> 봄바람에 녹아나낸다,
 요내가슴 심회병~은<떠드렁 쿵~덩> 남방화초가 녹아나낸다,
 ※후렴: 알이시구나 에헤여~ 허허~ 에야~ 에야 먼둥~네로고나

▶ 밭매고 일어서기

좋을래드라 좋을래드라 꾸엉에 신세가 좋을래드라
 초록 수건 목에 걸고 비단대단 꼬리 달고
 단풍 콩밭으로 아리감실 날아든다

▶ 동덩기타령(늦은 소리)

연사야 먹 갈아라 우편으로 편지하자,
 가명 떡과 혼 종우는 우리 부모를 만나려만,
 내려온다 내려온다 유~윤선이 내려온다,
 문-밖에 섰는 이 파파급을 못해서,
 문고리 잡고서 아리발발 떠단다,
 어째 와 어째 와 캄캄한데 아째 와,
 캄캄할수록 내 사랑 좋단다,
 감자 감자순 가가리가 감자순,
 활목대 큰애기 아리 잘잘맨다,
 앞뜰에도 보리밭 뒤뜰에도 보리밭,
 어따야 저 보리 다시 들어진단다,
 ※후렴: 동덩에당 동덩에당 당기동덩 동덩에당

▶ 동덩기타령(짚은 소리)

숨보신 숨보신 외-광목 숨보신,
 신을 줄 모르면 말 일이지 신었다 벗었다 부싯집 만든다,
 오야오대 삼대중아 오십을 고깔에 사십을 장단에
 영배 사십을 목에 걸고,
 개화 같은 봄바람은 개화가지를 끊어 들고,
 만장 구름 속에 화상만 기리고 놀아 보세,
 ※후렴: 동덩에당 동덩에당 당기동동 동덩에당

▶ 미영따는 소리

※후렴: 가세가세 어서가세 미영 따로만 어서가세
 저 건너라 미영발에 미영 따는 저 처녀야
 느그 엄매 어디가고 느그 형제 미영 떠나
 엄매 잃고 슬프네다 엄매 말을 하고가네
 저기 가는 저 생애야 늙은이나 소년이나
 늙은이면 뿔을 하고 소년이면 뿔할레나
 황천길에 가거들랑 우리엄매 만나거든
 병에다가 젖을 짜서 울음으로 막애마거
 한숨으로 끈을 달아 보내주게 보내주게
 안개속에 보내주게 안개속에 보내주게
 이박짜박 오내동생 어느 골로 울고 가던
 정태산 깊은 고랑 엄매 하고 울고 가네
 엄매소리 간곳없고 억망석 바위 밑에
 수만 석이 대답하네 수만 석이 대답하네
 석자시치 모시수건 오른손에 감어 쥐고

건너가니 건너나니 어떠한 친구가 날 찾일까
 대문 밖에 섰는 큰애 누에 간장 녹일라고
 생금생금 생긴 것이 천도복성 꽃이로다
 요내이마 땀방울은 찬바람에 녹아 낸다
 송이송이 피여 있는 미영을 따서 바구니 담세

● 길쌈노래

길쌈노래(1종 2회)는 김진오(1권), 장산도 사람들(1회) 등이 이를 다루고 있다. 김진오(1991, 2008, 2013) 자료(1권)¹⁸⁾의 경우, 장산도 사람들의 소리가 길쌈노래로 수록되어 있다. 장산도 사람들(2014)이 부른 소리(1회)의 경우, 박금단씨, 진금순씨, 윤순심씨의 〈물레타령〉이다.

〈구연상황〉

《길쌈노래》는 목화를 재배하고 수확하여 옷감으로 만들어질 때까지의 과정마다 가사에 곡을 붙여 부르는 농요이다. 김진오씨가 그동안 채록해 놓았던 노래를 재구성¹⁹⁾하여 1992년 제20회 남도문화제에 출연하여 발굴상이 수상된 것이다.

필자가 장산도 사람들이 직접 장산도 길쌈노래를 부르는 소리²⁰⁾를 들은 것은 2014년 2월 19일, 장산면 동화식당이었다. 진금순씨의 남편인 이충윤씨, 그리고 이철동씨 등이 합석한 자리에서 박금단씨, 진금순씨, 윤순심씨 등이 같이 선소리와 받느소리하면서 〈미영 따라가는 소리〉, 〈물레타령〉 등을 불렀다.

“가세 가세 어서 가세 미영 따라 어서 가세”로 시작되는 〈미영 따라가는 소리〉와 〈물레타령〉은 2013년 제39회 전남민속예술축제에서 경연했던 장산도 하중밭매기노

18 김진오, 「10. 길쌈노래」, 『제2장 민요』, 앞의 책, 2013, 102~105쪽.

19 김진오, 「10. 길쌈노래」, 앞의 책, 2013, 102~105쪽.

20 홍순일 외 조사, 박금단(여, 77, 1938) · 진금순(여, 75, 1940), 윤순심(여, 59, 1956) 제보, 현지공동 조사내용 〈〈미영 따라가는 소리〉, 〈물레타령〉〉, 장산면 동화식당, 2014.02.19.수 19:37.

래의 〈미영따는 소리〉와 〈물레노래²¹⁾〉와 같다. 〈미영 따라가는 소리〉는 김진오씨의 길쌈노래 〈미영따기 소리²²⁾〉와 같다. 즉 〈미영 따라가는 소리(미영따기 소리, 미영따는 소리)〉와 〈물레타령(물레 짚는 소리, 물레노래)〉는 연출시 하중발매기노래에도 들어가고, 길쌈노래에도 들어간다. 심지어 일상생활 속에서 놀 때 장산도 사람들은 장산도들노래를 하다가 하중발매기노래를 하다가 길쌈노래를 하기도 한다.²³⁾

여기에서 소개되는 장산도 길쌈노래의 사설은 김진오씨가 발굴한 소리이다. 1992년 당시 앞소리는 강부자(여, 55)씨가, 받는소리는 윤화덕(여, 62)씨, 박금단(여, 55)씨 등이 했다. 아래와 같이 미영발매기 소리, (하중발매기노래와 같은) 미영따기 소리, 씨아시 앓은 소리, (아주 경쾌한 소리인) 물레 짚는 소리와 베짜는 소리 등이다.

〈사 설〉

▶ 미영발매기 소리

블러서라 블러서~라 〈떠드령 쿵~덩〉 노래 한 자리 블러나 서라

앞동산도 울긋불~긋 〈떠드령 쿵~덩〉 뒷동산도 울긋나 불긋

항아도야 단바람~에 〈떠드령 쿵~덩〉 꽃을 찾는 저 나비아

맷고푸른 창공중~에 〈떠드령 쿵~덩〉 종달새는 지지나 배배

버들가지 깊은속~에 〈떠드령 쿵~덩〉 금빛 옷을 덮쳐나 입고

피끌피끌 우는피~끌 〈떠드령 쿵~덩〉 봄을 혼자 즐기는고나

성개성개 말을타~고 〈떠드령 쿵~덩〉 성재골을 들어나가니

옥사장아 문널어~라 〈떠드령 쿵~덩〉 반달각시 만나나보자

※ 후렴: 알이시구나 에헤여~ 허허~ 에야~ 에야 먼동~ 네로고나

21 장산도 사람들, 〈장산도 하중발매기 노래〉, 앞의 《제39회 전남민속예술축제》.

22 '가세 가세 어서가세 미영 따로나 어서가세' 로 시작된다. (김진오, 「10. 길쌈노래」, 앞의 책, 2013, 103쪽)

23 홍순일 조사, 윤순심 제보, 현지조사내용 〈장산도들노래, 하중발매기노래, 길쌈노래의 소리구성과 〈미영 따라가는 소리〉,〈물레타령〉의 노래간 넘나들 현상〉, 목포→장산(통화), 2015.02.03.(화) 12:01.

▶ 미영따기 소리

가세 가세 어서가세 미영 따로나 어서가세
저 건너라 미영밭에 미영 따는 저 처녀야
느그 엄매 어디가고 느그 형제 미영 따냐
엄매 잃고 슬픈데다 엄매 말을 하고 가네
육날 미틀 짚세기도 신다두면 헌신이요
하늘에서 별난 것도 구름 없는 탓이로고나
이내 몸에 병난 것도 입 없는 탓이로고나
짚은 산중 고드름은 봄바람에 녹아내고
요내 이마 땀방울은 찬바람에 녹아낸다
송이송이 피어 있는 미영 따서 바구니에 담세
※후렴: 에헤야 에헤야 미영 따로 가세

▶ 씨아시 앓은 소리

내려온다 내려온다 산골 큰애기 내려온다
무엇하자고 내려오느냐 씨아시 앓자고 내려온다
꿍독 같은 이내 몸이 몰때 같이 몰라진다
분질 같은 이내 얼굴 화색 없이 변한구나
뒷동산에 칠평쿨은 날 묶으라고 생겼는가
앞동산에 유미대는 날 때리라고 생겼는가
검은 창은 어따 두고 흰 창으로 나를 보내
손질 발질 어따 두고 엄나무 장작으로
때리는가 때리는가 요내 나를 때리는가
석자 시치 모시수건 오른 손에 감어쥐고

건너가니 어떠한 친구가 날 찾아 올리거나
 하늘에다 올라 간께 비싸리대로 대문 달아
 대문밖에 섰는 큰애 누에 간장을 녹일라고
 생금생금 생긴 것이 석로복성 꽃이로세
 ※후렴: 아사보세 아사보세 미영 미영을 아사보세

▶ 물레 짓는 소리

앞에선 구수나무 비여다가 물레살을 만들어 놓고
 물레살은 팔남매데 소리만은 한소리로고나
 물레꼭지 쌍가락지는 긴가락에다 끼었는데
 거미줄 같은 은실 금~실 잘도나 나온다
 엄매 엄매 우리 엄매 무엇할려고 날 낳았는가
 물레 앞에 앉아 보니 팔자 탄복 절로나 난다
 동지선달 긴긴밤에 홀로 앉아서 물레질을 하니
 나네 나네 생각이 나네 입에 생각이 절로만 나네
 ※후렴: 물레야 물레야 뱅뱅뱅 돌아라 이웃집 귀동자 밤이슬 맞는다

▶ 베짜는 소리

하늘에다 베틀 놓고 구름잡어 잉에 걸고
 솔나무 베틀에다 참나무 보두집에
 구수나무 북에다가 제비 같이 날란봉에
 얼그당 째그당 짜는 베는 잘도나 짜네
 이웃집 할마니 불싸로 와서
 아가아가 금각대가 그 베 짜서 무엇할래야
 우리 오빠 장개가면 가매 휘장을 둘릴랴요

우리언니 시집가면 수건베나 보태줄라요

수수대야 서밍대야 망기둥둥 우리 엄매

※ 후렴: 장산 큰애기 베잘짜 들고 놓고 땅땅

● 자장가

자장가(1종 2편)²⁴⁾는 허경희(1권) 자료(2편)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

자장가 자료(2편)의 경우 허경희(1996) 자료(2편)는 도창리 1리 박동애씨의 자장가, 도창리 1리 정석심씨의 자장가 등이다.

〈구연상황〉

이 중에서 박동애씨의 자장가 사설은 다음과 같다.
〈목록〉

번호	조사일시	조사(면담) 지역	조사자 (채록자)	제보자	조사내용	비고
1-1	1984.08	장산면 도창리 1리	허경희	박동애(여, 62)	장산면 민요자료: 17. 자장가(1)	문헌조사(허경희 1996:145~146)

〈사 설〉

자장 자장 자장

이쁘기는 이쁘다만은 올면은 안된다

곤두독지는 간밤주는

씨이지 소리는 듣기 싫고

24 허경희 조사, 박동애(여, 62)/정석심(여, 64) 제보, 현지개별조사내용 〈자장가(1)/자장가(2)〉, 장산면 도창리 1리, 1984.08을 인용한 「17. 자장가(1), 18. 자장가(2)」, 「V. 장산면 민요자료」, 「I. 하의·장산의 설화와 민요」, 「제2부 자료 편」, 허경희, 앞의 책, 1996, 145~146/146~148쪽.

삼자독자 외아들에
 이야기 소리는 듣기 싫고
 막자동아 금자동아
 부모간에 희자동아
 형제간에는 충신동아
 일가친척엔 우애동아
 밤을 준들 너살거나
 나~ 나~ 나이 나이 나아냐
 쇠붙이를 주웠다가
 눈을 샀그나 발을 샀그나
 흔들을 데만 흔들어 보고
 놀릴 데는 놀려 보시기
 나~ 나~ 나이 나이 나아냐
 동네방네 사람아
 아들낳기를 힘쓰지 말고
 딸을 낳기를 힘을 쓰세
 춘향이 같은 딸을 낳고
 이도령 같은 사우 삼소
 동네방네 사람들아
 이붙이를 주웠다가
 눈을 샀그나 발을 샀그나
 놀릴 대로 놀려보세

(2) 의식요

필자가 문헌·현지에서 조사한 장산도의 소리 중 민요의 경우 의식요가 조사되었다. 의식요는 직접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민중만의 노래로서 노동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형성되고, 의식을 거행하면서 부르는 민요²⁵⁾이다. 장산도 의식요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상여소리인데, 총 1종 2회이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제보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참고문헌
1-2	의식요	장산면 민요자료 6: 상여소리	이귀인(남, 57),	장산면 공수리	1984	허경희 1996:127~130

• 상여소리

《상여소리》(1종 2회)는 허경희(1권), 장산도 사람들(1회) 등이 이를 다루고 있다. 공수리 마초마을 이귀인씨의 소리로 상여소리 2편이 조사되었다. 허경희(1996) 자료(1편)의 경우 장산면 이귀인씨의 소리를 채록한 상여소리이고, 이귀인(2014)씨가 직접 부른 소리(1회)의 경우 《상여소리》 〈상여를 메고 노는 소리〉, 〈상여를 메고 가는 소리〉, 〈장지에서 하는 소리〉 등이다.

〈구연상황〉

필자가 장산도 사람들이 직접 장산도들노래를 부르는 소리²⁶⁾를 들은 것은 2014년 2월 19일, 장산면 공수리 마초경로당이였다. 여기에서 이귀인씨가 《상여소리》의 선소리를 하면 강부자씨, 김일평씨, 윤화덕씨, 장정숙씨, 김귀금씨 등을 포함한 전체가



〈사진 8〉 공수리 마초 이귀인(남, 77)씨 외의 마을사람들(2014.02.19촬영)

25 조동일, 「구비문학」, 앞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6 홍순일 조사, 이귀인(남, 87, 1928), 강부자(여, 77, 1938), 김일평(남, 79), 윤화덕(여, 82, 1933), 장정숙(여, 78), 김귀금(여, 85) 제보, 현지공동조사내용 <<상여소리>>, 장산면 공수리 마초경로당, 2014.02.19.수 15:40.

이것의 받는소리를 약간 하고 말았다. 이귀인씨는 강부자씨와 함께 장산도들노래, 하중발매기노래 등을 이어서 상여소리를 했다.

여기에서 소개되는 상여소리의 사설은 이귀인씨가 마초경로당에서 부른 상여소리가 아니라 1984년 6월 19일부터 26일까지 신안군 장산·하의면 조사활동(1984년 8월 추가활동)한 허경희교수가 1983년 11월 30일 『도서문화』 제3집에 게재하고, 1996년 발간한 상여소리이다. 2014년 2월 19일에는 〈상여를 메고 노는 소리〉, 〈상여를 메고 가는 소리〉, 〈장지에서 하는 소리〉 등 《상여소리》를 했지만, 여기에서는 『도서문화』 제3집(1983.11)에 들어가 있는 상여소리인 것이다. 상여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과정과 그 의식을 설명하고 상여소리를 했다.

〈사 설〉

(노래를 하기 전에, 제보자는 상여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과정과 그 의식을 설명하고 있다.)

처음에는 밤에서 자~, 자~ 하면은

(북쳐요. 북치고 장구치고.)

관보살 관보살 하고 나오죠.

동쪽에서 자, 자 시 번을 하고, 서쪽에서 시 번, 남쪽에서 시 번, 북쪽에서 시 번

(안에서 방에서 뽕뽕 돌면서요.)

그래가지고 문턱에서 바가지를 밟아

(관으로 깨던데요. 관으로 안깨요? 관으로 안깨고 앞잡이가 밟아.)

그래가꼬는

(그때는 노래 안불러요?)

자~, 자~ 하고 밝을 때는 암말도 안하고 딱 깬 후에 계속하제.

관보살 관보살하고 생애가 가지요.

이쪽 저쪽 열십자로 묶어놓고는 다음에는 원생애를 떡 찌어요.

그래가꼬는 제원들이 모여서 술 한 잔씩 묵어.

그 다음에는 복수가 나타나서 제군들 집합 딱 시키거든요.

그라든 인자 제군들이 딱 모여가지고 대기해 가지고 생애 뭉 자리로 딱 들어가지요.

열네 명

(일곱 자리로요.)

딱 대기하고 있다고.

그때 복수가 머라고 하나

(장구하고 북이 있는데, 장구는 어디 위치요?)

북이 없을 때는 장구치고, 장구 없을 때는 북을 치고 한 가지 것씩 하고

(한 가지라고요)

그래가지고 복수가 하던지 장구가 하던지 딱 마침시로 불쌍한 명인이 세상을 하직
을 할테니 우리가 운상으로서 참 공인을 좋게 호강하자고 명칭을 해서 부른단 말이요.

말로서 “관하이보사”하고 시 번을 한단 말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관-보-사 관을 좋게 보합시다.

그란디 사투리로 하기 좋기로 “관하이보사”하니까 이해하기가 곤란하죠.

그래가꼬 인자 “자아”하고 복수가 소리치면 땡땡땡하고 생애가 일어나죠. 그때부터
인자 메기죠. 앞소리로.

(※ “관-보-사”는 “관세음보살”이다.)

황천길이 머다는데/ 문턱 밑이 황천일세/
어어어허어 월러리 남자 어허님

하직이야 하직이로구나/ 인간세상을 하직이야/
인제가면 언제오요/ 올날이나 일러주요/
어어어허어 월러리 남자 어허님

인제가면 언제오요/ 올날이나 일러주요/
어어어허어 월러리 남자 어허님

황덕산천 머다는데/ 구두식제 갖었나요/
어어어허어 월러리 남자 어허님

제일천에 신광대왕/ 어느곳에 매였는가/
어어어허어 월러리 남자 어허님

제이천에 초광대왕/ 어느곳에 매였는가/
어어어허어 월러리 남자 어허님

제삼천에 송제대왕/ 어느곳에 매였는가/
어어어허어 월러리 남자 어허님

제사천에 오광대왕/ 어느곳에 매였는가/
어어어허어 월러리 남자 어허님

제오천에 염래대왕/ 어느곳에 매였는가/
어어어허어 월러리 남자 어허님

제육천에 병신대왕/ 어느곳에 매였는가/
어어어허어 월러리 넘자 어허넘

제칠천에 병신대왕/ 어느곳에 매였는가/
어어어허어 월러리 넘자 어허넘

제팔천에 도시대왕/ 어느곳에 매였는가/
어어어허어 월러리 넘자 어허넘

제구천에 병든대왕/ 어느곳에 매였는가/
어어어허어 월러리 넘자 어허넘

제십천에 절룡대왕/ 어느곳에 매였는가/
어어어허어 월러리 넘자 어허넘

십자황을 건네가서/ 저승 대구역 들어가네/
어어어허어 월러리 넘자 어허넘

하직이야 하직이야/ 인간세상을 하직이야/
어어어허어 월러리 넘자 어허넘

(3) 유희요

필자가 문헌·현지에서 조사한 장산도의 소리 중 민요의 경우 유희요가 조사되었다. 유희요는 직접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민중만의 노래로서 노동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형성되고, 놀이를 하면서 부르는 민요²⁷⁾이다.

27 조동일, 「구비문학」, 앞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장산도 유희요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강강술래인데, 총 1종 2회이다. 강강술래(1종 2회)는 문화방송(1편), 장산도 사람들(1회) 등이 이를 다루고 있다.

문화방송(1993) 자료(1편)²⁸⁾의 경우, 공수리 마초 강부자씨의 CD 9-6 신안 강강술래가 문화방송 CD에 담겨져 있다. 장산도 사람들(2014)이 직접 부른 소리(1회)의 경우 장산도 박금단(여, 77, 1938)씨 · 진금순(여, 75, 1940)씨, 윤순심(여, 59, 1956)씨, 최막례(여, 59)씨 외 장산도 사람들이 공연한 것은 〈장산도 강강술래〉이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제보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참고문헌
1-3	유희요	CD 9-6 신안 강강술래	앞소리: 강부자 (여,1938)	장산면 공수리 마초	1989. 08. 29	문화방송 1993:288

• CD 9-6 신안 강강술래소리

《강강술래》는 전술한 바와 같이 문화방송(1993) 자료(1편)²⁹⁾의 경우, 공수리 마초 강부자씨의 CD 9-6 신안 강강술래가 문화방송 CD에 담겨져 있다.

〈구연상황〉

필자가 장산도 사람들이 직접 장산도 《강강술래》를 부르는 소리³⁰⁾를 들은 것은 장산도의 문화자원과 민속예술이란 주제를 가지고 2014년 10월 3일, 장산도들노래전수관에서 개최된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2014년 제3회 찾아가는 섬 포럼〉³¹⁾에서였다.

여기에서 소개되는 《강강술래》의 사설은 2014년 10월 3일에 부른 장산도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문화방송이 1989년 8월 29일에 채록하여 1993년 CD에 담은 강부자씨의 소리이다. 아래의 강강술래(긴 소리, 잦은 소리)가 바로 그것이다.

28 문화방송, 앞의 『한국민요대전-전남민요해설집』.

29 문화방송, 앞의 『한국민요대전-전남민요해설집』.

30 홍순일 조사, 이귀인(남, 87, 1928), 강부자(여, 77, 1938), 김일평(남, 79), 윤화덕(여, 82, 1933), 장정숙(여, 78), 김귀금(여, 85) 제보, 앞의 현지공동조사내용 〈《하중밭매기노래》〉.

31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앞의 2014년 제3회 찾아가는 섬 포럼-신안군 장산도 편(주제: 장산도 문화자원과 민속예술).

〈사 설〉

[긴 소리]

강강술래/ 강강술래//
달 떠온다 달 떠온다/ 강강술래//
동에 동창 달 떠온다/ 강강술래//
저 달이 누 달인가/ 강강술래//
아호방네³²⁾ 달이로세/ 강강술래//
아호봉은 어디를 가고/ 강강술래//
저 달 뜬 줄 몰랐는가/ 강강술래//

[짧은 소리]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저그 가는 저 생이야³³⁾/ 강강술래//
늙은이나 소년이나/ 강강술래//
황천질에 가거들랑/ 강강술래//
우리 엄매 만나거든/ 강강술래//
벙에다가 젖을 짜서/ 강강술래//
울음으로 마개 막어/ 강강술래//
무지개로 끈을 달아/ 강강술래//
안개 속에 보내주소/ 강강술래//
아박 자박 요내 동상/ 강강술래//
어느 골로 울고 가든/ 강강술래//

32 아호방: 호방(戶房)은 지방 관아의 육방의 하나이고 '아'는 성(姓)인 뜻함.

33 생이: 상여.

정태신³⁴⁾ 짚은 고랑/ 강강술래//
 엄매 하고 울고 가데/ 강강술래//
 엄매 소리 간 곳 없고/ 강강술래//
 억망석 바오 밑에/ 강강술래//
 수만석이 대답허데/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4) 비기능요

필자가 문헌·현지에서 조사한 장산도의 소리 중 민요의 경우 비기능요가 조사되었다. 비기능요는 생활상의 일정한 기능이 없이 노래 자체의 즐거움 때문에 부르는 민요³⁵⁾이다.

장산도 비기능요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주로 타령류, 즉 동당기(애,이), 산방장수, 아들, 산, 개구리, 신세, 아리랑(통), [필자: 무명(無名)]타령, 품바(성주풀이, 장모타령, 화투타령, 사랑타령 포함), 비둘기, 다리, 장, 장모, 시어머니, 곱보, 도라지 등과 <육자배기>, <한풀이> 등인데, 총 타령류의 26편이다.

비기능요(타령류 26편)는 리길용(2권), 허경희(1권), 김진오(1권), 문화방송(2편), 장산도 사람들(4회) 등이 이를 다루고 있다. 리길용(1985, 1999) 자료(2권)³⁶⁾의 경우 장산도 사람의 동당기 타령이 책에 담겨져 있다.

34 정태산→천태산(千台山): 중국 절강성에 있는 산으로 선녀가 살았다고 전함.

35 박경수, 비기능요, 한국민속문화사전(민요 편), 국립민속박물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73780&cid=50223&categoryId=51052>

36 리길용, 앞의 책, 1985, 28쪽; 리길용, 앞의 책, 1999.07, 96~103쪽. 이때 뒤의 책은 앞의 책의 증보이고, 오음1리 문석철씨가 보여준 앞의 책에는 장산도들노래, 동당기타령 등이 민요에 수록되었고, 뒤의 책에는 여기에 하중발매기노래가 추가되어 민요에 수록되었다.

허경희(1996) 자료(17편)³⁷⁾의 경우, 공수리 이귀인씨의 아들타령, 등당이 타령, 공수리 이복례씨의 등당이 타령, 공수리 이귀인씨의 산타령, 개구리타령, 도창리 1리 정공심씨의 신세타령, 아리랑 타령(다수1리 김복단씨, 황정례씨의 <아리롱타령> 관련), 도창리 1리 정공심씨의 [필자: 무명(無名)]타령, 품바타령[품바타령 4편(성주풀이, 장모타령, 화투타령, 사랑타령) 관련], 등당이타령, 공수리 이복례씨의 비둘기 노래, 다리타령, 장타령, 도창리 1리 정석심의 장모타령, 시어머니 타령, 곰보타령, 도창리 1리 정공심씨의 품바타령 4편(성주풀이, 장모타령, 화투타령, 사랑타령) 등의 소리가 장산면 민요 자료로 채록되어 있다.



〈사진 9〉 사진9) 공수1리 마초 이귀인(남, 87)씨의 모습
(2014.02.19촬영)

김진오(2013) 자료(1권)³⁸⁾의 경우 장산도 각 마을사람들의 소리가 오음마을의 노래, 도창마을의 노래, 공수마을의 노래, 마초마을의 노래, 비소마을의 노래, 팽진마을의 노래, 중용마을의 노래 등으로 수록되어 있다.

문화방송(1993) 자료(2편)³⁹⁾의 경우 공수리 마초 강부자씨의 CD 9-7 신안 등당애타령(1), 공수리 마초 김옥례씨의 CD 9-16 신안 신발장수타령 등이 각각 문화방송 CD에 담겨져 있다.

장산도 사람들(2014)이 직접 부른 소리(4회)의 경우 다수1리 김복단씨, 황정례씨의 <아리롱타령>, 오리1리 하중숙씨의 <김연수를 만나 부른 <육자배기>, 부를 수 있는 <한풀이>, 대리2리 문경순씨의 <도라지타령> 등이 있다.

기타 노래는 기능상 생활상의 일정한 기능이 없이 노래 자체의 즐거움 때문에 부르는 비기능요와는 같으나, 시간상 후행하는 노래라는 점에서 구분된 것이다.

37 허경희, 앞의 책, 1996.

38 김진오, 「제 2장 민요」, 앞의 책, 2013, 17~82쪽.

39 문화방송, 앞의 『한국민요대전-전남민요해설집』.

이것들 또한 일단 비기능요 속의 기타로 구분했지만 이는 현지조사를 통해 대등·포함관계를 확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생활상의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유행가》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기타(2편) 노래는 장산도 사람들이 이를 다루고 있다.

장산도 기타 노래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다수1리 김복단씨, 황정례씨가 부른 《유행가》, 오음1리 하중숙씨가 작사해서 부른 〈통일가〉(1980.11.13) 등이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제보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참고문헌
1-4	비기능요	등당이 타령	이귀인(남, 57)	장산면 공수리	1984	허경희 1996:124
		등당이 타령	이복례(여, 62)	장산면 공수리	1984	허경희 1996:124~125
		등당이 타령	정공심(여, 59)	장산면 도창리1리	1984	허경희 1996:143
		한풀이	하중숙(남, 91, 1924)	장산면 오음1리	2014. 08.28	현지개별조사

● 공수리 이귀인 소리의 등당이 타령

〈구연상황〉

아래 등당이 타령은 허경희교수가 1984년 6월 19일부터 26일까지 신안군 장산·하의면의 민요를 조사하고 1984년 8월 추가 조사할 때 장산면 공수리에서 이귀인씨의 소리를 채록해서 1983년 11월 30일 『도서문화』 제3집에 게재하고, 1996년 발간한 책 속에 넣은 것이다.

〈사 설〉

등당에당 등당에당 당기 등당에 등당에당

연사야 떡갈아라
우편으로 편지하자
검은글씨 흰종우를

우리 부모 보련마는
우리같은 청년들은
또 다시 보리까
등당에당 등당에당 당기 등당에 등당에당

어야 손님 점친놈아
장기 텅텅 놓지마라
애아베기 느그 각시
할아직에 다 늙는다
등당에당 등당에당 당기 등당에 등당에당

● 공수리 이복레 소리의 등당이 타령

〈구연상황〉

아래 등당이 타령은 허경희교수가 워처럼 장산면 공수리에서 이복레씨의 소리를 채록해서 『도서문화』 제3집에 게재하고, 책 속에 넣은 것이다.

〈사 설〉

등당에당 등당에당 당기 등당에 등당에당

저건네라 드는 비는
은비드냐 옥비드냐
수상에 수상 몸비드냐
욕지지고 개고리냐
쓴돈부 자지결음
재기재기 피어난다
등당에당 등당에당 당기 등당에 등당에당

어데 어데 삼대중은
 어영베 사죽을 목에 걸고
 개와 같은 문바람에
 화공을 그려라
 동당에당 동당에당 당기 동당에 동당에당

성개성개 말을 타고
 성재골을 들어가니
 옥사장아 문널어라
 반달각시 만나보자
 내가 무슨 반달이나
 저승에 달이 반달이다
 동당에당 동당에당 당기 동당에 동당에당

● **공수리 정공심 소리의 동당이타령**

〈구연상황〉

아래 동당이 타령은 허경희교수가 워처럼 장산면 공수리에서 정공심씨의 소리를 채록해서 『도서문화』 제3집에 게재하고, 책 속에 넣은 것이다.

〈사 설〉

동당이다 동당이다 당기 동당이 동당이다

딸아 딸아 막내달아
 큰 맘 묵고 곱게 커라
 동지 설달 서남풍에
 발을 걷고 물을 길라
 눈 풀아서 종 사주리

밭 풀아서 신 사주리
신도 싫고 종도 싫고
오동나무 썩근 농에
재화장사 차라주게
등당이다 등당이다 당기 등당이 등당이다

● 오음1리 하중숙 소리의 한풀이

〈구연상황〉

아래 한풀이는 필자가 2014년 8월 28일(목) 오후 4시 15분 이후, 오음1리 하중숙씨 자택에서 면담하면서 들은 하중숙씨의 소리이다.

〈사 설〉

남모르게 맺은 사랑 어찌 괴로움이 없으랴
밤마다 오매불망 내가 너를 못잊어서
이몸은 남모르게 가슴만 태우네
이이고 데고 어허 어으이 성화가 났네 헤~

3) 판소리

필자가 문헌·현지에서 조사한 장산도의 소리 중 판소리는 판소리와 그 외연인 창극이다. 판소리는 1종 4인의 소리, 창극은 1종 1인의 민속문화정보 등이어서 판소리는 총 2종 5인(4인의 소리와 1인의 구술)이 조사되었다.

판소리는 한 사람의 창자(唱者)가 한 고수(鼓手)의 북장단에 맞추어 긴 서사적인 이야기를 소리(唱, 노래)와 아니리(白, 말)로 엮어 발림(몸짓)을 곁들이며 구연(口演)하는 창악적 구비서사시(口碑敍事詩)⁴⁰⁾이다. 판소리는 창자가 소리판에서 고수의 도움을 받아 청중 앞에 내놓는 예술작품이요, 단가는 이 판소리와 함께 공존하나, 시간적으로 선행하여 판소리예술에 내재된 객관적 목적을 달성해 가는 판소리예술⁴¹⁾이다.

판소리는 도창1리 정공심씨가 구연한 <심청가>, 공수1리 마초마을 이귀인씨가 구연한 <제비가 강남에~>, 다수1리 황하임씨가 구연한 판소리(<춘향가> 외)들, 마진도1리 마진마을 장필재씨가 구연한 판소리가 조사되었고, 창극은 오음1리 하중숙씨가 제보한 민속문화정보가 조사된 것이다.



<사진 10>인물-다수1리 다수 황하임(여, 85)씨 외의 마을사람들(2014.02.20촬영)

40 이보형, 「판소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41 홍순일, 「판소리단가의 성격」, 『I. 서론』, 「판소리단가의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08, 1쪽.

판소리(4인)는 허경희(1권), 장산도 사람들(3회 4편) 등이 이를 다루고 있다.

허경희(1996) 자료의 경우 도창리 1리 정공심씨의 심청가이다.

장산도 사람들(2014)이 직접 부른 판소리(3회)는 공수1리 마초마을 이귀인씨의 <제비가 강남에~>, 다수1리 황하임씨의 <<판소리>>(1), <<판소리>>(2)<춘향가-춘향이가 매를 맞고 못나가는 대목->, 마진1리 마진마을 장필재씨의 일제강점기 때 유성기로 배운 <<판소리>> 등이다.

장산도 창극은 장산도 사람이 이를 다룬 적이 있다.

장산도 사람(2014)이 직접 한 창극(1회)의 경우 오음1리 하중숙씨가 한 창극인데 이때 춘향, 황봉사 역할을 했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제보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참고문헌
2	판소리	장산면 민요자료 12: 심청가	정공심(여, 59)	장산면 도창리 1리	1984	허경희 1996:141~143

(1) 심청가

<구연상황>

이 <<심청가>>는 허경희교수가 1984년 6월 19일부터 26일까지 신안군 장산·하의면의 민요를 조사하고 1984년 8월 추가 조사할 때 장산면 공수리에서 정공심씨의 소리를 채록해서 1983년 11월 30일 『도서문화』 제3집에 게재하고, 1996년 발간한 책 속에 넣은 것이다.

필자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허경희교수가 <<심청가>>를 장산면 민요자료 12번에 넣은 것을 판소리로 옮겨 적기로 한다. 왜냐하면 정공심씨가 판소리 사설을 민요가락으로 부를 수도 있지만 판소리 자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장산도들노래, 하중밭매기노래, 상여소리 등을 부른 공수1리 마초마을 이귀인씨가
 끊이어서 <제비가 강남에~>⁴²⁾를 부른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사 설>

닭아 닭아 우지 마라
 니가 울어 날이 새면
 날이 새면 나 죽는다
 나 죽기는 원통치 않다마는
 앞맹하신 우리 부친
 누계다가 전장하고
 죽을 일이 원통하네
 …… 하략

4) 무가

필자가 문헌·현지에서 조사한 장산도의 소리 중 무가는 1인이 구연한 장산도 씻
 김굿의 무가(그림 포함), 1인이 기록한 민속문화정보 등 총 1종 2인이다. 무가는 굿의
 구비문학이다. 굿은 무당이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노래와 춤으로 길흉화복(吉凶禍福)
 등의 인간의 운명을 조절해달라고 비는 제의⁴³⁾인데, 이때 무당이 신의 말을 신도들에
 게 전하는 사설이 무가이다.

굿은 광의로 굿, 동신제, 농약의 메굿 등이고, 협의로 무속의 제의이다. 무속의 제
 의와 규모에 따른 굿과 비손(또는 손빔, 비뉘)으로 구분된다. 큰 굿의 굿은 신 앞에서

42 홍순일 조사, 이귀인(남, 87, 1928), 강부자(여, 77, 1938), 김일평(남, 79), 윤화덕(여, 82, 1933),
 장정숙(여, 78), 김귀금(여, 85) 제보, 현지공동조사내용 <<제비가 강남에~>>, 장산면 공수1리 마초
 경로당, 2014.02.19.수 15:40.

43 김태곤, 「굿」,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여러 면의 무당, 재비(악공) 등이 하고, 동제인 당굿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비해 작은 굿의 비손은 신 앞에서 한 사람의 무당이 하고, 기자(祈子)·치병·재수발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무가는 부적과 같은 그림도 포함될 때 장산도 씻김굿, 망자혼사굿, 성주굿, 지앙맞이, 복(復)뒹음굿, 손 비빔, 부적 등의 무가가 있고, 이 외에 혼건지는 굿, 고시례, 당제(밤섬 당제, 막금 당제, 마진도 말 바위), 복(復)뒹음 굿, 귀꽃 오가리 등의 민속문화정보가 있다. 이때 장산도 씻김굿은 안당, 초가망석, 손굿, 제석굿(염불, 시주, 성주굿, 입춘, 노적, 업, 군웅, 당산), 오구물림, 고평이, 뉘올림, 씻김, 길뒹음, 망자놀이, 오방굿, 해원굿으로 구성된다.

무가는 리길용(2권), 김진오(3권), 장산도 사람들(3회) 등이 이를 다루고 있다.

리길용(1985, 1999) 자료(2권⁴⁴⁾의 경우, 장산도 씻김굿, 혼건지는 굿, 고시례, 당제(밤섬 당제, 막금 당제, 마진도 말 바위), 복(復)뒹음 굿, 귀꽃 오가리 등에 관한 문화정보가 사설없이 민속 편에 담겨져 있다.

김진오(1991, 2008, 2013) 자료(3권)의 경우 장산도 사람들의 무가인 씻김굿⁴⁵⁾, 망자혼사굿⁴⁶⁾, 성주굿, 지앙맞이, 복(復)뒹음굿, 손 비빔 등의 사실과 부적의 그림이 책⁴⁷⁾에 채록되어 있다.

44 리길용, 「(15) 시김굿(24), (16) 혼건짐굿(26)」, 「11. 민속(28)」, 『장산의 뿌리』, 장산동초등학교 향토 문화연구회, 1985.10, 24~26쪽; 리길용, 「(16) 씻김굿, (17) 혼건지는 굿, (19) 당제: 밤섬 당제, 막금 당제, 마진도 말 바위, (20) 복(復)뒹음 굿」, 「13. 민속」, 앞의 책, 1985, 88~89쪽.

45 김진오, 「3. 씻김굿」, 「Ⅳ. 민요」, 『어머니 품 같은 영원한 내고향 장산』, 신안군 장산면, 1991, 44~45쪽; 김진오·최성환, 「3. 장산 씻김굿」, 「Ⅴ. 장산면의 민속문화」,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장산』, 장산면 신안문화원, 2008, 55~56쪽; 김진오, 「1) 장산 씻김굿」, 「5. 무속신앙」, 『제3장 민속신앙』, 『장산도의 민요와 민속』, 참글문화, 2013, 126~207쪽. 가운데와 뒤의 책에 조왕반(부정경, 조왕경), 안당, 초가망석, 손굿, 제석굿(염불, 시주, 성주굿, 입춘, 노적, 업, 군웅, 당산), 오구물림, 고평이, 뉘올림, 씻김, 길뒹음, 망자놀이, 오방굿, 해원굿 등 장산 씻김굿 12석을 소개하고, 뒤의 책에만 사설이 채록되어 있다.

46 김진오, 「4. 망자혼사굿」, 「Ⅳ. 민요」, 앞의 책, 1991, 45~46쪽; 김진오·최성환, 「4. 망자혼사굿」, 「Ⅴ. 장산면의 민속문화」, 앞의 책, 2008, 57쪽; 김진오, 「2) 망자혼사굿」, 「5. 무속신앙」, 『제3장 민속신앙』, 앞의 책, 2013, 207~214쪽. 뒤의 책에만 사설이 채록되어 있다.

47 김진오, 「1) 장산 씻김굿, 2) 망자 혼사 굿, 3) 성주굿, 4) 지앙맞이, 5) 복(復)뒹음굿, 7) 손 비빔, 8) 부적」, 「5. 무속신앙」, 『제3장 민속신앙』, 앞의 책, 2013, 126~231쪽.

장산도 사람들(2014)의 경우 장형철 면장이 장산면 현황을 설명할 때 장산도 씻김굿, 망자혼사굿, 당제(다수리 막금제당, 마진리 울도제당) 등에 관한 민속문화정보를 사설없이 제보했고, 공수리 마초마을 이귀인씨가 A4용지 31쪽 분량의 장산도 씻김굿 사설을 제공해 주었다. 장산도 진금순(여, 75, 1940)씨가 직접 공연한 곳은 <장산도 씻김굿: 오구굿>⁴⁸⁾이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제보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참고문헌
3	무가	장산도 씻김굿 사설(31쪽)	이귀인 (남, 87, 1928)	장산면 공수리 마초마을	2014. 08.28	현지개별조사

(1) 장산도 씻김굿

<구연상황>

《장산도 씻김굿》이 신안 씻김굿으로서 이귀인씨, 유점자씨, 진금순씨와 함께 2013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지정된 이후 현재 이귀인씨, 진금순씨 등이 장산도 씻김굿을 전승시키고 있다.⁴⁹⁾

필자가 장산도 사람들이 직접 장산도 씻김굿을 하는 소리⁵⁰⁾를 들은 것은 2014년 10월 3일(장산도들노래전수관),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2014년 제3회 찾아가는 섬 포럼>에서였다.



<사진 11> 공수리 마초 진금순(여, 75)님의 모습(2014.02.19촬영)

48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앞의 2014년 제3회 찾아가는 섬 포럼-신안군 장산도 편(주제: 장산도 문화자원과 민속예술).

49 그러나 이귀인씨에 의하면 요새 굿이 없다. 이귀인 명인이 70세가 된 후부터 굿을 못하고 있다. 또한 성가신 것을 무릅쓰고 굿을 가르치고 싶는데 배울 사람이 없다. (홍순일 외 조사, 이귀인 제보, 현지개별조사내용 <혼과 육체의 관계>, 장산면 공수리 마초마을 이귀인씨택, 2014.08.28.(목) 10:40)

50 홍순일 조사, 이귀인(남, 87, 1928), 강부자(여, 77, 1938), 김일평(남, 79), 윤화덕(여, 82, 1933), 장정숙(여, 78), 김귀금(여, 85) 제보, 앞의 현지공동조사내용 <《하중발매기노래》>.



(사진12) 장산면 진금순님의 무형문화재 비석(2014.08.28촬영)

여기에서 소개되는 《장산도 씻김굿》의 무가 사설⁵¹⁾은 위의 두 곳에서 부른 진금순씨의 무가 사설이 아니라 2014년 8월 28일에 받은 이귀인씨의 무가 사설이다. 초가망석-암담 선불이-제석굿(중굿)-성주풀이-오구풀이-고풀이-천근올림-식김굿-질뒸음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위 두 곳에서 구연된 진금순씨의 오구풀이 부분이다. 오구풀이의 내용은 오구의 신앙님한테 버림을 받은 딸 일곱차 별이덕이(별의덕이)가 시양산 바위 밑에 있는 불사약을 구해 와서 대왕의 사병을 구하고, 불효의 죄를 면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위 이귀인씨의 무가를 채록한 사설이 있다. 『장산도의 민요와 민속』(2013)⁵²⁾의 장산도 씻김굿 무가 사설이 바로 그것이다. 즉 조왕반(128, 부정경, 조왕경), (1) 안당, (2) 초가망석, (3) 손굿, (4)제석 굿(염불, 시주, 성주굿, 입춘, 노적, 업, 균웅, 당산), (5) 오구머리(오구물림), (6) 고풀이, (7)넋올림, (8) 씻김, (9) 질뒸음, (10) 망자놀이, (11) 오방굿, (12) 해원굿 등이다. 김진오씨의 다른 책들⁵³⁾에서는 장산

51 홍순일 외 조사, 이귀인(남,87,1928) 제보, 현지개별조사내용 〈장산도 씻김굿 사설〉, 장산면 공수리 마초마을, 2014.08.28.(목) 10:40.

52 김진오, 「1) 장산씻김굿」, 「5. 무속신앙」, 「제3장 민속신앙」, 앞의 책.

53 김진오, 「3. 씻김굿」, 「Ⅳ. 민요」, 앞의 책; 김진오·최성환, 「3. 장산들노래-지방무형문화재 제21호-」, 「Ⅴ. 장산면의 민속문화」, 앞의 책, 2008, 55~56쪽.

도 씻김굿 무가의 사설없이 이를 안당, 초가망석, 손굿, 제석굿(염불, 시주, 성주, 입춘, 노적, 업, 군웅, 당산), 오구물림, 고평이, 낫올림, 씻김, 길뒹음, 땅자놀이, 오방굿, 해원굿 등 장산 씻김굿 12석으로 정리하고 있다.

김진오씨는 오구머리(오구물림)는 죽은 사람의 넋을 저승에 보낼 때 하는 곳으로 망자가 저승에서 무엇으로 환생되었는가를 보는 것이라고 했고, 이 곳의 줄거리⁵⁴⁾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딸 일곱을 낳은 오구대왕이 화병으로 죽게 되자, 딸들을 불러 시왕산에 가서 악물을 구해오라고 한다. 그러나 어느 딸도 무섭다고 가지 않자, 오구부인이 바리데기를 찾는다. 바리데기는 일곱째 딸로 강변에 내다 버린 딸이다. 바리데기가 자원하여 시왕산에 가서 길값, 약값, 산값 3년씩 9년을 살고 약을 구해와 보니, 아버지인 오구대왕의 상여가 나가고 있었다. 바리데기가 관을 떼고 악물을 먹고, 솜다래 꽃으로 숨을 쉬게 하고 말다래 꽃으로 말을 하게 하여 오구대왕을 살린다.”

〈사 설〉

오구님의 본을 받고 오구님의 완철받세.

오구님의 보은거 어디가 본인신가?

금실금실 청도실천이 본이로다.

오구님은 십육세, 오구부인은 심칠세 잡수셨는되

부부간에 을부를 춘광호접네 화절의 호알자

정월십오일의 자성을 납제하고,

삼월 하리랑 한식일의 육회를 같이 할제,

머리우에 화관띠고, 청실홍실 기약맺어

녹음방초 시절만나

황금같은 피꼴이 모양 유간의 너노난 듯

54 김진오씨는 오구머리(오구물림)가 효녀 바리데기 이야기라고 요약했다.

초목이 춘광을 만난 듯이 오구부인 태기가 있어,
앉으면 일으키고, 서면 앉히시고,
밥에서 문내나고, 구에서 날장내나고,
고기에 비린내 나고, 상추에 풋네나고,
시금본선 면금다래 다칭하고서
부정부작할 부정불식하고,
일부 청음식하고, 삼세를 베풀어
탄생을 하여 주시고, 낳고 본이 귀한 옥녀로다.

생남하 하였으면 태자 봉하렸던 것이
여식을 낳아서 섭섭하다.

연지다말 분단말 부벽사창 좋은 방에
유묘 정해 길루자 한은 후
이삼년 넘어 태기가 있어
낳아놓고 보니, 여자 아기 낳아구나.

시차 니차 다섰차 여가지요 한탄하여 설이운다.

생각한이 공이나 드러보자.
명산대절 영신당을 다니면서 들러
각각으로 시주하면 조왕님전 제왕맛이 칠성으로 공들면
공든탑이 무너지면 심는 나무가 자자지리요
그달이 못가서 태기가 있어
석제부정하고 할부정 부자하고
인물청음식할 식십생이 차면추의 하루산 행복김이 있어
집한정이 치의놓고 세스반의 정화수를 받쳐놓고
탄생하시난이 금관문 화관문을 순산해 놓고
본이 일곱차도 여자를 낳고 보니

오구부인 방성통곡 설리올면
 이번 왕자도 쓸 데 없고 조정신화도 부끄럽다 한탄하실제
 오구부인 시왕님의 하신 말씀 산해로 이룬은가.
 공드려 낳은 자식 여식을 낳았으니 섭섭함은 피차일반이라.

너무 고통 마옵시고 육체를 보존하옵소서.

오구부인 시왕님의 환궁하신 후의 오구부인 설리운다.

다시 생각하여 화여불려 분부를 할제
 일곱차 딸애기 더 못커냈다.
 시내강변 새모래 밭에 버리고 오너라 하시니
 하녀가 거역할 수 없어 강변 새모래 밭에 버리고 왔더니
 장내귀인될 사람이라.

백학이 내려와서 한 날개 깔고,
 한 날개는 덮고 수일을 길러낼제
 하루는 오구부인 그 자식 정을 잊지 못하여서
 하년 불러 별이덕이 애기씨 죽었는가
 가보고 오너라 하여 천방지방 갔다 오턴이
 별이덕이 애기씨를 백학이 한 날개는 깔고 한 날개는 덮고 있다가
 학은 날아가고 애기씨는 병실병실 웃음을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무슨 죄가 있겠느냐 다려오너라
 데려다가 함부로 길러 낼제
 그때에 오구의 신왕님 공주 일곱낳고
 심하로 병이 낳서 우월을 구병하여
 감감소식 없어 기로장안에 광사여 문자를
 문복을 하여보니 결정필필은 육십사 피라.

피를 잡아 유희치고 사람이 하신 말씀
친구도 쓸 데 없고 실롱씨 백초약 쓸 데 없고
시양산 바우 밑에 불사약이 있사오니
그약을 잡수시면 만병통치 하는이

오구부인 급한 마음 시양 공주 불러 놓고
관상 여정대로 시양산 약물을 길어 가라하니
혈유유 듣고 보니 머나먼 시양산이 어데라고 내가 어찌 가오리까
두차 세차 딸을 불러놓고 약물을 길어 갈랴느냐 하신이
형이 못가는데 내가 어찌 가오리까
다섯차 여섯차 갈려느냐 물으니
상화 물련하고 주년이 차면 동네출입도 어려운데
시양산이 어데라고 내가 어찌 가오리까
오구부인 기가 막혀 하는 말이
일곱 중 하나만 아들 돼았으면
자원하여 갈텐디 원통하고 서러워라.

일곱차 별이덕이 천방지방 나오더니
오구부인에게 여짜오되 약을 길러다가
대왕의 사병을 구하고 불효진 죄를 면하오리다.

오구부인 그말 듣고 반갑도다 귀하도다.

너를 낳아서 귀운 정성을 생각하면 부끄럽기 측량없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요 어떻게 길렀든지
자신의 도리요 부모봉양 하오리다.
내 가서 약물을 구해다가 우리부모 살릴소요.”

부모하직하고 은동우 옆에 끼고 시야산을 찾아가되
산신봉은 구름밖에 멀고 찾아서 들려갈제
각 짐승우는 소리 개와 화초로다.

그 십추팡 무궁한 절개를 생각지 못하고
 화들아 서관이 나서 나서면 좌우로 들렸었고
 서관서 여들이 칭찬하면 금단옥절이요
 별이덕이 섭식을 석상에 못보드라.
 이유서관이 하신 말씀, 춘대해 별이덕이 가는
 길 막지마라.

길값 삼년 살려주고
 산신이 산값 내라고 하니 산값 삼년 살려주고
 물값 내라 하니 물값 삼년 살아주고
 물값 삼년 길값 삼년 산값 삼년 구년을 살아주고
 은동우에 약물을 길러가지고 환생초를 한 손에 들고
 정막고산 집으로 주야없이 찾아오니
 한 모퉁이 돌아오니 백운같은 호방 삼방 공예순 날이고
 벽진과 서리같은 상복군들이 좌우로 쟁취하고
 청거여 나오던 날 별의덕이 시급한 마음으로
 저기 가는 상복군들 거기 조금 머무르소.
 내말 조금 듣고 가소.
 시양산이 멀고 멀어 지연실수대였으니
 불사약과 환생초로 우리대왕 살릴턴이
 거기 좀 머무르소.
 식켜하단 벗계내여 공석슬 너근작 띠고 화계로 못세고
 별의덕이 작근들어 환생초로 몸을 씻고
 약물을 입에 넣어 잠든 사람 깨어난 듯 고이하듯 일어나며
 “날 살이 없건만은 누가 날살렸느냐”
 좌우 제신들이 하신 말씀, “딸 일곱차 별이덕이가 살려내었습니다.”
 “은혜 백골난망이다.”

4. 장산도의 관용어와 문학

1) 장산도 관용어와 문학의 유형과 특징

[개요]

보통 관용어(慣用語)¹⁾는 서구어의 속어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 용어 자체가 지닌 ‘관습화된 말’이라는 뜻이 있다. 또는 우리 학계에서는 속담·속어·은어 등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의미나 구조상 관습적으로 특별히 굳어진 단어나 구절이라는 점에서 관용어에는 속어 이외에도 속담, 고사성어, 금기어, 길조어, 수수께끼, 특별히 굳어진 직유·은유·제유·환유 등 비유어, 은어, 상투어 등도 포함시키고 있다.

장산도의 관용어는 크게 속담과 금기어로 구분된다. 속담과 금기어는 장산도 사람들이 모두 실생활 속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간결한 관용어(慣用語)이나, 속담은 교훈·풍자를 위해 비유법으로 서술해서 말해진 내용 이상의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를 함축하는데²⁾ 반하여, 금지되는 행동과 함께 금기에 속한 금기어는 종교적·도덕적인 이유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꺼려지는, 민속신앙과 결부되어 금기적인 사실만을 의미하는³⁾ 언어표현이다. 장산도의 문학은 문학과 그 외연인 비문학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문학은 고문서의 문학 부분, 장산팔경, 농사일기 등이 이에 속하고, 비문학은 고문서의 비문학 부분, 마을 동계 회의록, 가계부 등이 이에 속한다. 여기에서는 고문서의 문학이나 비문학 부분은 다루지 않기로 한다.

필자는 장산도 구비전승자원인 관용어와 문학의 활용방안을 염두에 두고, 장산도 사람들의 의식을 드러내는 속담, 금기어, 문학, 문서 등의 조사현황과 조사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김문창, 「관용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 김홍균, 「격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3 김홍균, 「격언」, 위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문헌·현지에서 조사된 장산도 관용어의 경우 속담은 ‘석준네 새끼들 같다’, ‘물지마라 갑자생’ 등 2수이고, 금기어는 ‘만인 적선을 하여야 후손이 번창한다’, ‘복날 [復日]에 사람이 죽으면 또 초상이 난다’, 민간의 여러 가지 금기사항들, ‘조금에 나면 갯것을 잘한다’ 등 4수 이상이다. 그리고 문학의 경우 장산팔경, 농사일기 등 2종과 고문서, 가계부 등 2종 등 4종이 있다.

필자가 문헌·현지에서 조사한 장산도 관용어와 문학 중 장산도 사람들의 의식과 장산도의 특징을 관용어로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것을 선별·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의 목록과 같다.

2) 장산도의 속담

필자가 문헌·현지에서 조사한 장산도의 관용어의 경우 속담은 도창리 김영만씨, 오음1리 조평순씨의 제보로 ‘석준네 새끼들 같다’, ‘물지마라 갑자생’ 등이 조사되었다. 총 2수이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제보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참고문헌
1	속담	‘석준네 새끼들 같다’	김영만 (남, 64)	장산면 도창리	1984	허경희 1996:107
		‘물지마라 갑자생’	조평순 (남, 80, 1935)	장산면 오음1리	2014. 08.28	현지개별조사

(1) ‘석준네 새끼들 같다’

필자가 허경희교수의 『신안지역의 설화와 민요-장산면 편-』⁴⁾을 살피다가 나온 ‘석준네 새끼들 같다’이다. 이 마을에서 식구가 많았으나 병으로 다 죽은 집을, 마을 사람들이 석준네 굴청이라고 말하는데, 보통 새끼들이 많은 집을 일컫는 말이다.

4 허경희, 「19. 석준네 굴청」, 『Ⅳ. 장산면 설화자료』, 앞의 책, 1996, 78~122쪽 중 107쪽.

〈줄거리〉

이 마을에 식구가 많았으나 병으로 다 죽은 집을 '석준네 굴청' 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새끼들이 많은 집을 보면 '석준네 새끼들 같다' 고 말한다. 이 집을 지나가 다보면 허깨비를 만나게 되는 무서운 곳이라고 여긴다.

〈구술내용〉

거기가 무서워. 옛날에 아들이고 딸이고 애기들이 많은 사람이 살다가 몰싸 죽음을 당한데여. 옛날에 이 마을에 살다 죽었제. 현재 거기가 자기네들이 산 집터가지 있제.

옛날 거기다 대나무도 심고 그래서 대나무도 있어. 응 그랑께, 식구가 많은께 외부 사람이 한 명 와서 살았어. 그란디, 어느 때 모진 병이 들어와서 다 몰싸 죽음을 당했제. 그래서 식두들이 전멸했어. 그래서 거기를 별명해서 석준네 굴청, 석준네 굴청 그래. 그라고 지금도 새끼들이 많은 집을 보며 별명으로 석준네 새끼들 같다고 그래. 옛날에 북강서 거리 자주 들어다닌 사람들이 석준네 굴청 가다가 허깨비 만나 갖고 씨름도 하고 시근 땀 펄펄 흘리고 오고 그랬어. 무서운 굴청이제.

(2) '묻지마라 갑자생'

필자가 현지개별조사 때 오음1리 조평순씨를 만나 면담⁵⁾하는 중에 나온 '묻지마라 갑자생' 이다. 많은 일을 다 겪어 고생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는 말이다.

3) 장산도의 금기어

필자가 문헌·현지에서 조사한 장산도의 금기어는 오음1리 문석철씨, 공수2리 비소마을 김진오씨, 다수3리 강대용씨 등의 제보로 '만인 적선을 하여야 후손이 번창

5 홍순일 외 조사, 조평순(남, 80, 1935) 제보, 현지개별조사내용 <'묻지마라 갑자생' 하중숙 거론>, 장산면 오음1리, 2014.08.28.목 15:20.

한다’, ‘복날[復日]에 사람이 죽으면 또 초상이 난다’, 민간의 여러 가지 금기사항들, ‘조금에 나면 갯것을 잘한다’ 등이 조사되었다. 총 4수 이상이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제보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참고문헌
2	금기어	‘만인 적선을 하여야 후손이 번창한다’	문석철 (남, 84,1931)	장산면 오음1리	2014. 08.28	리길용 1985.10:74~75
		‘복날[復日]에 사람이 죽으면 또 초상이 난다’	문석철 (남, 84)	장산면 오음1리	2014. 08.28	리길용 1985.10:93~95
		민간의 여러 가지 금기사항	김진오 (남, 62)	장산면 공수2리 비소마을	2014. 02.20	김진오 2013:378~379
		‘조금에 나면 갯것을 잘한다’	강대용 (남, 64)	장산면 다수3리	2014. 10.02	현지개별조사

(1) ‘만인 적선을 하여야 후손이 번창한다’

필자가 리길용씨의 『신안군은 소왕국-장산을 중심으로-』⁶⁾을 보다가 찾은 말이다.

이 책에 의하면 장산면 공수리에 2개소, 중산에 2개소의 준영이 다리가 있다. 1955년 최준영씨가 생활수준이 하류이면서도 부락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순수하게 자비로 돌다리를 만들어서 새마을 사업의 선구자로 칭송이 자자하였다. 지금도 ‘준영이 다리’ 라고 부른다.⁷⁾

최준영씨가 다리를 만든 동기를 놓고, 학자 박병일선생은 ‘만인 적선을 하여야 후손이 번창한다’는 말씀을 따른 것이라고 하고, 저자 리길용씨는 최준영씨가 원래 천성이 고운 분이라고 했다. 이때 이 말이 나온 것이다.

6 리길용, 「(8) 준영이 다리」, 「12. 인물」, 앞의 책, 1999, 67~75쪽 중 74~75쪽.

7 조사자들이 장산도에서 ‘준영이다리’의 존재유무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아직 이를 제보해 주는 사람을 찾지 못한 상태이다. [홍순일 외 10인(강봉룡, 김경완, 김은주, 김인희, 김진오, 송기태, 유현주, 이기갑, 최성환, 홍선기) 조사, 장형철(남, 53) 외 제보, 현지공동조사내용 〈장산면 현황 설명〉, 장산면 장산중앙길2 면사무소, 2014.02.19.수 13:00]

(2) '복날[復日]에 사람이 죽으면 또 초상이 난다'

필자가 위의 같은 책 『신안군은 소왕국-장산을 중심으로-』⁸⁾를 보다가 찾은 말이다.

이 책에 의하면 장산도 사람들이 복날[復日]에 사람이 죽으면 또 초상이 나기 때문에 모두 꺼린다. 복날 초상이 나면 액막이[防厄: 액막이]로 해(海)자를 써서 방의 네 구석에 거꾸로 붙이고, 동관(動棺)을 하며, 창문 밖에다 바가지를 얹어 놓고 관을 든 앞사람이 밟아서 깨뜨린다. 혹은 바가지를 문턱에 얹어놓고 관으로 눌러서 깨기도 하며, 도끼로 문턱에 +자로 찍어놓고 나가기도 한다. 관을 마당에 모시고 관의 머리에서 복담음 굿을 하기도 하는데, '관물임굿'이라고 부른다. 또 관물임굿을 못한 사람은 길일(吉日)을 택하여 묘에 가서 복담음굿을 하기도 한다.

(3) 민간의 여러 가지 금기사항

필자가 읽은 김진오씨의 책 『장산도의 민요와 민속』⁹⁾에 나오는 것이다. 행동과 말의 금기는 종교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가려서(선택)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금지, 삼감), 하지 않게 지키는 일(지킴)이다.¹⁰⁾ 김진오씨는 1984년에 중용마을 최한규(남, 73)씨, 호피마을 김보배(여, 78)씨, 사근마을 최처녀(여, 75)씨, 다수마을 김장산(여, 79)씨, 1989년에 비소마을 정매월(여, 60)씨, 1990년에 마초마을 진금순(여, 51)씨 · 강부자(여, 53)씨 · 장정숙(여, 54)씨 · 박금단(여, 53)씨, 다수마을 김장산(여, 79)씨 등의 제보로 금기어를 조사 · 채록했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동네 청년들에게 해가 된다고 밤에는 빨래 할 때 물 방망이질을 하지 않는다.
- 문지방에 앉든지 발로 밟으면 어른들 목을 밟는다고 금기시하며 재수가 없다고 한다.
- 밤에 손발톱을 깎으면 부모가 빨리 죽고 복이 달아난다.
- 임신한 부인은 상가(喪家)에 가지 않는다.

8 리길용, 「(8) 준영이 다리」, 「12. 인물」, 앞의 책, 1999, 67~75쪽 중 74~75쪽.

9 김진오, 「12. 기타 금기사항」, 「제 7장 민간요법」, 앞의 책, 2013, 378~379쪽.

10 김열규, 「금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 초상집에 다녀온 사람은 출산한 집을 가지 않는다.
- 임신부가 불난 집, 초상집, 묘 이장한 곳에 가면 유산이 된다.
- 임신부가 있는 집안에서는 묘일을 하지 않는다.
- 임신부가 쌍 계란을 먹으면 쌍둥이를 낳는다고 먹지 않는다.
- 임신부가 개고기, 토끼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를 먹으면 아기가 동물을 닮는다고 먹지 않는다.
- 임신부는 초상집 음식이나 생일 음식을 먹지 않는다.
- 개고기 먹고는 산에 가지 않는다.
- 살아 있는 사람의 옷이나 사진을 태우지 않는다.
- 여자들은 아침 일찍 남의 집에 가지 않는다.

(4) ‘조금에 나면 갯갯을 잘한다’

필자가 다수3리의 강대용씨를 만나 면담¹¹⁾하는 중에 나온 말이 ‘조금에 나면 갯갯을 잘한다’이다. 물때가 길면 낙지는 산소가 부족하여 구멍 입구에 나오는 습성이 있다. 물이 빠져 있으니까(산소가 부족하니까) 사는 놈이 다 나오는 것이다.

강대용(남, 64, 1950)씨에 의하면 탄광생활을 할 때 일정한 원리를 발견하였다. 그런데 낙지잡이생활을 할 때에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탄광생활시 감독은 탄맥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강대용씨는 20대 때 “여기에 탄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보통 돌 가운데에 검은 탄이 있기 마련이다. 그 탄맥이 형성된 후나(시작이나), 하얀 돌이거나, 흙이 있거나 하면 탄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들어가다 보면 탄이 터지고 만다는 것이다. 이러한 안목으로 탄을 발견하는 대신 낙지를 잡는 것이다.

11 홍순일 외 조사, 강대용(남, 64, 1950) 제보, 현지개별조사내용 <낙지잡이>, 장산면 다수3리, 2014.10.02.금 18:30.

4) 장산도의 문학과 문서

필자가 문헌·현지에서 조사한 장산도의 문학의 경우, 문학은 리길용의 소책자 『장산의 뿌리(1985)』를 보여준 문석철씨, 리길용의 책 『신안군은 소왕국-장산을 중심으로-(1999)』을 전달한 김경완씨, 김진오·최성환의 책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장산(2008)』을 기증한 장형철씨, 대리2리 최춘식씨 등의 제보로 장산팔경, 농사일기 등 2종이고, 문서는 공수2리 비소마을 김진오씨, 대리2리 최춘식씨 등의 제보로 고문서, 가계부 등 2종이다.

총 4종이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제보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참고문헌
3	문학과 문서	문학	장산팔경 장형철 (남, 53)	장산면 장산중앙길2 면사무소	2014. 02.19	현지공동조사
			문석철 (남, 84)	장산면 오음1리	2014. 08.28	현지개별조사
		[미수집] 농사일기	최춘식 (남, 71)	장산면 대리2리	2014. 08.29	현지개별조사
	문서	[미수집] 고문서	김진오 (남, 62)	장산면 공수2리 비소마을	2014. 02.20	현지공동조사
		[미수집] 가계부	최춘식 (남, 71)	장산면 대리2리	2014. 08.29	현지개별조사

(1) 장산팔경

장산팔경은 장산의 아름다운 명승지 8곳을 칭송한 것이다. 필자가 장산팔경에 관한 제보를 받은 것은 리길용(1985, 1999)씨의 자료와 김진오·최성환(2008)씨의 자료였다.

▶ 리길용의 책에 나온 장산팔경

장산팔경이 들어 있는 책들은 문석철씨¹²⁾가 보여준 리길용의 소책자 『장산의 뿌리(1985)』¹³⁾와 김경완씨¹⁴⁾가 전달한 리길용의 책 『신안군은 소왕국-장산을 중심으로-(1999)』¹⁵⁾ 등이다. 여기에 나오는 장산팔경은 저자가 말했듯이, 산세지리학적 논증을 뒷받침하는 사람의 것을 발취·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앞의 책에는 오음목적(五音牧笛), 아미반월(峨媚半月), 다수수양(多水垂楊), 비봉포란(飛鳳抱卵)(오른쪽 ‘大里’, 그 밑 ‘사장’), 평사낙안(平沙落雁), 사근백구(沙近白鷗), 맹호출림(猛虎出林)(범주강이), 비소귀안(飛巢歸雁) 등이라고 하고, 뒤의 책에는 오음목적(五音牧笛), 아미반월(峨媚半月), 다수수양(多水垂楊), 비봉포란(飛鳳抱卵), 평사낙안(平沙落雁), 사근백구(沙近白鷗), 비소귀안(飛巢歸雁), 맹호출림(猛虎出林)이라고 하여 대동소이했다. 뒤의 책은 앞의 책의 증보판이기 때문이다.

▶ 김진오·최성환의 책에 나온 장산팔경

장산팔경이 들어 있는 이 책은 장형철씨¹⁶⁾가 기증한 김진오·최성환의 책 『내 안에

12 홍순일 외 조사, 문석철(남, 84, 1931) 제보, 앞의 현지개별조사내용 <『장산의 뿌리』>.

13 리길용, 「장산팔경(30)」, 「12. 민요(28)」, 앞의 책, 1985, 30쪽.

14 홍순일 외 조사, 김경완(남, 45) 제보, 앞의 현지공동조사내용 <『신안군은 소왕국-장산을 중심으로-』>.

15 리길용, 「15. 장산팔경」, 『신안군은 소왕국-장산을 중심으로-』, 장산 유적 보존(관리)위원회, 1999.07, 103쪽.

16 홍순일 외 조사, 장형철(남, 53) 제보, 현지공동조사내용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장산』, 장산면 장산중앙길2 면사무소, 2014.02.19.수 13:00.

살아 숨쉬는 장산(2008)』¹⁷⁾이다. 여기에 나오는 장산팔경은 저자들이 말했듯이, 구전에 따른 것이다. 이것을 위의 리길용의 책에 나온 장산팔경과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리1’은 리길용의 책에 나오는 장산팔경 여덟 개 중의 1번을 뜻하고, ‘김·최1’은 김진오·최성환의 책에 나오는 장산팔경 1번을 뜻한다.

- 리1 - 김·최1 오음목적(五音牧笛)
- 리2 - 김·최2 아미반월(峨媚半月)
- 리3 - 김·최3 다수수양(多水垂楊)
- 리4 - 비봉포란(飛鳳抱卵)
- 리5 - 평사낙안(平沙落雁)→김·최6 팽진낙안(彭津落雁)
- 리6 - 김·최5 사근백구(沙近白鷗)
- 리7 - 비소귀안(飛巢歸雁)→김·최8 춘조비소(春鳥飛巢)
- 리8 - 맹호출림(猛虎出林)
- 김·최4 한운부학(閑雲浮鶴)
- 김·최7 용호귀범(龍湖歸帆)

(2) 농사일기

필자가 대리2리 최춘식씨를 만나 면담¹⁸⁾하면서 농사일기의 존재를 확인한 사항이다. 최춘식씨는 영농을 위해 농사일기를 10년 정도 썼다고 했으나, 필자는 이를 수집하지도, 사진 촬영도 하지 못했다.

17 김진오·최성환, 「Ⅵ. 장산팔경」,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장산』, 장산면·신안문화원, 2008, 60쪽.

18 홍순일 조사, 최춘식(남, 71) 제보, 현지개별조사내용 〈농사일기〉, 장산면 대리2리, 2014.08.29.금 10:40.

19 김경옥·홍순일 조사, 김진오(남, 62, 1953) 제보, 현지공동조사내용 〈고문서〉, 장산면 공수2리 비소마을 김진오씨택, 2014.02.20.목 16:24.

(3) 고문서

필자가 공수2리 비소마을 김진오씨를 목포대 도서화연구원 김경옥 HK교수와 함께 만나 면담¹⁹⁾하면서 고문서의 존재를 확인했다. 김진오씨는 후손으로서 소중히 간직해 온 선조의 고문서들을 궤에서 꺼내 보여주었다. 김진오씨의 선조는 [증조] 학현(鶴軒) 김준성→[조] 죽포(竹圃) 김영윤→[부] 향파(香波) 김봉기→ [나] 김진오 등이고, 김진오씨는 형제가 3남 3녀이다. 초4 때부터 조부·조모와 함께 지냈다.

고문서 전공인 김경옥 박사는 이를 유형별로 구분해 상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서당, 의학, 동의보감, 족보, 예법, 유서필지(문서양식), 간찰 등이 있음을 확인했다. (고)문헌조사자료는 책 고문헌, 낱장 고문서, 성책 고문서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김진오씨 자택에서 나온 서당, 의학, 동의보감, 족보, 예법, 유서필지(문서양식), 간찰 등을 이에 대응시키면서 고(문헌)자료의 성격을 파악하는 일은 후손이든 연구자이든 이후에 해야 할 과제이다.

(4) 가계부

필자가 대리2리 최춘식씨를 만나 면담²⁰⁾하면서 가계부의 존재를 확인한 사항이다. 최춘식씨는 농사와 관련시켜 가계부를 작성했다고 했으나, 필자는 이를 수집하지도, 사진을 촬영하지도 못했다.

20 홍순일 조사, 최춘식(남, 71) 제보, 현지개별조사내용〈가계부〉, 장산면 대리2리, 2014.08.29.금 10:40.

5. 장산도의 민요공동체

1) 장산도 민요공동체의 내용과 특징

[개요]

장산도의 민요공동체는 크게 산다이, 다리(밤달애)로 구분된다. 산다이와 다리(밤달애)는 장산도 사람들이 절후별·사안별로 모여 일정한 목적인 구성원의 필요를 수행하는, 놀이를 지향하는 소리문화의 연행물²¹⁾이지만, 산다이는 장례 때 행해지는 다리

(밤달애)[밤다리, 다리]와는 달리, 명절, 통과 의례 때 실생활에서 행해진다는 점이 다르다.

필자는 장산도 구비전승자원인 민요공동체의 활용방안을 염두에 두고, 장산도 사람들의 의식을 드러내는 산다이, 다리(밤달애)[밤다리, 다리] 등의 조사현황과 조사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문헌·현지에서 조사된 장산도 민요공동체의 경우 산다이는 ‘10여 년(90년대 초반)까지 행해진 산다이’ 1회이다. 다리(밤달애)는 ‘상례: 달야(達夜: 밤 샘, 밤다리)’, ‘죽은 이의 영혼을 달래주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밤달애’, ‘20년 전까지 유족을 위로하는 밤다리’, ‘상가집에서 상주, 돌아가신 분을 위해 즐겁게 놀아주는 다리’ 등 4회이다.

필자가 문헌·현지에서 조사한 장산도 민요공동체 중 장산도 사람들의 의식과 장산도의 특징을 민요공동체로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것을 선별·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의 목록과 같다.

21 홍순일, 「민요공동체의 문화권역적 전개와 지역문화적 특성—산다이를 중심으로—」, 『남도민속연구』 19, 남도민속학회, 2009.12, 281~325쪽.

2) 산다이의 현황과 내용

필자가 문헌·현지에서 조사한 장산도의 산다이는 공수2리 비소마을 김진오씨의 제보로 '10여 년(90년대 초반)까지 행해진 산다이'가 조사되었다. 총 1수이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제보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참고문헌
1	산다이	10여 년(90년대 초반)까지 행해진 산다이	김진오(남, 63)	무안→목포 통화	2015.01.30	현지개별조사

10여 년(90년대 초반)까지 행해진 산다이

공수2리 비소마을 김진오씨가 제보한 내용이다. 산다이는 90년대 초반까지 행해졌다. 면사무소 직원은 80년대 중반까지, 면내의 사람들은 90년대 초반까지이다. 산다이는 장산도 사람들이 목포예식장에 다녀와서 섬에서 뒤풀이할 때, 직원들이 회식 후 숙직실에 와서 놀 때 알고 있는 노래들을 돌아가면서 한다.

3) 다리(밤달애)의 현황과 내용

필자가 문헌·현지에서 조사한 장산도의 다리(밤달애)는 리길용의 책 『신안군은 소왕국-장산을 중심으로-(1999)』을 전달한 김경완씨, 공수리 마초마을 이귀인씨, 대리2리 최춘식씨·문경순씨·김순진씨·한옥순씨·장하금씨·홍연심씨·장춘재씨·정춘식씨, 공수2리 비소마을 김진오씨 등의 제보로 '상례: 달야(達夜: 밤 샘, 밤다리)', '죽은 이의 영혼을 달래주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밤달애', '20년 전까지 유족을 위로하는 밤다리', '상가집에서 상주를 위해 즐겁게 놀아주는 다리' 등 4수이다.

밤달애 용어의 경우 『장산의 뿌리』에 의하면 '달야(達夜: 밤 샘, 밤다리)'라고 한다. 고수리 마초마을 이귀인씨는 '다리(밤달애)'라고 한다. 대리2리 최춘식씨, 문경순씨, 김순진씨, 한옥순씨, 장하금씨, 홍연심씨, 장춘재씨, 정춘식씨는 '밤다리'라고

한다. 공수2리 비수마을 김진오씨는 ‘다리’ 라고 한다. 김진오씨는 장산도 사람들은 “밤달애한다”라고 하지 않고, “다리한다”라고 한다고 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김진오씨의 의견을 따라 밤달애를 ‘다리’ 로 하되, 다리(밤달애)라고 표기하고, 문장에서 밤다리, 다리 등도 같이 사용하기로 한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제보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참고문헌
2	다리 (밤달애)	상례: 달야(達夜: 밤 샘, 밤다리)	문석철 (남, 84)	장산면 오음1리	2014.08.28	리길용 1985.10:85
		죽은 이의 영혼을 달래주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밤달애	이귀인 (남, 87)	장산면 공수리 마초마을	2014. 08. 28	현지개별조사
		20년 전까지 유족을 위로하는 밤다리	최춘식 (남, 71)	장산면 대리2리	2014. 08. 29	현지개별조사
		상가집에서 상주를 위해 즐 겁게 놀아주는 다리	김진오 (남, 63)	목포시→ 무안군 통화	2015. 01. 30	현지개별조사

(1) 상례: 달야(達夜: 밤 샘, 밤다리)

『장산의 뿌리』²²⁾에 의하면 장산도에서는 보통 소상(小喪), 대상(大喪) 때 마을 사람, 또는 친지들이 화투놀이로 밤을 새우는 것과는 달리, 소리꾼들이 모여 들어 재담과 함께 음악회를 벌인다. 이것을 ‘달야(達夜: 밤 샘, 밤다리)’ 라고 한다.

22 리길용, 「(12) 상례: 달야(達夜: 밤 샘, 밤다리)」, 「13. 민속」, 『신안군은 소왕국-장산을 중심으로-』, 장산 유적 보존(관리)위원회, 1999, 81~85쪽 중 85쪽. 여기에는 상례: 달야(達夜: 밤 샘, 밤 다리)에 관한 내용이 있으나, 리길용, 「(12)상례」, 「11. 민속」, 『장산의 뿌리』, 장산동초등학교 향토 문화연구회, 1985.10, 19~22쪽에는 그것이 없다.

저자 리길용씨는 상가나 제사집에서 노래 소리란 상반된 일로 생각되지만, 시골이 너무 적적하고 밤에 부인네들이 심부름하기에 무섭기도 하니까, 떠들썩하게 놀아주는 것이라고 하고, 이때 주인집에서는 2~3회의 밤참을 내놓으며 날을 세우기를 바란다 고 했다.

(2) 죽은 이의 영혼을 달래주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밤달애

이귀인씨가 제보한 내용이다. 다리(밤달애)는 죽은 이의 영혼을 달래주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다. 이귀인씨는 가나니보살, 상여소리 등 소리를 한다. 이때 운상계 원뿐만 아니라 장산도 사람들 모두 함께 일동으로 대응한다. 첫날부터 유가족을 안심시키고 슬픔을 보내 버리기 위해 우스개, 노래 등 갖은 오락을 한다. 선소리는 소리를 조금 잘하는 사람이 하지만, 사람이 누구라고 꼭 고정된 것은 아니다. 주로 남자들이 선소리를 한다.

신안 장산도의 다리(밤달애)는 진도 사람들이 소리를 잘하는 것과는 달리, 장산도 사람들이 자신들의 웃음보파리를 따라서 만든다. 그런데 다리(밤달애)를 하는 사람은 자기들의 소견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맞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귀인씨는 신안 찻김굿을 안하니까 다리(밤달애)를 한다. 아는 사람이 소개하면 장산, 목포 등에 가서 다리(밤달애)를 한다.²³⁾

(3) 20년 전까지 유족을 위로하는 밤다리

대리2리 최춘식씨, 문경순씨, 김순진씨, 한옥순씨, 장하금씨, 홍연심씨, 장춘재씨, 정춘식씨 등이 동의한 내용이다. 밤다리는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20년 전까지 행해졌다고 전한다.

23 윤순심씨에 의하면 요즘 이귀인씨는 다리(밤달애)를 안하고, 진금순씨가 이것을 한다. (홍순일 조사, 윤순심 제보, 앞의 현지조사내용 <장산도들노래, 하중발매기노래, 길쌈노래의 소리구성과 <미영 따라가는 소리>, <물레타령>의 노래간 넘나들 현상)

(4) 상가집에서 상주를 위해 즐겁게 놀아주는 다리

공수2리 비소마을 김진오씨(남, 63, 1953)가 제보한 내용이다.

다리(밤달애)는 상가집에서 상주, 돌아가신 분을 위해 즐겁게 놀아주는 것이다. ‘밤달애한다’ 고 하기보다는 ‘다리한다’ 고 한다.

30~50대 젊은 층에서는 다리를 할 때 유행가 위주로 부른다. 동백아가씨, 안개 낀 장춘단 공원, 베사메 무초, 빨간구두 아가씨 등을 부른다. 반면에 60~70대 초반의 어르신들은 유행가보다 육자배기 등 옛날노래를 부른다.

다리(밤달애)는 밤에 상가집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놀아줄 때 한다. 방법은 산다리와 같다. 즉 음식상을 놔두고 젓가락으로 장단을 맞추면서 노는 것이다. 장산도 다리(밤달애)는 비금도 밤달애와는 달리, 장구, 북 등을 치면서 유행가를 하지만, 연극(회)은 여기에서 하지 않는다.

다리(밤달애)는 90년대 중반까지 행해졌다. 다리(밤달애)는 굴삭기가 등장하는 90년대 후반기부터 없어진 것이다. 또한 발인계원은 13~15명인데 젊은이들이 없어서 상여를 댈 수 없으므로 목포장례식장으로 가게 되었고, 노래문화도 비례해서 쇠락하게 되었다. 이것은 90년대(초중반) 들어서면서 바뀐 결혼문화, 장례문화 등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장례 때 상여를 메지 않고 경운기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다른 섬에서도 비슷한 형편이다. 현재 생존한 다리(밤달애)의 체험자는 박윤규(남, 69, 1947)씨이다. 김진오는 다리하는 목적은 살아 있는 자가 죽은 자나 유족을 위로한다고 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살아 있는 자가 즐거움을 위해 풀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6. 활용방안

이번에 문헌·현지에서 조사된 장산도의 구비전승물은 두 가지 방향에서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하나는 한 목소리로 말하고, 노래하는 장산도민의 섬문화를 살피고, 특히 민속공동체 속 구비전승물 각 편들의 지속과 변화도 함께 살피는 동시에 구비전승물에 나타난 장산도 사람들의 해역·지역의 정서를 연구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문헌·현지에서 조사된 장산도의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자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각종 지역개발계획과 신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나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할 때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다.

필자가 문헌·현지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물은 전술한 바와 같이 크게 이야기, 소리, 관용어와 문학, 민요공동체 등으로 구분되었다. 이야기의 경우 지명(地名)설화는 7리 43개 마을 중 7개 리 34개 마을, 인물설화는 4유형 34편[인물(인물 25편, 용 1편, 말 4편, 범 2편), 사물(2)], 경험담은 7편(화렴, 혼육(魂肉), 자료[책], 창극, 작사, 계, 낙지잡이) 등, 소리의 경우 민요는 노동요(장산도들노래 5인, 하중밭매기노래 5회, 길쌈노래 2회, 자장가 2편), 의식요(상여소리 2회), 유희요(강강술래 2회), 비기능요(주로 타령류 26편), 기타 노래 《유행가》, 〈통일가〉, 판소리는 4인의 소리, 1인의 구술, 무가는 2인 등, 그리고 관용어의 경우 속담(2수), 금기어(4수, 이외 문학 2종과 문서 2종 별도) 등, 민요공동체의 경우 산다이(1회), 다리(밤달애)(4회) 등이다.

필자는 이에 따라 구비전승자원의 활용방안을 크게 세 방향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1) 장산도 구비연행자의 육성방안: 이야기와 노래의 구연(口演)

필자가 제안하는 첫 번째 내용은 이야기와 노래의 구연력(口演力)이 있는 구비연행자의 육성이다. 구비연행자는 ‘구슬도 꺾어야 보배’ 라는 말로 비추어 보면 구슬을 만드느 사람이다.

(1) 자원

장산도의 보물은 구연되는 이야기, 노래 등이다. 또한 이를 구연하는 구비연행자이다. 이를 중심으로 구비전승물 자체, 마을, 연행조직이나 개인¹⁾과의 유기적 관계를 살피면서 민속공동체의 구비전승물이 지속되고, 변화되는 면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동시에 구비전승물에 나타난 장산도 사람들의 지역·해역의 정서를 연구할 수 있다.

필자가 문헌·현지에서 조사할 때 장산도의 구비전승물을 다루는 구비연행자들은 말, 이야기, 노래하면서 경험, 아는 이야기, 소리들을 통해 자신의 느낌, 생각, 민속공동체의 의식을 표현했다. 장산도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의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일정한 구조를 가진 꾸며낸 이야기를 말한 것이다. 또한 소리를 하면서 생활현장의 기능을 환기하고, 실생활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비연행자들은 실생활에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구비전승물을 통해 다른 일원들과 의사를 소통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제한된 섬의 공간에서 자원을 획득하고 이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해 간다는 점이다. 이것은 산다이, 다리(밤달애) 등 민요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이야기, 소리, 관용어와 문학 등의 구술을 만드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것이다. 소리꾼도 이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인 것은 물론이다.

(2) 상태

이야기에서 필자가 만난 지명설화의 구비연행자는 공수2리 비소마을 김진오씨(목포 최성환씨 포함), 장산도 장형철씨 등이고, 인물설화의 구비연행자는 공수리 정을룡씨, 도창1리 정공심씨, 도창리 정석심씨, 김영만씨, 도창2리 박원식씨, 대리 김대유씨, 도창리 이춘옥씨, 공수2리 비소마을 김진오씨 등이다. 그리고 경험담의 구비연행자는 공수리 정을룡씨, 도창리 김영만씨 등이다.

1 허경희·나승만, 「IV. 완도지역의 민요와 민요사회」, 『완도지역의 설화와 민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92, 7~97쪽 중 69쪽.

소리에서 민요 중 노동요를 다룬 이의 경우 장산도들노래는 리길용(2권) 자료, 허경회(1권), 김진오 전 면장(3권), 문화방송(6편), 장산도 사람들(4회) 등이다. 리길용(2권) 자료는 오음1리 문석철씨가 소개한 리길용의 『장산의 뿌리』(목포 김경완씨가 소개한 리길용의 『신안군은 소왕국-장산을 중심으로-』)에 나오는 장산도 사람들, 허경회(1권) 자료는 허경회교수가 만난 장산도 사람들, 김진오(3권) 자료는 공수2리 비소마을 김진오씨가 만난 장산도 사람들, 문화방송(6편) 자료는 팽진리 최달덕씨, 오음리 정석심씨, 정남임씨 외, 공수리 마초 강부자씨, 장산도 사람들(4회)은 이귀인씨 · 강부자씨, 박금단씨 · 진금순씨 · 윤순심씨, 최춘식씨 · 문경순씨 · 김순진씨 · 한옥순씨 · 장하금씨 · 홍연심씨 · 장춘재씨 · 정춘식씨, 진금순씨 · 박금단씨 · 윤순심씨 · 최막례씨 외 장산도 사람들 등이다.

하중밭매기노래는 리길용(1권), 김진오(1권), 문화방송(1편), 장산도 사람들(2회) 등이고, [자료]목포 김경완씨가 소개한 리길용의 『신안군은 소왕국-장산을 중심으로-』에 나오는 장산도 사람들, 공수리 마초 강부자씨, 공수2리 비소마을 김진오씨, 공수1리 이귀인 · 강부자씨, 장산도 박금단씨 · 진금순씨 · 윤순심씨 등이다. 길쌈노래는 공수2리 비소마을 김진오씨, 박금단씨 · 진금순씨 · 윤순심씨 등이다. 자장가는 도창리 1리 박동애씨, 정석심씨 등이다.

의식요 상여소리를 다룬 이는 공수1리 마초마을 이귀인씨이다. 유희요 강강술래를 다룬 이는 공수리 마초 강부자씨, 진금순씨 · 박금단씨 · 윤순심씨 · 최막례씨 외 장산도 사람들이다. 비기능요인 타령류 26편을 다룬 이는 오음1리 문석철씨가 소개한 리길용의 『장산의 뿌리』(목포 김경완씨가 소개한 리길용의 『신안군은 소왕국-장산을 중심으로-』)에 나오는 장산도 사람들, 공수리 마초 강부자씨, 공수리 이귀인씨, 이복례씨, 김옥례씨, 도창리 1리 정공심씨 · 정석심씨, 다수1리 김복단씨 · 황정례씨, 오음1리 하중숙씨, 대리2리 문경순씨 등이다. 기타 노래 《유행가》, 〈통일가〉 등을 다룬 이는 다수1리 김복단씨 · 황정례씨, 오리1리 하중숙씨 등이다.

판소리 중 판소리를 한 이는 도창리 1리 정공심씨, 공수1리 마초마을 이귀인씨, 다수1리 황하임씨, 마진도1리 마진도마을 장필재씨 등이고 창극에 관한 정보를 준 이는 오음1리 하중숙씨이다. 그리고 무가를 다룬 이는 공수2리 비소마을 김진오씨(목포 최성환씨 포함) · 장산도 장형철씨, 공수리 마초마을 이귀인씨, 진금순씨 · 박금단씨 · 윤순심씨 · 최막례씨 외 장산도 사람들이다.

이 중에서도 주목할 것은 첫째, 이야기에서 공수2리 비소 김진오씨가 〈말바위 이야기〉, 〈바리섬(죽도)이야기〉, 〈할미섬이야기〉 등을 제보하는 김진오씨이다. 둘째, 소리에서 각각 신안 씻김굿과 장산도들노래 예능보유자로서, 《장산도들노래》, 《하중밭매기노래》, 《상여소리》, 《강강술래》, 《판소리》〈제비가 강남에~〉, 《장산 씻김굿》 등을 구연한 공수1리 마초 부부 이귀인씨와 강부자씨이다. 셋째, 〈미영따러가는 소리〉, 〈물레타령〉 등을 구연한 공수1리 마초마을 박금단씨, 진금순씨, 윤순심씨이다. 넷째, 《유행가》, 〈아리룽타령〉, 《판소리》〈춘향이가 맞고 못나가는 대목〉 등을 구연한 다수1리 다수마을 황하임씨, 김복단씨, 황정례씨이다. 다섯째, 창극에 관한 민속문화정보를 구술한 오음1리 하중숙(남, 91, 1924)씨이다.

(3) 활용

구술을 쫓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필자는 이야기와 노래의 구연력(口演力)이 있는 구비연행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뒤의 것을 취하고 장산도의 문화자원에 접근하자는 것이다. 만약 이런 관점을 견지하는 동시에 장산도의 문학예술, 특히 민속예술이 보배라는 문제의식을 지닌다면 이에 비례해서 구체적인 방법은 찾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산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섬생활과 관련하여 이야기와 노래를 구연했다. 또한 이야기를 하되, 섬사람의 창조력과 지역문화의 특성을 말했다. 따라서 이 중심에 있는 사람을 구비연행자로 육성시켜야 한다. 즉 이야기와 노래의 구연력(口演力)을 발휘하고,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물론 이 방향에서 소기(所期)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두 가지 대책²⁾이 요망됨을 알 수 있다. 하나는 국가나 개인이 아직 남아 있는 구비전승물을 충실히 조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비문학의 전통을 현대 예술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민속예술의 하나인 구비문학과 대중 예술을 가능한 한 접근시키는 것이다.

2 조동일, 「구비문학」, 앞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장산도 구비전승물의 활용방안

필자가 제안하는 두 번째 내용은 연행되는 구비전승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구비연행자에 의해 구연된 구비전승물은 이야기(지명설화, 인물설화, 경험담), 소리(민요, 판소리, 무가), 관용어(속담, 금기어)와 문학(문학, 문서), 민요공동체[산다이, 다리(밤달애)] 등이었다. 사람끼리 이를 사용하거나 이것이 필요한 곳에 이용되도록 해야 한다.

구비전승물은 ‘구슬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로 비추어 보면 사람이 만든 구슬들이다. 연평바다 이야기 속의 머슴은 남생이 이야기 속의 빈자와 서숙 두 모가지 이야기 속의 똥개와 함께 선견지명(先見之明)의 인물이다. 즉 머슴은 빈자가 부자인 한양대감에 처세하는 것보다 뒤지지 않고, 똥개가 서숙, 쥐, 개, 소를 거쳐 된 아가씨한테 장가드는 것처럼 사물의 본질을 꿰뚫고, 또한 게으르지 않아 하늘의 복과 세상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장산도 사람들은 이 머슴, 빈자, 똥개 등과 같은 선견지명의 인물과 다르지 않다는 의식이 투영(投影)되어 반상(班常)과 귀천(貴賤)의 극복을 염원하는 이야기를 전승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할미섬 이야기는 섬의 처녀가 결함을 드러내자 바다의 용이 이에 대응한 결과를 보여 주고, 섬사람들이 바다와 대응하면서 대결 내지 적응하지 않을 수 없는 숙명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적대관계는 섬사람들이 섬의 자원을 이용·획득하는 의지로, 그리고 그 과정의 갈등을 민요공동체 속에서 이야기, 소리 등 구비전승물로 풀어내는 양상을 보인다. 말은 섬의 지명과 문화를, 범은 섬사람의 물을 그리는 화소가 된 것이다.

한편 소리는 민요(노동요, 의식요, 유희요, 비기능요), 판소리, 무가 등이 있었다. 현단계 민요의 경우 노동요는 장산도들노래(5인) 하중발매기노래(5회), 길쌈노래(2회), 자장가(2편) 등, 의식요는 상여소리, 유희요는 강강술래, 비기능요는 주로 타령류가 확인되었다. 기타 노래로 《유행가》, 〈통일가〉도 조사되었다. 즉 기능요, 비기능요, 그리고 기능요와 비기능요의 전화(轉化)현상도 활발하고 내용도 풍부하다. 여기에다가 농악인 건굿³⁾도 전승되고 있다. 이처럼 장산도 사람들은 민요의 구연을 통

3 목포대 도서관화연구원, 2014년 제3회 찾아가는 섬 포럼-신안군 장산도 편(주제: 장산도 문화자원과 민속예술). 이때 장산도 사람들은 오후 2시 20분부터 2시간 20분 동안 장산도 건굿(농악)→장산도 셋김굿: 오구굿→장산도들노래→강강술래순으로 공연을 했다.

해 시가무(詩歌舞) 내지 악가무(樂歌舞)를 실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민요공동체의 지속적인 변화도 확인하고 있다.

특히 기능요와 비기능요의 전화(轉化)현상은 앞으로 좀더 자세히 살펴야 할 대상이지만, 장산도 소리에서 유희요 내지 비기능요의 활성화는 다른 갈래의 활성화를 돕는 효과가 있으므로, 노동, 의식, 유희의 현장에서 부르는 민요뿐만 아니라 즐거움 자체를 위해서 부르는 민요, 그리고 이것의 외연이 확장된 소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민요 자체의 수립과 함께 노래를 생산하는 터전인 마을과 노래를 부르는 주체인 연행조직이나 개인⁴⁾까지도 계속 주목해야 할 것이다.

(1) 장산도 사람들의 삶과 장산도들노래(長山島들노래)

■ 자 원

장산도의 보물은 장산도 사람들의 장산도들노래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장산도들노래는 1988년 12월 22일,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되었다. 장산도들노래는 〈모든 소리〉(늦은 소리→잡은 소리), 〈모심은 소리〉(늦은 소리→잡은 소리), 〈논맨 소리〉(늦은 소리), 〈논매고 일어서기〉(잡은 소리), 〈질꼬내기〉 등으로 구성된 소리이다. 전술한 바 있는 건국은 이와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장산도들노래를 살필 때 건국과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것의 외연인 하중밭매기노래, 길쌈노래도 민요공동체의 관점에서 사회학적 방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상 태

현재 장산도들노래(1종 5인)는 전술한 바와 같이 리길용(2권), 허경희(1권), 김진오(3권), 문화방송(6편), 장산도 사람들(3회) 등이 이를 다루고 있다.

리길용 자료(2권)의 경우 장산 들노래가 책에 담겨져 있다. 허경희 자료(1권)의 경

4 허경희·나승만, 「IV. 완도지역의 민요와 민요사회」, 앞의 책.

우 이귀인(남, 57, 소1)씨, 강부자(여, 47, 선창)씨, 박금단(여, 47, 후창)씨, 윤화덕(여, 54, 후창)씨, 이철동(남, 52, 장구)씨, 진금순(여, 45)씨의 소리가 장산도들노래로 채록되어 있다. 김진오 자료(3권)의 경우 장산도 사람들의 소리가 장산도들노래-[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1호]-로 수록되어 있다.

문화방송 자료(6편)의 경우 팽진리 최달덕씨의 신안 모찌는 소리(1)-먼데소리, 오음리 정석심씨의 신안 모찌는 소리(2)-무언디소리/절레소리, 오음리 정석심씨의 신안 모심는 소리(1)-상사소리, 공수리 마초 강부자씨의 신안 논매는 소리(1)-‘어이코 난지나해’, 오음리 정석심씨, 정남임씨 외의 신안 논매는 소리(2), 공수리 마초 강부자씨의 신안 풍장소리-질꼬내기 등이 각각 문화방송 CD에 담겨져 있다.

장산도 사람들이 직접 부른 소리(3회)의 경우 이귀인씨·강부자씨의 《장산도들노래》〈모든 소리〉(늦은 소리→잡은 소리), 〈모심은 소리〉(늦은 소리→잡은 소리), 〈논매 소리〉(늦은 소리), 〈논매고 일어서기〉(잡은 소리), 〈질꼬내기〉, 최춘식씨, 문경순씨, 김순진씨, 한옥순씨, 장하금씨, 홍연심씨, 장춘재씨, 정춘식씨의 〈모심는 소리〉, 〈논매는 소리〉 등이 있고, 장산도 진금순씨, 박금단씨, 윤순심씨, 최막례씨 외 장산도 사람들이 공연한 〈장산도들노래〉가 있다.

필자가 문헌·현지에서 조사한 《장산도들노래》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의 목록과 같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제보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참고문헌
1	노래 민요 장산도들노래	장산도들노래와 등당기 타령	문석철(남, 84)	장산면 오음1리	2014. 08.28	리길용 1985.10:28 / 1999.07:96
		장산면 민요자료: 7. 장산 들노래	이귀인(남, 57) 강부자(여, 47) 박금단(여, 47) 윤화덕(여, 54) 이철동(남, 52) 진금순(여, 45)	장산면 공수리	1984	허경희 1996:130~135
		장산도들노래 -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1호 -	김진오(남, 62)	장산면 공수2리 비소마을	2014. 02.20	김진오 2013:83~93

번호	분류	제목	제보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참고문헌
1	장산면노래	신안 모찌는 소리(1) - 먼데소리	앞소리: 최달덕 (여, 1913~1991)	장산면 팽진리	1989. 08.30	문화방송 1993:288
		신안 모찌는 소리(2) - 무언디소리/절레소리	앞소리: 정석심 (여, 1921)	장산면 오음리	1989. 08.30	문화방송 1993:288
		신안 모심는 소리(1) - 상사소리	앞소리: 정석심 (여, 1921)	장산면 오음리	1989. 10.30	문화방송 1993:288
		신안 논매는 소리(1) - '어이코난지나혜'	앞소리: 강부자 (여, 1938)	장산면 공수리 마초	1989. 08.29	문화방송 1993:288
		신안 논매는 소리(2)	정석심 (여, 1921), 정남임 외	장산면 오음리	1989. 08.30	문화방송 1993:288
		신안 풍장소리-질꼬내기	앞소리: 강부자 (여, 1938)	장산면 공수리 마초	1989. 08.29	문화방송 1993:288
		《장산들노래》	이귀인(남, 87) 강부자(여, 77)	장산면 공수리 마초경로당	2014. 02.19	현지공동조사
		〈모심는소리〉, 〈논매는소리〉	최춘식(남, 71), 문경순(여, 83), 김순진(여, 68), 한옥순(여, 67), 장하금(여, 73), 홍연심(여, 72), 장춘재(여, 70), 정춘식(남, 73)	장산면 대리 2리	2014. 08.29	현지개별조사
〈장산도들노래 공연〉	진금순(여, 75) 박금단(여, 77) 윤순심(여, 59) 최막례(여, 59) 외 장산도 사람들	장산면 도창리 56 장산들노래 전수관	2014. 10.03	현지개별조사		

■ 활용

장산도 사람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민속예술, 특히 기능의 관점에서 농요 《장산도들노래》를 소리하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장산도 사람들이 섬의 역사에서 자기들의 생업인 논농사, 밭농사 등과 관련된 문화활동을 다른 노동요(하중밭매기노래, 길쌈노래, 자장가), 의식요(상여소리), 유희요(강강술래)와 연관시키고, 비기능요(주로 타령류)와 짝하여 말하고 이용하도록 한다. 기타 노래 《유행가》, 〈통일가〉 등도 자리매김시키도록 한다. 소리의 고장을 나타내는 방법은 인식하고 표현하기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이다.

(2) 이귀인 명인(名人)의 집안 무계 이야기와 민속문화(농악)

■ 자원

장산도의 보물은 이귀인 명인이 하는 농악과 굿 등 민속예술이다. 이귀인씨는 공수 마을에서 가족과 농사일을 하던 무속인이요 민속예술인이다. 이귀인씨는 첫째 15세 무렵 장산도에서 농악을 하고, 젊었을 때 고향 선후배와 함께 장산면 일대 창극단 순회공연을 하는 일을 했다. 둘째 신안군에서 예능보유자로서 비금도 유점자씨, 장산도 진금순씨와 함께 2013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52호로 지정된 신안 씻김굿의 마을 굿판이나 상쇠로서 농악을 담당하는 일을 했다. 셋째 목포시가 아닌 장산도의 장산도들노래 전수관에서 민속예술을 마을사람들과 전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전수하는 일을 했다. 넷째 전남에서 장산도 사람들의 토속민요를 가지고 남도문화제에 출전하는 일을 했다. 특히 아내인 강부자 명인과 함께 《장산도 들노래》를 통해 민속예술을 수행해 나갔다.

■ 상태

공수1리 마초마을 이귀인씨는 소리에서 장산도 씻김굿(초가망석-암담 선불이-제석굿(중굿)-성주풀이-오구풀이-고풀이-천근올림-식김굿-길닭음)의 무기를 제공해 주고, 민요공동체에서 다리(밤달애)에 관한 민속문화정보를 제보해 주었다. 이 중에서 무가 《장산도 씻김굿》〈초가망석〉의 앞부분은 다음과 같다.

▶ 초가망석

주야 주야 말려주야 다시 젊기 어려워라

※후렴: 신이로고나 신이로고나 마야장성 오날이로고나

혜~ 혜~ 혜라 오날이로고나

맞으로 갑시다 맞으로- 가세 선영조상 맞으로 가세

한 손에는 기름을 들고 또 한 손에 등불을 들고 말심지 돌돌 몰아

초불영등을 밝혀놓고 선영조상 맞으로 가세

※후렴: 신이로고나 신이로고나 마야장성 오날이로고나

혜~ 혜~ 혜라 오날이로고나

등잔가세 등장가세 무슨 일로 등잔을 가량

늙은 사람은 죽지를 말고 젊은 사람은 늙지를 말라고

하나님 전에 등잔을 가세

이귀인씨는 이외에 농악에 관한 민속문화정보를 제보해 주었다. 이귀인씨의 삶에서 농악(전통가락)과 민속예술에 대한 진흥의지는 남달랐다. 아래 자료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때마다 그를 찾아온 젊은이들에게 민속예술은 기술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래야 우리문화가 가지고 있는 신명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⁵⁾

5 최성환, 「이귀인, 민속문화의 원형을 지키는 장산의 보물」, 「4장 천사섬을 빛낸 문화예술인」, 섬의 인문학을 위한 스토리텔링 『천사섬 신안 섬사람 이야기』, 크레펀, 2014, 278~283쪽 중 282쪽.

위의 인용문은 이귀인씨가 민속예술을 배우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민속예술은 기술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고 했다는 말이다. 이것은 이귀인씨가 명인으로서 전통적으로 전해 오는 가락 등 민속예술을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전승시키기 위해서 지켜야 할 기본 요소를 강조했던 것이다.

이처럼 이귀인씨는 장산도를 중심으로 역사적·사회적 교차점을 선정하고, 민속예술을 후속세대에게 전수함으로써 하의도 이흥채 명창과는 달리, 시·도 단위가 아닌 면·군 단위에서 전통의 현대적 계승을 시도했다. 이귀인 명인이 공수마을에서 장산면 일대로 나아가는 것은 장산면의 민속예술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적 전개의 문화권역적 특성을 취득하려는 의도이다.

대리2리 정춘식씨⁶⁾도 농악을 다루고 있었으나, 필자는 시간을 내지 못해 이를 조사하지 못했다.

■ 활 용

장산도 사람 이귀인씨는 육체를 주관하는 혼을 달래는 일과 유족을 위로하는 일에 종사해 왔다. 특히 장례에서 씻김굿, 다리(밤달애) 등을 하는 것을 통해 이를 말할 수 있다. 굿은 구비문학인 무가의 집에 해당된다. 이귀인씨는 바로 이것의 구비연행자이다. 그렇다면 구비연행자와 구비전승물인 구비연행물이 있으므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귀인씨가 굿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곳 내지 상황이 바로 그것이다.

현단계 이귀인씨는 전승활동을 하고 있으나 굿도 못하고 굿을 가르칠 사람도 없으므로,⁷⁾ 이와 관계된 문화예술계나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조사·연구자가 이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방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6 홍순일 조사, 정춘식(남, 73) 제보, 현지개별조사내용 <농악 이야기>, 장산면 대2리, 2014.08.29.금 10:40.

7 홍순일 외 조사, 이귀인 제보, 앞의 현지개별조사내용 <혼과 육체의 관계>.

(3) 장산면의 생태경관(生態景觀)과 장산도 사람들의 장산팔경(長山八景)

■ 자 원

장산도의 보물은 생태경관이 남달라 아름다운 명승지 8곳을 칭송한 장산팔경이다.

■ 상 태

장산팔경의 내용⁸⁾은 이렇다.

- 제1경 오음목적(五音牧笛): 오음산 목동의 피리소리
- 제2경 아미반월(峨媚半月): 아미산에 뜨는 반달
- 제3경 다수수양(多水垂楊): 다수리의 수양버드나무
- 제4경 한운부학(閑雲浮鶴): 부학재에 한가로이 흰 구름처럼 높이 뜬 학
- 제5경 사근백구(沙近白鷗): 사근마을 백사장 위로 나는 갈매기
- 제6경 팽진낙안(彭津落雁): 팽진리 모랫벌에 내려앉은 기러기
- 제7경 용호귀범(龍湖歸帆): 용호로 돛단배가 돌아가다
- 제8경 춘조비소(春鳥飛巢): 봄새가 동지로 날아든다

■ 활 용

장산도 사람들은 장산팔경을 자랑한다. 이를 통해 장산도의 자연과 함께하는 장산도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를 말할 수 있도록 한다.

8 김진오 · 최성환, 앞의 책, 2008, 60쪽.

(4) 마을의 지명(地名) · 인물(人物) 이야기와 마을사람들의 스토리텔링

■ 자원

장산도의 보물은 발이 닿는 곳마다 있는 지명과 인물이야기, 그리고 마을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나누는 기억과 기록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다.

■ 상태

필자가 문헌 · 현지에서 조사한 지명(地名) · 인물(人物), 책 발간이야기들 중 대표적인 것은 리길용의 자료, 김진오의 자료, 그리고 장산도 사람들의 자료 등이다. 이중 인물 이야기와 책 발간 이야기는 이렇다.

장산도 리길용씨는 『장산의 뿌리』(1985)에서 역대 면장, 전대 인물 등 인물들⁹⁾을 다루고, 이것의 증보판인 『신안군은 소왕국-장산을 중심으로-』(1999)에서 역대 면장, 전대 인물, 주부 김순국, 강효자, 정별감, 장병문, 효자 여와 열녀 각, 최준영 등 인물들¹⁰⁾을 다루고 있다. 공수2리 비소 김진오씨는 『어머니 품 같은 영원한 내고향 장



(사진 13) 김진오 · 최성환의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장산』 (2008)의 표지 모습(2014.02.11입수)

9 리길용, 「역대 면장, 전대 인물」, 「10. 인물편」, 앞의 책, 1985, 12~13쪽.

10 리길용, 「(1) 역대 면장, (2) 전대 인물, (3) 주부 김순국, (4) 강효자, (5) 정별감, (6) 백일장, (7) 여와 각, (8) 준영이 다리」, 「12. 인물」, 앞의 책, 1999, 67~75쪽.

산』(1991)과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장산』(2008)을 펴내면서 장산면지의 체계를 갖추었고, 뒤의 작업에 목포 최성환씨도 참여했다. 그러다가 김진오씨는 『장산도의 민요와 민속』(2013)에서 민속학의 관점에서 수집한 장산도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구성했다.

이처럼 장산도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가능한 한 장산도의 문화자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켜나갔다. 또한 장산도의 문화를 지키는 고향사람들을 응원하기도 하고 직접 이 흐름에 참여하기도 했다. 문석철씨는 리길용의 소책자 『장산의 뿌리(1985)』를 필자를 비롯한 방문자들에게 소개해 주었고, 장형철 면장은 김진오·최성환의 책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장산(2008)』을 기증해 주었다. 그리고 대리2리 최춘식씨는 농사일기와 이와 관련 가계부를 작성하는 일을 시도해 왔다.

■ 활용

장산도 사람들은 장산도라는 섬의 공간에서 삶의 언어를 기억하면서 구사하고, 문학을 창작하면서 기록했다. 대표적인 것이 문학 2종(장산팔경, 일기)과 문서 2종(고문서, 가계부) 등이다. 따라서 장산도 사람들이 지금·여기에서 지명과 인물, 그리고 섬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이를 기록해 나가도록 한다. 동시에 이것의 기능을 삶 속에서 환기하고 실용적인 의미가 부여되도록 한다.

3) 장산도 구비전승자원의 정책제안

필자가 제안하는 세 번째 내용은 구비전승자원의 등재(登載)이다. 여기에서 등재는 관계자나 관계기관이 해역 및 지역의 구비전승자원을 한국의 국가, 도 지정문화재나 세계의 문화유산 등의 장부나 대장에 기록하여 올리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현 단계 중요한 일은 지금 만나고 있는 장산도 사람들과의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실생활의 실용을 추구하는 것이다. 구비전승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로 비추어 볼 때 구슬을 만드는 사람이 구슬을 전승시키는 길을 찾는 일이다. 또한 공통관심사가 있는 사람이 그 구슬을 전승시키는 일을 찾는 일이다.

(1) 생활현장의 구비연행자와 국가의 무형문화재 지정확대

필자는 심사자로서 다른 심사자 1인, 신안군청 관계자 2인, 장산도들노래보존회 관계자 2인 등과 함께,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이수 심사 평가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¹¹⁾ 이 모임은 장산도들노래 전수 장학생의 5년 이수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목표였다. 즉 심사자는 윤순심 전수장학생이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1호] 장산도들노래를 강부자 기능보유자로부터 이수한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심사는 2월 15일(수) 11시, 목포대 목포캠퍼스 도서관연구원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윤순심씨는 2009년부터 5년 동안 전수 장학생으로서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1호] 장산도들노래를 강부자 기능보유자로부터 이수했다. 그 내용은 장산도들노래의 모뜨는 소리(늦은 소리, 잦은 소리)→상사소리인 모심는 소리(늦은 소리, 잦은 소리)→논매는 소리(늦은 소리, 논매고 일어서서 하는 잦은 소리)→질꼬내기 등이었다. 그런데 필자가 볼 때 윤순심씨는 사설이해, 소리구사 등 두 가지 면에서 남다른 능력이 있었다.

사설이해의 경우 심사대상자는 장산도들노래의 사설을 기억하기 위해 발을 매면서, 고추를 따면서도 열정적으로 소리를 즐겨했다. 그 결과 모뜨는 소리(늦은 소리, 잦은 소리)→모심는 소리(늦은 소리, 잦은 소리)→논매는 소리(늦은 소리, 잦은 소리)→질꼬내기 등을 다 다룰 수 있었다. 특히 심사자가 일부러 눈감고 소리를 들어봤는데 사설의 전달이 분명했다. 따라서 필자는 윤순심씨가 장산도들노래에 관한 한 기능보유자의 사설을 충분히 이해하고 암기하여 표현하는 데에 목표지에 충분히 도달했다고 판단한다.

소리구사의 경우 심사대상자는 장산도들노래의 소리를 나름대로 표현하기 위해 사설에 맞는 소리를 구사하는 구간을 잘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장산도들노래의 특징인 <논매는소리>에서 벼의 뿌리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맨발로 논바닥을 밟을 뿐만 아니라 일어서서 소리를 지른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빠른 가락에 흥겹게 소리하며 동작을 가미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윤순심씨가 특히 목소리가 탁하나, 소리가 뻗어 나

11 홍순일 외, 「전수 장학생의 이수내용 심사평가」, 앞의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이수 심사 평가회-제21호 장산도들노래-』.

가는 면이 있어서 장산도들노래를 담당하기에 알맞겠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윤순심 씨처럼 사설을 이해하고, 소리를 구사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구비연행자는 농사를 체험하면서 소리지식을 함께 쌓았고, 소리 공연에 다수 참여하면서 기량을 쌓는다는 점이다.

윤순심씨는 논농사를 체험하면서 소리지식을 함께 쌓은 소리꾼이다. 윤순심씨는 장산도들노래가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되기 전부터 장산도 사람들의 소리공동체에서 생활한 소리꾼이었다. 초6 때 하의도에서 장산도로 이주한 후 잠깐 서울에서 거주한 적이 있지만 25살 때 결혼해서 지금까지 장산면 오음리에서 살아오고 있다. 토박이 손경연씨와 결혼한 후 5년 정도 직접 모를 심었다. 명인 이귀인씨가 찾아와 장산도들노래를 하자는 것이 계기가 되어 소리를 배워서 알리는 사람이 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윤순심씨가 소리의 고장 장산면 오음마을의 논농사를 체험하면서 소리지식을 함께 쌓은 소리꾼이므로 이후 전수조교로 활동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판단한다.

구비연행자는 소리 공연에 다수 참여하면서 기량을 쌓는 민속예술인이라는 점이다. 윤순심씨는 심사대상자는 1999년에 장산도들노래보존회에 입회하여 지금까지 15년 정도 소리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받는소리(일명 맞이소리)를 하다가 2014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박금단 전수조교와 함께 선소리꾼으로 활약했다. 공연의 필요에 따라 윤순심씨가 선소리꾼으로 활약하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윤순심씨가 공연을 통해서 이미 소리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므로 향후 전수조교로서 활약이 기대된다고 판단한다.

요컨대 필자는 윤순심씨가 전수 장학생으로서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1호] 장산도들노래를 2009년부터 5년 동안 사설이해, 소리구사라는 양면에서 목표치를 달성했고, 논농사를 체험하면서 소리지식을 함께 쌓은 소리꾼, 소리 공연에 다수 참여하면서 기량을 쌓은 민속예술인이라는 양면에서 전수조교의 가능성까지 구비하였다고 판단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비연행자는 생활현장에서 사설이해력과 소리구사력을 동시에 강화해 나간다. 이 말은 만약 나라에서 지정된 국가의 무형문화재뿐만 아니라 이를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한다면 지역의 구비연행자를 육성하는 일과 이야기와

노래 등 구비전승물을 구연(口演)·활용하는 일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장산도는 장산도 사람들의 삶이 악가무(樂歌舞)의 융합을 보이고 있다. 즉 생업의 기능에 기초한 소리문화, 이야기 문화, 그리고 관용어와 문학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물론 민속공동체 산다이와 다리(밤달애)는 전승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일은 이것의 조사와 연구와 장산도민의 참여 여하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장산도 사람들은 민속공동체의 구비전승물을 지켜낼 힘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그 동안 있었던 두 가지 모임을 주목한다.

하나는 필자가 구비전승물의 조사자였지만 2014년부터 장산도 사람들을 찾아가서 민속공동체의 구비전승물에 관하여 면담한 일¹²⁾이다. 이때 제보자는 기억하고 있는 전통지식을 조사자에게 구술(口述)하여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필자가 심사자였지만 2015년부터 다른 전공자 내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담당자인 장산도들노래보존회 회장(원)과 전수 장학생이 주도하면서 장산도 문화자원의 실용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한 일¹³⁾이다. 이때 누가 누구를 평가하는 단계를 넘어서 모두가 문화담당자의 일원이 되기를 염원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후 이의 연장선상에서 문화관계자들이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사자의 역할대로 민속공동체의 구비전승물에 관해 조사·연구하는 일일 수도 있고, 심사자의 구실대로 구비연행자의 민속공동체와 구비전승물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일일 수도 있다. 또는 이 길이 아닌 제3의 길일 수도 있다.

12 홍순일 조사, 정연배(남, 69), 김상용(남, 68), 윤순심(여, 59) 제보, 현지개별조사내용 〈장산도들노래보존회(단장: 정연배; 회장: 김진오; 부회장: 김상용)와 장산면 민요단(회장: 윤순심)의 운영(갈등, 해소)과 공연(실적, 계획)〉, 장산면 도창리 황소식당·여관/장산도들노래전수관, 2014.10.02.금 12:45/14:57.

13 홍순일 외, 「전수 장학생의 이수내용 심사평가」,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이수 심사 평가회-제21호 장산도들노래-』.

(2) 도서지역 구비전승물의 기획출판과 연구자의 자료조사

실제로 장산도 사람들은 보배를 알아보았고, 그 보배를 만들기 위해 구슬을 꿰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삶의 궤적을 보여주었다. 그 보배 중의 하나는 기억을 기록해서 자료집을 내거나 책을 만드는 일이었다. 즉 생산면에서 일기 및 가계부로부터 면지, 단행본까지, 교육면에서 생활현장의 연행부터 순회공연까지 등 양면에서 문학예술행위를 시도한 것이다. 리길용의 책 2권(1985, 1999)과 김진오의 책 3권(1991, 2008, 2013)은 이것의 좋은 예이다.

리길용씨는 『장산의 뿌리』(장산동초등학교 향토문화연구회, 1985)와 『신안군은 소왕국-장산을 중심으로-』(장산 유적 보존(관리)위원회, 1999)를 냈고, 김진오씨는 『어머니 품 같은 영원한 내고향 장산』(신안군 장산면, 1991), 김진오·최성환,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장산』(장산면·신안문화원, 2008), 그리고 『장산도의 민요와 민속』(참글문화, 2013) 등을 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장산도의 문화자원을 문화콘텐츠로 만들어내는 일을 구상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우선 문학면에서 갈래별 이야기(지명설화, 인물설화, 경험담), 소리(민요, 판소리, 무가), 관용어(속담과 금기어)와 문학(문학과 문서), 민요공동체[산다이, 다리(밤달애)]의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일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회원들은 장산도들노래보존회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찾아야 한다. 2014년 하반기에 김진오씨가 장산도들노래보존회 회장이 된 것은 이것은 좋은 실마리가 될 것이다. 또한 장산도 사람들과 관계자들은 장산도의 지정 무형문화재뿐만 아니라 비지정 무형문화재를 서둘러 수집해야 한다.

다음은 예술면에서 하나는 민요공동체[산다이, 다리(밤달애)]의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일이 깊어져야 한다. 김진오씨는 구비문학과 민속을 조사할 때 50~60대 초반의 제보자를 만나 주로 민요를 녹음하여 채록하고, 설화는 조금 수집했다¹⁴⁾고 했다. 민요가 CD 15장 분량이고, 설화가 6~7편밖에 안된다는 점은 이러한 사정을 말

14 홍순일 조사, 김진오(남,63) 제보, 현지공동조사내용 〈산다이와 다리(밤달애)〉, 목포시→무안군 통화, 2015.01.30.금 09:20.

해 준다. 현재 연구자가 다리(밤달애)를 조사한다고 할 때 거론할 수 있는 사람은 전술한 바와 같이 다리(밤달애)의 체험자인 박윤규(남, 69, 1947)씨 정도뿐이다. 따라서 이야기와 노래뿐만 아니라 관용어와 문학, 민요공동체인 산다리와 다리(밤달애)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져야 한다. 장산도 사람들은 실생활의 연중행사인 세시풍속에 따라 산다리를 하고, 삶의 흐름을 유지해 나갔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짝하여 자연과의 생산의례와 인생과의 통과의례를 교직해 나가면서 “다리 하러 가” 자고 했기 때문이다.

끝으로 예술면¹⁵⁾에서 다른 하나는 장산도 농요의 소리구성과 〈미영 따라가는 소리〉, 〈물레타령〉의 노래간 넘나듬에 관한 조사·연구이다. 장산도 사람들은 ≪하중발매기노래≫를 할 때 〈발매기소리〉(늦은 소리→잡은 소리), 〈발매고 일어서기〉, 〈등덩기타령〉(늦은 소리→잡은 소리), 〈미영 따라가는 소리(미영따기 소리, 미영따는 소리)〉를 하고, 〈물레타령(물레 갖는 소리, 물레노래)〉까지 하지만 끝이어 ≪길쌈노래≫도 한다. ≪길쌈노래≫를 하더라도 연출시 ≪하중발매기노래≫의 〈미영 따라가는 소리〉와 〈물레타령〉을 가져다가 넣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점을 주목해서 살필 일이다.

15 홍순일 조사, 윤순심 제보, 앞의 현지조사내용 〈장산도 농요의 소리구성과 〈미영 따라가는 소리〉, 〈물레타령〉의 노래간 넘나듬〉.

[참고문헌]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문학사전(민요 편)』, 국립민속박물관, 201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73780&cid=50223&categoryId=51052>

김진오

『어머니 품 같은 영원한 내고향 장산』, 신안군 장산면, 1991.

김진오 · 최성환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장산』, 장산면 · 신안문화원, 2008.

김진오

『장산도의 민요와 민속』, 참글문화, 2013.

리길용

『장산의 뿌리』, 장산동초등학교 향토문화연구회, 1985.

『신안군은 소왕국 -장산을 중심으로-』, 장산 유적 보존(관리)위원회, 1999.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신안군 장산면 공동답사 자료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전남 신안군 장산면 일대, 2014.02.19~20.

2014년 제3회 찾아가는 섬 포럼 - 신안군 장산도 편 (주제: 장산도 문화자원과 민속예술),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 신안군 장산면(주최) ·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주관) · 한국연구재단 · 신안군(후원),

장산도들노래보존회 전수관, 2014.10.03(금) 13:00~16:50.

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전남민요해설집』, (주)문화방송, 1993.

신순호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대한민국 도서백서』, 행정안전부, 2011.

최성환

『천사섬 신안 섬사람 이야기』, 크레핀, 2014.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http://encykorea.aks.ac.kr/>

허경희 · 나승만

『완도지역의 설화와 민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92.

허경희

『신안지역의 설화와 민요』,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96.

홍순일

『민요공동체의 문화권역적 전개와 지역문화적특성 -산다이를 중심으로-』,

『남도민속연구』19, 남도민속학회, 2009.12, 281~325쪽.

[재수록] 홍순일, 『도서민요의 공동체와 구비연행』, 민속원, 2012.

홍순일 외

「전수 장학생의 이수내용 심사평가」,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이수 심사 평가회-제21호 장산도들노래-』,

목포대 목포캠퍼스 도서문화연구원, 2015.02.15(수) 11:00.

홍순일

「Ⅵ. 구비전승」, 강봉룡 외,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13 -장산면 편-』,

신안군 · 도서문화연구원, 2015.



VII

방언문화

이 기 갑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머리말	280
2. 조사과정	280
3. 택호	281
4. 친족어	282
5. 물고기	284
6. 계	285
7. 고동과 조개	285
8. 지형	286
9. 해조류	286
10. 무당 은어	287
11. 일반어휘	289
12. 결론	299

VII. 방언문화

1. 머리말

이 글은 신안군 장산면의 방언 가운데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여 소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방언은 음운, 어휘, 문법 등 여러 측면에서 연구되지만, 문화자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어휘나 문법적 형태 등에 한정된다. 이 글에서는 특히 장산면의 어휘 가운데 흥미로운 것들을 골라 소개함으로써 장산면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이곳의 언어문화의 일면을 보여 주고자 한다.

2. 조사 과정

2014년 2월 19일. 안좌에서 11시 20분 배를 타고 장산으로 향하였다. 약 30여 분의 항해 끝에 장산면에 도착하여, 곧장 면사무소로 갔다. 면사무소에서 면장님의 간단한 브리핑을 듣고, 점심 후에 조사를 시작하였다. 조사는 장산면 대리 2구 경로당에서 실시하였다. 2구는 마을 이름이 ‘모개’였으며, 여자 분들이 여럿 있었으나, 친정을 물어본 결과, 하의도, 안좌도에서 시집온 분들이 일부 있었다. 그 가운데서 장산도가 친정인 장하금(여, 73세), 남금초(여, 78세) 두 분에게 주로 질문하였다. 특히 장하금님이 매우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해 주었다.

2014년 2월 20일. 아침 5시 30분에 잠이 깨어 6시부터 마을 안을 산책하였다.

7시 30분에 아침 식사 후, 김정환, 송기태 선생의 안내로 오음리에 있는 진금순님댁을 방문하였다. 진금순(여, 75세)은 무당으로서, 안좌도의 무가에서 자랐다. 할아버지는 도초가 고향이며, 아버지는 일본으로 돈 벌러 갔다가 돌아와서 악극단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무가인 이씨댁으로 시집을 갔는데, 시집은 시할아버지와 시아버지가 모두 첩을 둔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 본 시어머니는 생활 능력이 없었고 작은시어머니가 무당으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금순씨의 형편이 어려운 것을 보고, 역시 무당이었던 시할머니가 권유하여 무당으로 출발하였다. 장산도의 동부 일대가 당골판(여기서는 ‘당골땅’이라고 함)이었으므로, 조금만 노력하면 살 수 있다는 말이 회유되었다고 한다. 재주가 있어 노래와 굿물 연주를 쉽게 배웠다. 남편인 이충윤(77세)은 전주이씨 가문으로 나주목사를 지내다 흑산도로 귀양 온 이의 후손으로 본인은 무당일을 하지 않고 농사만 지었다고 한다.

3. 택호

같은 동네에 사는 아낙네들이 서로를 부를 때 사용하는 것이 택호이다. 신안이나 진도 등 섬 지역에서는 아이 이름에 접미사 ‘-네’를 결합하는 택호를 사용하여 접미사 ‘-떡’(<-떡)을 사용하는 육지와 차이를 보인다. 장산도의 모개 마을은 크기가 작은 관계로 따로 택호를 사용하지 않고 ‘성’이나 ‘동승’과 같은 친족 명칭을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제보자들의 어머니 시절에는 안좌도에서 시집온 여자를 ‘안좌수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기억하였다. 현재는 이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장산면에서는 여자 아이를 속명으로 부를 때, ‘-니’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 ‘니’는 하의도에서도 확인된 접미사이다. 그래서 ‘시물’이나 ‘자라도’와 같은 곳에서 태어난 여자 아이는 ‘시물니’나 ‘자라뎡니’라고 불렀다. 여기서 보듯이 접미사 ‘-니’ 앞에 사이시옷이 개재되는 것이 특징인데, 이런 특징은 하의도의 경우와 같다. 다만 장산도에서 특이한 것은 아이의 외가 지명뿐 아니라 아이가 태어난 달과 같은 시간 표현에도 접미사 ‘-니’가 붙을 수 있었다. 그래서 8월에 낳은 아이를 ‘팔월니’라고 부를 수 있었다.

접미사 ‘-니’가 붙은 아이 이름에 다시 접미사 ‘-네’를 덧붙여 그 아이 엄마의 택호로 삼았다. 그래서 ‘팔월니’의 엄마는 ‘팔월니네’가 되고, ‘자라뚝니’의 엄마는 ‘자라뚝니네’가 되는 것이다. 한편 장산도의 제보자들은 임자도나 무안 지역에서는 이런 식의 택호 대신 ‘-댁’과 같은 접미사를 사용한다고 인지하였다. 이것은 무안과 같은 육지에 가까운 섬 지역은 섬의 전형적인 방식 대신 육지와 같은 택호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여자 아이의 이름에 접미사 ‘-니’를 사용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남자 아이의 이름에 접미사 ‘-수’를 쓰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니’에 비해 ‘-수’의 접미사로서의 생산성이 극히 약화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다만 ‘-수네’와 같은 복합형식은 여자의 택호 접미사로 기능하였다. 이것은 자은면과 마찬가지로 ‘-수네’가 하나의 택호 접미사로 사용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 증거이다.

한편 같은 마을에서 같은 마을로 시집을 가는 경우의 택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모개’에서 ‘모개’로 시집간 여자는 ‘모개수네’라 하였다고 하나, 제보자에 따라 ‘본토수네’라고 했다는 사람도 있었다. 이 ‘본토수네’는 하의도에서도 사용되었던 어형이므로 아마도 장산도와 하의도가 이 점에서 같은 말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4. 친족어

4-1) 부모

어머니는 ‘엄메’, 아버지는 ‘아부지’라 한다. ‘엄메’와 대응하여 ‘아베’와 같은 말이 쓰임직도 하나, ‘아베’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아부지’라는 말만 사용한다. 이것은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존재임을 말해 준다. 시어머니에게는 ‘시엄메’라는 말은 쓰지 않고 ‘시어머니’라고 한다. 역시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존재이므로 ‘어메’와 같은 친밀한 지칭이나 호칭이 발달하지 않았다.

4-2) 조부모

조모는 ‘할무이’ (하의도 출신 제보자는 ‘할마이’라 하였다.)라 하며, 조부는 ‘하나부지’, ‘하나씨’ 또는 ‘조부씨’라는 말을 사용한다. 물론 ‘조부씨’는 ‘하나부지’, ‘하나씨’에 비해 높임말이다.

4-3) 형제

남자들의 형제는 ‘성’과 ‘동생’을 사용한다. 손아래 올케를 가리키는 말은 ‘동승에덕’이라 하고, 부를 때에는 ‘동승’이라 한다. 그런데 하의도 출신 제보자는 친동생도 ‘동승’이라 한다고 했다. 손위 올케는 ‘성님’ 또는 ‘오라부덕’이라 하며, 하의 출신 제보자는 ‘오라부성’이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현재는 모두 ‘올케언니’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한다. 오빠에 대해서 현재 70대의 제보자들은 모두 ‘오빠’라는 말을 사용하나, 부모 세대에서는 ‘오랍씨’라는 말을 사용했으며 ‘오랍’이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

‘아자씨’는 시동생의 호칭과 지칭으로 쓰이는 말이며, ‘씨아제’는 오직 시동생을 가리키는 지칭어로만 쓰인다. 따라서 시동생을 가리킬 때에는 ‘씨아제’와 ‘아자씨’를 함께 쓸 수 있지만 부를 때에는 ‘아자씨’만 가능하다. ‘시숙’은 원래 남편의 형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장산도에서는 남편 또래의 친근한 어른을 가리킬 때에도 쓰인다.

4-4) 어른

‘오촌’이란 말은 장산도에서는 당숙을 가리키는 말이다. 반면 ‘아저씨/아자씨’라는 말은 여자가 사용하며, 남편 또래의 동네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이 말은 원래 시동생이나 시아주버니를 가리켰던 말이 확대되어 남편 또래의 동네 남성들을 가리키는 말로 바뀌게 된 것이다. 한편 ‘아제’는 부모 또래의 남자 어른을 가리키고, ‘아짐’은 부모 또래의 여자 어른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아짐’은 또한 외숙모에게도 쓰일 수 있다.

4-5) 자식

부모가 장성하여 결혼한 자식을 부를 때에는 이름 대신 손자 이름을 사용하여 ‘아무개 압씨’ 처럼 부른다.

5. 물고기

장산도에서 송어는 ‘개송에’와 ‘참송에’를 구별한다. ‘개송에’는 ‘쓰랭이’라고도 한다. 제보자 이충윤은 ‘개송에’를 ‘개뭇’, ‘개동어’, ‘씨랭이’라 하고 ‘참송에’는 ‘참뭇’이라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송어’에 대한 순수 우리말이 ‘뭇’임을 추정할 수 있다. 크기에 따른 송어의 세분화된 이름의 경우 여자 제보자들은 그 세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하였으나, ‘쌀모치’, ‘딩기리’, ‘노랑뭇’, ‘꼭싸리’와 같은 말은 아버지로 부터 들은 적 있다고 하였다. 제보자 이충윤은 송어의 세분류에 대해 ‘쌀모치-모치-딩기리-송어’라고 하였으며, ‘꼭싸리’는 피라미 새끼처럼 생긴 물고기를 가리키는 말로서 송어 새끼가 아니라고 하였다.

여자 제보자들은 ‘모치 새끼는 사람 눈 99개를 속일 정도로 날렵다’라는 말을 들려 주었다. 송어 새끼인 모치의 날쌔 동작을 장산도의 사람들은 모두 인지하면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다.

그밖에 다른 물고기의 새끼 이름에 대해서는 농어새끼를 ‘꼰떡’이라고 한다 하였으나, 민어나 갈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고, 우럭은 그냥 ‘우럭새끼’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갈치와 같은 생선은 장산도 근처에서는 잘 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이 근처에서 나는 생선으로는 ‘뚝’, ‘비:드럭’, ‘짱어’ 등을 들었다.

6. 계

장산도에서 구별하는 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 뽕떡기: 진지리 등에 있음. 도팍 갓(= 돌가) 등에 산다.
- ▶ 화랑기(서령기): 뽕에서 산다. 구멍은 옆으로 뚫음.
- ▶ 살끼: 장산에는 없음.
- ▶ 꽃: 기: 개펄 '댄둥' 에서 산다. 구멍은 바로 뚫림. 큰 발이 빨강다.
- ▶ 수렁기: 염전 가에서 산다. 발집게가 개펄색. 구멍은 바로 뚫림.
- ▶ 배양기: 빨강다. 도로 가와 같이 마른 바닥에서 살며 못 먹는다.
- ▶ 청살끼: 개펄 '댄둥' 에서 산다. 맛이 없다.
- ▶ 말끼: 염전 가에서 산다. 못 먹는다.
- ▶ 툇장끼:
 - ▶ 방: 기: 딱딱해서 까기 어렵다. '방기 깔 줄 알면 시납다'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시납다' 는 솜씨가 좋다는 뜻이다. 참고로 진도에서는 '신하다' 라고 한다.
- ▶ 고동끼: 고동 속에서 산다.

7. 고동과 조개

- ▶ 또가리고동: 따리처럼 생겼다.
- ▶ 미영씨 고동: 껍질이 단단하며 동그랗다.
- ▶ 세: 고동: 껍질이 얇다.
- ▶ 멩지고동: 장산에서는 별로 없다.
- ▶ 빼: 트리고동/갈고시 : 비틀어진 모양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붙었다. 하의에서는 '낙지고동' 이라고 한다.

- ▶ 매운고동: 기다랗고 약간 맵다.
- ▶ 소: 룡: 소라
- ▶ 꿀: 굴. 굴 껍데기는 '찍' 이라 하나, '고동 껍데기' 는 '찍' 이라고 하지 않는다.

8. 지형

- ▶ 짝등: 굴이 크는 곳. 개펄 가운데 '찍' (=굴 껍데기)이 많이 있음.
- ▶ 장불: 바닷가 모래가 있는 곳. 보통 '갱건갯' 이라고 한다.
- ▶ 빨각단: 물이 다 썩을 때 물과 개펄 사이의 경계.
- ▶ 짝: 지: 자갈 및 큰 돌이 있는 곳. 짝지에서 굴을 캔다. 바위 땅에서 캔 굴은 '바우땅꿀' 이라 한다.
- ▶ 덴둥: 개웅 가 땅.
- ▶ 진참: 개펄 중의 무른 땅.
- ▶ 개웅: 개펄 가운데 물이 흐르는 곳이나 개펄 속의 내를 말한다.

9. 해조류

- ▶ 능쟁이/능께이: 바닷가 바위에 끼는 이끼. 미끄럽고 파랗다.
- ▶ 도: 팍웃: 가포래 같이 생김. 바위에 하얗고 거뭇거뭇 낀다. 갯물 위로 낀다.
- ▶ 상: 쟁이: 바다에 낀 이끼 같은 것. 매생이.

〈파래의 종류〉

- ▶ 짝포래: 짝에 붙어 산다.
- ▶ 가: 포래: 바위땅 가에서 돌음.
- ▶ 구포래: 바위땅 가에서 돌음.
- ▶ 감투(=감태): 개펄에서 난다.

〈가사리〉

- ▶ 등복: 뜸부기
- ▶ 툷: 바위 땅에서 난다. 툷은 많이 먹으면 가슴이 단다.
- ▶ 모자분: 모자반
- ▶ 매다: 해조류를 캐거나 따는 행위를 말한다. ‘매서 풀았다’, ‘번떡하면 맨다’ 처럼 쓰인다.

10. 무당 은어

〈신체〉

- ▶ 눈: 저울대(참고: 저울대)
- ▶ 코: 흥대(참고: 흥 코를 풀다)
- ▶ 귀: 지거리(참고: 귀 기울이다. 기우리/지우리/...)
- ▶ 입: 서삼집(참고: ‘서삼’은 ‘밥’의 은어.)
- ▶ 손: 육갑(六甲) (참고: 육갑을 손으로 꺾다)
- ▶ 발: 드듬(참고: 동사 ‘딛다’)
- ▶ 남자 성기: 작순(참고: ‘작대기’의 평안도 방언 ‘작송이’)
- ▶ 여자 성기: 비웃(참고: 비역, 밴대질)

〈곡식〉

- ▶ 껍질 있는 것: 까:리
- ▶ 찼은 것: 백세미(참고: 白世米)
- ▶ 떡: 시력(참고: 심마니말 '시더구', 중세어 '씩')
- ▶ 밥: 서삼(참고: 서서히 삼키다)
- ▶ 과일: 어덩육성(魚東肉西)

〈동물〉

- ▶ 소: 노랭이(참고: 노랗다)
- ▶ 돼지: 냥:가리(남사당패의 은어로 '돼지' 나 '돼지고기' 를 이르는 말.)
- ▶ 개: 서구(서狗)
- ▶ 닭: 총이
- ▶ 바닷고기: 사짓것(참고: 사지 - 배의 두 멍에 끝에 세우는 짧은 나무)

〈굿〉

- ▶ 굿: 어정
- ▶ 당골네: 무지네(참고: 巫人네.)
- ▶ 박수: 고인(鼓人)
- ▶ 당골이 아닌 사람: 개비(참고: 비개비(非甲이))
- ▶ 장구: 타구(打具)
- ▶ 징: 우름쟁이 (참고: 울음-쟁이)

〈사람〉

- ▶ 늙은이: 골레미(참고: 나무로 만든 바퀴/굴렁쇠.)

- ▶ 젊은사람: 떼드리
- ▶ 여자: 해: 주(참고: 무당들의 은어로, 젊은 여자를 이르는 말)
- ▶ 계집아이: 비토
- ▶ 어린아기: 똥쟁이 (참고: 돌)

〈기타〉

- ▶ 술: 타: 리 (참고: '탈' 이 나다)
- ▶ 옷: 버삼 (참고: 동사 '벗다')(참고: '입성')
- ▶ 배: 낱떼기 (참고: '낱작하다' 의 어근 일부)
- ▶ 돈: 살레미 (참고: 기생들은 '니도리' 라 한다.), (참고: 동사 '사다')
- ▶ 담배: 난초(참고: 南草)

11. 일반 어휘

11-1) 삼인칭 대명사

장산도 지역어의 인칭 대명사에서 특히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삼네', '저삼네', '이삼네' 와 같은 표현이다. '그삼네' 는 지시어 '그' 와 '사람' 의 축약형 '삼' 에 복수접미사 '-네' 가 결합된 것으로서 표준어 '그 사람네' 에 형태적으로는 대응된다. 그러나 장산도를 비롯한 신안 지역어에서 '그삼네' 는 표준어 '그 사람네' 와 달리 마치 '그이' 와 같은 삼인칭 대명사로 기능한다.

(예) 가. 그삼네가 꼬치 물린다고 (= 그이가 고추 말린다고)

나. 여삼네 들오면 (= 이이가 들어오면)

다. 저삼네가 쓰면 (= 저이가 쓰면)

‘그삼네/여삼네/저삼네’의 이런 형태나 용법은 신안 외에 진도에서도 확인되나 그 밖의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한편 지시어 ‘이, 그, 저’ 외에 의문대명사 ‘누’와 결합된 ‘누삼네’가 쓰이기도 한다. ‘누삼네’는 발화 현장에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쓰이는데, 표준어로는 ‘아무개’ 정도에 해당된다. 따라서 ‘누삼네 어메’는 ‘아무개 엄마’로 번역할 수 있다.

11-2) 대

장산면의 어휘 가운데 ‘대’라는 말은 흥미로운 말이다. 이 말은 대체로 ‘육지대’나 ‘목포대’ 등으로 쓰여 ‘육지쪽’ 또는 ‘목포쪽’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육지대 가면 요런 것은 못 보제라우.’와 같이 쓰이는 것이다. 이 ‘대’의 기원이 무엇일까 궁금하게 여겨 오던 중, 최근에 이 말이 옛말 ‘다히’에서 온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옛말 ‘다히’는 ‘편’이나 ‘쪽’을 의미하는 말이다. 예를 들어 ‘송강가사’에는 ‘님 다히 消息을 아무려나 아자흐니’와 같은 말이 보인다. 아마도 ‘임이 계신 쪽 소식을 어떻게든지 알고자 하니’ 정도의 뜻일 것이다. 또한 ‘계축일기’에는 ‘셔 다히로 브라보니’와 같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물론 ‘서편을 바라보니’의 뜻이다. 이처럼 ‘쪽’이나 ‘편’을 뜻하는 ‘다히’는 나중에 ‘ㅎ’이 탈락되면서 ‘다히 > 다이 > 대’와 같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최후의 형태가 신안군 섬 지역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¹⁾

물론 섬이라 하여 언제나 옛말만을 쓰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제주도처럼 육지와 큰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섬이라면 모를까, 신안의 섬들처럼 근해에 있는 섬들은 육지

1 평안북도 방언에서도 ‘앞대’나 ‘웃대’라는 말에서 ‘대’가 ‘앞대’는 평안도 남쪽을 가리키는 말이며, ‘웃대’는 위쪽 또는 평안북도, 자강도 등지의 북부 지역을 이른다. 모두 ‘쪽’과 같은 뜻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신안 지역어의 ‘대’와 다를 바 없다.

와의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말 또한 육지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대’와 같이 옛말의 흔적을 보여 주는 낱말이 이 지역에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섬이 갖는 고립성이 말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하게 되는 것이다.

11-3) 겨의 세분

벼를 탈곡하면, 겨가 나온다. 이때 제일 먼저 벗겨지는 것이 왕겨이다. 왕겨는 벼의 겉겨로서 가장 거친 겨를 말한다. 이 왕겨는 흔히 불을 땠 때 쓰인다. 전남 육지 지역 일부에서 ‘왕겨’는 보통 ‘멧제’라고 불린다. ‘멧제’의 ‘메’는 그 어원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나 혹시 ‘끈기가 없는’ 뜻을 갖는 접두사 ‘메’와 같은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는 있다. 그런데 전남의 신안, 무안, 해남, 진도 등 전남의 서남해안 지대에서는 왕겨를 ‘등제’라 한다. 등제는 물론 표준어형 ‘등겨’가 구개음화를 겪은 것인데, 표준어에서 ‘등겨’는 왕겨를 벗긴 벼를 한 번 더 짚을 때 나오는 겨를 말한다. 반면 전남의 서남해안 지역에서는 ‘등제’가 왕겨를 가리키고 있으니, 같은 어형이 각각 다른 상태의 겨를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왕겨를 벗겨낸 쌀을 우리는 현미라 부른다. 이 현미를 다시 짚어 속겨풀을 벗기고 깨끗하게 하는 일을 ‘쫘다’라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흰쌀이 나온다. 이때 쫘는 과정을 거쳐 벗겨진 겨는 벼의 속겨가 되는데 이런 속겨를 표준어에서는 ‘등겨’라 하고, 한 번 더 쫘는 과정을 거치면 더욱 고운 겨가 나오게 되는데 이를 ‘쌀겨’라 한다. 따라서 벼를 짚을 때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의 겨를 얻어낼 수 있다. ‘왕겨’, ‘등겨’, ‘쌀겨’가 그것이다.

전남 방언에서도 이 세 단계를 구별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두 단계만 구별하는 곳도 있다. 예를 들어 담양과 같은 전남의 내륙 지역에서는 이 세 단계를 구분하여 ‘멧제-죽제-이무깨’라는 말을 쓴다. 그런데 전남 신안 지역에서는 오직 두 단계만을 구별하여 ‘등제-느물깨’와 같은 말을 사용한다. ‘느물깨’는 신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니미깨’ 또는 ‘느무깨’로도 쓰인다. 여기서 ‘등제’는 왕겨를 가리키고, ‘느물깨’ 또는 ‘느무깨’는 왕겨를 벗겨내고 다시 쫘는 과정을 거친 고운 겨를 말하는 것으로 표준

어의 ‘등겨’ 나 ‘쌀겨’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전남 지역에서는 또한 등겨를 가리켜 ‘누까’ 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는 일본말 ‘누까(ぬか)’ 에서 온 말이다. 일본말 ‘누까’ 는 고운 쌀겨를 가리키는 말인데, 전남 방언에서는 흔히 등겨를 가리키는 말로 전용되어 쓰인다.

쌀겨를 지칭하는 전남방언형 ‘이무깨’, ‘느무깨’, ‘느물깨’ 에 보이는 ‘깨’ 는 표준어 ‘노깨’ 나 ‘나깨’ 에서도 확인되는 어형이다. ‘노깨’ 는 체로 쳐서 밀가루를 넣고 남은 찌꺼기를 가리키고, ‘나깨’ 는 메밀을 갈아 가루를 체에 쳐내고 남은 속껍질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느물깨’ 나 ‘이무깨’ 의 ‘깨’ 도 찌꺼기나 속껍질을 뜻하는 ‘깨’ 와 같은 것일 수 있다.

11-4) 땀나무의 종류

땀감으로 쓰는 나무는 땀나무라 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예를 들어 솔잎이 땅에 떨어져 마른 것을 갈퀴로 긁어모아 땀감으로 쓰면 화력이 굉장히 좋은데, 이런 마른 솔잎을 ‘솔가리’ 라 하기도 하고 이것을 땀나무로 쓰기 위해 묶어 놓은 것을 ‘갈퀴나무’ 라 한다. 갈퀴로 긁어모으기 때문이다. 신안 지역에서는 ‘솔가리’ 의 변이형인 ‘솔꼴’ 이나 ‘갈퀴나무’ 라는 말을 쓴다.

한편 소나무 가지를 ‘솔가지’ 라 하는데, 이 솔가지가 마르면 꺾어서 땀나무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마른 솔가지는 표준어에서 ‘삭정이’ 라 하는데, 장산도에서는 ‘자장개비’ 라 한다. 그래서 이런 자장개비를 꺾으러 갈 때에는 ‘자장개비 찌로 가자’ 라고 하여 동사 ‘찌다’ 를 사용하기도 한다. 큰 나무를 도끼로 찌면 나오는 작은 나뭇조각은 ‘지적개비’ 라 한다. 이런 나무 역시 땀감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지적개비’ 에 대해 참나무 등의 넓은 잎을 가리킨다는 제보자도 있었다. 활엽수의 넓은 잎이 마른 것도 훌륭한 땀감의 역할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접미사 ‘-개비’ 가 주로 나뭇가지 등을 가리키므로 과연 ‘지적개비’ 가 참나무 등의 넓은 잎을 가리키는지는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나무의 그루터기가 썩어서 발로 차면 자빠질 정도의 것은 ‘썩다리’ 라 한다. 이런 나무 역시 땀감으로 쓰일 수 있다.

11-5) 아기 머슴의 세분

머슴은 일의 세기나 그 지위에 따라 상머슴, 중머슴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특히 나이가 어려서 새경 대신 숙식을 제공하는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는 머슴은 전남 방언에서 ‘담살이’라는 말을 쓴다. 신안 지역에서도 이런 말은 널리 쓰이는데, 장산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담살이’는 사내아이의 경우 소를 돌보거나(이런 일을 흔히 ‘소 뜯기다’라는 말을 쓴다), 소의 먹이인 꼴을 베는 일 등을 맡는데, 이런 담사리는 ‘갈담살이’라 하거나 ‘꼬마등이’라는 말을 쓴다. 여기서 ‘갈’은 ‘꼴’의 방언형임은 물론이다. 그밖에 갓난아기만을 돌보는 일을 맡아 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을 수 있는데, 표준말로 이런 어린애를 ‘업저지’라 하는데, 신안 등지에서는 ‘애기업게’라는 말을 쓴다. 주로 아기를 업는 일을 맡는 아이라는 뜻일 것이다. ‘담살이’는 옛말 ‘다ㅁ사리’에서 온 말이다. ‘다ㅁ사리’의 ‘다ㅁ’는 ‘함께’, ‘더불어’의 뜻이므로 ‘다ㅁ사리’는 ‘더부살이’의 뜻이다. 따라서 남의 집에 붙어서 사는 더부살이라는 뜻이 남아 신안 지역어의 ‘담살이’가 된 것이다.

11-6) 부역의 세부 명칭

장산도를 비롯한 신안 지역에서 부역은 ‘정제’ 또는 ‘정지’라 한다. 그리고 불을 때는 아궁이는 장산도에서 ‘부삭’이나 ‘부사케’와 같은 말을 쓴다. ‘부사케’는 물론 ‘부삭’에 처격 조사 ‘에’가 결합된 말인데, 전남 방언에서는 공간명사에 흔히 처격조사 ‘에’가 결합된 형이 독자적인 명사로 쓰이는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위’의 방언형 ‘욱’은 전남 방언에서 흔히 ‘우게’로 쓰인다. 예를 들어 ‘우게가 무겁다’가 그러한 예이다. 이런 경우에 드는 예로는 ‘밑에, 옆에, 절에(=곁), 안에,...’ 등이 있다. 썸이나 우물을 가리키는 장산도의 방언 ‘새미’도 ‘썸’에 처격조사 ‘에’가 결합된 것이 한 낱말로 굳어진 것이다.

장산도에서 부뚜막은 ‘부송’이라 한다. 전남 방언에서 부뚜막은 ‘부뚜막’, ‘부뚝’, ‘부뚱’, ‘부수막’, ‘부숙’, ‘부송’의 어형이 쓰이는데 이들은 모두 ‘부뚜-’계와 ‘부수-’계로 나눌 수 있다. ‘부뚜-’계는 주로 전남의 동부 지역에서 쓰이고, ‘부수-’계

는 서부 전남에서 쓰인다. 따라서 장산도를 비롯한 신안 지역에서 쓰이는 ‘부승’은 당연히 ‘부수-’ 계의 한 방언형이다.

불을 피울 때 쓰이는 부지깅이는 장산도를 비롯한 신안 지역어에서 ‘비:땅’이라 한다. 이는 물론 ‘부지땅 > 비지땅 > 비:땅’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 실제 ‘부지땅’은 전남의 내륙 지역에서 쓰이는 것인데, 신안 지역은 모음 사이의 /ㅈ/이 탈락한 형이 쓰이는 것이 특징이다.

아궁이에서 재를 퍼내는 도구인 ‘재고무래’는 신안 지역어에서 ‘당글개’라 한다. 그렇지만 멧석에 곡식을 고르게 널 때 사용하는 도구인 ‘고무래’는 이 방언에서 ‘미래’라 한다. 사실 ‘고무래’는 전남 방언에서 ‘당그래/당글개’와 ‘미래’의 두 어형으로 크게 양분된다.

전남의 북부 지역에서는 ‘당그래/당글개’, 남부 전남에서는 ‘미래’가 쓰이는 것이다. 그밖에 이 두 어형이 쓰이는 중간 지대에서는 ‘미랫당그개’와 같은 합성어가 쓰이기도 한다. 지역적으로 신안은 남부에 속하므로 ‘미래’가 쓰이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재고무래의 경우는 그 사용 방향이 언제나 앞으로 잡아당기는 쪽이어야 하므로 ‘미래’를 쓸 수 없다. 이 때문에 ‘당글개’ 또는 ‘젯당글개’와 같은 어형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당글개’로 퍼낸 재를 담은 용기는 장산도에서 ‘거렁지’라는 말을 쓴다. 신안의 다른 지역에서는 ‘송쿠리’와 같은 말을 쓰기도 하는데, 장산도에서는 오직 ‘거렁지’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11-7) 소와 관련된 어휘

11.7.1 대불이다

종자가 좋은 수컷으로부터 씨를 받는 일에 대해 표준말은 ‘교배하다’와 같은 말을 쓰지만 전라도말은 ‘불불이다’, ‘수불이다’, ‘대불이다’, ‘갓불이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불불이다’나 ‘갓불이다’는 담양 등지에서 쓰이고, ‘수불이다’는 함평 지역에서 쓰이는 반면 ‘대불이다’와 같은 말은 신안, 진도, 해남, 무안 등지에서 쓰인

다. 따라서 장산도에서도 ‘대붙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밖에 ‘부대붙이다’와 같은 말을 쓰기도 한다. ‘부대붙이다’의 ‘부대’는 아마도 ‘불붙이다’의 ‘불’과 ‘대붙이다’의 ‘대’가 합성된 말로 보인다.

전라도말 ‘불붙이다’의 ‘불’은 ‘불알’, ‘불까다’, ‘불두덩’, ‘불거웃’, ‘불줄기’처럼 생식에 관련된 신체기관에 사용되는데, 이로 미루어 아마도 종족의 번식을 위한 교접이나 교미, 또는 생식 등을 가리키는 말로 추정된다.

전남 함평 지역에서 사용되는 ‘수붙이다’의 의미는 명확하다. 씨돼지로 쓰이는 수돼지에 암돼지를 교미시키는 것이므로 수컷을 뜻하는 ‘수’에 동사 ‘붙이다’를 결합한 것이다. ‘불붙이다’와 달리 품질이 좋은 씨를 주는 수컷을 명시하였다는 점이 특별하다.

전남의 담양 지역에서 쓰이는 ‘갓붙이다’는 그 어원이 조금 복잡하다. 향토 방언학자인 오홍일 선생이 펴낸 『전남 무안 지방의 방언사전』(무안문화원 간행)에는 ‘갓내’, ‘갓쌈’과 같은 낱말이 실려 있다.

‘갓내’란 암컷이 발정기에 수컷을 유혹하기 위해 풍기는 냄새, 곧 ‘암내’를 가리키며, ‘갓쌈’이란 한 남자를 두고 여자들끼리(아마도 본처와 첩끼리) 벌이는 싸움을 뜻한다. ‘갓내’와 ‘갓쌈’으로부터 우리는 ‘갓’이 동물의 암컷이나 여자(또는 부인)등을 가리키는 말임을 확신하게 된다. 그렇다면 전라도말 ‘갓붙이다’의 ‘갓’은 ‘불붙이다’의 ‘불’이나 ‘흘레붙이다’의 ‘흘레’와 달리 단지 암컷을 가리키는 말에 불과하며, 여기에 동사 ‘붙이다’를 결합시킴으로써 암컷을 종자가 좋은 수컷에 붙이는(교미시키는) 행위를 가리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수붙이다’와 방향이 반대인 셈이다.

장산도에서 쓰이는 ‘대붙이다’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다. 혹시 한자어 對에서 온 것인지도 모르겠다.

11.7.2 바넷소

농경 시대에 소는 농사일을 돕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모든 집이 소를 가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에 남의 소를 키워 주고 대가를 받는 방식이 발달하였다. 그런데 그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남의 집에서 송아지를 가져다가 새끼를 낳을 때까지 약 2년 정도 키운 뒤, 새끼를 낳으면 그 송아지를 자신이 갖고 원래의 소는 원 주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2년 동안 송아지가 자라 새끼를 낳을 정도로 자랐으니 원 주인도 이득을 본 것이고, 아무 것도 없던 상태에서 송아지를 갖게 되었으니 소를 빌려 키운 사람도 이득을 보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도였던 것이다. 이를 표준어로는 ‘배넷소’라 하는데, 전남 신안 지역에서는 ‘씨압’이라 한다. ‘씨’는 종자(種子)를 말하는 것이고, ‘압’은 ‘아비’의 뜻이나 여기서는 부모를 가리키는 말로 추정되는데, 따라서 ‘씨압’은 ‘종자소를 줄 수 있는 부모 소’라는 뜻이 아닐까 한다.

한편 송아지 대신 돈을 받는 방식이 있다. 가져온 송아지를 약 2년 정도 키우면 송아지는 어느덧 큰 소로 자랐을 텐데, 이 소를 장에다 팔아서 받은 돈을 주인과 키운 사람이 절반씩 나눠 갖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것은 소 값의 변동에 따라 또는 소를 얼마만큼 잘 먹이느냐에 따라 키운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이 달라질 것이므로, ‘씨압’보다는 위험부담이 더 큰 방식이다. 이를 신안 지역에서는 ‘바넷소’라 부른다.

표준어 ‘배넷소’는 주인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기르는 소를 말하고, 남의 가축을 길러서 가축이 다 자라거나 새끼를 낸 뒤에 주인과 나누어 가지는 제도를 ‘배내’라고 하므로, ‘배넷소’는 신안의 ‘씨압’이나 ‘바넷소’의 두 가지 방식에 다 적용되는 말인 셈이다. 신안의 ‘바넷소’는 표준어 ‘배넷소’와 형태가 비슷하긴 하지만 그 의미가 다르므로 어원도 다를 가능성이 크다. ‘바넷소’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반(半)엿소’에서 온 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표준어 ‘배내’의 뜻을 갖는 한자어에 ‘반양(半養)이 있어, ‘바넷소’를 ‘반엿소’로 볼 만한 근거가 조금 있기는 하다.

이처럼 신안의 ‘씨압’과 ‘바넷소’처럼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경우는 전남 곡성 지역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씨압소’와 ‘갈라먹기’의 두 가지 표현을 쓰는데, ‘씨압소’는 신안의 ‘씨압’과 같은 경우이고, ‘갈라먹기’는 신안의 ‘바넷소’에 해당한다.

한편 전남의 다른 지역에서는 대체로 암소를 키워 송아지를 얻는 방식만을 취하는데, 이를 가리켜 진도에서는 ‘어시소’, 영암에서는 ‘도깃소’, 그리고 보성에서는 표준어와 같은 ‘배넛소’를 사용한다.

장산도에서는 송아지를 가져와 키워 반반씩 나누는 ‘바넛소’라는 명칭은 있으나, 큰 소는 주인이 가져가고 기른 사람은 송아지를 가져가는 ‘씨압’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다. 아마도 ‘바넛소’가 이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1.7.3 뿌락지

소는 성별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수소는 장산도에서 ‘쑤소’라 하기도 하고, ‘뿌락지’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전남의 다른 지역에서는 ‘뿌사리’나 ‘뿌락대기’와 같은 말을 쓰는데 장산도에서는 ‘뿌락지’가 쓰여 접미사에서 차이를 보인다. ‘뿌락지’는 표준어의 ‘황소’에 대응하는 말인데, 제보자들은 어린 수소도 ‘뿌락지’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황소’가 아닌 ‘수소’의 의미로 쓰인다고 해야 할 것이다.

소의 뿔은 소의 모양이나 건강 상태를 알려 주는 징조이기도 한데, 장산도에서는 ‘소뿔이 넘어간 놈 사면 살림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만큼 건강한 소는 뿔도 꼳꼳하게 세워져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11.8 음료 관련 어휘

전통적인 음료로 애용되었던 것이 ‘식혜’이다. 장산도에서도 ‘식혜’는 그대로 쓰인다. 여기에 덧붙여 ‘감주’와 ‘단술’이라는 말도 있다. ‘감주’는 한자어 甘酒로서 그 뜻은 달콤한 술이다. 그런데 전남의 육지 지역에서는 식혜를 가리키는 말로 이 말이 쓰인다. 그러나 장산도에서는 꽃감과 설탕물, 계피 등을 넣고 끓인 수정과를 가리키는 말로 이 ‘감주’가 쓰인다. 한편 ‘단술’은 찬밥에 누룩가루 등을 섞어서 하루 정도 발효시키면 단맛이 나게 되는 음료를 가리킨다. 이름에는 ‘술’이 들어가 있지만 ‘단순’은 일반적으로 술기운이 별로 없는 음료인 것이 특징이다.

11.9 떡

장산도에서 떡국을 끓여 먹는 떡인 ‘가래떡’을 ‘국떡’이라 한다. 이 말은 장산도를 비롯한 신안 지역에서 널리 쓰이는 말이다. 한편 떡살을 누른 떡 또는 빨래판 위에 놓고 찢 떡과 같은 인절미를 이 지역에서는 ‘빨래떡’ 또는 ‘흔떡’이라는 말을 쓴다. 그리고 송편은 장산도에서 ‘생편’이라 하지만 ‘부꾸미’는 따로 ‘월편’이라 부른다. 그 모양이 달과 같다고 해서 붙인 이름일 것이다. 제사상에 떡을 올릴 때 떡 위에 예쁜 모양의 고명을 얹은 떡을 올리기도 하는데, 표준어에서 이 예쁜 고명은 ‘웃기’라 하고 이런 떡은 ‘웃기떡’이라 한다. 그런데 장산도에서는 ‘웃기’ 또는 ‘웃기떡’을 가리키는 말로 ‘웃지지’라는 말을 쓴다. 물론 ‘웃지지’는 ‘웃기’가 구개음화를 일으킨 말이다. 시루에 떡을 찢 때 김이 새나가지 않도록 시루 옆에 붙이는 밀가루를 표준어에서는 ‘시룻번’이라 하지만 장산도에서는 ‘시리벤다구’라 하였다. 표준어 ‘번’이 이 방언에서는 ‘벤다구’로 쓰이는 것이다.

11.10 집안 구조

집안의 방을 가리킬 때 안방은 ‘큰방’, ‘작은방’은 ‘모방’이라 한다. ‘모방’은 진도 지역에서도 쓰이는 말인데, 장산도에서도 함께 쓰이고 있다. 곡식을 넣어 두는 작은 방을 전남의 다른 지역에서는 ‘고방’이나 ‘도장’과 같은 어형을 쓰는데, 장산도에서는 ‘마레’라는 말을 쓴다. 이 ‘마레’는 바닥이 보통 널빤지로 되어 있는데, 장산도에서는 이 바닥에 까는 널빤지를 ‘너:장’이라 한다. 한편 장산도에서 ‘고방’은 곡식 등을 담기 위해 나무로 크게 만든 통(전남의 다른 지역에서는 ‘어리통’ 또는 ‘두대’라는 말을 쓴다.)을 가리킨다. 마루는 장산도에서 ‘토:지’라 한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마레’와 ‘토지’는 엄격히 구분되는 말이다.

돼지우리는 장산도에서 ‘되야치청’이라 하고, 외양간은 ‘소청’이라 한다. 여기에서 보듯이 ‘청’(廳)이라는 한자어를 쓰는 것이 특징이다. 전남 방언에서 ‘나뭇간’을 가리켜 ‘나무청’이라 하기도 하고, ‘헛간’을 ‘허청’이라 하기도 하므로, ‘청’은 지역에 따라 ‘간’(間)과 대립하는 말인 셈인데, 장산도에서 돼지우리와 외양간을 가리키는 말에 이 ‘청’이 쓰이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12. 결론

1) 특별한 방언의 예

방언은 한반도의 어느 지역이나 있는 언어로서, 해당 지역의 특별한 어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를 보여 주는 매개체이다. 섬 지역도 육지와 다른 독특한 섬 문화가 있는데, 방언을 통해 이런 문화를 섬을 찾는 외지인들에 소개함으로써 섬을 이해시키고, 섬의 특별한 가치를 알릴 수 있다. 여기에서는 예로서 두 가지 방언을 들어본다.

(1) 택호

같은 동네에 사는 아낙네들이 서로를 부를 때 사용하는 것이 택호이다. 신안이나 진도 등 섬 지역에서는 아이 이름에 접미사 ‘-네’를 결합하는 택호를 사용하여 접미사 ‘-떡’(<< -떡)을 사용하는 육지와 차이를 보인다. 장산도의 모개 마을은 크기가 작은 관계로 따로 택호를 사용하지 않고 ‘성’이나 ‘동승’과 같은 친족 명칭을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제보자들의 어머니 시절에는 안좌도에서 시집온 여자를 ‘안좌수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기억하였다. 현재는 이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장산면에서는 여자 아이를 속명으로 부를 때, ‘-니’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 ‘니’는 하의도에서도 확인된 접미사이다. 그래서 ‘시몰’이나 ‘자라도’와 같은 곳에서 태어난 여자 아이는 ‘시몰니’나 ‘자라똥니’라고 불렀다. 여기서 보듯이 접미사 ‘-니’ 앞에 사이시옷이 개재되는 것이 특징인데, 이런 특징은 하의도의 경우와 같다. 다만 장산도에서 특이한 것은 아이의 외가 지명뿐 아니라 아이가 태어난 달과 같은 시간 표현에도 접미사 ‘-니’가 붙을 수 있었다. 그래서 8월에 낳은 아이를 ‘팔월니’라고 부를 수 있었다.

접미사 ‘-니’가 붙은 아이 이름에 다시 접미사 ‘-네’를 덧붙여 그 아이 엄마의 택호로 삼았다. 그래서 ‘팔월니’의 엄마는 ‘팔월니네’가 되고, ‘자라똥니’의 엄마는 ‘자라똥니네’가 되는 것이다. 한편 장산도의 제보자들은 임자도나 무안 지역에서는

이런 식의 택호 대신 ‘-댁’ 과 같은 접미사를 사용한다고 인지하였다. 이것은 무안과 같은 육지에 가까운 섬 지역은 섬의 전형적인 방식 대신 육지와 같은 택호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여자 아이의 이름에 접미사 ‘-니’ 를 사용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남자 아이의 이름에 접미사 ‘-수’ 를 쓰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니’ 에 비해 ‘-수’ 의 접미사로서의 생산성이 극히 약화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다만 ‘-수네’ 와 같은 복합형식은 여자의 택호 접미사로 기능하였다. 이것은 자은면과 마찬가지로 ‘-수네’ 가 하나의 택호 접미사로 사용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 증거이다.

한편 같은 마을에서 같은 마을로 시집을 가는 경우의 택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모개’ 에서 ‘모개’ 로 시집간 여자는 ‘모개수네’ 라 하였다고 하나, 제보자에 따라 ‘본토수네’ 라고 했다는 사람도 있었다. 이 ‘본토수네’ 는 하의도에서도 사용되었던 어형이므로 아마도 장산도와 하의도가 이 점에서 같은 말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소와 관련된 어휘

(2.1) 교배를 가리키는 말

종자가 좋은 수컷으로부터 씨를 받는 일에 대해 표준말은 ‘교배하다’ 와 같은 말을 쓰지만 전라도말은 ‘불붙이다’, ‘수붙이다’, ‘대붙이다’ ‘갓붙이다’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불붙이다’ 나 ‘갓붙이다’ 는 담양 등지에서 쓰이고, ‘수붙이다’ 는 함평 지역에서 쓰이는 반면 ‘대붙이다’ 와 같은 말은 신안, 진도, 해남, 무안 등지에서 쓰인다. 따라서 장산도에서도 ‘대붙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그밖에 ‘부대붙이다’ 와 같은 말을 쓰기도 한다. ‘부대붙이다’ 의 ‘부대’ 는 아마도 ‘불붙이다’ 의 ‘불’ 과 ‘대붙이다’ 의 ‘대’ 가 합성된 말로 보인다.

전라도말 ‘불붙이다’ 의 ‘불’ 은 ‘불알’, ‘불까다’, ‘불두덩’, ‘불거웃’, ‘불줄기’ 처럼 생식에 관련된 신체기관에 사용되는데, 이로 미루어 아마도 종족의 번식을 위한 교접이나 교미, 또는 생식 등을 가리키는 말로 추정된다.

전남 함평 지역에서 사용되는 ‘수붙이다’ 의 의미는 명확하다. 씨돼지로 쓰이는 수

돼지에 암돼지를 교미시키는 것이므로 수컷을 뜻하는 ‘수’에 동사 ‘붙이다’를 결합한 것이다. ‘붙붙이다’와 달리 품질이 좋은 씨를 주는 수컷을 명시하였다는 점이 특별하다.

전남의 담양 지역에서 쓰이는 ‘갓붙이다’는 그 어원이 조금 복잡하다. 향토 방언 학자인 오홍일 선생이 펴낸 『전남 무안 지방의 방언사전』(무안문화원 간행)에는 ‘갓내’, ‘갓쌈’과 같은 낱말이 실려 있다. ‘갓내’란 암컷이 발정기에 수컷을 유혹하기 위해 풍기는 냄새, 곧 ‘암내’를 가리키며, ‘갓쌈’이란 한 남자를 두고 여자들끼리(아마도 본처와 첩끼리) 벌이는 싸움을 뜻한다. ‘갓내’와 ‘갓쌈’으로부터 우리는 ‘갓’이 동물의 암컷이나 여자(또는 부인) 등을 가리키는 말임을 확신하게 된다. 그렇다면 전라도말 ‘갓붙이다’의 ‘갓’은 ‘붙붙이다’의 ‘붙’이나 ‘홀레붙이다’의 ‘홀레’와 달리 단지 암컷을 가리키는 말에 불과하며, 여기에 동사 ‘붙이다’를 결합시킴으로써 암컷을 종자가 좋은 수컷에 붙이는(교미시키는) 행위를 가리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수붙이다’와 방향이 반대인 셈이다.

장산도에서 쓰이는 ‘대붙이다’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다. 혹시 한자어 對에서 온 것인지도 모르겠다.

(2.2) 소를 길러 나눠 가지는 방식

농경 시대에 소는 농사일을 돕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모든 집이 소를 가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에 남의 소를 키워 주고 대가를 받는 방식이 발달하였다. 그런데 그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남의 집에서 송아지를 가져다가 새끼를 낳을 때까지 약 2년 정도 키운 뒤, 새끼를 낳으면 그 송아지를 자신이 갖고 원래의 소는 원 주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2년 동안 송아지가 자라 새끼를 낳을 정도로 자랐으니 원 주인도 이득을 본 것이고, 아무 것도 없던 상태에서 송아지를 갖게 되었으니 소를 빌려 키운 사람도 이득을 보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도였던 것이다. 이를 표준어로는 ‘배넷소’라 하는데, 전남 신안 지역에서는 ‘씨압’이라 한다. ‘씨’는 종자(種子)를 말하는 것이고, ‘압’은 ‘아비’의 뜻이나 여기서는 부모를 가리키는 말로 추정되는데, 따라서 ‘씨압’은 ‘종자소를 줄 수 있는 부모 소’라는 뜻이 아닐까 한다.

한편 송아지 대신 돈을 받는 방식이 있다. 가져온 송아지를 약 2년 정도 키우면 송아지는 어느덧 큰 소로 자랐을 텐데, 이 소를 장애다 팔아서 받은 돈을 주인과 키운 사람이 절반씩 나눠 갖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것은 소 값의 변동에 따라 또는 소를 얼마만큼 잘 먹이느냐에 따라 키운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이 달라질 것이므로, ‘씨압’ 보다는 위험부담이 더 큰 방식이다. 이를 신안 지역에서는 ‘바넷소’라 부른다.

표준어 ‘배넷소’는 주인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기르는 소를 말하고, 남의 가축을 길러서 가축이 다 자라거나 새끼를 낸 뒤에 주인과 나누어 가지는 제도를 ‘배내’라고 하므로, ‘배넷소’는 신안의 ‘씨압’이나 ‘바넷소’의 두 가지 방식에 다 적용되는 말인 셈이다. 신안의 ‘바넷소’는 표준어 ‘배넷소’와 형태가 비슷하긴 하지만 그 의미가 다르므로 어원도 다를 가능성이 크다. ‘바넷소’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반(半)엿소’에서 온 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표준어 ‘배내’의 뜻을 갖는 한자어에 ‘반양(半養)’이 있어, ‘바넷소’를 ‘반엿소’로 볼 만한 근거가 조금 있기는 하다.

이처럼 신안의 ‘씨압’과 ‘바넷소’처럼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경우는 전남 곡성 지역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씨압소’와 ‘갈라먹기’의 두 가지 표현을 쓰는데, ‘씨압소’는 신안의 ‘씨압’과 같은 경우이고, ‘갈라먹기’는 신안의 ‘바넷소’에 해당한다.

한편 전남의 다른 지역에서는 대체로 암소를 키워 송아지를 얻는 방식만을 취하는데, 이를 가리켜 진도에서는 ‘어시소’, 영암에서는 ‘도깃소’, 그리고 보성에서는 표준어와 같은 ‘배넷소’를 사용한다.

장산도에서는 송아지를 가져와 키워 반반씩 나누는 ‘바넷소’라는 명칭은 있으나, 큰 소는 주인이 가져가고 기른 사람은 송아지를 가져가는 ‘씨압’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다. 아마도 ‘바넷소’가 이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활용 방식

- 섬 지역의 문화를 전시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다양한 문화 요소를 전시할 필요가

있다. 이때 무형 문화재로서 방언적 특징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여 전시한다.

- 언어 문화는 단순히 글로 적는 데 그치지 않고 음성으로 실현될 때에야 제 모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전시관에는 이 지역 방언을 드러내는 녹음된 음성 파일을 준비하여 외지인들에게 들려 준다.

- 택호나 소에 관한 이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굴하여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외지인들에게 소개한다. 예를 들어 재미있는 택호를 가진 사람이나 택호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발굴한다. 또한 소를 교배시키는 과정이나 이에 관련된 일화를 발굴하거나 소를 길러 나누는 방식과 관련된 다양한 스토리들을 발굴하여 소개함으로써 이 지역 문화를 생생하게 외지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VIII 주거문화

김 지 민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 | |
|---------|-----|
| 1. 개요 | 306 |
| 2. 민가조사 | 308 |
| 3. 활용방안 | 332 |



VIII. 주거문화

1. 개요

1) 민가 개요

장산도 민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내륙과 달리 도서는 그 특수한 환경으로 근대화가 더디게 시작됐고 살림집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이 지역 대부분의 민가는 1960, 70년대까지 조선후기의 민가형태를 유지했다. 삶의 구조가 크게 바뀌었지만 주거만큼은 전 근대적이었다. 한편 일제 강점기 무렵부터 민가에 근대화가 도입된 이른바 근대한옥도 건립이 되었지만 이 경우는 극히 일부 계층 즉, 대지주 등 경제적으로 상류층에서 주로 지었다.

개략 1980년대부터는 획기적으로 장산도 민가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즉 신축의 경우 목조는 사라지고 주로 벽돌, 시멘트 등을 사용한 내륙의 도시형 주택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살림집이 마을 곳곳에 들어섰다. 원인은 과거 목조집을 경험했던 세대로서 그들은 목조집이 더 이상 현대적 편익성을 수용할 수 없고 관리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시멘트집은 흙과 나무로 된 친환경 목조집과는 정서와 환경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또한 경관 측면에서도 농어촌의 자연경관과 잘 조화가 되지 않는다.

한편 오래된 기존의 목조집들도 지붕개량과 함께 내부를 현대생활에 편리하게 크게 수리했다. 내부에 화장실과 입식부엌을 설치하고 방도 크게 넓혔다. 창호도 옛 목창호를 철거하고 플라스틱 창호로 교체했다. 즉 전혀 새로운 집이 됐다. 최근에 들어서 80년대 지붕개량의 주 재료였던 스테이트나 골함석이 크게 노후되어 강판으로 새로 교체하는 민가가 크게 늘고 있다.

장산도는 다행히도 필자가 1980년대 후반에 조사한 전통민가 3가옥이 있다. 조사 당시 이 가옥들은 모두 1800년대 초·중반에 건립된 조선 후기의 민가로 건립당시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갖추고 있었다. 현 시점에서 보면 조선시대 장산도 주거의 한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즉 공간 하나 하나에서 과거 이 지역 주민의 생활사를, 그리고 구조나 재료 측면에서 당시의 살림집 축조 기술을 엿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민가 3채 중 1채는 완전 철거(2008년경)됐고, 1채는 내외부를 전면 보수, 그리고 1채는 거의 옛 모습으로 현재 남아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모두 11채의 민가가 조사 되었다.(1989년 조사 3채 포함) 이중에는 공가 1채도 있는데 오히려 그간 빈집으로 있었기에 수리를 하지 않아 본래의 건축모습을 잘 볼 수 있다.

2) 조사 일정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자	조사내용
2014. 09. 19. ~ 09.21	장산도	김지민(목포대 건축학과 교수) 장지영(목포대 건축학과 5학년) 정은지(목포대 건축학과 4학년) 정다운(목포대 건축학과 4학년) 박효관(목포대 건축학과 3학년) 강웅선(목포대 건축학과 3학년)	민가 연혁 민가 실측 민가 현황

3) 조사 민가 목록

순서	민가명	위치	건립년도	건물구성	비고
1	정00 민가	장산면 도창리 732	1836년	안채, 행랑채	획철(1988년 조사)
2	최00 민가	장산면 도창리 191	1828년	안채	
3	도창길 23-4 민가	장산면 도창리 도창길 23-4	1924년	안채, 사랑채	甲子(사랑채)
4	도창길 29-4 민가	장산면 도창리 도창길 29-4	1920년경(추정)	안채	
5	도창길 31-13 민가	장산면 도창리 도창길 31-13	1923년	안채	癸亥
6	대리길 22-10 민가	장산면 대리 대리길 22-10	1916년	안채	大正五年丙辰
7	김00 민가	장산면 대리 458	1815년	안채	대보수
8	장산면장 관사	장산면 대리	1960년경	안채, 문간채	
9	대리길 28-1 민가	장산면 대리 대리길 28-1	1903년	안채	
10	상용길 78-1 민가	장산면 평진리 상용길 78-1	일제 강점기 후반	안채, 사랑채	
11	빈 집	장산면 평진리 헌터길	1914년	안채	大正三年

2. 민가조사

1) 정○○ 민가

소재지 : 신안군 장산면 도창리 732

건축년도 : 1836년

본 건물은 넓고 평탄한 대지에 辛坐乙向으로 안채를 앞히고 그 전면 우측에 동향으로 사랑채를 둔 ㄱ字形 배치의 가옥이다. 대지의 우측 아래편 입구에는 비교적 큰 규모의 측간채가 자리하고 있다. 안채와 사랑채 모두 초가집으로 규모도 크며 구조도 짜임새가 있고 견실하다. 건축연대는 안채에 “道光十六年丙申開基正月三十日安礎…….”란 上樑文이 있어 조선 현종 2년(1836)임을 알 수 있다.

안채는 前後退집으로 평면구성은 좌측으로부터 마래, 안방, 정지를 차례로 배치하고 정지 끝 앞으로는 모방을 드렸다. 마래와 정지는 각각 후퇴를 포함한 2間으로 비교적 크다. 뒷마루는 마래쪽 後退와 前退일부분에, 그리고 안방 전면에 설치하였다.

구조는 막돌초석위에 方柱를 세운 2高柱5樑형식으로 道里는 납도리를 걸었으나 宗도리와 전면의 柱心道里만은 장혀를 받친 굴도리를 걸었다. 대들보위의 마룻대공은 사다리꼴의 板臺工으로 이 지역 민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유형이다. 판대공 사용의 예는 조사가옥 중 본 가옥만이 유일한 것으로 나머지 대부분의 가옥은 거칠게 다듬은 平角材型的 童子臺工을 사용하고 있다. 직선으로 걸을 退樑은 밑면을 아아치 모양으로 깎아내어 意匠上 특히 눈에 띈다. 이로 인해 중심 부분은 춤이 폭보다 상당히 작다.

사랑채는 규모가 안채만큼 큰 정면 5칸 규모의 一字형 초가다. 전후로 退를 두었으며 평면은 좌로부터 헛간, 광, 사랑방, 정지방, 외양간 순으로 배치하였다. 정지방 앞으로는 조그마한 외양정지를 두었으며 광과 사랑방 앞으로는 뒷마루를 설치하였다. 기단은 안채와 다르게 長大石으로 上壇 둘레를 마무리 하였으며, 초석은 전면의 두리기둥 밑으로만 다음은 원형초석을 놓고 나머지는 막돌 초석을 사용하였다. 기둥은 전면의 退柱 일부분만 두리기둥이고 나머지는 方柱를 썼다. 架構는 2高柱5樑形式이다.

이 민가는 2008년경에 완전 해체되어 현재 집터는 텃밭으로 사용되고 있다.

〈1988년 경 건축현황 설명〉



안채



사랑채



민가 배치도

2) 최○○민가

소재지 : 신안군 장산면 도창리 191

건축년도 : 1828년

도창리 732번지 정00민가 근처에 위치한 작은 규모의 古家이다. 건축연대는 상당히 오래된 純祖 28年(1828)으로 鄭00 가옥보다 8년이 빠르다(안채에 “道光八年開基三月拾三日安礎...”라고 쓰여진 上樑文이 있음)

배치는 대지의 중앙 안쪽으로 안채를 두고 그 전면 우측으로는 남향으로 헛간채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대지 전면의 門間 우측으로는 측간채를 앉혔다. 안채의 坐向은 辛坐乙向이다.

안채는 前退를 두고 마래, 안방, 정지를 나란히 드리고 모방을 정지 앞쪽에 배치한 신안 도서지역 민가 안채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前退에는 빗마루를 설치하였고 그 端部로는 고방을 드렸다.

구조는 막돌초석위에 方柱를 세운 4檁形式이며, 창호는 마래와 정지에는 板長門을 달고 안방과 모방으로는 띠살문을 설치하였다. 벽체는 흙벽마름이고 지붕은 작년에 초가에서 스테이트로 교체했다. 이 당시에 전면의 退間을 넓히고 기둥도 교체하였다.

헛간채는 전면으로 退를 둔 죽담구조의 초가집으로 평면구성은 좌측으로부터 차례로 헛간, 사랑방, 사랑정지, 나뭇청 순으로 되어있다.

〈1988년 경 건축현황 설명〉



안채(1988년경)



민가 배치도

안채는 2014년 초에 안방과 전면 툇마루 앞에 플라스틱 창호를 새로 설치한 것 외에는 1988년 조사 당시와 큰 차이가 없다. 즉 19세기 초 건립 당시의 평면 등 기본 구조를 그대로 갖추고 있다. 입구의 측간채도 스테이트로 지붕개량 만 되어 있을 뿐 옛 모습 그대로다. 단 헛간채는 헐렸다.



안채(2014년)



안채 마래 상부(2014년)



측간채 벽체(2014년)

3) 도창길 23-4 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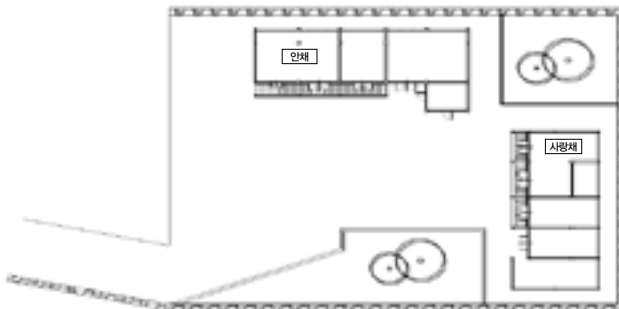
소재지 : 신안군 장산면 도창리 도창길 23-4

건립년도 : 1924년 무렵

도창마을 내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근대 한옥으로 안채와 사랑채로 구성되어 있다. 상량문은 사랑채 에서만 확인(甲子參月···)할 수 있어 사랑채는 1924년, 안채는 같은 해 아니면 보통 사랑채보다 안채를 빨리 짓기 때문에 이보다 좀 더 빠른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두 건물은 안마당을 중심으로 위쪽에 안채, 우측에 사랑채가 들어서 ‘ㄱ’자형 배치로 되어있다.

안채는 정면 5칸, 측면 3칸(전후 반 칸 퇴 포함)의 기본 구조에 우측 끝 한칸 앞으로 별도의 침실(모방) 1칸을 두었다. 평면 형식은 중앙의 안방을 중심으로 좌우로 마래와 부엌을 두었다. 이렇듯 3개의 실을 나란히 두고 부엌 모퉁이 끝에서 방 한 칸을 돌출시키는 형식은 신안 도서지역 조선 후기 민가의 보편적인 형식이다.

사랑채는 정면 5칸의 ‘ㄱ’자형으로 좌로부터 광, 방, 부엌, 헛간 순으로 꾸며져 있다. 광은 정면 2칸으로 후면 쪽으로는 별도의 곡간을 1칸 마련하였다. 안채와 사랑채 모두 평면 형식은 전통유형에 가까우나 장식과 부재 사용 등은 전통민가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형식이 보인다. 우선 서까래가 원형이 아닌 방형(75x75mm)이며 원형초석 또한 중앙이 들어간 특이한 모양이다. 각 실 출입문도 띠살, 빗살, 궁판으로 3등분 된 특이한 모양이다. 근대기에 접어들면서 민가 건축에 새로운 변화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민가 배치도



안채 평면도

사랑채 평면도



전경(좌: 안채, 우: 사랑채)



안채



안채 퇴간



안방 창호



안채 초석



사랑채



사랑채 퇴간



사랑채 상량문



사랑채 마래 상부



사랑채 마래

4) 도창길 29-4 민가

소재지 : 신안군 장산면 도창리 도창길 29-4

건축년도 : 1920년 경

도창마을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ㄱ’자형 한옥이다. 건립연대는 1920년경으로 추정된다. 이는 1924년에 건립된 도창길 23-4번지 민가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다고 주민들이 전하기 때문이다. 두 한옥은 구조와 양식 등에 서로 유사하다.

안채의 규모는 정면 6칸, 측면 3칸(전·후 반 칸 포함)이며 실 배치는 마래, 대청, 안방, 부엌, 건너방 순으로 꾸며져 있고 전퇴에는 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각 실은 후퇴까지 실로 사용하고 있는 매우 넓다.

대청 후퇴는 윗대청이라고 하여 260mm의 단 차이를 두었다. 특히 측면의 전·후퇴 폭이 비교적 넓다.(전퇴 : 1,320mm, 후퇴 : 1,510mm) 전반적으로 평면형식은 마래와 안방 사이에 별도의 대청을 설치하고 건너방을 완전히 정지 측면에다 둔 이 지역 전통형식에서 크게 벗어난 구조이다. 사용된 부재는 전반적으로 큰 편이다, 전면 빗기둥은 160x160mm 각이며 높이는 2,570mm이다, 도리끝에는 장혀를 두었다. 대청 앞에는 4분합 들어열개 문을 설치했다. 기단은 장대석 외벌대 구조다. 이 한옥은 당시 경제력이 있는 건축주가 규모를 키우면서 전통한옥 평면 형식을 지양하고 새롭게 구조와 양식 등을 채택한 일종의 근대 한옥이다.



안채 평면도



안채



안채 대청 창호



안채 처마 부분



안채 기단

5) 도창길 31-13 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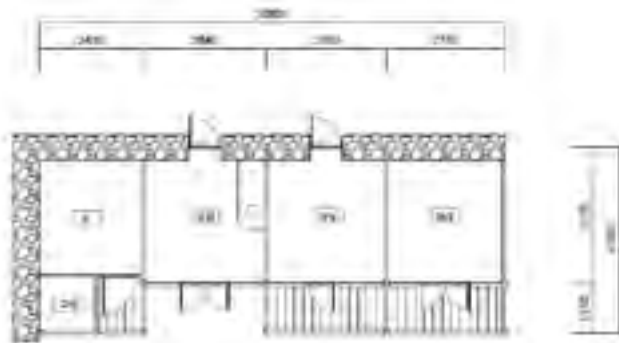
소재지 : 신안군 장산면 도창리 도창길 31-13

건립년도 : 1923년

도창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한옥이다. 건립 시기는 상량문을 ‘癸亥’ 정도만 확인 할 수 있어 1863년 아니면 1923년 이다. 이 한옥은 1800년대에 지어진 신안도서지역 한옥의 구조와 다소 차이가 있어 1923년이 아닌가 한다. 물론 1863년도 전혀 배제 할 수는 없다. 안채는 남동향으로 자리하고 있고 그 좌측 편에 전통 죽담구조의 측간채가 있다. 현재 이 한옥에서는 거주하지 않고 우측에 새로 신축한 주택에서 주인이 생활하고 있다.

안채는 지붕만 스테이트로 개량되어 있을 뿐 평면형식과 구조는 건립 당시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갖추고 있다. 평면은 좌측으로부터 광, 정지, 안방, 마래 순으로 꾸며져 있는데 특히 좌측의 광은 신안 도서지역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실이다. 대부분 이 쪽에 두 번째 방이 설치된다.

후면의 벽체는 돌과 흙을 번갈아 쌓은 죽담구조다. 이러한 죽담 벽체는 규모가 작거나 경제적으로 건축적 능력이 부족했던 민가에서 많이 사용한 구조 형식이다. 현재 측간채도 죽담구조로 지붕만 초가에서 스테이트로 개량되어 있을 뿐 옛 모습 그대로다.



안채 평면도



안채 전면



안채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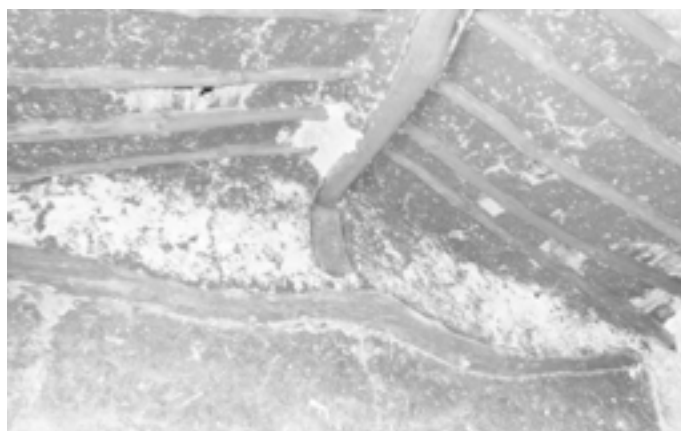
안채 후면 마래 창호



안채 마래 상부



측간채



안채 부역 상부

6) 대리길 22-10 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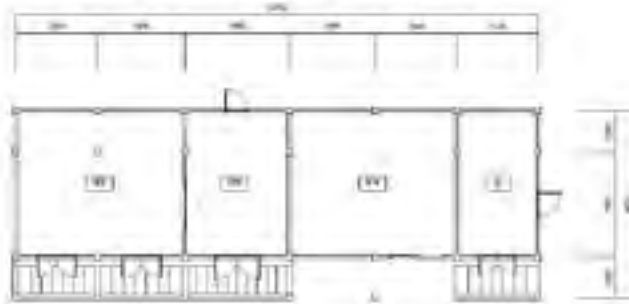
소재지 : 신안군 장산면 대리 대리길 22-10

건립연도 : 1916년

이 한옥은 현재 안채만이 있고 건립연도는 1916년이다. (‘大正五年丙辰十月初· · ·’상량문) 과거에는 사랑채와 행랑채 등도 있었으나 모두 훼손되고 현재는 없다. 한옥의 초기 조성 건축주는 가사도(진도군 소재) 출신의 장씨 일족으로 그들은 장산도로 이주 후 간척을 통해 많은 농지를 확보 후 그 경제적 기반으로 본 한옥을 지었다고 한다. 현 집주인은 1980년대에 장씨로부터 매입한 것이다.

안채는 정면 6칸, 측면 3칸(전후 반칸 퇴 포함) 규모의 ‘—’자 형으로 지붕은 팔작지붕에 한식기와가 올려져 있다. 지붕 구조는 건립 당시 초가지붕이었으나 1960년대에 현재와 같이 기와로 교체하였다. 평면구성은 좌측으로부터 대청, 안방, 부엌, 방 순으로 꾸며져 있고 전퇴에는 툇마루가, 후퇴는 모두 각 실로 넓혀져 있다. 대청은 이 지역 전통민가의 ‘마래’에 해당하는 곳으로 주로 안광 기능을 하는데 근대화가 되면서 호칭을 대청이라고 한다.

가구 구조는 전후 퇴주 안쪽에 2개의 고주를 세운 2고주 5량가이다. 전면 퇴주는 높이 2,420mm에 160x160mm 크기의 방주로 건립 당시 초가임을 고려하면 비교적 크다. 전면 기단은 장대석을 사용한 3단으로 이 지역 민가에서는 보기 힘든 구조이며 초석은 4각의 방형 마름모꼴 형상이다.



안채 평면도

안채는 평면이나 구조 등 전반적으로 전통민가의 형식에서 벗어난 근대기 민가로 신안 도서지역의 주거사 연구의 중요한 현장이 되고 있다.



안채 전경



안채 전면 퇴간



안채 지붕틀 가구



안채 상량문



안채 전면 퇴보



기단(3단 장대석)

7) 김○○ 민가

소재지 : 신안군 장산면 대리 458

건립연도 : 1815년

본 가옥은 안채의 宗道里 長舌밑에 “嘉慶貳拾年乙亥十月初貳日癸丑時...”란 上樑文이 있어 건축연대가 純祖 15年(1815)으로 밝혀진 꽤 오래된 古家이다. 건물의 전체 배치 모습은 戌座辰向으로 앉힌 안채의 전면 우측으로 약간 비스듬히 사랑채가 있고 그 뒤로는 측간채가 위치하고 있다. 측간채를 이처럼 사랑채 뒤편에 배치한 경우는 드문 사례이다. 담장은 돌담장이며 안채 뒤편으로는 넓은 텃밭이 조성되어 있다.

안채는 전후로 退를 둔 정면 5間 규모의 비교적 큰 건물이다. 지붕은 현재 스테이트 지붕으로 이는 1981년에 초가에서 개량된 것이다. 평면 형태는 좌측으로부터 차례로 마래, 안방, 정지를 배치하고 다시 정지 앞으로 모방을 드렸다. 마래는 2間으로 비교적 크며 바닥에는 우물마루를 깔았다. 마래 뒤쪽의 退에는 고방 2개를 설치하였는데 안방 쪽의 고방은 본래 텃마루가 놓여 졌던 곳이다. 모방은 정지 안으로 반 칸 정도 맞물려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최근에 넓힌 것이다. 이 건물의 본래 평면 형태는 이웃한 道昌里의 鄭○○ 민가와 거의 유사하다.

구조는 2高柱5樑架로 18×18cm 크기의 方柱를 세우고 方形의 대들보를 걸었다. 道里는 宗道里와 전면의 退柱위로만 장혀를 받힌 굴도리를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납도리를 걸었다. 초석은 막돌초석을 사용하였고 기단은 현재 시멘트몰탈로 마감되어 있다. 창호는 안방과 모방은 띠살문으로, 마래와 정지에는 板長門을 설치하였다.

본 건물은 전체적으로 172년 전에 건립된 古家답지 않게 部材 및 架構의 상태가 양호하다.

사랑채는 안채에 비해 매우 규모도 작고 구조도 열악하다. 규모는 3칸으로 중앙에 사랑방을 두고 양 측면으로 헛간과 외양간을 배치하였다. 사랑방 앞으로는 작은 마루가 있다. 벽체는 죽담구조이며 지붕은 초가다.



배치도(1988년경)

안채는 최근에 기본 목구조만을 남기고 내부를 완전 개보수 했다. 따라서 위에서 기술한 1988년의 내부 모습은 전혀 볼 수 없다. 그러나 전통민가의 현대적 보존 및 활용 측면에서 본 민가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사랑채는 오래전에 헐렸다.

〈1988년 경 건축현황 설명〉



사랑채(1988년경)



안채(1988년경)



안채 전경(2014년)



안채 내부(2014년)

8) 장산면사무소 관사

소재지 : 신안군 장산면 대리

건립연도 : 1960년경

이 가옥은 장산일대에 많은 토지를 기반으로 부를 이룬 장씨 일족의 한옥이다. 현재 상당히 넓은 터에 안채와 문간채 만이 있으나 본래는 당시 부유층 한옥의 필수 건물인 사랑채와 행랑채 등도 있었던 가옥이다. 안채는 본래 작은 규모의 초가였으나 1960년경에 같은 위치에 새로 지었는데 그게 바로 현재의 건물이다, 1960년 경 재축 시 초가였으나 1995년경에 현재의 모습인 기와로 교체하였다.

안채는 정면 6칸, 측면 3칸(전·후면 반칸 퇴 포함)의 팔작집이다. 전퇴에는 모두 툇마루가 놓여있다. 내부는 현재 방(침실) 위주로 무두가 개조가 되어 있어 원 모습을 정확히 찾아볼 수 없다. 우측 3칸은 후면에 조적으로 화장실과 보일러실 등이 증축되어 있다. 툇마루 전면 목창호도 최근에 새로 설치한 것이다. 4각 뿔 구조와 장대석 기단, 도리 아래 장혀 설치 등 당시 이 지역의 근대한옥에서 볼 수 있는 형식이 이 가옥에도 있다.

솥을대문은 2000년에 새로 지은 것으로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1칸이다. 중앙 칸은 문간으로 사용되고 양 측면 칸은 방으로 꾸며져 있다. 맞배지붕 솥을 형식으로 겹처마에 초익공 등 다소 화려하다. 이 한옥은 신안군에서 최근에 매입하여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



안채 평면도



안채 전경



안채 틈간 상부 광창



안채 틈간 상부



문간채 전경

9) 대길리 28-1 민가

소재지 : 신안군 장산면 대리 대리길 28-1

건립연도 : 1903년

대리마을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한옥으로 안채는 안마당 위쪽에 있고 마당 좌우측에는 근래에 신축한 블럭조 창고 2동이 있다. 현 세대주가 2004년에 매입하여 현재 부부가 거주하고 있다.

안채는 1903 (‘光武七年 . . .’ 상량문)에 건립한 한옥으로 현재 지붕은 스테이트로 개량되어 있고 내부도 일부가 생활에 편리하게끔 개조가 되어 있다. 크게 변화된 부분은 마래 1칸을 안방으로 하여 안방이 크게 넓어졌고 아주 작았던 모방도 부엌 쪽으로 키웠다. 그리고 전퇴 좌측 끝에 위치했던 고방도 없애고 기존의 빗마루를 그쪽까지 넓혔다. 창호도 교체했는데 안방의 봉창을 없애고 대신 기존 출입문 크기에 맞춰 띠살문을 달았고 기존의 판장문이었던 마래 전면문도 띠살문으로 교체했다. 현대의 주생활에 맞춰 전통한옥을 크게 개보수 한 것이다.

전면 퇴기둥 도리 아래로 55x45(춤)mm크기의 아주 작은 장혀를 설치한 것이 인상적이며 또한 보아지 설치도 주목이 간다. 이러한 것은 전통 민가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근대풍의 장식이다.



안채 평면도



안채 전경



안채 창호



퇴기둥 상부



안채 퇴간



블럭조 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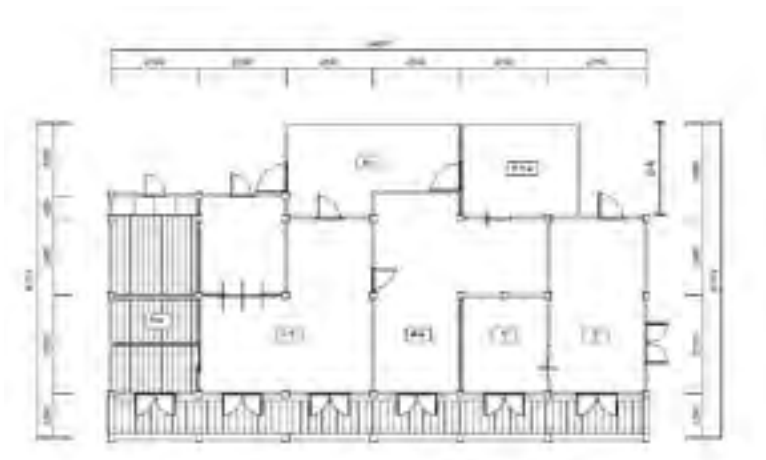
10) 상용길 78-1 민가

소재지 : 신안군 장산면 ○○리 상용길 78-1

건립연도 : 일제강점기

배산임야의 경사지형에 입지한 상용마을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내에서 제일 규모가 크고 돋보이는 한옥이다. 건립은 일제강점기이며 현재 안채와 사랑채가 있다. 팔작지붕의 안채는 본래 일식기와가 올려져 있었으나 근래에 강판으로 교체하였다. 안채는 정면 6칸, 측면 2칸 반의 비교적 큰 규모의 한옥이다. 전면 퇴에는 모두 툇마루가 놓여있고 내부는 좌측부터 마래, 안방, 부엌, 방순으로 꾸며져 있다. 부엌은 현재 입식 부엌으로 개조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이 한옥에서는 부엌 옆의 작은방 등 침실의 설치 형식이 다소 특이하다. 이 한옥은 전반적으로 각 부재의 크기가 다소 크며(170x170mm) 특히 전면 도리가 2중으로 되어 있어 주목이 간다. 4각뿔 초식의 높이는 400mm 이다. 이 한옥은 일제강점기 대지주의 살림집으로 과거 전통형식에서 벗어난 일종의 근대 한옥 이다.



안채 평면도



안채 전경



안채 퇴간



안채 퇴간 도리와 장혀

11) 평진리 빈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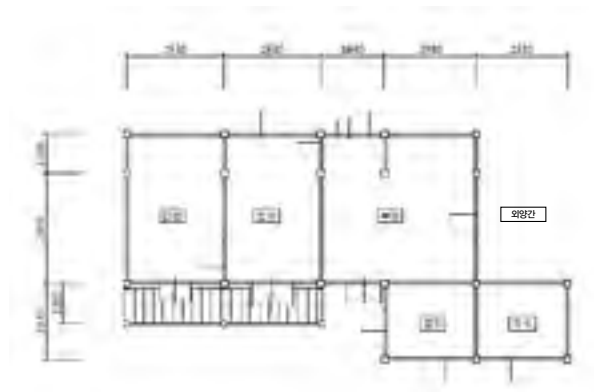
소재지 : 신안군 장산면 평진리

건립연도 : 1914년

이 민가는 현재 상당히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지 않아 내 외부가 많이 훼손되어 있다. 하지만 평면형식이나 구조 등 건축적인 고찰은 가능하다. 오히려 그간 빈집으로 있어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 당시의 원 모습을 볼 수 있다. 민가의 건립은 '大正三年 甲寅八月初二日申時立柱上樑'으로 기록된 상량문이 있어 1914년에 지어진 집임을 알 수 있다. 즉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20세기 초에 지은 한옥이다.

평면 구성은 좌측으로부터 마래, 안방, 정지, 외양간(헛간)이 나란히 드러지고 정지와 외양간 앞으로는 모방과 갓방이 있다. 이 두 방은 전면 퇴기둥 열에서 약간 앞쪽으로 나와 있다. 전체적으로 집의 규모(56.8㎡, 17.2평)는 작지만 침실 3개와 정지 그리고 제사공간과 곡식저장고였던 마래 등 당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실들을 잘 갖추고 있다. 한편 실 배치도 조선 후기 신안 도서지역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비록 건립 시기가 근대화가 시작된 20세기 초였지만 당시 서민들의 주거형식은 전통의 구조를 그대로 따랐던 것으로 여겨진다.

구조는 전·후로 퇴기둥(원주, Ø170mm)을 세우고 안쪽에 이보다 약간 높은 안기둥(방주, 140x140mm)을 세운 2고주 5량형식이다. 보는 춤이 130mm이고 종도리도 100x100mm로 전체적으로 부재의 크기가 작다.



안채 평면도



안채 전경



안채 뒷간



안채 마래 판장문



안채 뒷간 상부(퇴보)

3. 활용방안

전통민가는 오랜 세월동안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삶에 맞게 여러 검증을 통해 완성해 놓은 정주공간이다. 따라서 그 안에는 우리 민족의 동질성이 있고 다양한 유무형의 전통요소가 깃들여 있다. 즉 민가에는 한시대의 총체적 문화가 담겨있다. 이제 완형의 전통민가는 특별한 보존 마을에 있는 문화재 민가를 제외하고는 농어촌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장산도 역시 마찬가지다.

산업화 이후 전통민가는 그 가치가 크게 떨어졌고 심지어는 존재의 의미조차도 찾지 못하게 됐다. 그 이유는 건축 구조적인 측면과 경제성 등에서 이른바 현대식 주택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민가를 일상의 살림집이 아닌 다른 측면으로 자원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전통계승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1) 개별 전통민가의 보존

현재 각 마을에는 초가집은 아니나 내부구조는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집, 특히 빈집이 많이 있다. 이러한 집을 원형으로 복원하여(마을별 2~3채 정도, 또는 2~3개 마을을 묶어 3~5채) 마을의 정체성을 갖게 해 준다. 외지에 사는 도서민이 고향을 찾을 때 텃자리의 의미도 갖게 해 줄 수 있다. 아울러 잠시 찾는 소그룹 외지인에게 임대(숙박업)를 한다.

특히 장산도는 자연경관이 뛰어나 도서관광의 명소로 그 지명도가 다른 도서보다 비교적 높은 편이다. 특히 하절기에는 숙박업소가 크게 부족한 편이다. 바다 냄새가 물씬 나고 깔끔하게 정돈된 전통민가에서의 하룻밤은 또 다른 도서관광의 낭만이 될 수 있다.

1차적 관리와 보수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군에서는 통합관리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 가령 인터넷에서 ‘신안 도서 전통민가 체험’ 만 클릭하면 홍보부터 예약까지 가능하게끔 한다.

2) 집단 전통민가 복원

민가(초가)는 개별적인 건축보다는 집단적으로 있을 때 낙안 민속마을처럼 그 효과가 커진다. 민가는 마을이라는 공동체에서 그 운명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어느 한 마을을 선정, 여러 채의 전통가옥을 민속자료와 함께 복원하여 집단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 이러한 세트는 도시의 전통마을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 교육(초, 중, 고 학생의 교육 캠프)의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그 가능성이 있는 곳은 장산도의 도창과 대리마을을 들 수 있다. 이곳은 아직도 옛 돌담, 공가, 옛 집터 등이 남아 있다.

3) 문화재 지정

전통민가는 민가가 가지고 있는 구조 및 공간적 특성 때문에 개인이 살림집으로 활용하면서 보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치가 있는 전통민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제일 이상적이다. 즉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다. 지정가치가 있는 민가로는 다음과 같이 3가옥이 있다.

- ① 장산면 대리 장산면장 관사
- ② 장산면 대리 22-10 민가
- ③ 장산면 도창리 191. 최00 민가

위에서 제시한 민가 중 ①, ②번 가옥은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근대풍의 민가다. 비교적 규모도 크며 건립 당시의 원 모습을 잘 갖추고 있다. 소위 ‘근대한옥’으로 분류되는 이러한 민가는 이 지역 전통민가와 평면 및 양식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③번 민가는 1828년에 건립된 이 지역 전통민가다. 현재 실 위치와 목구조 등 기본 형식은 원 모습을 잘 갖추고 있고 다만 지붕개량과 올해에 창호를 프라스틱 창호로 교체하였다. 현재 신안 도서에서 200여년 가까이 된 민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원 모습으로 복원이 가능하므로 어느 민가보다 지정 가치가 높다.

IX 관광자원화

강 봉 룡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 도서문화연구원장

- | | |
|---------------|-----|
| 1. 역사의 섬 | 337 |
| 2. 민속예술의 섬 | 342 |
| 3. 장산도의 스토리텔링 | 345 |

IX. 관광자원화

장산도의 관광자원-역사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바닷길의 길목에 자리한 역사와 민속의 섬”

〈사진 1〉 장산현청터



1. 역사의 섬

1) 위치 : 고대 바닷길의 길목

장산도는 바닷길의 길목에 있다. 남해안을 따라 서진(西進)하다가 방향을 바꿔 서해로 올라가는 초입부에 명량(울돌목)이 있고, 명량을 통과하면 곧바로 장산도가 나온다. 장산도는 연안의 '시하바다'에서 신안 다도해(이른바 '다이아몬드군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한다. '다이아몬드군도'를 관통하여 도초도 남쪽 바닷길로 빠져나가면 우이도가 나오고, 여기에서 큰 바다 황해로 이어주는 징검다리 섬 흑산도, 홍도, 가거도 등이 나온다. 따라서 장산도는 국내 연안 바닷길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황해를 횡단하여 중국에 이르는 한·중 바닷길의 길목에 해당한다.

2) 현터 : 다도해의 행정 중심지

이런 위치로 인해 장산도는 고대 다도해 행정의 중심지로 기능했다. 백제시대에 거지산현(居知山縣)이 설치된 이후 통일신라시대에 안파현(安波縣)으로, 고려시대에 장산현(長山縣)으로 개칭되면서 장산도는 고려시대까지 다도해 행정 중심지의 위상을 이어갔다. 안파현의 '안파'는 '파도를 편안하게 한다'는 의미로 바닷길의 안전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있어, 바닷길의 길목에 위치한 장산도의 기능을 연상케 한다. 또한 장산현의 '장산'은 여러 산(오음산, 새양골산, 배미산, 대성산, 부학산, 솔목산 등)들이 열지어 긴 산의 형상을 이루는 장산도의 지형을 본떠 지은 이름이 아닐까 한다.

현터는 대성산 북쪽 산줄기의 북쪽 사면, 장산초등학교 남쪽 100여m 떨어진 산록에 위치한 것으로 비정되는데, 이곳에서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에 걸친 유물들이 대거 확인되어 삼국~고려시대 현터였음을 증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배미산-대성산-용골-공수리-활목'으로 이어지는 약 8km에 달하는 토성이 현터를 에워싸면서 축조된 흔적이 확인되었는데, 현터를 외곽에서 방어하기 위한 고대 관방시설로 판단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장산도는 오랫동안 '다이아몬드군도' 다도해의 행정 중심지였다고 할 것이다.



〈사진 2〉 장산현청터 기와토기편



〈사진 3〉 장산현청터 자기편-장산들노래전수관 소장

3) 고분과 산성 : 백제의 바닷길 관장(管掌)을 위한 중심 거점

고인들은 청동기시대까지 올라가는 장산도의 유구한 역사를 반영한다. 현재는 모두 4기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한 때는 4개군 10여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도창리 백제 황혈식석실분은 백제의 왕족이나 귀족들이 쓰던 고분으로서, 백제가 장산도를 중시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산도 서남단의 다수리에 소재한 대성산성은 황혈식석실분과 세트를 이룬다. 대성산성 주변에 삼국~조선시대에 걸친 기와편들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초축(初築) 시점은 백제시대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백제시대에 일군의 유력 귀족들이 장산도에 파견되어 산성을 축조하고 바닷길의 거점을 사수하는 임무를 수행하였고, 그들이 죽은 후에는 현지에 황혈식석실분을 조영하여 묻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장산도가 백제시대에 서남해 바닷길의 주요 거점으로 중시되고 활용되었음을 의미한다.

황혈식석실분은 장산도의 북쪽에 인접한 안좌도의 읍동과 대리, 남쪽에 인접한 신의도의 상서와 자실 일대에도 산재한다. 특히 신의도에는 수십기의 고분이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장산도를 중심으로 위 아래로 인접해 있는 안좌도와 신의도 등지에 고분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세 섬은 백제가 서남해의 바닷길을 관장하는데 거점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고, 당시 거지산현이 설치되었던 장산도가 마땅히 두 섬을 거느리는 중심 섬이었을 것이다. 대성산성이 장산도의 이러한 위상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장산도가 고려시대까지 명칭을 바꾸어가며 현치(縣治)를 유지했다는 사실은 바닷길의 중심 거점의 위상이 고려시대까지 지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 4〉 도창리 석실고분



〈사진 5〉 대성산성 동벽



〈사진 6〉 대성산성 기와편

4) 공도(空島)가 된 ‘큰 섬’, 장산도

『고려사』와 『세종실록지리지』,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는 고려 말에 섬에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는 공도의 조치가 취해졌다는 기사가 전한다.

거제도로부터 진도, 남해도, 압해도, 흑산도, 장산도 등이다. 규모와 명성에서 남부럽지 않은 섬들이 공도의 대상 섬이었음을 알 수 있다. 거제도와 진도와 남해도는 그 규모가 제주도에 이어 2, 3, 4위에 랭크되는 큰 섬이고, 압해도는 고대에 군이 설치되었던 중요 섬이었으며, 흑산도는 한·중 바닷길에서 반드시 경유해야 했던 섬이었다. 그 사이에 장산도가 끼어있는 것이다.

이는 장산도가 당시 이들 섬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중요 섬이었음을 방증한다. 이는 바닷길의 주요 길목으로 기능하였고, 백제, 통일신라, 고려시대에 다도해 행정중심지였던 장산도의 위상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사례이다.

장산도 사람들은 ‘나주 남쪽 20리’로 집단 이주 당했다고 한다. 그곳은 그 위치와 명칭에 따라 오늘날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로 비정되고 있다. 신안군 장산면과 나주시 왕곡면 사이에 역사적 인연을 매개로 특별한 미래 관계의 설정을 구상해 보아도 좋을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흑산도 사람들이 영산포로 집단 이주되었다는 역사적 인연이 흥어의 생산지(흑산도)와 소지비(영산포)라는 특별한 관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5) 제안 : 장산도 역사의 길 조성

이상의 스토리를 기초로 하여 ‘걸어서 찾아보는 장산도 역사의 길’ 조성을 제안한다.

2. 민속예술의 섬

1) 위치 : 해남 및 진도와의 문화적 친연성

장산도는 해남 화원반도와 진도 사이의 협수로인 명량(울돌목)의 서북쪽 입구에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장산도와 해남 화원 및 진도 간에는 문화적 친연성이 높게 나타난다. 장산도 서남단에 위치한 부속섬 마진도에 말바위가 있는데, 해남 화원에서 말이 건너와서 바위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한다. 또한 장산도는 신안군에서 민속예술이 가장 발달한 섬이기도 하여, 민속예술의 섬으로 유명한 진도와의 문화적 친연성을 보여준다.



〈사진 7〉 마진도 말바위

2) 장산들노래 : 풍요로운 ‘큰 섬’의 상징

장산들노래는 1981년 제12회 남도문화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그 이듬해에 제2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1988년에는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되어 보존·전승해야 할 소중한 문화자원

으로 관리되고 있다.

장산들노래는 논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동요의 일종으로 ‘모찌기노래’, ‘모심기노래’, ‘논매기노래’, ‘길꼬내기’로 구성되어 있다. 농사와 관련된 노동요가 의외로 장산도라는 섬에서 훌륭하게 전승되어오고 있는 것 자체가 흥미롭고 기특하기까지 하다. 뭔가 사연이 있음직하다.

인접한 신안의 다른 섬들은 간척을 통해 여러 섬들을 연결하면서 큰 섬이 되었지만, 장산도는 원래 큰 섬이었다. 섬 사방에 여러 산들이 연결되어 ‘긴 산’을 이루어 ‘장산’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장산도의 중심지인 대리와 도창리 일대는 산으로 둘러싸여 분지의 지형을 이루고 있다.

그 분지가 자연농지를 제공해 주고 상대적인 풍요를 가져다주었다. 여기에 고려시대까지 다도해의 행정중심지의 역할을 담당해 온 그 위상까지 염두에 둔다면 장산도는 오랫동안 경제적, 행정적으로 ‘큰 섬’이었음을 알 것이다. 이러한 장산도의 자연환경과 역사 전통이 들노래라는 농사 노동요의 풍류를 낳고, 지속시켜온 배경이 되지 않았나 한다.



〈사진 8〉 장산들노래전수관 외부



〈사진 9〉 장산들노래전수관 내부

3) 제안 : 진도군과 ‘섬 민속예술 공동체’ 결성

장산도의 민속예술은 신안군에서 최고봉을 이룬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장산들노래(무형문화재 21호, 1988년)와 장산씻김굿(전남 무형문화재 52호, 2013년)을 위시
로 하여 건굿, 하중발매기노래, 길쌈노래 등이 저명하다. 뿐만 아니라 장산도에는 리
단위로도 다양한 민요가 전승되고 불려지고 있다.

(김진오, 『장산도의 민요와 민속』, 참글문화, 2013 참조)

장산도 민속예술은 공수리 마을의 기능보유자 강부자를 중심으로 전승이 이루어지
고 있고, 진금순, 박금단, 윤순심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신안군은 이를 지원하기 위
해 2002년에 <장산들노래 전수관>을 개관하여 장산도의 다양한 민속예술을 전수하고
시연하는 중심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안군 차원에서 장산도 민속예술을
장려하고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신안군과 진도군이 행정구
역을 넘어서서 해역을 아우르는 공동체의 결성을 제안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진도군은 섬 민속예술의 보고이다. 진도 상장례를 구성하는 씻김
굿, 다시래기, 만가의 3중 세트를 위시로 하여, 강강술래, 진도아리랑, 진도북놀이,
남도들노래, 남도잡가, 조도 닷배노래 등 다양한 진도 고유의 민속과 민요가 다채롭
게 펼쳐진다. 이들은 모두 국가 혹은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진도는 민속예술 공연을 연행하는 공간도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다. 1984년에 무형
문화재 전수관이 설립되었고, 1986년에는 진도군립민속예술단조례가 제정되어 진도
군립민속예술단이 공연활동을 전개해왔다. 그리고 1997년에는 진도향토문화회관이
준공되면서 매주 토요일 ‘토요민속여행’이라는 공연을 상설화하여 관광객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던 차에 2004년에 진도에 국립남도국악원이 개원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남도의 민속음악을 연구하고 공연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리(里) 단위로 민속 공연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특히 ‘소포리 노래방’
은 저명하다. 소포리 주민들은 틈나는 대로 노래방에 모여 민속예술을 배우고 즐긴
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관광객들과 함께 마을회관의 사랑방에서 민속공연
을 펼쳐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해창리에도 리 단위의 민속공연을 하는 공
간이 있다. 아마도 진도는 국립과 군립 뿐 아니라 이립(里立)의 민속공연장까지 갖춘

유일한 곳일 것이다. 한국 민속예술의 본향이라는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닌 셈이다.

중앙 정부는 2013년에 진도군을 ‘민속문화예술특구’로 지정하여 여러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신안군은 장산도를 진도군의 ‘민속문화예술특구’에 편입시켜 ‘섬 민속예술 공동체’로 발전시키는 것을 적극 모색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장산도는 진도 서북방에 인접한 동일 해역에 위치하여 장산도와 진도 사이에는 문화적 친연성이 유독 강하다. 문화예술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서야 사는 법이다.

3. 장산도의 스토리텔링

1) ‘칠성암’이라 불리는 지석묘

장산도 대리의 대신터에 지석묘 1기가 남아 있다. 이전에 7개의 지석묘가 모여있어 ‘칠성암’이라 불렸으나 지금은 1기만 남아 있다는 전승이 전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승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는 없다. 누구도 없어졌다는 6개 지석묘를 목격한 이는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상적 추리가 가능하다. 이 지석묘는 언제부턴가 ‘칠성암’으로 불렸고, 그리고 이후 언제부턴가 ‘칠성암’이라는 이름 때문에 7기의 지석묘가 있었다는 전승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7기의 지석묘가 있었다는 전승이 허구라고 한다면, ‘칠성암’은 대신터에 있는 1기의 지석묘만을 지칭하는 이름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지석묘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흥미로운 몇 가지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장축 방향이 동서로 되어 있는 이 지석묘의 남쪽 아래에 자그마한 별도의 판석이 매립되어 있어 지석묘에 딸린 작은 상석(床石)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 지석묘의 정북쪽에 새양골산이 위치해 있어, 판석과 지석묘와 새양골산이 정확히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서 상상력을 한 번 더 발휘하여, 지석묘가 있는 대신터에서 정북에 위치한 새양골산 위에 나타나는 북두칠성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은 착안해 보자. ‘칠성암’이라는 이름은 여기에서 연원한 것은 아닐까?



〈그림10〉 남북으로 배열되어 있는 대신터의 지석묘와 판석과 새양골산

북두칠성은 북쪽 하늘에 고정되어 있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방 하늘에서 일주하는 국자 모양의 7개 별을 지칭한다. 북두칠성은 민간에서 가문의 번영 및 만사형통과 풍년을 가져다주는 칠성신으로 모셔지곤 한다. 참고로 민간 무속의 일환으로 행해진 칠성신앙의 사례를 소개한다.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 편』, 2010.11.11)

「칠성신에게 치성드리는 제주(祭主)는 집안의 주부로, 주로 할머니들이 맡고 있다. 일반적으로 칠성을 모시는 곳은 뒤뜰 장독대인 경우가 많다. 제사는 칠월칠석 밤에 지낸다. 제장(祭場)에다 돛자리를 깔고 그 위에 백설기를 담은 떡시루와 정화수 한 그릇을 놓는다. 가끔 사발에 백미를 떠 놓기도 한다. 그런 다음 촛불을 밝히고 제주가 동서남북을 향해 네 번 또는 일곱 번씩 절을 하고 나서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축원하고, 식구 수대로 소지장(燒紙狀)을 올린다. 경북 안동시 도산면 의촌리에서는 뒷마당 장독대 옆의 큰 돌 위에 물을 담은 사발을 얹어 놓고 이를 칠성이라고 한다. 가족 중에 여자들이 매일 정화수를 떠다 갈아 넣고 아침 일찍 물을 길으러 간다. 이때 남이 푼 다음의 물은 안 된다. 전남 고흥군 나로도의 무녀 박신녀(당시 63세)는 장독대에 높이 75cm의 대나무를 세우고 윗부분을 부챗살처럼 쪼개어 퍼서 그 위에 뚜껑을 덮은 그릇을 얹어 놓고 묶어 놓았다. 이를 칠성이라고 한다. 매월 7일, 17일, 27일 아침에 주부가 목욕재계하고 정화수를 길어다 부으며, 자손들을 위해 북두칠성님께 기도한다.」

그렇다면 대신터의 지석묘는 장산도의 민간차원에서 칠성신앙이 행해지던 신성한 장소였을 가능성이 크다. 새양골산에 북두칠성이 뜨는 날, 마을 부녀자들이 제수를

마련하여 그 지석묘(이제 ‘칠성암’이라 부르기로 하자)에 진설하고 북두칠성을 향해 마을의 번영과 가정의 평안을 비는 치성을 드렸을 것이다.

그리고 보니 ‘대신터’라는 이름도 심상치 않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대신터’를 현이 설치되었던 고려 이전의 역사와 결부지어 현청에 근무하던 관리(‘大臣’)들이 살던 곳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다. 이는 장산도 역사에 대한 이해가 상당한 경지에 이르러야 추리 가능한 생각이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장산도는 고려 말에 공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려 이전의 역사가 민간에서 전승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현청의 관리가 살아서 ‘대신(大臣)터’라 불렀다는 생각은 성립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대신터’는 ‘대신(大神)’이 머무르는 신성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까? 이 경우 ‘대신’은 무속 사설인 성주풀이의 시작부에 나오는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의 ‘대신(大神)’과 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청동기시대의 지석묘가 조선시대에 마을의 칠성신앙이 행해지는 ‘칠성암’으로 재활용되었고 그 일대는 신성구역인 ‘대신터’라 불리며 전승해 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북두칠성이 떠오르는 ‘새양골산’ 이름의 의미가 새삼 궁금해진다.

2) ‘안편발음도(安便發音島)’의 이순신 이야기

『난중일기』에 의하면 이순신은 1597년 9월 16일 명량해전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 10월 11일부터 28일까지 18일간 안편발음도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이곳을 장산도에 비정하고자 한다.

12척의 함선으로 300여척의 적선을 격퇴한 명량해전의 승리는, 이순신 스스로 ‘천행(天幸)’이라 표현했듯이 기적이었다. 이순신은 명량해전에서 승리를 거둔 직후에 작전상 후퇴를 명한다. 여전히 수백 척의 적선이 배후에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벌면서 적의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16일 당사도(암태도의 부속섬), 17일 어외도(지도), 19일 칠산, 법성포, 홍농, 20일 위도를 거쳐 21일 고군산도에 이르러 10월 2일까지 이곳에 머물렀다. 그리고 적의

동태를 살핀 후에 10월 3일 새벽에 고군산도를 출발하여 변산, 법성포를 거치고, 4일 입치, 8일 어외도를 거쳐 9일 우수영에 이르렀다. 그리고 여기에서 적의 동태를 보고 받고서 마침내 11일 안편발음도로 들어가 29일 목포 보화도(고하도)로 옮기기까지 18일간 이곳에 머물렀다.

이순신은 안편발음도 주위의 지형에 대하여 “육상에 내려 산마루로 올라가서 배 감출 곳을 찾아보니, 동쪽에는 앞에 섬이 있어 멀리 바라볼 수 없고, 북쪽으로는 나주와 영암 월출산으로 뚫렸으며, 서쪽에는 비금도로 통하여 눈앞이 툭 트였다”고 묘사하고 있다. 일찍이 안편발음도에 대하여 그 발음의 유사성으로 안창도와 팔금도로 비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안창도와 팔금도에는 이순신의 수군이 18일이나 머물렀던 시설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이 약점이다.

반면 장산도에는 서남단에 위치한 대성산에 등직한 산성의 시설이 남아있다. 대성산성에는 삼국~조선시대의 기와편들이 산재해 있어, 삼국시대 이래 사용되던 산성을 조선시대 수축하여 재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순신이 주위의 지형을 둘러본 곳이 바로 이 대성산성이었을 것이다. 대성산성의 동쪽엔 노루섬, 굴배섬, 백야도, 마진도 등의 섬이 중첩되어 있고, 동북쪽으로 나주와 영암 월출산으로 통하며, 서북쪽으로 비금도를 향해 트여있어, 이순신이 묘사한 주위의 지형과 흡사하다. ‘안편발음도’의 이름 역시 장산도와 연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일찍이 통일신라시대에 장산도는 ‘안파현(安波縣)’으로 불렸으니 안편도와 유사하고, 장산도에 ‘오음(五音)’ 마을이 있어 발음도와도 통한다.

이곳에 머물던 10월 14일 이순신은 그의 막내 아들 면이 전사했다는 비보를 전해 듣고 대성통곡을 한다.

그는 『난중일기』에 그의 비통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하늘이 어찌 이다지도 인자하지 못하는가. 간담이 타고 찢어지는 것 같다.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거늘, 내가 죽고 내가 사니 이런 어그러진 이치가 어디 있는가. 천지가 캄캄하고 해조차 빛이 변했구나. 슬프다, 내 아들이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남달리 영특하여 하늘이 이 세상에 머물러 두지 않는 것이냐. 내 지은 죄가 네 몸에 미친 것이냐. 내 이제 세상에 살아 있어본들 앞으로 누구에게 의지할고.

너를 따라 같이 죽어 지하에서 같이 지내고 같이 울고 싶건마는 네 형, 네 누이, 네 어머니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 아직은 참으며 연명이야 한다마는 마음은 죽고 형상만 남아 있어 울부짖을 따름이다. 울부짖을 따름이다. 하룻밤 지내기가 일년 같구나.”

이런 극단의 비통 속에서도 이순신은 전라·경상 해역의 지휘관으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으며 다음 단계의 작전을 구상하였다. 그리고 10월 29일 마침내 ‘바람을 막을 만하고 배를 감추기에 알맞은’ 보화도(현 고힌도)로 옮겨 107일 간 겨울을 나며 다음 전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장산도, 특히 대성산성은 명량해전의 극적 승리 이후 작전상 후퇴를 거듭하던 이순신이 처음으로 안거하면서 작전을 구상했던 의미있는 유적으로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여기에서 문득 장산도의 대성산성과 이순신의 대성통곡이 무언가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사진 11》 대성산성에서 내려다본 따도해

3) 도창리 노거수림 이야기

장산도 도창리 노거수림은 1987년 1월 15일 전남 기념물 제100호로 지정될 정도로 저명한 섬 마을숲(해도림, 海島林)이다. 이 마을숲은 마을 동편에 북동-남서 방향으로 350여m, 폭 36m, 면적 3,467㎡로 띠형으로 되어 있는데, 팽나무 60주, 주엽나무 9주, 곰솔나무 5주, 가죽나무 5주, 예덕나무 3주 등 이곳 토착의 고유수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마을숲은 방풍림의 일종으로 보인다. 장산도의 중심지인 대리와 도창리는 토미산, 새양골산, 배미산, 대성산, 부학산 등의 여러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안옥한 섬 분지의 지형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마을 동북쪽의 토미산과 부학산 사이가 바다를 향해 트여있어 바람의 피해가 예상된다. 지금은 간척으로 인해 트여있는 두 산 사이에 도창들이 형성되어 있고, 도창들은 다시 동쪽으로 더 넓은 간척지인 왓사지들로 연결된다. 따라서 이 마을숲은 허전하게 트여있는 마을 동북쪽을 막아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도창리 노거수림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이야기도 전한다. 먼저 왜구의 노략을 막기위해 조성했다는 이야기다. 마을에 양곡보관 창고가 있었는데, 이를 은폐하여 왜구가 노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장 숲으로 조성했다는 것이다. 다음에 풍수지리설에 따라 조성했다는 이야기다. 도창마을은 솔의 형국이고, 배미산은 말(斗)에 곡식을 가득히 부어놓은 형국이고, 마을의 앞 저수지는 식수를 의미하고, 저수지 옆 주걱머리는 밥구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배미산의 쌀을 저수지 물로 씻어서 마을의 솔에다 밥을 지을 때 필수적인 것이 쌀감이므로, 쌀감을 상징하는 숲을 조성해야 마을이 번창하리라는 풍수지리설에 따라 조성했다는 것이다.

도창리 노거수림은 조성된 지 오래되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어 인상적이다. 조성 목적을 둘러싼 이야기들도 흥미롭다. 장산도의 생태문화적 명물로 삼기에 충분하다. 근래에 전라남도 차원에서 해도림의 보존과 활용에 관심이 많다. 이에 부응하여 도창리 노거수림을 전남의 대표 해도림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보존과 활용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사진 12》도창리 노카수림

4) 장병준 가문 – 대한민국 5대 명문가 이야기

장산도의 인동장씨 가문은 흔히 우리나라 5대 명문가의 하나로 꼽히곤 한다. 1세대는 장병준(독립운동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정원 의원), 장병상(독립운동가), 장홍재, 장홍염(제헌국회 의원) 등이고, 2세대는 장정식(전남대 의대교수), 장충식(한국닉스 대표이사), 장영식(뉴욕대 교수, 한국전력 사장), 장재식(3선 의원, 산업부장관) 등이다. 그리고 3세대는 장하중(조선대 의대 교수), 장하진(여성부 장관, 충남대 교수), 장하성(고려대 교수), 장하경(광주대 교수), 장하원(KDI교수, 열린우리당 정책실장), 장하준(캠브리지대 교수), 장하석(런던대 교수) 등이다.



〈사진 13〉 장병준 생가 솟을대문

이렇듯 3대에 걸쳐 한국 정계, 재계, 학계 등에서 화려한 활동을 지속해가고 있는 가문은 매우 드물다. 더욱이 그 명문 가문이 장산도에 뿌리를 두고 일어났다는 것은 더욱 인상적이고 이례적이다. 신안군은 장산도 인동장씨 가문을 명문가의 반열에 올린 포양 장병준(1893~1972) 선생의 선양사업에 나섰다. 생가를 중심으로 기념관을 건립하고 장학회 설립, 학술회의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명문가가 장산도에서 나올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장산도가 바닷길의 길목에서 다도해의 행정중심지로 기능했던 옛 역사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사진 14〉 장병준 생가 안채

부 록

- | | |
|----------------------------|-----|
| 1. 장산면 신문기사 자료 | 356 |
| 2. 장산면 구비문학 자료
(설화, 민요) | 368 |

부 록

1. 장산면 신문기사 자료

1934. 4. 16

長山體育會 創立 陳容을 全部 整齊

무안군 장산면(務安郡 長山面)에서 청년 김인석 최남기 등(靑年 金仁錫, 崔南其 等) 수명의 발기로 장산체육회 창립총회(長山體育會 創立總會)를 지난五日 상오 十시 장산공보교 강당(長山 公普校講堂)에서 개최하고 장후염(張候○)씨 사회하에 취지 설명을 맞춘 후 회칙은 원안내에 통과하고 임원 선거(任員 選舉)에 드러가 래수공전에 의하여 투표(投票)로서 선거한 바 부서(部署)는 아래와 같다고 한다. [중앙일보]

任員
委員長

1935. 2. 8

務安各島에 麻疹 猖獗 現在 患者 八百餘名

보통학교에서도 휴학 중, 患者 中 死亡者 續出

지난 一월부터 전남 무안군(全南 務安郡)관하 각도여(各島嶼) 방면에 마진(麻疹)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一개월 미만에 판명된 환자가 八백五十여명에 달하여 당국에서는 극력으로 예방에 노력중이나 날로 만연되어 가는 형편이라는데 더욱 심한 곳은 흑산도(黑山島)로 이병환자(異病患者)가 五백七十二명 중 보교생도(普校生徒)가 七十명이나 전염되어 휴교중이고 장산면(長山面)에 二백명, 압해도(押海島)가 十명, 암태도(岩泰島)가 十六명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므로 인심이 매우 흉흉하다고 한다. [동아일보]

1936. 2. 25.

災地 長山面民大舉

面所에 殺到肉迫

旱害救濟策講究絶叫

전남무안군장산면(務安郡長山面)에서는 지난십륙이레 각구총대이백여명이 동면사무소에회합하여 한재구제(旱災救濟)방침을 군당국에서 벌서수립하였슴도 불구하고 구제사업이 업을분개하여 면당국에 책임을 질문하는동시에 면사업에관여하는 직무가있는 면공직자의 무성의를 규탄하고 총사직을 권고하는일면 도당국에 진정하기로 결정하였다는데 사건의내용은 장산면(長山面)경작지는 논이삼백여정보와 밭이륙백여정보인데 이를생명의토대로하고 생활하는 면민이 사천여명이라한다. 이들은 작년한재로인하여 미식부담(未植付答)칠백여정보이외에 심으고도 수확이업는논이 일백사십여정보로 지세(地稅)칠백칠십오원에서 면세(免稅)가 오할팔부에 해당한 사백팔십구원으로 지난일월십일일에 무안군당국은 면장회의를열고 한재구제에 대하여 근본방침을 토의한결과 제언보(堤堰淤)등의 수축으로 구제책을세운바 장산면에잇서서는 이러한구제방책이 업는 것은 면당국과 면공직자의 무성의라하여 회장은 대소동에빠져섯는데 면민들은 자기주장을 관철하기위하여 좌기의 진정위원을 선출하였다한다. **[조선일보]**

• 陳情委員—張東仁, 張洪○ 金○結 郭亨采 朴寅植

1938. 3. 4

面民의 一致 協力하여 禁酒斷行을 決意

年二萬餘圓 節約金은 愛國貯金, 務安郡 長山面에서

무안군 장산면(務安郡 長山面)에서는 경제전 강조주간(經濟戰 強調週間) 중 면민의 생활개선을 타협한 결과 쓸데업시 낭비한 돈을 한면에 할당된 애국자금(愛國貯金) 삼인당 천원에 할당하기로 하여 국민정신총동원 장산련맹의 결정식당은 음주(飲酒)의

폐풍에 착안되어 동부락에서 일년간을 감으로 만저지는 돈 전부 금주하고 관혼상제(冠婚喪祭)에 대한 예향도 고려하여 농업자의 자발적 협력을 요망함과 국체에 군 융합은 황국신민의 요구라하여 면전부는 급수하기로 서약(誓約) 하얏다한다. 조선내에서 처음되는 금주권(今週圈)이 출현하게 되어 농촌의 추후 인식철저를 보인 것이라 한다. 짚아서 농촌생활에 입신양면을 주부하여서 일반인사층은 좋은 매우 주목을 하고 있다. [매일신보]

1940. 1. 26.

智島, 長山에도 痘患者

十五名中 三名 死亡

木浦署서 防疫에 全力

무안군내(務安郡內)에 안좌(安佐)에 천연두 발생으로 비금 지도(飛禽 智島)에 각각 전파되었다 함은 누누보한 바와 같거니와 요새 장산(長山)에도 천연두환자를 내게 되었다. 지난 二十三일 지도면 선도(智島面 蟬島)에 환자 十二명을 내었다는데 그 중 三명은 이미 황천의 길을 찾고 三명은 정지괴 되었으며 六명은 아직도 병상에 누워 치료 중이라며 장산면 오룡리(長山面 五龍里)에 三명의 진성환자가 발생하였다고 목포서에 급보가 있어 응급처치와 일체로 환자의 격리 소독 교통차단에 주의하라는 회답을 보내었다. [동아일보]

1940. 1. 30.

智島面 蟬島에도 痘禍

三十一名中 三名 死亡

木浦署 交通遮斷코 種痘施行

지난 十일 전남 무안군 안좌면(全南 務安郡 安佐面)에서 천연두(天然痘)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삼시간 불뚱이 튀듯 퍼지는 두화(痘禍)는 어느덧 장산(長山) 비금(飛禽) 암태(岩泰) 지도(智島) 압해(押海) 각면에 만연하여 일반 주민보건에 일대 위협을 끼쳐 전전공공하는 차제 또다시 지난 二十三일에 지도면 선도(智島面 蟬島)에서 환자 三十一名이 발생하여 그중 三名은 사망하고 대부분은 위험상태에 빠져 있다. 방역에 부심하는 목포서(木浦署)에서는 위생계주임이 계원을 대동하고 각면 발생지에 十여일 간을 순회하여 불○불위 검병하는 일방 지도와 선도간, 목포와 선도간 교통을 차단하고 종두를 실시할 중이러는데 목포서에서는 두묘(痘苗) 二만인분을 주문하였으나 아직 도착되지 않고 연일 발생하여 대량적으로 환자를 내게됨으로 매우 불안중에 있다고 한다. [동아일보]

1948. 7. 17.

多島海가 尤甚

颱風被害로 食糧難에 直面

지난칠일 호남지방을 엄습한태풍피해는 구후조사가 진행함에다라 점차전모가 나타나고있는데 그중에도 패풍의피해가 심한곳은 다도해(多島海)의 여러섬으로 가는곳마다 제방이 결괴하고 바닷물이 침수하여 논에는모가 소곰에말려죽고 염전(鹽田)은 간 곳없이 파괴되었다고한다. 이와같이 피하기 심한관계로 다도해의 섬들은 현재식량란에 직면하고있는데 그중에도 장산도(長山島)의 참상은 가장심하여 현재까지판명된것만도 다음과같다.

즉장산도내의 제방이 이번태풍으로 십여개소가 파괴되어 수전면적의 三분지二에 해당하는 二백여정보에 조수가밀러들었을 뿐않이라 싸허두엇든 하곡八백여석이 침수하여 그중四백석이 유실하였다는 것이다. 이와동시에 소곰 二천여가마니가 물에녹아 버리고 二二호의 가옥침수와 선박二척이 파괴되었다고한다. 그리고 제염용(製鹽用)

장작의 유실과 제염장의 파괴도 막심한데 특히 다수공수팽진(多水公需彭津)등 각동리가 가장심하여 밭곡식마저 전멸상태에 빠져금년도 하곡수집은 말할것도없고 금후의 식량사정마저 우려되고있다고한다. [조선일보]

1955. 8. 17.

劉議員 聲討大會

木浦驛前 廣場에서

務安乙區 출신 劉옥우 민의원의 모종 부정사실을 알게된 무안군민들은 지난 12일 지도면을 비롯하여 임자·하의·장산·안좌·암태·자은·도초·비금등 각면 선거 유권자들이 劉의원 소환 성토대회를 개최하였다하며 그 이튿날 13일에는 각면 대표가 또 다시 목포역전 광장에 모여 [反動민의원 劉옥우 召喚 務安乙區 郡民大會]를 개최코 유의원이 무안일대의 염전을 전부 자기것이라고 허위 문서를 날조하여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받아 임의로 유용한 것을 비롯하여 모은행과 결탁코 다액의 부정대부를 받은 사실 그리고 병역기피자를 은신케하여 노자를 착취한 사실등을 지적하여 유의원을 즉시 국회로부터 소환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자유당총재, 민위원의장, 내무·법무 장관에게 각각 메시지를 보낼 것을 촉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대회가 끝난 유권자들은 '당국은 유의원을 조속 처단하라'고 절규하면서 시위를 하였다는바 경찰에서는 유의원 가택을 보호하고 시위군중을 제지하여 공기를 완화시켰다고 한다. [전남일보]

1960. 9. 2.

提防이 崩壞

長山面民들 困境

(木浦)무안군 장산면 다수리의 多水제방은 전장 941미터나 되는데 이번 칼멘태풍과 아우러 폭우로 840미터의 제방이 무너져 7천주민들은 생활근거를 잃고 空手仰天 지경에 있다. 장산면민들은 주로 방대한 多水제방으로 90정보의 몽리면적에 생활토대를 두고있는 실정인데 이번 태풍과 폭우로 840미터의 제방이 무너져 주민들은 생활 자치 능력을 잃고 앞으로의 생활영위에 탄식만 하고있다. 동제방의 길이는 너무나도 방대하여 면민들의 재력으로는 도저히 제방구축을 할 수 없다는데 당국의 많은 협조가 요청되고 있다. [전남일보]

1963. 10. 11.

孤兒들의 安息處

五音里서 『뽕엘』 自活定着場 마침내 起工

3個年計劃으로 50萬坪 마련

(務安郡長山面五音里 木浦駐在李世永特派員發)부모형제를 잃고 불우하게 자라난 고아들을 위하여 목포시 구생영아원 河大熙원장의 주선으로 무안군 장산면 오음리와 진삼사이에 있는 간척지를 「뽕엘」자활정착장으로 칭하고 간척공사 기공식을 8일 상오 11시 30분부터 현지에서 성대히 올렸다. 동정착장 간척공사는 3개년 걸릴 예정으로 2천8백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전기 五音리와 긴섬간 995미터의 제방을 막음으로써 약 50만평의 간척지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230세대가 살수 있는 주택과 전답이 마련된 것이다. 이날 동간척공사 기공식장에는 중앙에서 기독교아동복지회 한국지부장 高乙洙씨를 비롯하여 沈得珉 미국선교사와 朴在昌 平南지사 그리고 전남도 高光洙사회과장과 務安군수 그밖에 많은 내빈과 목포시내 각후생시설 단체대표들 약3백여명이 참석했다. 기공식은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가 있은후 간략한 기독교식 예배가 있었다. 그리고 河大熙씨의 개회사와 경과보고가 있은후 전남도지사를 대리해서 高사회과장은 치사를 통하여 ‘이 자활정착지가 연장고아들을 위하여 장차 복된 자리가 되도록 빈다’ 고 말했다. 그리고 金무안군수는 ‘무안군 관내 長山면에 마련된 이 연장고아들의 자활정착지가 영구토록 안식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라는 요지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 목포시 번영회장 車南鎭씨의 축사가 있은다음 각내빈들의 테푸

절단과 初入土 그리고 기공이 시작되는 세밭의 밭파가 끝난다음 만세삼창으로 기공식의 막을 내렸다. [전남일보]

1969. 5. 3.

新安. 務安農協

新設. 移轉식

(木浦)신안군 농협 신설과 무안군 농협 이전식이 1일 오전 11시 신안군 농협 청사에서 군내 각관계자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신안·무안군 농협의 영업은 신안군은 시내 창평동 구청사에서 무안군 농협은 무안군 무안면 성내리에서 1일을 기해 업무를 개시했는데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전남일보]

- 신안군농협 = 목포시 일원과 신안군 압해면, 지도면, 임자면, 자은면, 암태면, 안좌면, 비금면, 도초면, 흑산면, 장산면, 하의면.
- 무안군농협 = 무안군 삼향면, 일로면, 몽탄면, 청계면, 무안면, 현경면, 망운면, 해제면.

1970. 10. 4.

施策확인. 특수사정 發掘위해

新安郡서 移動郡廳

신안군은 군시책 침투와 지역주민의 특수사정을 발굴 해결키위한 일환으로 6일부터 12일까지 각면에 이동군청을 신설한다. 1~2반으로 편성된 이동군청 임원은 1반=군수 수산 산업 공보실장과 행정 세정 농지계장, 보건소장, 지도계장으로 편성 6일 지도면 7일 임자면 8일 자은면 9일 암태면 10일 흑산면으로 이동하며, 2반=내무 재무

건설과장과 농지 어정계장,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사무장등으로 편성 6일 도초면 7일 비금면 8일 안좌면 9일 하의면 10일 장산면으로 이동하며 압해면은 5일에 1~2반을 합동으로 이동군청이 신설된다. 이동군청은 특히 주민의 원성을 청취, 이해 및 해결하여 군정 수행의 원활을 도모한다. [전남일보]

1970. 11. 20.

長山韓牛단지 完成

草地20헥타에 60頭入殖

새해부터는 옥수수 심어 飼料

신안군은 5백24만4천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장산면 평진리에 한우 60두를 입식 단지조성을 완성했다. 지난 4월에 착공 9월말까지 한우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용자금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담보물 제공이 늦어 10월21일에 사업을 완성하였는데 급수시설등을 시설하여 한우 60두를 입식시켰다. 현지 주민들이 2천5백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사료수급을 위해 71년도부터 옥수수를 심을 계획으로 있어 사업성과에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전남일보]

1971. 12. 25.

新安郡長山面 일부

珍島郡編入 진정

신안군내 일부 부락민들은 행정구역이 진도군에 가까운데 거리가 먼 신안군에 속해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행정구역의 개편에 대한 호소를 하고있다. 이들의 호

소에 의하면 신안군 장산면 저도는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까지 2.2km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이보다 10여km나 더되는 장산면에 속해 있으며 우편물도 진도군 지산면 우체국에서 배달 받고 있다는 것. 또한 25호에 143명이 사는 장산면 울도의 경우 진도군 군내면 나의리까지 4.2km인데 1.3km가 먼 장산면 사조리에 속해있어 일부 주민들은 호적과 땅까지 옮기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일보]

1977. 5. 19.

舉郡的 落島電化推委구성

事業可能확정 通報따라

17섬에 鐵塔 34개 세워

신안군관내 安佐권 전화사업이 한국측의 기술적 분석끝에 섬과 섬에 첩탑을 세워 송전선을 연결 전화사업이 가능하다는 확정통보가 됨에따라 거군적으로 전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군에 따르면 농어촌 전화사업으로 실시하게될 이사업이 안좌면 과 암태·자은·하의·장산·비금·도초등 7개면내 17개섬에 34개의 첩탑을 세워 압해면에서 송전선을 연결하게 된다는 것. 대상호수는 16,045호이다.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토록 하기위해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군민을 대표하여 관계요로와 적극적인 교섭을 벌이게 된다. 구성된 위원은 다음과 같다. [전남일보]

- 고문 = 姜起千, 崔英喆, 金敬仁, 朴日出, 金永斗, 朴越信
- 위원장 = 鄭根燦(통일주체국민회의 신안군출신대표 대의원)
- 부위원장 = 徐信培(군자문위원) 黃良男(都草출신대의원) 金福洙(농조 군조합장)
- 위원은 崔哲根 朴鍾南 李在南 李民錫 金權彬 崔玉天 鄭求相 金鈴仁 黃圭年 姜柱遠
(이상 통일주체대위원)
李百幸(농농협장) 金宗一(군수협조합장) 崔進明(군산조장) 全國祥(마을금고군지회장)
趙東均(서울신문기자) 金玉採(전남일보기자)
- 간사 = 裴日斗(군산업과장)

1980. 3. 11.

海苔綜合加工공장 建立

流通購買개선…價格 暴落막아

年中3萬5千餘束 생산

新安郡 長山里 오음리에

부족한 농어촌 인력을 줄이고 품질을 높여줄 해태가공공장이 신안군 장산면 오음리에 들어선다. 長山물산은 총사업비 1억1천만원을 투입, 대지 922평에 93평의 건평규모로 냉동냉장시설과 건조·채취·탈수·절단등 해태가공종합처리 시설을 갖춘 어촌새마을공장을 오는 5월 착공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11월 가동을 서두르고 있는 해태가공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연중 3만5천속을 생산 유통구매를 개선하고 가격폭락을 막아 양식어민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한편 농한기 유희노동력을 흡수해 고용증대를 꾀하게 된다.

특히 해태종합가공공장이 들어서게될 장산면 오음리 해역은 영산강 육수와 바닷물이 합류되는 지점으로 해태양식에는 최적지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일보]**

1981. 7. 9.

新安 大宇병원 運營難에

血液購入難…患者 綜合병원 기피로

(新安)신안군 비금면 水大리 송치마을에 있는 신안 대우종합병원은 요즘들어 환자들이 찾지않아 경영난을 겪고 있을뿐 아니라 환자들에게 수혈해야 할 혈액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79년에 개원한 신안 대우종합병원은 비금면을 비롯 흑산 도초 하의 장산 안좌

암태등 6개면민을 대상으로 진료를 해왔으나 도서지방 주민들이 종합병원에 대한 인식부족과 낙도주민들이 비금면까지 운행할 배를 구하기가 힘들어 대우종합병원을 꺼리고 있는데다 지난해부터 쾌속여객선 운행으로 도서주민들의 대부분이 목포병원으로 직행하는 바람에 대우병원을 찾는 환자는 겨우 비금면체도(休島) 주민들에 한정돼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종합병원이 필수적으로 상비해야 할 혈액을 보유하지 못해 중환자 수술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일보]

1990. 4. 7.

행정구역 조정 시급

생활권달라 큰불편

新安군 馬津리 楮島마을

(新安)신안군 長山면 馬津리 楮島마을이 생활권은 珍島이나 행정구역상 신안군으로 편입돼 이곳 주민들은 생활과 행정처리등을 따로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행정구역 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楮島주민들에 따르면 楮島에서 珍島까지의 거리가 1.6km인데 비해 신안군 장산면 소재지까지는 12.6km로 거리가 12배이상 멀 뿐아니라 면사무소까지 일을 보러 갈 경우 木浦까지 배로나와 다시 장산면으로 가야하는등 큰 불편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지역 주민들은 거리를 보더라도 楮島가 진도군에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행정구역 재조정을 관계기관에 요청해 왔다는 것.

군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정부에 건의했으나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국회통과를 거쳐야하는등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해 빠른 시일에 조정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楮島는 지난 69년 신안군으로 편입 11가구에 6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주민이 60세이상으로 미역 툇등을 팔아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광주일보]

1991. 1. 16.

公有수면 불법매립 말썽

광산업자 雜石 해안에 쏟아

토석채취만 허가...단속뒷짐 의혹

(新安)신안군 관내 광산개발 업체들이 도자기 제조에 필요한 토석채취 허가만을 받아 납석과 고령토를 채취하고 남은 잡석들을 불법으로 공유수면 매립에 사용하고 있는데도 단속조차 하지않고 있어 주민들의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신안군관내에는 S광산이 荏自면 水道리 산173일대에서, H광산이 長山면 五岫리2구 산171에서 개인업자 李모씨등 3개업체가 납석과 고령토 채취허가를 받아 지난 84년부터 이들 토석들을 채취해 도자기 업체인 목포 杏南社에 납품해오고 있는데 토석채취 과정에서 생겨난 잡석들을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인근 해안지역을 불법매립에 사용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광산업체들의 불법매립으로 임자면 水道리 선착장부근 해안과 장산면 五岫리와 彭津리 연안등 199필지에 147만평의 공유수면이 이들 잡석들로 불법매립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광산개발 업자들에 의해 공유수면이 불법매립되고 있는데도 신안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식 매립허가를 받은 업체는 한군데도 없다' 면서 '차후 현장조사를 실시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 고 밝혔다. [광주일보]

2. 장산면 구비문학 자료

※참고문헌 : 허경희, 「荷衣·長山の 口碑文學 資料調査 報告」, 『도서문화』 3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85.

1) 장산면의 설화

(1) 노루섬

장산면 공수리, 1984. 정을룡(남, 59세) 씨

우리 정씨 집안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백년 전이까 백오십년 전이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여그 와서 산 사람들이 살았는디, 지금 그 빈터가 있어요. 지금도 그란디 거그서 인자 가정 그 자부가 산식을 했어요. 애기를 낳어. 그란디 밤중에 산모가 없어졌어요. 산모가 인자 없어져 버린께, 가정에서 난리날꺼 아니요.

그래서 허! 묘하다 했는디, 아침 새벽 날 샘 짐시에 개가 그집에 큰개가 있었는데, 개가 빨투성이를 해가꼬 왔어요. 주인을 잡고 빨투성이를 몸에다 해가꼬는 주인 다리를 바지가랭이를 해가꼬 왔어요. 주인을 잡고 빨투성이를 몸에다 해가꼬는 주인 다리를 바지가랭이를 잡아 땡기고 하닌께, 이상하다고 머시냐 산모는 없는디 왜 개이 이렇게 빨투성이를 해가꼬 잡아 땡기고 나 따라 가잔 것이다 하고 따라가는디, 여그 가면 노리섬이란 섬이 있어요. 물쓰른 건너가고 물드른 바단디, 거기 인자 가면은 묘하게 지금도 이렇게 사람 한둘이가 숨어서 우신하게끔 굴이 있어요.

그란디 거기다 이제 인자 그 사람들이 인자 개 따라가서 그 가족들이 가서 빨로 건너가서 본께 산모가 눈이 빼레가지고 굴안에 엮져가꼬 있거든, 그래서는 그가 어찌 산모가 이란고 해서 잡아 땡긴께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진께, 옛날 그 무당 육지는 무당 인디 여그는 당골이라 했거든, 당골을 들어다 징, 장구를 두들고 한께, 여자가 떨어져 나와가꼬 데려다 길렀다는 전설이 있어요.

뉘수질 갔던 사람도 비가 온다치믄 우신한디 앉아서는 못들어가고 포도시 돌이 없져야 은신할 수 있을 정도여.

(2) 도깨비 이야기

장산면 공수리, 1984. 정을룡(남, 59세) 씨

내가 소시때, 인자 중년 한 20여년 전 야채 만난 일이 있어. 바다에서. 그란디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은 절대 미신이 없다고 그러지. 절대 미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미신을 지키면 온 것이고, 미신을 안 지키면 없는 것인디. 미신이 없다고 반대할순 없는 것이여. 미신이 있다고도 못하고 없다고도 못하는 이런 처진디, 내가 중년에 야채를 더러 본적이 있는데, 도깨비 불 쓴 것은 허깨비 불이라고 그러고, 이 몸이 낮차이 봐요. 빈 것을 야채라고 그러지. 도깨비 보고 그란디 왜 바다에 갔냐면 밤물때에 여그서는 인자 바닷가에 강이 있습니다. 강이 있는데 강을 이렇게 독을 막아요. 괴기를 차라고 그랬다가 조금을 이용해 가지고 그놈을 터서 밤에 인자 세사람이 이고기를 잡을라고 한께, 그 강에 막아논데가 괴기가 엉망으로 있드란 말이요. 그래서 인자 오늘 저녁에 괴기 많이 잡겠다 하고 그놈을 그물을 치고 갈라한다. 저그 있는데 이만이 큰 송알송알 한 불 한나가 있고, 그 뒤에가 쪼그마한 초롱불 하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새다구에가 국방색 옷입은 사람이 이 모가지 위로도 안보이고 이 오금 밑으로도 안보이고 중간만큼 있어. 분명히 봤지. 서이가 갔는데, 한 사람은 그대를 짜르고 인자 돌이는 보고 있다가 하이간 저거이 멋진 사람이냐 하고 확인할라고 쫓아 갔어요. 간께 큰 강이 있는데 강 있는디로 쭉 간께 바다를 건너 갔어. 사람 셋이도 못 갔는데 바다를 건너갔어. 그래서 아 이건 허깨비한테 흘렀다. 그래가지고 괴기는 한 마리도 없고 말간 물만 나오고 새비새끼 한 마리도 못잡고 온 적이 있어. 그리고 내가 본적은 없어도 옛날 그 귀신을 만났다 허깨비 만났다. 미친다. 멋진디 내가 과거 이십 한 칠팔년전에 한 삼십년 거반 되야간디, 그때 진도가 배가 있다가 이 내왕을 한디, 이 밤에 어둔께 진도를 건너가면 오후배로 가자꼬 한삼십리길 되께, 밤에 가게 되야요. 근디 거그서 한 이십리길이상 오리쭝 그르케 간데가 산골짜기 있는데, 거가 상고산이란 데가 있어요.

쪼그마한 멧이 있는데, 물이 철철 내려간디, 그 골짜기를 막 내려간께 누린내가 제 쳐요. 그란디 불이 탁 꺼져부러, 초롱불을 가고 갔는데, 바람도 없는데. 막 꺼져부러. 가서 인자 그 다음날 물어본께 허깨비가 많이 나오는 곳이라 하드만.

(3) 효자이야기

장산면 공수리, 1984. 정을룡(남, 59세) 씨

산너머 부락이 있는데, 그 저 건네마 지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저 효자비라 해서 있는데 옛날 그때가 어느뎨지 몰라도 이 해남서 살았는데, 여그 인자 장산에 사는데, 그 해남에 대가를 갔다오다가 풍파. 파도를 만났어요. 파도를 만나 가지고 영 죽게 되께, 내 몸을 희생을 할테니 우리 어머니 살려주소 하고 투신 자살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손은 이미 다 죽어부렸는데, 자손들이 효자비를 세워서 산 너메 가면 있어요. 용왕한테 나는 죽어도 존께 우리 어머니 살려주소하고 물에 빠졌는데 결국은 모자가 다 죽었어.

(4) 중바우

장산면 공수리, 1984. 정을룡(남, 59세) 씨

찌그 저 하용이란 데를 가면, 상용, 중용, 하용하는데, 가운데 중자, 중용 내력은 몰라. 좌우간 상용, 중용, 하용 그랬어. 그란디, 하용의 그 산비탈을 돌아가믄 이 바우가 쪽 이렇게 있습니다. 그란디, 날이 좋든지 궂든지 꼭 사람 형이 돌이 뉘있는 것 같지 하얀 백락같이 흰 것이 지금도 가문 있어요. 그것을 중바우라고 그러거든, 중하고 상좌하고 시주 얻으려 가다 죽었다해서 중바우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5) 연평바다

장산면 공수리, 1984. 정을룡(남, 59세) 씨

연평바다에 거가 옛날에 칠군이 있다는 전설이 있어요. 일곱 군이 있어요. 연평 바다가 옛날에 일곱 개 군이 있었는데 거그 인자 어느 군에 아주 갑부 하나가 있었는데 후원에 연못도 맨들아 놓고 붕어도 키고 이랬는데, 오늘도 내일도 모르고 머슴살히 하는 사람 한나가 십년간을 그 집서 머슴을 살았어요. 십년간을 머슴을 살았는데 십년이 지난후 설을 딱 새고는 주인을 보고.

“나갈랍니다” 이렇게 한께.

“아니 이 사람이 나갈라든 진직 얘기를 했으면 내가 가네 새경을 해줘야 될텐디 갑자기 나간닥하든 이 도대체 으뜨게 하는가. 돈도 없고 한디. 그란디 으째 이렇게 말도 없이 갈락하냐?” 한께

“아니 그러케 아쇼” 하고

“여그는 살 때가 인자 되었으께 갈랍니다.”하고 나설락 한께 그랑께 그 주인이 고진한 사람이제.

“자네하고 나하고 십년간 산 새경을 개레보세.” 개레노코 본께 자기 살림이 다 그갑부의 살림에도 다 없애도 모자르단 말이여. 이자 다 타산해 본께 십년간인께 그래서

“이렇게 되니 이 거액을 솔직히 내가 으뜨게 주겠는가.”한께 그 머심하는 말이

“내가 몸뚱이 하나뿐이 와가꼬 주인이 해 준 옷입고, 밥 얻어 묵고 시킨 일이나 했을 뿐인디, 새경이 무슨 필요있냐. 그런거 아무 필요 없으께 나갈랍니다.” 한께

“노루 임금 띠어 묵은 놈이 잘산디 없는디 쓰겼냐. 그러니 단 그래도 머신간 보답이 있어야 쓰겠다.”

“필요없다.”고 나선께

“그라든 가되 가는 것도 좋지만은 자네가 당장 나가든 그래도 입고 벗은 옷은 있어야 되꺼 아니냐, 당장 입을 옷 한나 갖고 나가든 어찌꺼이냐?” 그러니 불러 가지고 앞달이를 꺼내가꼬 미영베 한 필을 줌서 으따가 지어 입든지 옷 한물 지어서

“입은 옷이 더럽혀지면 갈아 입도록 하쇼.” 하고 준께

“주인 양반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고맙습니다.”하고 가거든. 대문밖까지 나갔다가 대문을 나간 사람이 지팽이를 한나 가꼬 오거든 갖고 있어서 주인을 주면서

“여그는 살때가 다 되었으니 금년 봄 날씨가 풀려 가꼬 인자 화창할때 되면 당신 후원에 봉어가 몽땅 뜰때가 있을 것이요. 그땐 시간이 바쁘니 가족들을 데리고 속히 이 지팽이가 인도한 데로 가시오. 그라든 생명을 구제할 것이요.” 그라고 인자 가거든 그랑께

“그러냐.” 그란디 대문밖에 나갔다가 지팽이를 갖고와서 주저든 기여히 간직해 났단 말이여. 그랬는디 그레 삼월달이 다친디 아 거 아들놈이 큰 아들놈이 아버지한테 인자 아침인사 드릴라고 후원에 싹 돌아간께 손바닥같은 붕어가 몽땅 죽어 떠부렸거든 근께

“아버지 이러저러해서 후원에 가본께는 붕어가 몽땅 죽어 떠 부렸습시다. 으편일인가 모르겠다.”

한께 그날 날짜까지 다 가르쳐 줬거든 그 사람이 감서

“아무달 아무날 아무시에 이렇게 된께 그 때는 다 여그를 떠야 되요. 이 지팽이를 짚고 나가시오. 이 지팽이가 대문밖예를 나가든 인도를 할 것이요. 이 지팽이가 끄스 데로만 가시오. 그래가꼬 으디까지 가든지 이 지팽이를 짚고 가다가 이 지팽이가 딱 백해가꼬 스톱할때까지만 가시오. 그때 거그서만 사요.” 그래서 인자 그렇기만 알고 간직했다가 그날 그르케 된께는 즈그 가족들 마누라나 아들들을 모이락 해 놓고.

“이 사람이 우리 집서 십년간 머슴 산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갔다. 여그를 뜨자.” 그런께 아따 아들놈들이 뭐락한고 하니 양곳또 모르고 밥만먹고 일만하고 십년간 살다 기양 간 사람을 그런 사람 말을 으뜨께 믿냐고. 그러니 나는 안간가. 즈그 마누라도 안간다. 즈그는 안간다고 그란디 아흠 살 먹은 아들 한나가 있는디, 그 아들을 보고 너는 으짤래 그란께 나는 아버지 따라 갈란다고. 가자고. 자기 일시먹을 각자 소지 품을 갖고 간디, 지팽이 끝이 끄서요. 사람 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지팽이 끝이 끄서 간다 그말이여. 연평 칠군 중 어느 군인 줄 모르나 그 날 그 군이 장날이여서.

인자 해름판 한 오후 세시 경이나 이렇게 된 참인디, 중천에 해가 비친디 그날은 유난히 장꾼이 수만명이나 왔드래여. 근디 아, 그 인자 시장을 가다가 장꾼이 물건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있는디, 그 장을 지나서 저쪽 벗어져 가는 그 어느 술집마당을 시장기가 있어서 애를 인자 손을 쥐고는 주모를 불러서 술 한 잔 주락한께,

거기에서 누가 있었는데고 하니, 일등 관상 잘 본 관상쟁이가 있었어. 그란디 관상객이 자기는 인자 시방 돌아 멩기다 그 장을 지내는디, 장에 와 수만명 돌아 멩기는 사람을 본다, 전부 다 그날 디질 늬이여, 전부가 디질 늬이여.

“내 눈이 그란다냐.”하고 그날 술집이 와 술 한잔 주락해서 묵음서 거울을 놓고 싹

본께, 저도 그날 금방 죽겠거든.

“으편 일로 멀쩡한디 죽는다냐. 이 장꾼이 다 죽고 나도 죽을 얼굴인디.” 하고 인자 한탄을 하고 술 한 잔 먹고 있는디. 아, 영감 한나가 우리 세대나 되는 60세 먹은 영감 한나가 문악에서 아들 한나 데꼬 서서

“주모 여그 술한잔 주소.” 하고 돈 손에 쥘서 술한잔 주락한디, 아, 그 관상쟁이가 딱 쳐다본께 그 영감하고 다 죽을 상인디 어째 이 영감하고 얘기 하고는 살 얼굴인고. 히이 영감님 이리와서 내가 술한잔 받아주께.“

“아이 내 술 나묵고 내 아들 나주제. 먼 남의 술 먹는다.” 냐고 한잔 돈 줌서 묵고는 죽 가드라고, 그래 이 관상객이

“아 여그는 곡절이 있구나.”하고는 그 영감 뒤를 따랐어요. 따랐는디 안산 산봉아를 올라 가는디, 그래 인자 슬라가다 내려다 본께, 저 서해바다에서 산더미 같은 막 파도가 밀려오는디 막 묻어 오거든, 그란께, 집이고 머시고 막 묻어 오거든. 그래 인제 사람들이 전멸하자 장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블제.

그 관상객은 물이 밀려온데 보고 앞서서 뛰어갔단 말이여. 백메타, 오백메타, 앞서서 뛰어갔단 말이여. 뛰어가서 산에 높이 올랐는디 이 영감이 중턱에서 물이 밀려오는디 쉬어가자하고 앉거든. 그란께 저 우에 높이 올라와 있는 관상객이

“아니 영감님, 영감님 아니 물이 들어온디 어째 거가 앉어 있냐고 얼릉 올라오라.” 한께

“아이 내 일 나 알아서 하고, 자네 일 자네. 알아서 하제. 먼 여러소리냐.”고 한께 그 영감님이 이라고 앉아서 쉰디 그 밀려오던 물이 이라고 발등에서 딱 스그든, 그래서 그 높은 자기가 죽을 상인디 그 영감님 옆에 딱 붙어서 살았어. 연평7군이 다 없어졌는디 그 속에서 관상쟁이 하나하고 그 영감님 부자하고 살았다 그 말이여.

(6) 재명명덕(在明明德)

장산면 공수리, 1984. 정을룡(남, 59세) 씨

옛날 구학 배울 때 아주 둔한 사람 한나가 있었는데, 말은 걸작이에요. 저 머시나 대학을 배우는데 밤낮 배워도 대학 서문에 가서 인제 “대학지도는 재명명덕”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란디 인제 이것만 밤낮 읽으제 둔한께 그것만. 그란디 아 이 사람이 이제 과거 벼슬하러 간다고 갔어. 소위 학자라 해가꼬 선생이 가르쳐 준다. “대학지도” 이것밖에 모른께, 이 사람은 어찌게 했든지 벼슬 한나나 줄라고 그것을 인자 해가꼬 그 뜻을 밝히락 했단 말이여. 그 뜻을 “대학지도는”하는 것을 그 뜻을 밝히락 할라고 그 놈을 다 물으면 모른께

“명명덕~ 이란 것이 미이나?” 이렇게 물으께는

“밝을 명자가 돌이고 큰 덕자는 하나해서 명명덕한디 요것을 너는 뜻을 모른께 이저 명명덕이란 것은 밝히는데 덕이 있다는 것을 말해라. 그란디 너는 벼슬을 주마” 그랬거든 그란디 그것마저 깜빡 해 부렀단 말이여. 그래 인자 읽은 것은 읽었거든.

“그만 와라.” 나머지는 모른께 그래가꼬 벼슬 한나 줄라고 “명명덕”이란 무슨 뜻으로 뜻이 있느냐 했는데 밝힘을 밝히는데 덕이 있나이다 했는데 모른께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곧장 어제 명명덕이란 것은 옛날 공자님 맹자님 먹는 생더덕이었습니다.” 그랬거든 그런께

“그 더덕이 으찌게 되었느냐?” 그랑께

“공자님, 맹자님 잡수고 남은께 나도 좀 먹어 봤습니다.”

“너는 허파에 바람 많이 들었겠다.”

“네, 바람 많이 들었습니다.”

“으찌게 바람이 들었냐?” 라고 물어 봤다 그것이여. 그러니께 저 산비탈에 가서 밭세마지가 있는데 거그가서 보리를 잘았는디, 다 뜯어 먹은께 개우를 잡을라고 치를 낫다 그것이여. 치를 낫는디 그 치를 놓고 이놈이 걸러갖고 나쁜 치를 몽땅 가져가까 무

선께 그 치 모치에다가 구덩이를 파 놓고 그 모치를 허리에다 썸미고 숨고 있었다. 그 말이여. 그란디 이 개우가 수십만마리가 나왔갓고 이 보리를 뜯어먹응께 이 늑을 못뜯어 먹게 할라고 “휘”하고 날러본께 말이재 이 개우가 치에가 걸러가꼬 몽땅 위로 날라본께 이놈 압력에 보듬고 있다가 중천에 올라가 부렸어. 개우가 사람이 뒤에 따라다니께 무사서 저 중천에 떠가지고 쉬도 못하고 몇삼년을 떠 다녔어. 떠 다났는디 밧줄이 썩어 가지고 그란디 이놈이 장마에 떨어져 부렸어. 대밭에가 푹 떨어졌어. 폭찢어졌어. 이놈이 찢어진 바람에 허파에 바람이 들어서 헛소리를 잘한다 그거여. 그란께 거 걸작이라고 벼슬 한나 하겠다 하고 그래 그 벼슬한 사람이 있다 그것이여.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냐 전설이제.

(7) 마치머리

장산면 공수리, 1984. 정을룡(남, 59세) 씨

마치머리는 왜 마치머리라 했냐믄 부학산 정기를 받어서 뜰부자 학학자를 받아 뜰형국이라 해서 큰 부자가 안나요. 왜 마초리라 했냐믄 우리 장산면 대승산이라고 산에서 백제시대때 말을 많이 길러가지고, 그 말을 뜯어서 이 마초리에서 주둔시켜서 임시수양 지금으로 말하믄 수양한데서 말을 거그서 이틀이고 사흘이고 맥여 가지고 조수관계로 물이 쓰다든지 든다든지 조수관계를 기다려가지고 조수가 맞으면 그 말을 육지애가 갖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부락을 마초리라 했어요.

(8) 장가 간 똥깨

장산면 도창리 1구, 1984. 정공심(여, 59세) 씨

전에 한 사람도 장개를 못갓든가 아 가그도 똥깨였는디 하루는

“어메.”

“못할라나?”

“장자네 막둥이 딸한테 장개좀 보내주소.”

그렇게

“아니 가서 말 잔 해보게.”

즈그 어메가 가서 저무나 새나 장자네 집에 가 지등 잡고 뽕뽕 들고 그래 말이 안나
온께,

“아이 하실 말씀 있으른 하시이쇼. 으째 와서 우물우물하시오.”

“아자씨 참말로 미안하요. 우리 똥개가 장자네 막둥이 딸한테 장개 보내주라고 한
다요.”

“지보고 물어봐야 알지라우.”

즈그 큰딸보고,

“아무개야.”

“야?”

“장자네 똥개한테 시집갈라냐?”

“가믄 가고 말믄 말제 똥개한테 시집간다요.”

그렇게 들차 딸보고

“아무개야.”

“야?”

“장자네 똥개한테 시집 갈라냐?”

그렇게

“가믄 가고, 말믄 말제 똥개한테 시집간다요.”

막둥이 딸보고

“아무개야 장자네 똥개한테 시집갈라냐?”

“가쁜가고 말쁜 말제 아버지는 속도 없소. 똥개한테 시집간다요.” 그러거든

“이것을 으찌게 피를 내야 쓸꼬.”

하다가 옛날에 저녁때문 부엉부엉하고 우는 고깃을 잡아갖고는 뒤안에 감나무에다 맷독을 채냈어. 인자 채냈다가는 저녁에 인자 감나무에 이렇게 올라가서 맷독을 잡아 땡겨갖고 맞춰서 드글드글 감서

“장자네 막둥이 딸을 똥개한테 시집보낼라냐? 내가 하늘의 옥황상제님이시다.”

그라고 드글드글 잘았어. 그랑께 똥개한테 시집보낼랍니다아아.”

이라거든

“인자 장자네 똥개한테 느그 막둥이 딸 시집 안보내며는 하늘에서 벼락 때려분다. 느그 식구대로.”

그랑께

“보낼랍니다아아.”

“나는 인자 하늘로 날아간다.”

“예.”

“문 열고 꼭 봐야제. 안보믄 벼락 때려분다.”

그랑께 뒷문열고 이라고 본께, 올빼미가 푸르텡하고 올려췌어. 올빼미가 푸르데이 잉하고 날아간께, 하늘로 올라갔다고 막둥이 딸을 똥개한테 시집 보냈어.

그래서 아들을 한 텃줄에 삼형제 낳고, 딸 성제 낳고, 호의호식하고 백대천하시고 니귀에 핀경달고 메밀꽃 타서 탕건하고, 보릿거싯갖고 지팽이하고 잘묵고 잘 살았어.”

(9) 외족쟁이

장산면 도창리 1구, 1984. 정공심(여, 59세) 씨

전에 한 사람이 살었는데, 그 사람도 늙도록 얘기를 못났어. 하룻적에는

“영감 나 이상한 꿈을 꿔소.”

“뭔 꿈을 꿔는가.”

바닷가에가 복성이 널었는데 호간 노인네가 와서 그 복성을 따먹으면 아들 삼형제를 낳것이다 그라요.“

“아이고, 자네도 그런꿈 꿔는가? 나도 그런꿈 꿔네.”

“영감님 그람 가 보실라요?”

“그라게.”

그래서 바닷가를 갔어. 아날가 복성나무가 썩는데, 복성이 시개 널어갖고 있거든. 영감이 따갖고 할멈을 줬어. 그랑게 돌을 묵고 한나는 반이나 묵다가 조반이 늦어진게 문안에다 들여놓고 이따 묵어야 쓰것다 했는데, 이웃집 늙은이가 불 싸러와서는 옛날에는 성냥이 귀해서 불을 싸갖고 덩겨제. 불을 싸러와서는

“뭔 복성을 묵다가 놔 뒀을까?”

그라고 홉 주워 묵어부렸어. 얘기가 있어갖고 한나 나논께 아들이고 둘 나논께 아들이고 셋 나논께 한쪼각이여. 눈도 한나 입도 한 쪼각 코도 한 쪼각 발도 한 쪼각 외족쟁이를 나났네. 즈그 아버지가 하루는 지리산으로 호랭이 잡으러 간다고 나가서는 안와부네. 죽어부렸제. 아그들이 커서 어느정도 총을 이길만하게 되았어.

“어메 우리 아버지 으디 갔소.”

“느그 아버지는 지리산 호랭이 잡으러 가서 죽었는가 살었는가 이렇게 안온단다.”

“어메 그라믄 우리 성제 아버지 보값으러 호랭이 잡으러 갈라우.”

간다고 으디만치 간께 외족쟁이가 지도 따라 갈라고 그래.

“성님 성님 나도 따라 갈라우.”

그렇게 저런 도구탱이를 엮질러 놓고 못오게해도 따라오고 따라오고 그라거든 애려도 할 수 없이 텔꼬갔어. 어느 주막에 가서

“진 잠 합시다.”

그렇게

“아야 으쁜 청년들이 온대냐?”

늙은이가 이빨이 다 빠져갔고 그라거든 들애갖고 있는게 들여보내놓고는 문을 딱 췌대 채 부렀네, 늙은이가 호랭이제. 밥은 밥인디 멸치젓이라고 준 것은 사람 손구락 발구락이고, 된장이라고 준 것은 사람 똥이고 간장이라고 준 것은 사람 피고, 숭에도 막이라고 꺾는 것은 사람 허벅다리여. 즈그 성네들은 배가 고평게 그랫든가 잘 묵어도 외쪽쟁이는 안묵었어. 쪼그만 칼 한나는 담어 갖고 갔든가 저녁내 한쪽 손으로 벽장을 오그닥 오그닥 파 갖고는 즈그 성네들 들락말락할 정도로 봤어. 성네들은 송장을 묵어논게 취해서 잠을 잔게 막 집어 뜯어서 잠을 못 자게 했어. 밤중에나 된게 으글으글 한디 큰 호랭이가 앞에 툭 떨어지거든,

“한나 잡었는가 으짤는가? 나는 카만 았엇어도 잇을 잡아놔네.”

“한나도 못 잡었소.”

“가만 있게. 빠친게 잠자다가 새벽에 잡으세.”

“그란게, 잠 안자고 방안에서 다 들엇거든. 그래서 막 도망갔어. 도망가는데, 그놈이 쪼친게 외쪽쟁이가 가서 총으로 쏘고 육박으로 쫓고해서 죽여브렸어.”

“워따워따 우리 성님 죽었네” “우리 할머니 죽었네.”

하고는 호랑이 떼가 전부 올거든. 그놈들을 총으로 쏘서 다 죽인디 께끄만 호랭이 새끼 한나가

“성님 성님 나 살려주쇼. 나만 살려주믄 성님 공 갓을라우.”

하고 그라싼게는 살려줬어. 그 집에다 불을 탁 치질러 불라한디 으쁜 총이 잉잉잉

하고 올거든

“이놈의 총아 으째 사람을 보고 우냐?”

그래도 차꼬 운께 그 총을 갖고 왔어. 그랑께 즈그 아버지가 그 집서 죽었제. 그래 갖고 즈그 아버지 총을 들쳐미고 보 갇어갖고 즈그 삼형제가 돌아왔어. 인자 그 새끼 호랭이 보고

“우리 어메가 너를 보면 놀랜께 칙간에가 가만 서 있거라.”

“예.”

그랬ندی 워따 아들네들 왔다고 밥해준다고 부삽에서 재 치내갖고 칙간에다 버틸라고 갔다가 깜짝 놀래서 기절해 갖고 죽어부렀네.

“성님 성님 미안하요.”

그라고 호랭이가 어메를 업어다가 명당자리 잡아서 물어논께 버씩버씩 부자가 되거든 그래서 얼마나 이른께 하루는

“성님 장개가고 잡소?”

“장개사 가고 잡다마는 첩첩 산중에서 누가 나를 딸 주겠냐?”

“카만 있으쇼. 오늘 서울 김대감네 딸이 시집을 가요. 거시기 참지름 너서물만 폭폭 킬러 놓으쇼. 내가 입고 올텐께.”

서울까지 뛰어 갔든가 아조 이쁜 큰애기를 업고 왔어. 놀래갖고 죽어부러서 물 끓여서 먹이고 한께 깨났어. 인자 서울 김대감네 집에서는 딸 죽었다고 난리가 났제. 그란디 거그서 오래 삼시러 괴기도 없으면 호랭이가 물어다 주고, 쌀도 갖다주고, 그래서 인자 산중이라해도 잘 묵고 잘 살제. 하루는 동네서 그 호랭이가 도둑질해 가는 것을 알고는 함정을 파놔어. 호랭이가 땡긴질에다가 요렇게 구덕을 파놔제. 파논께는 호랭이가 돌아올때가 뻐는디도 안와, 저녁에 잠을 잔디, 꿈에,

“성님 성님 나는 함정에 빠져서 죽게 되어 있소.”

그라거든 호랭이 땡긴 질로 쌀쌀 기본께 함정에 빠져서 한 사흘 나흘을 굶고 못나온

께 그라고 있어. 그랑께 줄을 으찌게 들여갖고 막대기조차 너서 호랭이를 끌어내 줬어. 인자 각시가 한 텃줄에 아들 삼형제 낳고 그래서 서울 김개감네 집으로 간께, 참 곳도 곳도 그런 곳도 없제. 죽었다했는디 저렇게 살아왔다고 아들네들을 넓적넙적하게 나갖고 살아왔다고 난리가 벌어졌제. 그래서 엄네집서 돈과 쌀과 많이해서 갖고와서 잘 살어, 하루는 호랭이가 인자 늙어서 죽게 생겼어. 여러해 된께,

“성님 성님 나 죽으면 나 묻을 자리에 가서 가만히 누워 죽을텐께 꼭 거그다 물어 주쇼.”

그라거든

“그러마.”

그랬는디 또 호랭이털을 지가 가새로 베퍼 종우에 싸서 줌서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털을 화로에다 노른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라드라여. 그랬는디 호랭이가 놈의 선산 꼬쟁이에 죽어갖고 있는께 거그다가 도장을 해놔어. 선산 임재가 밧을 안파내면 몽둥이 갖다 때려 죽여분다고 전부 쫓아오네. 그래서 그 호랭이털을 화로에다 논께는 아 그 선산 임재들이 싹 죽어부네. 싹 죽어분께 누가 텔러 올 사람이 있어야제. 그래서 인자 참 거그서 잘 살었어.

(10) 쫓겨난 신부

장산면 도창리 1구, 1984. 정공심(여, 59세) 씨

옛날에 김정승 아들이 박정승 딸한테로 장개를 갔는디 첫날적에 김정승네 아들이 이렇게 신부를 차다본께 양반이라하든 신부가 웃기도 힘이 들었제. 옛날에는 웃음도 함부로 못 웃었제. 그란디 신부가 앉어서 빼기작작 웃음을 웃고 있거든. 그랑께

“암찍에도 저 큰애기가 옛날에 즈그 셋서방하고 하는 일을 생각해 갖고 저렇게 무시절에 나온 거이다.”

그라고는 아무말없이 즈그 집으로 가부렀네. 가부러서 인자 참 양반집에서 시집도 못가고 징할 일이지. 하루는 즈그 씨압시가 메늘아그가 으찌게 되었는데 보자 그라고는 쌀쌀 온께는

“아부님 오시오?”

요렇게 인사를 하거든. 아, 점심은 받고 있은께, 사돈 영감이 즈그 씨압시 곁에 앉았다가 새팍에서 까마구가 까옥까옥하고 온께 친정 아버지 하는 말씀이

“아무개야.”

“예.”

“저 까마구가 므시라 하나?”

그렇게 즈그 씨압시가

“몬 말씀이요?”

“우리 딸이 까막까치가 한 말, 쥐가 한 말, 내가 한 말 다 알아묵소.”

일테면 만물박사라 이것이지.

“아부님 올해는 송년이 든께 전답을 다 풀아서 곤석으로 두쇼.”

그랬어, 김정승이 집에 가 갖고는 집밑에 개똥논 개똥밭을 모도 다 풀아 먹었어.

“저 사람 사돈네 집 갔다 오더니 더러운 존 논을 풀고 미쳤는갑다.”

아, 그랬어. 인자 곡석으로 걷어 들여서는 해논께는 6·7월에 눈이 내려서 움막 사 그라져 버렸어. 송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논께는 밭 한마지기 잡혀놓고도 곡석 댓말 주고 열마지기 잡혀놓고도 한 가마니 주고 배가 고평께, 그렇게 해서 일테면 장산이든 장산을 다 사부렀제. 그래서 인자 그런 메느리를 이때금 반대했다. 그라고는 그때는 박정승이 딸을 데려다가 시상답게 살었어. 그란디 신부가 으째서 첫날밤에 웃었냐하든 신부가 방에서 카만 들어본께 쥐가 하는 말이 즈그 왕쥐보고,

“조부시.”

“못할라냐?”

“정재냄비에는 돼야지고기 볶음이 있는데 뚜껑이를 못 열겠소.”

그렇게 왕취하는 말이

“그라믄 그 부승을 헐어라. 그라믄 냄비가 자빠지믄 뚜껑이가 열어질 것이다.”

짐상하는 말이 하도 얼척 우서서 웃음을 웃어부렸제. 그랬는디 무심결에 셋서방을 얻어놓고 셋서방하고 하는 일 생각해서 웃음이 나왔다 그라고 신랑이 가부렸제. 참 짐상도 얼척없제.

(11) 새를 면한 사람

장산면 도창리 1구, 1984. 정공심(여, 59세) 씨

옛날에 누집에 상 본 사람이 와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아모날 아모시에 새를 치겠소.”

그렇게 말하거든

“그라믄 으찌께 해서 새를 안 칠 방법이 없소?”

그렇게

“예, 있소.”

“참을 [인]자를 칼자리에다도 써서 붙이고, 막가지에다도 참을 [인]자를 붙이고, 방 구석지에다도 참을 [인]자를 써서 붙이고, 문에다도 붙이고, 대문에다도 붙이고 그라쑤.”

“그래요?”

옛날 김정승이나 박정승이나 잉, 황정승이나 그런 사람은 한 방에서 마누라하고 잠

을 안 자. 꼭 각방 거처하고 마누라 절에 일단 한번 가고 싶으면 가, 그날 저녁에 은제 든지 종을 시켜서는 “나 오늘 저녁에 거시기 저 마누라한테 간다고 그 말 여쭙라.” 그렇게 말하거든. 그라든 남자도 목욕하고 여자도 목욕을 하고 딱하고 만나제.

그런디 느닷없이 그날 저녁에는 즈그 마누라한테 가고 싶드라여. 그래서 옛날에는 색우불이라고 흰하게 남포를 쓰제. 문에 가 이렇게 본께는 참 옛날에는 남자도 머리를 따고 여자도 머릴 따 이렇게 길게 땀어. 가서 본께 으튼 사람하고 참 머리를 풀어서 우그로 딱 올리고는 돌이 꼭 보듬고 잠을 자거든. 아주 죽이고 싶어.

저것이 으튼 셋서방을 했는가 으짖는가하고 양반이 이 꼴이 문꼴이나하고 칼 갖고 와서는 쭈셔불라한께, 칼 자리에도 참을 [인]자, 낫갖고 가서 찍애블라한께 낫 자리도 참을 [인]자, 문 우계를 보든 문 우계도 참을 [인]자, 꼭 그날 새를 치겠다 했는디,

저녁내 몸을 꼭꼭 새리고 사랑방에서 이렇게 있은께는 그 아래 즈그 각시 친고가 집으로 가거든. 그랑께 각시 친고가 와서 머리를 깎어 빗고는 머리를 말리기 위해서 우그로 딱 자치고 있다가 잠이 들어 부렸제. 그래서 인자 그 순간 참어갖고 새를 면했드라여. ※새: 살인.

(12) 지혜로운 며느리

장산면 도창리 1구, 1984. 정공심(여, 59세) 씨

옛날에 고관대작이 살었는디, 고관 대작노릇을 했어도 벼슬길이 백혀 가지고 가난해 웅색해 그래서 인자 즈그 성네는 눈을 백석지기 눈을 하고 백석지기는 새다구에가 고관대작네 땀논 서마지기가 눈이 있었어.

며느리를 들여놓고 본께는 식구가 일곱 야달 된다, 도저히 땀논 서마지기 갖고 생명 보존을 못하겠그든. 생명 보존이란 것이 인자 이렇게 밥을 못 먹겠다이 말이제. 생명보존을 못하겠은께는 이놈을 풀아가지고 으찌게 달리 예산을 해야 우리가 밥을 묵겠다. 그라고 하루는 인자 메느리가 ‘고관대작네가 땀논 서마지기를 풀라고 내놔습니다. 누구든지 살 맘이 있으면 고관대작네 집으로 오십시오.’ 그렇게 인자 판자에다 글

을 써서는 눈에 찔러 났어. 그래서 인자 즈그 큰집 씨압시가 백석지기 눈을 불라고 돌아본게는 즈그 동상네가 옛논 서마지기 있는 것을 풀라고 내놨다고 그렇게 거그다가 판을 써서 붙여놔거든.

그래서는 쌀쌀 동상네 집에 가 갖고 “야! 느그 땃논 서마지기를 내놨냐?”

그랑께는

“예. 도저히 그것 갖고는 우리 식구가 생명보존을 못하겠응게 풀아갖고 달리 예산 할라고 그랬소.”

“그라믄 이왕 우리 논 새다구에 있응게 그 논을 나한테나 풀아라.”

그랑께

“그라쑈. 같은 가격이면 그라쑈.”

옛날에는 인자 차도 없고, 리어카도 없고 구루마도 없고. 옛날에로 말하믄 못이라하까? 응! 지계로 인자 사람을 수백명 데리고 갔거든, 인자 즈그 큰집이는 으찌께 부잔고 아조 나라 두 대통이 몇 가마니로 재서 마당으로 한나 땡땡돌려 싸놔어. 옛날에는 그랬제. 꼭석도 풀고 잡으면 풀고, 판매가 없었응게. 아, 그란디 그 놈을 가마니 수로만 따져서 쉬이 멩겨 주거든. 갖고 와서 본께 쥐가 몇 년 된 놈, 까불라노므는 나락 한말도 있고, 나락 한말도 알꼭석이 있고, 두말도 있고, 가마니 수로만 따져서 준께, 갖고와서는 인자 놔두고는 동네 이장이야 지서 직원야 면직원야 전부 한 번씩 믹일라고 즈그 큰집 메늘네들 보고 장만하라고 하고 즈그 남편보고는 저그 으디 산중예가 구렁이가 살었든 것이여. 구렁이 구녕이 있을께 그놈을 파라했어. 파서 죽이지 말고 목 다라메 갖고 살려서 갖고 오라 했어. 그래서 인자 갖고 온께는 나락가메이 속에다 너놔어. 너 놓고는 즈그 큰집 메늘네들하고 장만하다가 차꼬 나락가메이를 싸둑싸둑하고 웃어 고 그랑께, 즈그 동서네들도 본께 이상하고 즈그 씨압시도 본께 이상하거든. 큰집 씨압시가

“아야 으째 너는 나락 가메이속에 못이 있길래 그래쑈냐?”

그라고 한께는

“아부임 아부임네 업이 우리집으로 왔소. 지동토막같은 구렁이가 왔소.”

“아야 그라픈 그 업은 도로 나를 주라. 뗏논 서마지기 그저 느그 차지하고 나락 가져온 놈 그저 차지하고 논 백석지기 그놈도 주마.”

그랑께,

“나도 안할라구. 복인께 내집으로 왔는디 나도 안할라우.”

사정을 하니께 못이긴척 하고는,

“그라쑈. 아부임 그란디 갖다가 별도썩고 잘 먹여야 돼요.”

그랑께 좋다하고 갔어. 논 백석지기 차지하고 서마지기 차지하고 나락차지하고 부자가 되아분께 그래서 인자 지서직원들 면직원들 데려다가 잘 먹여주고 도장 질러주라고 보증이라고 그랑께 안질러 주겠어? 도장을 딱 질러준께는 모도 즈그 것이 되얏제. 논 백석지기를 한 육칠년쯤 지었든가 아조 부자가 되아 부렸네.

그래서 인자 이만 했으면 쓰겼다고 생각한다. 인자 큰집에서는 업이란 것이 구렁이를 파와놔서 빼빼 몰라서 죽어부렸제. 죽어분께는 인자 즈그 씨압시가 죽게 생겼네,

꼬치꼬치 심회로 인자 그랑께 인자 또 장만했어. 장만해갖고 지서직원 면직원 동네 이장 반장 다 데려다가 큰집 씨압시 오시라 한께 안 올라고 해 안 올라한다 해도 억지로 오시라 해서

“아부임.”

“뒤야.”

“아부님은 나한테 들렸다고 봐야지라우.”

“믄 소리냐.”

“아부임 논 뗏논 서마지기 풀아갖고 우리 식구가 달리 예산해서 생명을 보존한다한디, 아부님은 가매미 수로만 따져서 인자 쥐가 다 따묵은 놈 몇가매이네 하고 주믄 우리는 뒤 묵고 살것이요? 도로 논 백석지기 찾아가쑈. 우리도 인자 살만치 살게 됐음께 아부님 논 도로 찾아가쑈.”

그렇게 사람이라 한 것이 늬한테 양심에 가책이 되는 짓거리를 하든 늬한테 항상 맘이 졸려 맘이 꺼러프고 그사람한테 큰 소리를 못해. 그렇고 양심 나쁘게 쓰다가 메느리한테 넘어갔어.

(13) 서숙 두 모가지

장산면 도창리 1구, 1984. 정공심(여, 59세) 씨

옛날에 한 똥개가 살았어. 옛날에 한 똥개가 살았는디 그말로 여간 멍청해. 옷묵에다 똥싸고 아랫묵에서 밥묵고. 즈그 어메가 하루는,

“너 이 느낌 씨발놈아! 노므는 니 동갑에 떼발도 파고 돈도 벌고 한디, 어째 너는 옷묵에다 똥싸고 아랫묵에서 밥묵냐아!”

그라고 조진계,

“어메, 그라든 장자네 집에가서 꼭갱이 한나 얻어다 줘, 나 떼발 팔라네.”

“그래라.”

그라고 즈그 아들 떼발 판다고 아주 자기 속으로는 걸게 장만해 갖고, 이고, 지고 물뜨고 해서 갔어. 막 간개는 꼭갱이로 한번 찍어놓고 잠퍼자고 있거든.

“에끼 느낌 씨발놈! 인제까지 이것팠냐. 밥 빌어 묵겠다.”

“어메 카만 있어봐. 날마다 파든 이래도 많이 파.”

그라거든,

“그래야?”

날마지 떼발 판다고 즈그 어메는 내자식 오랜만에 사람되어서 떼발 판다고 걸게이고 가든 퍼묵고 하루에 꼭갱이로 한나씩 파서 얼마나 팠든가 뉘 있으면 꼭 맞게 팠어. 그래서 인자 서숙 갈 때가 되었든가

“어메, 장자네 집에가서 서숙씨 좀 얻어다 주게.” 그렇께,

“그래라 많이 봤냐?”

“여간 많이 봤어라우.”

그래서 인자 서숙씨를 얻어다 준께 얼마나 얻어다 줬든가,

“서숙씨는 배문 못 쓴단다. 푹푹 숨아 부러라.”

그랑께 꼭 서숙 두 모가지를 거그다 서 낫든가 날마지 거그다 푹을 얼마나 썼든가
기름이 되어갓고 막 요렇게 커. 모가지가 요만 했제. 하루는

“어메 나 오늘 서숙 가실하러 갈라네, 어메는 빠친께 오지 말게.”

옛날에는 어메보고 하게도 했거든.

“안 갈란다. 니가 해갓고 온나.”

그랑께 요런놈 두 목을 해가지고 돌아왔거든

“어메, 서숙 가실 다 해갓고 오네.”

“에끼 이 오살놈! 서숙 두 모가지 해 갓고 서숙 가실 한 대냐?”

그러면서

“그놈 갓고 기 나가거라.”

그랑께

“나가야제.”

인자 나가서 으디만큼 강께, 해가 저물어진께 큰 대문 달린 집으로 들어갔어.

“진 잡 합시다.”

“우리집 진 못하요.”

그랑께

“여물청도 좋고 소청도 좋소.”

“그래야?”

그렇게 서숙 두 모가지를 땡기면서

“쥐가 까묵으믄 안돼요.”

“못할라 쥐가 까묵으까?”

그랬어, 그랬는디 하룻적 자고 일어난께 쥐가 싹 묵어 부렸네.

“서숙 모가기 내노쇼.”

“아이 으차까 쥐가 까묵어서…….”

“그라믄 그 쥐라도 잡아주쇼.”

쥐를 잡아준께, 찌매서 쥐를 짹짹 꺾고 갔어. 그러다 으디만큼 가다가 해가 저물어
진께,

“진 잠 합시다.”

그렇게

“그렵시다.”

하라 했어. 그렇게 주를 땡겨놔어.

“이 쥐 개가 잡아 묵으면 안돼요. 잉?”

“뭇 잡아묵겄소?”

찌그다 찌매놔는디 아닐싸 개가 확 잡아 묵어 부렸네. 아적에,

“내 쥐 내놓으쇼.”

“개가 잡아묵어 부렸네.”

그렇게,

“위메, 그라믄 개라도 내놓으쇼.”

개를 주거든, 아이 으디만큼 또 간계는 해가 저물어졌어. 저물어진계는

“진 잠 합시다.”

그랑께

“진 못해라우.”

“아이 여물청도 좋고 소청도 좋소, 나는 아무데 자도 좋소.”

그랑께

“짚 깔어 놓고 나뭇청에서 자쇼.”

그러거든, 나뭇청에서 자고 개를 매겨놨는디, 아적에 부삭에서 고기를 찢든가 가시
나가 때려갔고 개가 죽어 부렀네.

“개 내노쇼.”

그랑께

“으차차 우리 가시나가 죽어부렀는디. 부삭에서 반찬 꺾 낫는디 개가 목어부러
서…….”

“그라믄 큰애기라도 내 놓으쇼.”

그랑께,

“그라믄 텔꼬 가쇼.”

텔꼬 으디만큼 간계는 또 큰애기를 잠 잘라나 텔꼬 갔는디 하룻적 자고 난계 으찌게
해서 큰애기가 죽어 부렀네. 죽어분께 샘이 갓에다 이렇게 꽃자리 땡기 들어서 이쁘게
해서 양쪽으로 잘라 묶어서 샘이 갓에다 이렇게 셔 낫어. 그란께 우쁜 이쁜 큰애기가
물질러와서 뒤를 이렇게 잡음시로

“어따 어따 큰애기도 징하게 이쁘다. 머리도 좋고.”

잡어땡긴계 획 자빠졌어. 죽은 송장을 친께 자빠져블제.

“워따 저 큰애기가 우리 각시 죽었다데.”

인자 막 따라 가자고 했어, 따라가 갖고는 인자 즈그 집으로 델꼬 갔제. 참 즈그집 가서는 각시 얻었다고 각시 얻어갖고 온다고 문 화칩 뽕뽕 둘러쓰고 첼치고 대사 친다 하고 막 난리고 한디 그라믄 으찌계 해서 이 큰애기를 얻었냐 한께 서숙 두 모가지에 쥐 한 마리, 쥐 한 마리에 개 한 마리, 개 한 마리에 큰애기 한 마리, 큰애기 한 마리에 각시를 얻어갖고 왔다고 그렇게 대답했어, 똥개도 피가 있어갖고 그렇게 멍청했어도 이쁜 각시를 얻었어.

〈조사자: 그런데 ‘진 잠 합시다’가 무슨 말이에요?〉

〈제보자: 일테면 눅으집 가서 잠을 잔다 그것이지, 일본말로는 고멘구다사이 그래.〉

(※일본어로 표현된 대문은 안맞는 말이다.)

(14) 말하는 남생이

장산면 도창리 1구, 1984. 정공심(여, 59세) 씨

전에 한 사람이 있었어. 전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삼네로 우리같이 웅색하게 살 었든 모양이지, 그란디 지계통장을 짚어지고 산에 가서 인자 설은 다 다치제 날모레 설인디 설을 생 건더구가 없제.

“설은 다 다친디 우리 늙은 부모는 으짚건나.”

그랑계 남생이가

“설은 다 다친디 우리 늙은 부모는 으짜끄나.”

그라거든, 또

“설은 다 다친디 우리 늙은 부모는 으짜끄나.”

그라거든, 차츰차츰 가 보니까 남생이가 그라고 있거든.

“남생아 나 따라 가끄나?”

“그라쇼.”

“가자.”

인자 남생이를 텔꼬 서울 대감네 집을 갔네. 가서 문간에서

“말한 남생이 사쇼! 말한 남생이 사쇼!”

그랑께 대감이 종 보고

“종아, 무시라 한가 내다봐라.”

“말한 남생이 사라 합니까.”

그랑께

“그람 이리 텔꼬 온나.”

텔꼬 왔제.

“어디 자네 저 남생이 말한번 시켜봐라.”

“설은 다 다친디 우리 늙은 부모는 으짜끄나.”

그랑께 남생이가

“설은 다 다친디 우리 늙은 부모는 으짜끄나.”

영락없이 말을 하거든.

“자네 나한테 풀게, 얼마든지 주겠네.”

“돈을 내 징에 한나 지게 가께 주쇼.”

옛날에는 엽전이제, 엽전에 꼬쟁이 낀놈을 한나 저준께 집으로 갔어. 아, 지고 간 다음에 인자,

“설은 다 다친디 우리 늙은 부모는 으짜끄나.”

해도 절대 말은 안하네.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말을 안한게 니미힐 것 딱뚜드러 깨 부렸어.

한번은 그 사람이 남생이가 으찌게 산가 불라고 서울 장안에 가본게,

“어찌 자네 말한 남생이 말도 안한당가?”

“아 당신이 본게 내가 말할 때 합디여, 뭇할라 뚜드러 깨블고 그라요?”

그라거든,

“부훼난게 그랬다.”

“그라믄 그 남생이 쪼가리 으따 뵈소?”

“저그다 내부렀다.”

그놈을 주워 갖고 와서는 글로 부자됐다고 즈그 사랑 밑에다 물어났어. 그란디 그 남생이 쪼가리에서 왕대 죽순이 나와갖고 하나님 쌀 곡간을 쭈셔 부렸네. 그래서 날마다 그 삼네 집으로 쌀이 풍풍풍 풍풍풍 내려오네, 그래서 사철 농사도 안짓고 잘묵고 잘살제.

즈그 성님이 그것을 알었든가

“너 으찌께 해서 부자됐냐?”

“예. 남생이 쪼가리 깨진 것 주워다가 물어났더니 그 후 왕대 죽순이 나와갖고 하나님 쌀 곡간을 쭈셔블어서 쌀이 내려오요.”

즈그 성님이 놀보거든, 그래서 남생이 쪼가리 뺏어다가 사랑밑에다 물어났어. 인자 맘씨가 불량한게는 거그서 왕대 죽순이 나와갖고 하나님 똥 곡간을 쭈셔 부렸네. 날마다 똥이, 똥이 막 내려오제.

“아이 아시야 똥 쳐라. 원앙생 가래야.” 하고 밤낮 쳐도 똥만 나왔어. 그래서 인자 동생은 쌀 곡간 쭈셔 갖고 잘살고, 형은 마음씨가 불량한게 똥 곡간 쭈셔서 날마다 똥만 치고 그랬어.

(15) 뽕뽕이 돌린 칫바퀴산

장산면 도창리 1구, 1984. 정공심(여, 59세)

김가란 사람이 장개를 갔어. 장개를 갔는데, 뽕날 자쳐놓고 야드레 고드레 날로 받아. 장개를 갔는데 아 예사청에서 예사를 하고 난개는 각시가 그냥 읍서져 부렸네. ‘참 이상하다’ 하고 즈그집으로 온개는 인자 그 각시가 글을 써서 나를 찾아 올라든 「뽕뽕이 돌린 칫바퀴 산」으로 찾아 오라고 그랬어. 인자 종우때기에다 글을 써서 인자 내블고 갔거든.

「뽕뽕이 돌린 칫바퀴 산」으로 각시를 찾아 가는데, 찌어 으드만큼 안개 칙칙 낀데 가서,

“으디가 「뽕뽕이 돌린 칫바퀴 산」 이냐?” 한께,

“이 농사 저서 가실할 놈 가실하고, 찢 놈 찢고 담을 놈 담어주면 꺾쳐 준다.”

그라거든, 일년내 그 집서 농사질놈 짓고, 가실할놈 하고, 찢놈 찢서 담을놈 담어주고 그랑께, 찢그 찢그 안개 찢데 가서 물어보라고 그래서 거그 갔어. 거그 가서,

“으디가 「뽕뽕이 돌린 칫바퀴 산」 이냐?”

그랑께, 거그서도 인자 농사질놈 짓고, 찢 놈 찢고, 담을 놈 담어 주르는 꺾쳐준다 했어, 일년내 놈으집 삼서 그렇게 해줬제, 찢그 저 안개 찢데 가서 물어보라고 거그 가서 어디가 「뽕뽕이 돌린 칫바퀴 산」이냐고 찢그 가서 물어보라고 꺾쳐줬제. 그래서 해마다 공머슴살제, 꺾쳐주라고. 가고 가고 해갖고는 참 몇십년이 되었든가 찾아간께 깊숙한 산이 있는데 「뽕뽕이 돌린 칫바퀴 산」 「뽕뽕이 돌린 칫바퀴 산」 한께는 산이 요렇게 그려지거든, 그랑께 그 속으로 들어갔어, 들어간께 큰 지와집이 있드라여. 들어가서 있은께 각시가 물을질러 샘이 왔는데 샘이 우계가 이렇게 버드나무가 있는데 물이고 갈라든 버드나무 잎삭을 홀터서 물동우에다 핵 던졌어.

“무시 이라까? 무시 이라까?”

보고 보고 그랑께 어즈러 불고 또 떠붓고 그래갖고 이고 갈라든 인자 버드나무 잎삭을 또 홀터서 던져블고 그랑께 나중에는 사람 같으면 이리 오시고 귀신 같으면 저리

물러 치라고 각시 말이 그라거든.

“사람인께 여그 왔제, 짐상이든 여그왔겼냐?”

한께 본께 즈그 서방이여. 손잡고 막 올고는

“오늘 저녁에 밤중이나 되든 그 도둑놈이 올텐데 가만히 내가 숨겨 놓 대로 있으쇼.”

그래서 인자 즈그 서방 델꼬 가서 밥이랑 해서 주고 꿈쳐놔어. 꿈쳐논께는 지녁 밥 묵고 쪼깐 있는께, 어기지가 한놈이 뿔이 이렇게 닛 돋은 놈이 막 으글으글 하다가 하늘에서 뇌성벽력한 것 같더니 내려와 갓고는 툭 떨어지거든. 그랑께, 각시가 막 술을 먹인께 술을 퍼 묵고 양팔을 벌리고 잔께 즈그 서방을 델꼬 도주해서 막 나왔어. 도주해서 나온께는 그참에 이놈이 술이 깨갓고 막 담박질한다, 그놈이 도둑놈인디, 배뻐 오까, 막 뛰어서 으튼 거시기 초분속으로 들어가 갓고 널속에가 이렇게 가만히 숨어갓고 있는께, 번쩍번쩍한 칼을 빼 갓고 널을 쿡 쓸터라여, 쑤신께, 으디 발 어디가 찼라진께는 거가 피가 묻었은께 얼른 옷갓고 칼에다 시쳐 부렸어, 시켜분께는 막 넘고 넘어서 뛰어가터라여. 그래서 그놈이 지나가고 난 뒤로 즈그 둘이 뛰어서 나와갓고 즈그 집으로 찾아왔어. 걸코 즈그 각시를 찾아왔어, 와갓고는 그때 새로 세상을 보고는 참 잘 묵고 잘 살았어. 호의호식하고 만대육신하고 백대천신하고 니귀에 핀경달고 메밀꽃에 탕건하고 …… 잘 먹고 잘 살았어.

(16) 범바우

장산면 도창리, 1984. 김영만(남, 64세) 씨

덴비산 명단섬에 요렇게 구멍이 뚫려졌어.

비가와도 비가 들어간데도 없어. 그란디 그 섬에가 아적나잘에 가면 물이 파싹 말라서 없고, 저녁나잘에 가면 물이 고여.

“맨날 그래요?” (청중)

“아니 그럴때가 있어.”

“그 물 먹어요” (청중)

“그 물 먹으면 약퇴제”

그란디 옛날 사람들이 그란디 선녀들이 내려와 갖고 폭개(복지그릇)을 띄어놓고 올라갔다고 그래.

그 샘을 가본다치라면 절벽이 있는데, 거기가 운목하게 파졌어.

이상하게 그래도 비가 와도 물이 생전 안들어와.

그래도 이상스럽게 물이 고였다고는 해.

그란디 언제 애기 난 사람이 가서 한번 본께 변해부렸어.

“어떻게라” (청중)

“복지그릇이 없어졌제”

그 샘을 우리가 날마다 가 봤는데, 이상스럽게 동내가 시끄러질라면 물이 더러워지더니만 육이오때는 물이 없었어.

그뒤로 가 본께 물이 있드만, 사랑살랑 넘도 안하고 마치맞게 있어.

(17) 댐비산

장산면 도창리, 1984. 김영만(남, 64세) 씨

여기가 절터 하나가 패가 된 절터하나가 있어.

그 산이 댐비산인데, 옛날에 거기다 중이 정을 지을라고 절터까지 다 닦아 냈어. 물건을 사려 목선 타고 갔어. 거기서 금부채 같은 것도 준비해 놓고, 장산면에서 그분하고 중하고 목선을 타고 목포에 들어가면 씨아섬이라고 있어, 거기쯤 가다가 풍랑을 만

나불어서 배가 파산됐제. 사람이 죽어 붙었지. 몇십년 걸쳐 나오는데 여기서 금부채가 나왔거든. 여기서 오씨랑이란 사람이 그 금부채를 줬었어.

주서가지고는 옛날에 봉초 있는 시대에 봉초 한 봉에 한 10전인가 했어.

봉초 서너봉 준다고 그래서 줬어.

옛장시가 보물을 하러 여기에 들어와서 그것을 알았는갑써. 그래 옛 몇 개하고 그 금부채하고 바꿨어.

또 어떤 사람이 옛장시한테 돈푼이나 준다고 금부채를 풀라함께, 대체 옛 장시가 만족했는가 풀았어.

그 사람이 서울까지 올라가서 금부채도 서울까지 올라갔어.

지금은 불란서까지 갔다고 한당께. 내가 15살인가 있었던 일이어.

(18) 사위와 장모

장산면 도창리, 1984. 정석심(여, 63세) 씨

옛날에 지집에 여섯을 낳은 집이 있었어.

또 애기를 뺐는디, 이번에는 아들을 낳야제.

장모가 사위한테 강께, 사위가 정재서 가랑구 딱 벌리고 솔단지를 닦고 있어,

“뭇 낳당가?”

장모가 그랑께 사위가

“장모 X조차 여덜이요”

또 딸낳단 말이제, 장모가 사위한테 못들을 말을 듣고, 사위한테는 말도 못하고 하도 얼척 없응께. 사돈한테 가서

“사위가 이런저런 말을 해라” 한게 사돈이

“X말 마시오 X벌이요”

그래 사우도 훌애비고, 아범도 훌애비여서 그랑겁다 하고 그 밑에 200년인가 산 하나씨가 있었어.

나이가 많이 먹어서 내 마음 알아 줄 것이다 하고 갔더니만 하나씨도 울고 있어.

“나도 슬퍼서 사장어른 찾아왔는데 어째 나보다 더 슬픈일 있소” 한게 하나씨가

“또가리 바쳐 이고온 X을 기력없어 못한다.” 고해

“그말이 뭐다요” (칭중)

“그랑께 늙어서 여자 얼굴 보기도 힘들지, 여자가 저절로 방에 들어와도 기력이 없어 못한다 말이지”

(19) 석준내 굴청

장산면 도창리, 1984. 김영만(남, 64세) 씨

거기가 무서워, 옛날에 아들이고 딸이고 애기들이 많은 사람이 살다가 몰싸 죽음을 당한대여.

옛날에 이 마을에 살다 죽었제.

현재 거기가 자기네들이 산 집터까지 있제.

옛날 거기다 대나무도 심고 그래서 대나무도 있어. 응 그랑께, 식구가 많은게 외부 사람이 한명와서 살았어. 그란디, 어느때 모진병이 들어와서 다몰싸 죽음을 당했제. 그래서 식구들이 전멸했어. 그래서 거기를 별명해서 석준내 굴청, 석준내 굴청 그래. 그라고 지금도 새끼들이 많은 집을 보며 별명으로 석준내 새끼들 같다고 그래.

옛날에 북강서 거리 자주 들어다닌 사람들이 석준내 굴청 가다가 허깨비 만나 갖고 씌름도 하고 시근 땀 펄펄 흘리고 오고 그랬어, 무서운 굴청이제.

(20) 닭도둑

장산면 도창리 2구, 1984. 박원식(남, 56세) 씨

닭 도둑질한 이야기인데, 서당을 땡기다가 밤에 오래되면 공부하다 닭은 도둑질해 먹어, 달구장태로 올라 가서 거기에 수탉이 있단 말이여, 그래서 닭 밑에서 뛰어넘은게, 닭이 「꼬꼬대」하고 소리를 낸게 집주인이 들었제, 주인이 문을 연게, 도망을 갔제, 도망가서 변소 거기가 엮어졌음갑서.

그때 주인집 처녀가 등을 갖고 오다가 마치 소매가 내라와 변소에 갔어. 그란디, 남자가 밑에서 있었는데, 처녀는 모르고 오줌을 다 누고 옷을 올릴라고 했는디 변소 밑에서 남자가 소매를 다맞고 옷을 탈탈 털면서 일어났는디, 그 처녀가 깜짝 놀랐제. 부모도 모른디 소위 처녀가 남자한테 그래부렀는디, 어찌께 할 도리가 없제. 그래서 여물관으로 데리고 가서 땡땡하게 옷을 말리고 거기 사랑방이 있어. 사랑방은 집채하고 떨어져 있는게, 부모들이 모르제, 거기서 잠을 재 주고, 그래서 둘이 인연이 되어갔고 살았다고 그래.

(21) 양반과 종

장산면 도창리 2구, 1984. 박원식(남, 56세) 씨

즈그집서 산 종이 섬으로 가서 잘 되얏어, 자기는 양반이라서 양반이 망해블면 먹고 살 길이 없제, 그란디 양반이 망해 블었어. 그란디, 알아보닝께 자기집에서 산 종이 잘 땡다는 소문이 났거든, 양반이 종집을 찾아간다고 그랑께 친구는

“옛날부터 하인집 찾아가서 잘 된 사람 없다고” 못하게 했어, 그래도 우리집서 4대 5대를 산 종이 그래도 좋지.

“주인이 찾아간디 굶기야 할라디” 하고 종집을 찾아간다고 그래.

아 그란디, 그 종은 그 섬에서는 자기가 양반인가 상놈인가 모른디 양반이 오면 자기 식분이 폭로당계 머슴이 주인을 때려 죽일라고 했어, 아 그 안하겠어. 그래도 그 종은 그 섬에서는 살림도 많아서 부자로 산디, 자기는 현재 다른데로 가서 부자가 되 응계, 상놈이 양반이 오면 자기 체면이 안 서거든. 그래서 양반을 때려 죽였어. 양반 아들이 15살이 땡계, 지그 아버지 친구가 하는 말이 공부를 해서 그 머슴집에 찾아가 라고 그래. 양반 아들이 머슴집에 찾아갔어. 아들이라고 안 밝히고, 진짜 양반 아들이 그 섬에 가본계, 연연히 부자가 되얏는가. 지와집이 몇 채 있고, 살림도 많애, 머슴이 글씨를 모른계, 주소 성명도 읽을 줄 모르제,

섬이라서 글 잘칠 사람도 없거든. 그래서 황씨 아들, 그 머슴을 황씨라고 했어. 황씨 집안 애기들을 다 모여다가 글을 가르쳤어. 한 3~4년 갈쳤는디 인자 양반 아들도 한 이십살 먹었제, 그래 황씨 지그 딸하고 결혼을 시켰어. 선생하고 그때는 서당 선생이제 그 남자도 지그 아버지 원수를 갚을라고 왔는디, 그리 결혼해서는 안되제, 그 종도 결혼을 시킬라고 한계, 흔적이 있는 것 같고, 이상해 마음이 쓰인단 말이여, 그란디 그 남자가 뭘 말하다가 잘못해 갖고 힌트를 얻었어. 결혼식을 그날하고 첫날 밤 이었는디, 아들 신분이 밝혀졌어, 종이 일군들을 시켜갖고, 삼이랑 팽이랑 갖고 나와서 그 남자를 죽일라고 하거든, 여자가 첫날밤인디 그 남자가 남편이 되어 불었던 말이여.

그란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 여자가,

“자기가 죽을란다” 이거야 남편에 대한 열녀지, 옷을 갈아 입고는 남편은 시집온지 며칠밖에 안된 집이 있었는디,

“당신은 거기 가서 요령껏 하시오” 하고 나왔어

“사람 살려라” 하는 소리가 이상해서 어째 잘못 찾아 낸 것 같으면 본계 대차 몽텅이 들고 찾아가서 낮에 본계 지그 딸이거든, 그 남자를 찾을라고 동네를 다 뒤졌어, 그란디 막 시집온 집에를 가 봤는디, 각시가

“아무리 무식한 집안이라고 인자 막 시집은 각시방을 들어다 보그만” 하고 자기 치마폭 밑에다가 그 양반 아들들을 숨겨갖고 가마타고 친정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그 남자는 살았제.

그 양반 아들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갖고 벼슬을 했어, 그 남자는 양반인게 벼슬할 수 있제, 그래서 자기를 살려준 여자 공도 갚고, 지그 아버지 원수도 갚았다고 그래.

(22) 보선, 신, X

장산면 도창리 2구, 1984. 박원식(남, 56세) 씨

옛날에 신하고 보신하고 X하고 서러운 이야기를 앉아서 했어.

보신이 있다가 제일먼저 한다,

“너희들은 좋겠다. 나같은 시상은 없다”

“너 어찌께 사냐?”

“하루종일내 신고 다니다가 해만 지면 뒷목에다 묶어다 헛 잡아 던져볼면 인자 괜 찮을랑가 하면, 또 날만새면 신고 나가고 한께 서러워 못 살것다”

신이 있다가,

“그래도 니 시상은 너무나 좋다. 나는 하루 종일내 질퍽질퍽 신고 다니다가 해가 지면, 헛 던져볼어, 날만 새면 또 주서 신고 나가더라”

자지가 있다가

“니 시상은 너무나 좋다. 나는 하루종일내 델롱델롱 달고 다니다가 해만지면 시궁 창에다 푹 끌어 박아볼면 비유가 상해볼면 껍하고 자쳐볼고 나온당께”

(23) 효자 이야기

장산면 대리, 1984. 김대유(남, 65세) 씨

옛날에 전에 한 사람이 살았어. 산골로 살려갔는데, 지그 아버지가 여자는 사흘만 안 때리면 뱅여시가 댄다고 지그 엄마를 맨날 때리거든. 지그 아버지가 죽음실로까지 “여자는 사흘만 안 때리면 뱅여시가 된다.” 그라고 지그 아들한테 일러놓고 죽었어. 그랑께 지그 아들이 인자 엄마를 그랑고 때려 엄마가 못 견딜것은께 법에 다 말을 했어.

“이라고 저라고 아들이 지그 아베한 식으로 때려라우”

“내 이놈 어째 그라코 느그 엄마를 사흘만 되면 때리냐” 그랑께 아들이

“당신내들 그것이 아니요, 우리 아버지가 전에 여자는 사흘만 안 때리면 뱅여시가 된단한께 우리 엄마가 뱅여시 뉘깁이 때리요”

그래, 아 그래서 법일 한 사람이 내가 이대로 뒤서는 안되겠다 하고,

“느그 엄마한테 효도를 해야 한다” 하고 타일렀어.

“어짜던지 엄마한테 공손히 하고 느그 아버지 살았을 적보다 더 잘해야 한다”

그라고 그 놈을 소자내 집다두고 심부름도 시키고 남의 집에다 살려야 진짜로 소자한테 보고 깨우치라고 그랬어.

진짜 소자한테 본께 귀가 막히거든, 옛날에 미염옷이나 당목옷 입을라고 보면 몸이 썸뜩썸뜩하게 아적에 입을라고 보면 차지라. 소자가 옷을 딱 입고 있다가 따뜻해지면 아버지한테 입혀주거든 그라면 지그 아베는

“아따 내 아들 소자다”

소자가 아적에 일어나면

“아버지 방이나 따습소, 어짜요”

하고 옷도 입혀주고 그라거든 그라면 또

“아따 내 아들 소자다 저렇게 소자여”

뵈이든지 하면

“아따 내 아들 소자다”

하는 것 마다

“내 아들 소자다. 내 아들 소자다”

그렇게 그 아들이 아따 나도 우리 엄마한테 가서 소자 한번 되바야제 하고 지그 집에를 갔어.

“엄매 엄매 나 소자 노릇 할라”

하고 뵈이든지 해다드리면

“지미 할 놈 약쳐갓고 엄매 죽일라고 그라냐”

하고 저녁에도 엄매한테 가서

“방이나 따땃하요 으짜요” 하면

“저놈이 인자 방까지 뵈을락 하네”

옷도 벗어주머는

“옷까지 뵈을락 하네”

반찬도 해다놓고

“이것이 간이 맞소 안맞소” 하면

“저놈이 반찬까지 뵈어 먹을락 하네”

아직에 옷을 입고 따땃해지면 벗어주면,

“저놈이 내 옷까지 뵈어 입을락 하네”

도저히 소자노릇을 못하겠드락, 부모가 소자를 멩그라 쥐야제 자식 혼자 소자도 못 된다고 하면 잘못 해분께 끝까지 못 믿어.

(24) 차씨와 여우

장산면 도창리, 1984.이춘욱(남, 71세) 씨

중국서 말일세, 차선생이 살았어. 그란디 과거에 힘을 안썼어. 공부는 잘했는디 그
징한 놈의 술 때문에.

그날도 술을 머리맡에 놓고 잠을 자다가 술생각이 낭게 일어났어. 잠을 자다가 목마
르면 술 한 잔씩 들이키는데, 여시 한 마리가 들어와 차선생 곁에 자다가 여시 그놈이
술을 다 먹었어. 그란디 술취한 여시를 딱 덮어줘. 쫓아 내분 것이 아니고 이불로 딱
덮어줬당께.

죄간 있음께 차선생하고 여시가 동시에 일어났어. 자식들이 본께 짐승하고 술을 먹
고 왔다갔다 하고 있당께.

여시가

“차선생, 내일 또 술받아 놓시오”

여시가 또 와서 본께 형평 없거든.

“차선생, 집이 곤란하요”

“곤란하다 뿐이요”

“내일은 내가 술을 살테니까 나 시킨 대로 하시오. 신작로로 나가서 500발만 나가
면 은전 세푼이 있을 것시오. 그 돈이면 술 석 되도 더 받을 거시오.”

차선생이 그대로 행한께, 아니나 다를까 은전 3푼을 얻었어. 그래서 그 은전으로
술을 먹을 수 있었어.

또 여시가 술을 마시면서,

“선생님, 내 말 들으실라. 여기서 얼마 안되아서 터가 있소. 그 터를 파보시오.”

팡께, 꺼만 나무로 한 괘짝 돈이 나오자 갖다 노니, 녹은 찔었어도 그건 다 쓸 돈이
란 말이여. 금으로 만든 돈도 있고, 구리로 만든 돈도 있어. 천지 백만부자가 됐어.

나중에는 여시만 오면 빵도 술도 갖다 주고 딱 갖다 줘. 차근차근 다 씹어서 먹
응께 다 써부렸어.

여시가 본게 처음 대적한 것보다 점점 웅색해 가거든.

“또 차선생, 내말 들으시오. 올해는 메밀씨를 많이 사라고 그려.”

그 돈으로 있는 대로 메밀씨를 샀어. 그래 송년이 들어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메밀
씨만 보면 산다고 그래. 이놈의 메밀씨가 50전, 70전 막 올라갔어. 또 차선생이 부자
가 됐어.

그 메밀씨를 팔아먹고 그라다 이미 차선생이 죽었어. 여시가 차선생이 죽응께 친구
가 없어. 재미가 없응께.

“나는 산중으로 갑니다” 하고 가고 그 자식들은 잘됐어.

(25) 구렁이 신랑

장산면 도창리, 1984. 정공심(여, 59세) 씨

전에 한 사람이 살았어. 우아랫집 장자네가 살았는데 참 늦게 얘기 난다고 난 것이
구렁이를 낳았어. 하루는 장자네 큰 딸이 와서, 아짐! 아짐! 애가 잠 보세, 형게, 올애
기는 그저 볼 얘기 아니어야. 아지재 머뭇 갖과서 본당가 미역하고, 쌀하고, 간장하고
갖와서 본단다. 갖다 주고 아짐 얘기 좀 보게 그렇게, 뒀안에 샷갓 밑에가 있단다. 떠
들어 보테이, 구렁이도 구렁이도 된 구렁이를 나났네. 그라고 가거든. 또 시째가 와서
아짐 아짐 얘기 좀 보세 그라거든. 우리애기는 그저 볼 얘기 아니어야 무뭇 갖와서 본
당가? 미역하고 쌀하고 간장하고 쌀하고 갖와서 본단다. 그라거든 또 갖다주고 뒀안
에 샷갓밑에 떠들어 보고 구렁이도 구렁이도 쇠구렁이를 나났네 그라고 가거든, 막둥
이 딸이 와서 보고 아짐 아짐 얘기 좀 보세 올애기는 그저 볼 얘기 아니어야 머뭇 갖
와서 본당가? 간장하고 쌀하고 미역하고 갖와서 본단다.

어디가 있소? 뒀안에 샷갓밑에 있다고 가르쳐 준게, 그 막둥이 딸은 와서 보고 선

부도 선부도 이선불 나왔다. 그라고 가거든, 구래이가 실없이 좋아서, 어매! 어매! 나 장자네 막둥이 딸한테 장가 보내줘. 안보내주면 어매 X으로 도로 들어가버려. 징하거든, 한절내 가서 장자네 지등나무 잡고 뽕뽕 돈께, 아짐씨 어째 와서 그러시오, 할 말 있으면 와서 하고 가시오. 아이고 아자씨 말하기도 미안하요마는 우리 구래이가 장자네 막둥이 딸한테 장가 보내주라고 험다고, 아이, 물어봐서 되면 된 것이고 안 되면 안되는 것이지라우, 아무개야 큰 딸부터 불러 장자네 구래이한테 시집갈래? 가면 가고 말면 말제 손구렁이한테 시집간다우, 둘째딸 불러 장자네 구래이한테 시집갈래? 가면 가고 말면 말제 된구래이한테 시집간다우 그러거든 막둥이 딸보고 아무개야 장자네 구래이한테 시집갈래? 어멈 아범 맘, 이제 내맘이다우, 그러거든 인자 되었소, 아짐씨 인자 하늘에서 내 쫓거든 그 구래이를 첫날 지역이 다칠라 현계 가마솔으로 물한나 끓이쇼. 물끓인께, 시르르 와서 지내가 분께, 하늘에서 인자 죄를 짓여서 허물쓰고 내려왔어, 아주 옥골 남자거든. 장개를 가서 인사를 현께, 즈그 성네들이 나도 갈 것을, 나도 갈 것을, 내가 갈 것을 내가 갈 것을 어뜨께 이쁜께, 뜨는 달도 같고, 지는 해도 같고 그랑께, 그러다가 구래이가 서울 가게하러 간다형께 그 허물을 즈그 각시 오끄람쪽에다 채어 줌시로 암도 보지도 못하게 하고, 내가 가게를 해갖고 오다가도 불에다 넣어서 노랑내가 나면, 여기는 못온다 그랑께는 탁 차고 아무도 간섭않게 차고 있은다 그랑께는, 어뜨께 문 딱 잠그고 들어누웠은께, 즈그 성년들이 와서, 아무개야 문 끌러라 문 끌러라 그랑께는, 끌러준께는 이 잡은다고, 이 없다해도 이 잡은다고 물팍에다 누에놓은께, 잠이 사르르 든 새에 딱 끌러다 부삭에다 넣어분께는, 즈그 서방이 서울서 가게 해갖고 릴리 꿈따꿈하고 오다가 그냥 노랑내를 맡고 그냥 가버렸어.

그랑께는 내가 이 세상 살아 뫼하것냐 그러고는 머리를 딱딱 끈끄고 남복해 입고 즈그 서방 찾아 간다고 바랑하나 들쳐메고 갔어. 간께는 어서 새본소리가 “웃넛 새야 아랫넛 새야 천지 고은 녹두새야 구래이 선부 이 선부 눈에는 앓지마라 휘!” 그러거든 그래서 그 소리가 이상하거든, 아가 너 인자 고싸 새 뫼이라고 우쳤냐. 그랑께, 안 꺾쳐 줄라고 그러거든, 지 반지 하나 빼 줌시로 반지 빼주께 한번 더 해봐라. “웃넛 새야 아랫넛 새야 천지고은 녹두새야 구래이,, 이선부 눈에는 앓지마라 휘!” 그랬다고 그래야 한자리 더 해봐라 그랑께 아파 든 사람이 그리 까다롭소. 한 자리 했으면 말제 한자리 더 해봐라. 시계를 차고 가서 시계를 빼줌서 하라 한께, “웃넛 새야 아랫넛 새야 천지 고은 녹두새야 구래이 선부 이선부 눈에는 앓지마라 휘!” 하루에 석자리밖에 안 하라고 그랬어라우.

그러거든 그러면 아가, 구래이 선부 이선부 집이 어뜬 것 어디야 워따 참말로 꼼꼼하게도 묻네. 찌기 저것이 기라우. 그러거든 찾아 가서는 인자 차두 밀구덩 터갖고 여자가 쌀로 부서준께는 안된다고 깨로 주랑께 깨준께. 밀터진 차두 갖와서 우루루 부순께, 쏟아진께 춤볼라서 담은께, 해가 저부렀어. 일부러 해지게 할라고 그랬거든. 나 여그서 자고 가야 쓰겼다고 그랑께는 그 여자가 뭐헐라고 잘 데 없어 잘 데 없어 헐께, 아이 여물청도 좋고 소청도 좋다고 그랑께는, 그럼 찌 여물구덕에서 자쑤. 그러거든, 구래이 선부 이선부가 각시를 얻어갖고 즈그 각시 물팍에 누에 놓고 달은 흰한이 공부를 깔친디, 기가 맥히거든. 그래서 나와갖고 달도 밝다 달도 밝다! 휘낭청청 달도 밝다, 구래이 선부 이선부는 어디 가고 저달 보고도 모르는고, 그랑께는 구래이 선부 이선부가 찢심심게 듣고 있는께 거만큼 따라가서 달도 밝다! 달도 밝다! 휘낭청청 달도 밝다. 구래이 선부 이선부는 어디가고 저달 보고도 다 모르는고, 그랑께는, 두루룩 나와서, 아까 당신 뭐라고 했냐고 그랑께는, 나 아무 소리도 안했다고, 아! 아까 뭐시라 했냐고 그랑께는 안했다 헐께, 도로 들어가 즈그각시 공부를 잘칠하 헐께, 달도 밝다! 달도 밝다! 구래이 선부 이선부는 어디가고 저달 보고도 모르는고, 내가 기다고 손 꼭 틀어잡고 내가 기다고, 어즈케 여기 왔냐고 울고 불고 허니께, 그 저테 여자가 새와 갖고 썰알거리니께, 이제 막 목욕물 끓이라고 허고 해서는 막 쌀밥 해오라 헐께는, 보쌀 가리죽을 쑤다 죽거든, 그러해서 먹고는 목욕하고 인자 둘이 중에 하나 나 갈텨께 누가 살려나 형께 누굴 데리고, 누구 살 것이냐 형께는, 구래이 선부가 꽃을 말했어,

무슨 꽃이 좋드냐 형께, 작은 사람은 해당화도 좋고, 목단화도 좋고, 국화꽃도 좋다고 그러거든. 큰 사람은 가만있다가, 미영꽃이라 하는거는 일년에 두 번 피거든. 꽃으로 피고 미영으로 피고 즐라디야 즐라디야 미영 꽃 같이 즐라디야 그러거든, 저렇게 안께 저 각시하고 산다. 그래도 안떨어질라형께, 그면 뭐시 제일 질디야 형께, 새내키도 질고, 솔토막도 질다고 형께, 큰사람은 가만 있다가 질라디야 질라디야 질과 같이 질라디야 알았거든, 질과 같이 진거 없제 저놈 댕고산다 형께, 저렇게 안 여자 데고 산다형께, 그래도 안 떨어질라 형께, 그러면 호랭이 산 눈썹을 빼오라고 했어,

둘이 중에 작은 사람 못구해왔어. 근디 어디 어디 가서 본께 늘갱이가 한 사람 있어, 나 호랭이 산 눈썹을 빼가꼬 오라 형께 왔다고, 그래야고, 그 노인네가 방쪽밀로 들어가라고 하거든 쪼까 있으면 우리 아들이 온다고, 그러면 빼줄텨께 들어가갸꼬

있은게, 이황하고 막 어가지가 현놈이 막 천둥 온것갈테이 마당에가 푹 떨어지드라 해. 아야! 나 어따 쓸란다. 니 눈썹 서너개 빼주라 형께, 어따 쓸라고 그랴요? 약할란다. 내가 약해주께, 아니다. 아니다. 빼서 종이에다 푹푹 몰아갔고 와서는 빼어준께 갖고 왔제. 작은 사람은 못 빼왔어. 인자 이 각시 데꼬 산다고 형께, 그래야고 인자 할 수 없이 물러났어. 물러나가꼬 인자 그때, 인자 세상을 보고 즈그 두니 호의 호식하고, 만대 육신하고, 백대 천신하고, 팽건달고 메물겁닥에 탕건달고, 잘 먹고 잘 살았어.

(26) 딸 죽인 계모

장산면 도창리, 1984. 정공심(여, 59세) 씨

전에 한 사람이 살았는디, 참, 아들 아홉을 내놓고 딸 하나를 내놓고 죽어 버렸어. 죽어 버렸는디 서모를 얻었는디 아들 아홉네들이 다 기술 배우러 간다고 나가 부렸어. 즈그 동상 여을 날짜가 닥쳤어 그랬는디, 요년이 어찌 짜든지 그 가스나 하나 있는 것을 죽일라고 했어. 그래서 인자 사랑 밑에다가 쥐가 하나 있는디, 그 가이나가 꼭 밥 차릴 때에다 날롱 날롱하면 불쌍하다고 밥을 던져주고 던져주고 했어. 궁께 쥐가 강아지만이나허게 컸어. 쥐가 그 기미를 즈그 이붓어머니가 알고 가이나는 인자 베짚디 베 짜고 있는디 자기가 밥차리고 있는디, 쥐가 날롱날롱 한게는 따순물 꿍여갓고 쥐한테 짹 찌글어 쥐가 죽어 버렸제,

죽어 버린께, 인자 가이나가 베 짜고 앉았는디, 이웃집 늘갱이가 인자 곤란해. 이웃집 늘갱이가 그 이웃 어매 보고 아짐! 그랑께는, 뭐할래야, 그 가이나 이름이 인자 빌때거든 비상을 갖고 와서 메물 범벅을 비상을 섞어서 좀 해다주소 생각헌치끼한다고 해다주소 그라거든, 죽일라고 비상섞어 얼마 유독으로 그라게 허고, 늘갱이가 메밀가루조차 갖와서 여라고 현놈 다 안느고 짜까 니어까고 아야 빌때야 너 베짜고 앉었자면 궁한께는 범벅 좀 먹어라 그랑께는, 할마이가 그라케 해 갖왔소.

그라고는 지하고 개하고 가장 친해. 그랑께 개한테 푹 띠어서 던져 줬더니, 훌쩍 뛰어서 주워 먹고는 개가 뽕뽕 돌다가 직신해벌거든. 아 안먹어야 쓰겠다, 저는 인자

서만 대봤어. 어질 혀거든 드러누웠은게. 이붓어매기 와서 어찌께 엇그저께 입었다고 해도 중우 벗으라고 빨래한다고 형께, 벗어준께는 그 쥐를 통가죽을 베께가꼬 애기 지었다고 즈그아비는 서울로 가게하러가고 없는디, 간대꼬자기에 끼어갖고 막 돌아다녀 동네를 외창하고 즈그 아버지가 서울서 가게 해갖고 릴리꽝따꽝하고 온디 그것을 보고 사람들 전부 쫓아버리고 와서 별때를 죽일라해. 아버지 아버지 난 절대 엠하요, 절대 엠하요. 네 요년 죽인다. 죽인다 델꼬 갔어. 데꼬간께, 칼 이리 진놈 들고 목을 졸 으면서 부모우세를 그리시켰다고 간께는 바닷 가운데가 이리 큰 바우가 있어.

그리 데꼬 갈라고. 물써면 나오고, 들면 없어지고 허는데를 한 잔등을 넘어간께, 외가 많거든. 아버지! 아버지! 나 저외하나 따먹고 죽을라우 죽을년이 뭐 외를 먹어야 못 다 먹어, 한 잔등을 넘어간께 쑤시가, 쑤시가 고개 흔들 흔들혀고 있는게, 아버지 아버지 저 쑤시 한모개 끓을라우. 죽을년이 뭐 쑤시 먹어야. 한 잔등을 넘어 간께. 무시가 쫓긋 쫓긋한게, 아버지! 아버지! 저 무시 하나 먹고 죽을라우. 죽을 년이 무슨 무시 먹어야. 한 잔등을 넘어 간께 짜간헌 웅동쌈에가 물이 철철 넘어 간디 은 뽕지께가 떠갖고 있는께.

아버지! 아버지! 나 죽드라도 저 은뽕지께로 물 한그릇 더 먹고 죽을라우. 죽을 년이 무슨 물을 먹어야 데꼬 가서 물 가운데 가서는 목을 탁 쳐분께는, 파랑새가 날아감서 아홉 오랍씨 짙룩 서모랄년 자작유 하고 후루룩 날아가거든, 즈그 아버지는 와서 잔치하거든. 즈그 아홉 오랍씨는 즈그 동생 나이를 안께 여운다고 혼숫물을 해 갖고 자리 자석지고 태상으로 옷해거 지고, 이라고 온께, 그중 즈그오빠 갓데고리에 앉아서 “아홉 오랍씨 짙룩 서모랄년 자작유”하고 파랑새가 하도 울어싼께, 즈그 큰오라버니가 여보! 이 동상들에 이 새소리 좀 들어보게, 유식하고 맹랑하네. 그랑께는 들은께 파랑새가 즈그 큰 오빠 갓데고리에 앉아 아홉 오랍씨 짙룩 서모랄년 자작유 아홉 오랍씨 짙룩 서모랄년 자작유.

그라거든. 평생 우리 동상 죽은 녀이가 이란것이제 그라고는 혼세물건 해 갖은놈 전부 태부렸어. 태불고는 전부 산으로 올라가서 독새, 배암, 지네 잡아서는 태상으로 가득지고 와서는 어무이 아바이 우리 동상 어디 갔다우? 빨래 하러 갔다네. 어디 샘으로 갔다우? 일테면 대촌으로 치면, 쩌 뽕섬으로 갔다네. 뽕섬으로 가봐도 없제이 참말로 갔다네. 거기 가봐도 없제이 어디로 갔다네.

거기 가봐도 없제지 안 와. 풀세 죽었구나 히고 그러나 저러나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사랑방으로 들어가서 혼사 물건이나 구경하썬. 들어 갔어. 들어간께는 독새조차 뽕조차 모두 잡아가고 온놈 풀어 헤쳐놓고는 문 딱 철장해 틀고 거기다 불 탁 저질러 틀고, 즈그 갈테로 갔어. 그렇고 옛날에는 이붓어매가 사람을 죽일라고 했어.

(27) 수봉이 이야기

장산면 도창리, 1984. 정공심(여, 59세) 씨

전에 한 사람이 살았는디, 딸 하나를 내놓고 죽었는디, 서모를 얻었어. 서모를 얻었는디, 서모가 아들 하나를 데꼬왔어. 데꼬 왔는디, 그 애기하고 가장 친해. 여기 있는 딸하고 그래서 누나하고 물길러 간데도 따라가고, 밥도 같이 하고, 잠도 같이 자고 그렇게 친한디, 이붓어매가 죽일라고만 해. 거기도 죽일라고만 헐디,

거기도 그렇게 사랑밑에다 쥐를 키웠든가 참, 저그도 베짜고 앉었은께 저 쥐한테다 뜨건물 끓여 갖고 짝 허쳐분께는 죽어버렸제. 그래서 인자 거기도 인자 이웃집 늘갱이 시켜서 막 죽일라고만해, 그래서 비상 쉬어서 떡 맨들어다 준께 안 먹고 개 던져준께, 개가 빵빵 돌다가 독어분께, 지는 혀만 조금 대봤어 대분께, 어질헌께는 드러 누워 있었어. 쥐를 통가죽 베께 갖와서 즈그 아버지는 서울로 가게하러 가고 없는디, 아이, 어서 일어나거라 어서 일어나거라, 중우 시칠란다 옷 벗어라, 형께는 벗어가고 준께는, 이리 저리 털털텐께 쥐가 나온께는 간대 꼬지에다 끼어 갖고 양가에 딸 형실보라고 헌께는, 즉 아버지가 서울서 가게 해 갖고 오다가 봤어 보고는 죽일란다 형께는 아들이 우리 누나 글안했어라우, 안했어라우 히고. 못 빌라고 형께 짝두로 목을 썰라고 형께는 절대 목 썰게 형께는,

그럼 우리누나 정 그라면은 왼쪽 풀하나 짤라주소. 형께 짝두로 탁 짤라 분께, 여그가 금가락지가 켜는디 칸치가 죽어메 죽은 녀이가 와서 획 물고 갔어, 물고 가서 인자 찌리나가라고 했어. 눈에 안보인테로 나가가고, 인자 내가 암테라도 가가고 처음에 만난 사람, 개면 개, 소면 소, 못났어도 처음에 만난 사람하고 살란다 히고 어디만치 간께는 오두막집 한나가 있거든 집 한나가 잇은께. 진쫂 험시다. 형께 워따 워따 옛날

에 보리가리 갈아서 개먹고 그랬제, 옛날에 멧돌에 갈아거 날마다 그것이 역시여 쓱 뜯어 날려서 그래서 어쁜 처녀가 지나가다가 진좁 합시다.

짜깐 오두막집 방하나 정지하나 있는데 들어간께는 어쁜 처녀가 이라고 들어오난께는 예 지나가다가 저물어 졌단께는 그래야고 보릿가리 주먹으로 하나나 줌서 지역 먹었냐 안 먹었난께는, 안먹었단께는, 개어먹으라고 허드래, 그래서 개어먹고 있는께는, 어쁜 어가지가 한 수청이가 시킴해가꼬 막 이래가꼬 오드래, 머리는 이만만 질어 가꼬, 그 처녀 보드니만 막 벌벌벌 떨드래, 떨지마썩. 당신하고 나하고 살 사람이요. 그랑께는 안 떨드락 해 그래서는 목욕물 디어가꼬 싹 목욕시키고 이발소에서 이발시키고 그랬어. 아적에 나가서 본께 부삭 이매 독이 금이드라여, 그래서는 이놈 갖고가서 거시기 저 오전에 풀아간 사람에 풀지 말고 해 다 저갈 때 풀라 한 사람한테 풀아서, 쌀 풀고, 비단 사고, 돈으로 가꼬웃쇼. 대체 오후로 풀아가꼬 쌀 풀고, 비단 사고, 인자 돈 갖고, 인자, 한 짐 지고 왔거든. 금덩어리 풀아논께, 씨엄씨 웃하고 서방 웃하고 인자 쌀로 밥해주고, 고기 사다준께, 씨엄씨가 인자 나를 죽일라고 그라냐 살릴라고 그라냐 그라더라여, 아니 글 안한다고 또 그 뒷날 저녁에 가본께 집간 부침독이 금이더라 그것이어. 그래서 인자 이놈 지고 가고 또 풀아 가꼬라 했어.

그레가꼬 참말 입구자 집들 탁 지서 논께는 동네서 인자 저놈 도둑을 해다 짓었다고 동네서 새암이 들어가꼬 난리여. 도둑질 안했다고 인자 보라고 이러저러했다고 이 약했어. 그레 인자 세월이 흘러가서 아들을 낳어, 아들을 나가꼬, 인자 어매집 생각이 간절허거든, 애기를 업고 친정이 어쁘게 됐는가 가본다고 나왔어.

아들 나서 업고 온디, 목이 마랍드라여. 그레 인자 샘에서 아기를 이렇게 하고 물을 떠 먹을라고 허면, 아기가 넘어 갈라고 허고 입으로 먹을라허면, 저차 애기차 넘어 갈라허고, 한 짝손이라 깎치가 휘르륵 날라오데이 어쩔 짝 잇어 주드라여 본께 영락없이 지 어께드라여, 금반지조차 표적이 나드락해. 그 손으로 물을 떠 먹어봐도 암스랑토 안 허드락해. 즉 어매 죽은 녀이가 물고 갔다가 즈그 집을 갔어. 가본께 즈그 집은 즈그 이붓어매는 어쁘게 되었냐 허면은 동네서 그중 늙은 사람이 그 애기락 현 것을 이리 갖오락 했다며 갖오면은 안다고 갖은 온께는 창을 따봤어. 창을 따본께 쥐똥이 한아 찻거든.

그래서 인자 그 동네 사람들이 이붓어매를 죽어버렸어. 쥐를 죽어서 애기라고 거짓을 해서 풀을 잘라부었다고 그래서 인자 그 아버지 혼자 잠을 자거든, 그래서 인자 사랑방에서 애기데꼬 잠을자고 나오서 수봉이가 와서 이 사랑방에서 잠을 자고 왔다. 그라고는 지동나무에 딱 써놓고 나온게는 우리 수봉이 자는 방에 어느 누가 자고 간가,

우리 수봉이 자는 방에 어느 누가 자고 간가 허고 즈그 아버지가 슬프게 울어 싸드락해. 그래도 인자 애기 업고 딱 와서 젊은이랑 어깨를 잘라 부러시 즉 아버지가 미안헌께 그 사람한테 와서 잘 살았어.

(28) 정승 아들과 개쟁이 딸

장산면 도창리, 1984. 정공심(여, 59세) 씨

옛날에 정승 아들이 살았는디, 그 아들을 본께, 즉 아들은 하루에 쓰래기 토막하나 복이 없어, 그래서 며느리를 서말복 있는 며느리를 얻어 줘야만 즈그 아들이 출세 하겠어. 그래서 인자 대한민국 다 돌아 다녀도 서말복 있는 며느리가 없거든. 그래서 인자 그동네 옛날에는 남안이라고 개잡는 사람, 소잡고 하는 사람 있었다고. 그 사람들 보고는 아무리 젊은 아이들도 ‘하계’ 했제이잉, 단골네 하고는. 아이, 그 개쟁이네 딸이 하루에 서말복이 있어 상을 본께. 가서 인자 정승이 지동나무 잡고 있는께, 막 그 개쟁이가 벌벌벌 떨어 나를 죽일라고 저런 양반이 우리집 왔으까허고 막 벌벌벌 떨어,

웬일이랑가 허고 아이 하실말씀 하시쑤. 어찌 정승 영감이 와서 그라시오, 김정승 영감이 그라거든, 자네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혼인을 하세. 그랑께 벌벌벌 떨제 이잉, 그 양반이 그랑께 큰 그런 말씀 하시냐고 우릴 죽일라고 그라요. 살릴라고 그라냐 아니 하자고 대체 하기로 했어.

그래 즈그 아들 보고 애기 싯 낳도록 개쟁이 딸년 어찌네 저찌네 허무런 당창은 말, 그런 소리마다 그랬는디 애기 둘난께는, 즉 아버지 죽어논께는 싹해가꼬는 개제가 딸 못할 년, 기어나가라 어찌라 형께는, 그것이 들어 가가꼬 참 장산안에 부자가 되앗제 그랬는디, 암꾸도 안갖고 드럽다고 형께,

나 나간다고 벼슬목대기 하나 들고 나갔어. 그래 거그도 역시 가본께 짜간헌 어느 곳에 불이 허니 씨 졌은께, 가본께는 참말로 역시 노인 한자 있거든. 그래서 내가 처음에 만난 사람히고 살아야 쓰겠다 그랬제. 대체 거그 들어간께 아주 막 즈그 아들이 하나가 있는디, 막 오래 된께는 왔는디 얼굴조차 몇조차 시킴해 갖고 들와서 그 큰 애기를 보더니 벌벌벌 떨거든 아이 괜찬허다고 당신하고 나하고 살 사람이라고, 그래 야고 그래 인자 지역에 목욕 시켜서 데꼬 자고는 인자 아적에 가서 본께 장팡이 금덩어리라.

그 장팡을 파즙서 오전에는 풀지 말고 오후로 풀으락 했어. 그래 비단하고 모두 사 갖고락 했어. 그래서 인자 즈그 씨엄씨를 옷해서 근사하게 해준께는 나를 죽일라고 그라냐 살릴라고 그라냐, 아니 그것이 아니라고 인자 자고 일어나서 본께 무낙께 돌팍이 인자 금덩어리거든. 고놈을 지고가서 또 풀으락했제. 참말로 한일 자 집으로 탁 짓어놓고 산께, 인자 동네서도 새와 갖고 아조 버씩 버씩 되어나서 인자 옛날, 시방으로 말하면 장산안 부자가 되았제, 되었는데 즈그 서방이 그 좋은 살림 다 망해먹고 즈그 본서방이 걸로 밥얻어 먹으러 왔거든 본께 즈그 본서방이여. 그래 어찌 이래 되었나 형께 그랬다고 거기 간데가서도 아들 성지 딸하나 낳았제.

그래서 인자 이 새끼를 띠꼬 재산도 있고, 잘 살아라고 나는 본서방 따라간다고 그래서 왔어. 와갖고는 옴시롱부터 그런 소리 생전 안하고 그 아그덜 성제 키고 그사람 출세시키고 인자 잘먹고 잘 살았어.

2) 장산면의 민요

■ 아들타령

어허 둥둥 내아들
금을 준들 너를 사리 / 옥을 준들 너를 사리
어디를 갔다가 인제를 오느냐
어허 둥둥 내아들
때막같은 불알에다 / 꼬치 자지가 열렸구나
어허 둥둥 내아들
하늘에서 떨어졌냐 / 땅에서 불끈 솟았느냐
이리 보아도 내 아들 / 저리 보아도 내아들
어허 둥둥 내아들 / 어디를 갔다가 인제를 왔구나
어허 둥둥 내아들
꽃밭에서 뉘어 노끄나 / 삼밭에서 뉘어 노끄나
어허 둥둥 내아들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 좋네 / 얼씨구나 내아들아

■ 동당이 타령(1)

동당에당 동당에당 당기 동당에 동당에당
연사야 먹갈아라 / 우편으로 편지하자
김은글씨 흰종우를 / 우리 부모 보련만은
우리같은 청년들은 / 또 다시 보리까
동당에당 동당에당 당기 동당에 동당에당
어야 손님 점친눔아 / 장기 텅텅 놓지마라

애아베기 느그 각시 / 할아직에 다 늙는다
 동당에당 동당에당 당기 동당에 동당에당

■ 동당이 타령(2)

동당에당 동당에당 당기 동당에 동당에당
 저건네라 드는 비는 / 은비드냐 옥비드냐
 수상에 수상 몸비드냐 / 육지지고 개고리냐
 쓴돈부 자지걸음 / 재기재기 피어난다
 동당에당 동당에당 당기 동당에 동당에당
 어테어테 삼대중은 / 미영베 사죽을 목에 걸고
 개와 같은 문바람에 / 화공을 그려라
 동당에당 동당에당 당기 동당에 동당에당
 성개성개 말을 타고 / 성재골을 들어가니
 옥사장아 문널어라 / 반달각시 만나보자
 내가 무슨 반달이냐 / 저승에 달이 반달이다
 동당에당 동당에당 당기 동당에 동당에당

■ 산타령

산아 산아 조선산아 / 사랑하는 우리 산아
 옷입어라 옷입어라 / 초록나무 옷 입어라
 니 아무리 귀여워도 / 나무없이 서 있으면
 산의 가치가 없노라 / 초록나무 옷 입어라
 올라간다 올라간다 / 태산으로 올라간다
 여보아라 동지들아 / 날좀 어서 붙들어라

절름 절름 올라간다 / 한고개를 올라가니
산천은 첩중하고 / 인적은 끊어지고
올라간다 올라간다

■ 개구리타령

청개고리 청개고리 청개골아
나를 잡을라면은
두팔개 걷어올리고
미나리 방죽을 더듬아
너도 한 마리 나도 한 마리
쌍쌍히 잡아다가
청개고리 결혼시키자
얼씨구나 절씨구
개골개골개골개골 개고리
위에서도 청개구리
아래서도 청개구리
개골타령이 나간다
타령타령타령 청개고리
청개고리 타령일세

■ 상여소리

(노래를 하기전에, 제보자는 상여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과정과 그 의식을 설명하고 있다.)

처음에는 방에서 자아, 자아 하면은(북쳐요 죽치고 장구치고) 관보살 관보살 하고
나오죠. 동쪽에서 자, 자 시변을 하고, 서쪽에서 시변 남쪽에서 시변 북쪽에서 시변

(안에서 방에서 뽕뽕 돌면서요) 그래가지고 문턱에서 박아지를 밟아(관으로 깨던데요, 관으로 안깨요? 관으로 안깨고 앞잡이가 밟아) 그래가꼬는 (그때는 노래 안불러요?) 자, 자 하고 밟을 때는 암말고 안하고 딱 깬 후에 계속하제.

관보사 관보사하고 생애가 가지요. 이쪽 저쪽 열십자로 묶어놓고는 다음에는 원생애를 딱 찌어요. 그래가꼬는 제원들이 모여서 술 한잔씩 묵어. 그 다음에는 복수가 나타나서 제군들 집합 딱 시키거든요. 그러믄 인자 제군들이 딱 모여가지고 대기해가지고 생애 뭇 자리로 딱 들어가지요. 열네명(일곱자리로요) 딱 대기하고 있다고, 그때 복수가 머라고 하나(장고하고 북이 있는데 장고는 어디 위치요?) 북이 없을 때는 장구치고 장구 없을 때는 북을 치고 한가지 것씩 하고(한가지라고요) 그래가지고 복수가 하던지 장고가 하던지 딱 마침시로 불쌍한 명인이 세상을 하직을 할테니 우리가 운산으로서 참 공인을 좋게 호강하자고 명칭을 해서 부른단 말이요.

말로서 “관하이보사”하고 시변은을 한단 말이요(그게 무슨 말이에요?) 관-보-사, 관을 좋게 보합시다. 그란디 사투리로 하기 좋기로 “관하이보사” 하니까 이해하기가 곤란하죠. 그래가꼬 인자 “자아”하고 복수가 소리치면 땡땡땡하고 생애가 일어나죠. 그때부터인가 메기죠. 앞소리로, (* “관-보-사”는 “관세음보살”이다)

황천길이 머다는데

문턱말이 황천일세

어어어 영 월러리 넘자 어화 넘

하직이야 하직이로구나

인간세상을 하직이야

인제가면 언제오요

올날이나 일러주오

후렴: 어어어 영 월러리 넘자 어화 넘

인제가면 언제오요

올날이나 일러주오 (후렴)

황덕산천 머다는데

구두식제 갖었나요 (후렴)

제일천에 신광대왕

어느곳에 매였는가 (후렴)

제이천에 초광대왕

어느곳에 매였는가 (후렴)

제삼천에 송제대왕

어느곳에 매였는가 (후렴)

제사천에 오광대왕

어느곳에 매였는가 (후렴)

제오천에 염래대왕

어느곳에 매였는가 (후렴)

제육천에 병신대왕

어느곳에 매였는가 (후렴)

제칠천에 태산대왕

어느곳에 매였는가 (후렴)

제팔천에 도시대왕

어느곳에 매였는가 (후렴)

제구천에 병든대왕

어느곳에 매였는가 (후렴)

제십천에 절룡대왕

어느곳에 매였는가 (후렴)

십자황을 건네가서

저승 대구역 들어가네 (후렴)

어어어어넘 열가리 남자 어화넘

하직이야 하직이야

인간세상을 하직이야

■ 장산 들노래

장구 : 이천동, 52세, 남, 공수리

소 1 : 이귀인, 57세, 남, 공수리

징 : 진금순, 45세, 여, 공수리

선창 : 강부자, 47세, 여, 장산공수리

후 : 박금단, 47세, 여, 장산공수리 / 윤하덕, 45세, 여, 장산공수리

(1) 모뽀소리(늦은소리)

이때는 어느땐가

녹음방초 호시절이라

이여처 디여처

와락와락 무어나내세

소리로봐서 맞이말고

일거리봐서 맞아주시오

천금같은 두폴깨로

밀어다달혔다 무어나내세

아나농부 말들어라

나아농부야 내말들어라

서마지기 논배미가

반달만큼 남아있네

(후렴: 아~ 아하~ 아라~ 아~ 어에~ 헤~ 요)

(2) 모퉁소리(짚은 소리)

무엇네 소리는 어디를 갔다가

때만찾아 돌아온테

이 논배미를 무어다가

장구배미로 건너가세

이 농사를 지어갖고

나랏님네 바쳐보세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삼천리 강산에 풍년이 왔네

(후렴: 어~ 여~ 라~ 무엇네)

(3) 모심은 소리(늦은 소리)

상사소리는 어디를 갔다가

때만찾아서 돌아를 오는데

여기도 심기고 저기도 심기세

앞산은 점점 멀어나지고

뒷산은 점점 가까워진다

(후렴: 에헤 어어루 상사아디이요)

(4) 모심은 소리(짚은 소리)

우리네 농부들 다 잘한다

저건네라 갈비봉에
 안개끼고 비가온다
 허리에다 우장을 두르고
 우리 농부를 다 잘한다
 (후렴: 에헤 어어루 상사아디이요)

(5) 논맨소리(늦은 소리)

오동추야 달은 밝고
 님의생각 절로 만난다
 개사가게 개사가게
 돈닷돈에 개사가게
 개폰단가 개폰단가
 돈닷돈에 개폰단가
 건너가세 건너가세
 보리다리로 건너를 가세
 둘러서라 둘러서라
 영덕밑으로 둘러서라
 해는지고 해저문날에
 깨피없는 소를물고
 간다간다 나는간다
 정든 내고향으로 돌아서간다
 (후렴: 어이꼬 난지나 해~
 어이꼬 난지나 해~
 난지나 난지나 지난달 상사디로고나)

(6) 논매고 일어서기(짚은소리)

오동추여~

에헤야 에헤야 오동추야

달은밝고 님의생각이 절로난다

에헤야 에헤야 일싸좋다

내날이라구나

음메사세~

(7) 질꼬내기

오란데는 밤에 밤에나가고

동네주막 술집은

아이고 낮에나간다 에헤야

잔둥너메 산에 산마루는

앵두같이 같이도

아이고 붉어나졌네 에헤야

저달뒤에 저별 저별만보라

달만 잡고 잡고서

아이고 희롱만한다 에헤야

언떡번떡 은비네꼭지

담장너메 너메서

아이고 날속에낸다 아에야

간다간다 내가 돌아서간다

님을따라 따라서

아이고 내돌아간다 에헤야

(후렴: 에~ 히여 히여라

아이고 건네농사야~ 에헤야)

■ 자탄가

팔자 팔자 내 팔자야
 신세 신세 내 신세야
 놈 난시에 나도 낳고
 나 난시에 놈도 낳건마는
 내 팔자는 어찌타가
 이 모양이 되었는데
 원통하네 원통하네
 생각하든 원통하다

■ 아리랑

하날에 별난것도 / 구름없는 탓이요
 이 내 몸에 병난것도 / 입없는 탓이라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친한 친구 생각이 / 새로 절로 난다
 무전 세전은 웬 고갯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 눈물이로고나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니 년이 날만큼 생각을 한다면
 까시덤풀이 천리라도 / 발을 벗고 찾아가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친한 친구 생각이 새로 절로 난다
 날 보고 너를 봐라 / 내가 너 따라 살겠냐
 눈많고 잘난 놈 / 나는 따라 갈란다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친한 친고 생각이 새로 절로 난다
날 곱게 보시오 / 날만 곱게 보시오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친한 친고 생각이 새로 절로 난다
날 곱게 보시오 / 날만 곱게 보시오
동지나 설달 꽃 본 듯이 / 날만 곱게 보시오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친한 친고 생각이 새로 절로 난다
공산 삼십 비 삼십은 / 끝수가 높아서 좋고
이구 십팔 새 큰애기는 / 나이가 적어 좋드라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친한 친고 생각이 새로 절로 난다
이러다 저러다 날 죽어지면
어떠난 친고가 날 찾아 올까나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친한 친고 생각이 새로 절로 난다
저 건너 외로셨는 저야 나무야
너도 날과 같이 외로 홀로 섰나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친한 친고 생각이 새로 절로 난다
저 건너 갈비봉에 / 큰애기 무덤이 있으니
밤이나 낮이나 / 낮을 썩썩 갈아갓고
큰애기 무덤으로 / 별목이나 하러가세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친한 친고 생각이 새로 절로 난다

저 건네 저 나무가 / 고목이 되면은
 앉으란 새도 아니 앉고
 이 내 몸이 늙어지면 / 고드란 한량도 뒤돌아 선다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 잡가

여망질이 질 같으믄 / 오고 가고 못할손가
 여망문이 문 같으믄 / 열고 닫고 못할손가
 하늘같이 높다해도 / 이슬비가 왕래하고
 강남보고 멀다해도 / 제비가 왕래하고
 여망질은 문턱받이어도 / 한번 간게 못오드라
 갈뜰에는 오마하더니 / 한번 간게 못오드라
 썰팍에다 지룬 장닭 / 자룬 목에다 질게 빼고
 두 활개 허를 찢고 / 울고 울므는 온다하더니
 한번 간게 못오드라 / 삼년 묵은 개빼딱이
 새살이 돋으믄 온다하더니 / 삼년 묵은 개빼딱이
 새살이 돌아도 아니온다
 얼씨구나 좋다 정말로 좋다 /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치매 치매 치매말고 / 궁둥이만 살짜궁 들어주오
 얼씨구나 좋다 정말로 좋다 /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짙은 산중 고드름은 / 봄바람에 녹아내고
 요내 가슴 심회병은 / 남방 애초가 녹아낸다
 얼씨구나 좋다 정말로 좋다 /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달도 밝은데 정다운 님 생각이 간절하다
 얼씨구나 좋다 정말로 좋다 /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 사돈타령

타랑 타랑이 나간다
무슨 타랑이 나가나
사돈 타랑이 나간다
돌데가 돌데가 / 무장없네 돌데가
새 사돈 주마에 / 돈 닷돈 들었다
허덜털털 털이 술받이가
니가 나를 불러거든
두만강 건너가
니친구 니친구 다정한 내친구
섬마 섬마 서섬마야
어허 둥가 둥가가 내 사랑아
니가 내 사랑 같으믄
사랑에 겨워 내 못살겠다
둥가 둥가가 내 사랑
타랑 타랑을 했구나
무슨 타랑을 했냐
사돈 타랑을 했구나
어허 품바가 영 좋네 품바 품바가 영 좋다
니가 잘하믄 내 아들
니가 못하믄 니 애비
품바 품바가 잘한다

■ 심청가

닭아 닭아 우지마라
 니가 울어 날이 새면
 날이 새면 나 죽는다
 나 죽기는 원통치 않다마는
 앞땡하신 우리 부친
 누계다가 전장하고
 죽을 일이 원통하네

아가 청아 무슨 소리냐
 꿈이나 생시냐
 꿈과 생시를 분간 못하겠다

아버지
 공양미 삼백석을 몽은사로 시주라면
 아버지 감던 눈을 뜬다해서
 심청이는 명경장사 서인들한테
 은당수 지수물로 들어가기로
 공양미 삼백석을 몽은사로 시주했소

아가 청아
 니가 죽고 내 눈 뜨면
 그 눈에서 무엇을 할꼬냐
 눈 뜨기도 내사 싫고

공양미 삼백석도 나는 싫다
느그놈의 서인들아
장사도 좋지마는
내 딸 심청이 꼬임꼬임 꼬에다가
은당수 지수대로 연다하믄
느그 놈들은 잘 될 쏘냐
천하에 몸쌈놈들

심청이는 수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공덕재배를 하는구나

하날님네 하날님네
맹천한 하날님네
나 죽은 후에라도
우리 부친 감던 눈을 불끈 떠서
천하만물을 보게 해 주시오
가침 감기 돌개도 연지말고
건강 축복을 주십시오
맹천한 하날님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니
녹음방초 시절이라
산천은 첩첩하고
물소리만 처량하구나

나랑함께 놀던 처녀들은
 종종와서 인사를 하여라
 심봉사 마음이 산란하여
 지팡 막대기 거꼴고 짚고
 딸 생각이 간절이구나

인간 부모를 잘못 만나
 생죽음을 당하였네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무남동자 딸 하나 있는 것도
 앞에다 놓고 볼 팔자가 못되는 내 신세야

■ 등당이타령

등당이다 등당이다 당기 등당이 등당이다
 딸아 딸아 막내딸아
 큰 맘 묵고 곱게 커라
 동지 선달 서남풍에
 발을 걷고 물을 길라
 눈 풀아서 종 사주리
 발 풀아서 신 사주리
 신도 싫고 종도 싫도
 오동나무 썩근 농에
 재화장사 차라주게
 등당이다 등당이다 당기 등당이 등당이다

■ 비둘기 노래

노자 좋네 노자 노자 노자 노자
노자 갱변을 쓱쓱 돌아 / 비둘기 한쌍이 앉아서
불콩 한나를 물어다 놓고
수놈이 물어 암놈을 주고
암놈이 물어서 수놈을 주고
수놈 암놈이 어울른 소리
정처난 과수택이 / 지등만 잡고 히빙빙 돈다
어허거리 방애로구나 라지난다 흠매 좋다
요날이 방애로구나

■ 다리타령

산으로 올라서 산초다리
들로 내려서 들초다리
밭두렁 밑에는 메초리다리
논두렁 밑에는 황새다리
새울똥 볼똥 가매다리
새각시 방애는 감는 다리
날새면 밥하러 가라고
어리설설 풀린다리
어허거리 방애로구나
다니난다 흠매 좋다
요날이 방애로구나

■ 장타령

질로질로 가다가
 돈 한나를 좇아서
 장으로 장으로 가다가
 떡 한나를 사갖고
 듣고보니 니모요
 놓고보니 떡이라
 먹고나니 시장요구
 뒷돌아본께 친구라
 친구의 대접을 못해서
 뒷장에 봅시다

■ 자장가(1)

자장 자장 자장
 이쁘기는 이쁘다만은 올면은 안된다
 곤두독지는 간밤주는 / 씨아지 소지는 듣기 싫고
 삼자독자 외아들에 / 이야기 소리는 듣기 싫고
 막자동아 금자동아 / 부모간에 회자동아
 형제간에는 충신동아 / 일가친척엔 우애동아
 밥을 준들 너살거나
 나~ 나~ 나이 나이 나이
 쇠붙이를 주웠다가 / 논을 샀그나 밭을 샀그나
 나~ 나~ 나이 나이 나이
 동네방네 사람들아 / 아들낳기를 힘쓰지 말고
 딸을 낳기를 힘을 쓰세 / 춘향이 같은 딸을 낳고

이도령 같은 사우 삼소/ 동네방네 사람들아
이불이를 주웠다가/ 논을 샀그나 밭을 샀그나
놀릴 대로 놀려보세

■ 자장가(2)

자장 자장 자자꾸나 / 어허둥둥 내 손자야
둥둥둥둥 둥둥아 둥둥 내 손자야
네가 어디서 생겼냐 / 네가 어디서 생겼어
하늘에서 툭 떨어졌느냐 / 땅에서 불끈 솟았느냐
둥둥둥둥 두둥둥둥 둥둥 내 손자
두둥둥 두리 둥둥 내 손자
잠잘자라 잘자라
니가 울면 날이 새자 / 날이 새면 나 죽는다 / 자장자장
우리 애기 잠 잘란다 / 꼭꼬옥 잠자다가 울지마라
옛말에 하는 말이 / 아강아강 울지마라
삼년묵은 새벽닭이 / 새살차면 범하더라
느그엄매가 가면서 / 유언으로 하신 말씀
삼년묵은 고목나무가 / 새순이 나면 오마더라
니가 울면 날이 새냐 / 날이 새면 나 죽는다
우지를 말고 잘 자거라
어린 것이 너무 울면 / 눈도 붓고 목도 붓는다
자장 자장 자자장
우리 애기는 잠재주고 / 동네애기는 모두 깨어나
나냥 나나 나이나
우리 애기는 잠들면 / 꽃밭에다 잠재고

남의 애기는 잠이 들면 / 가시밭에다 잠재고
 우리 애기는 잠자면 / 꽃방석에 잠재고
 남의 애기는 잠자면 / 개똥밭에다 잠재다
 우리말고 어서 자라 / 네가 내일 장에 또 가서
 군밤 한 톨을 사다주마 / 우지말고 우지마라
 잘자거라 자장자장 자장
 장을 갔더니 장으로 장으로 돌다가 / 밤 한톨을 사다가
 가마솥에다 삶을까 / 봉솥에다 삶을까
 한박으로 둠벽 건지끄나
 조리로 살짝 건져서 / 선반 끝에다 얹었더니
 머리감은 소양개가 / 허~딱딱 갇아먹고
 뼈딱고만 남았으니 / 발은 네가 먹고
 뼈따귀는 내가 먹을란다 / 우지말고 잘자거라

■ 장모타령

타령 타령이 나간다 / 장모타령이 나간다
 장모 공을 갇어덜라면 / 대갈통을 훌쩍 벗겨
 소매쪽박으로 달아도 / 장모 공을 못갇고
 장모 공을 갇어덜라면 / 눈구멍을 축 빼다가다
 전기마다로 팔아도 / 장모 공을 못갇고
 콧구멍을 툇 찢라다가 / 연기통으로 돌려도
 장모 공을 못갇고 / 이빨을 두드려 깨
 골괘짜으로 돌려 때려도 / 장모 공을 못갇고
 어깨와 셋바닥을 찢라다 / 구두짜으로 돌려도 / 장모 공을 못갇고
 두 어깨를 툇 찢라다가 / 쇠갈쿠로 돌려도 / 장모 공을 못갇고

빼꼬락지를 푹 짤라다가 / 돌개꼭지로 돌려도 / 장모 공을 못값고
대통머리를 푹 짤라다가 / 방구통으로 풀어 돌려도 / 장모 공을 못값고
또 부랄을 푹 짤라다가 / 니꾸사꾸로 돌려도 / 장모 공을 못값고
똥구멍을 푹 짤라다가 / 나팔통으로 팔아도 / 장모 공을 못값고
또 자지를 푹 짤라다가 / 쇠말뚝으로 팔아도 / 장모 공을 못값고
두다리는 푹 짤라다가 / 쟁기나 성이로 돌려도 / 장모 공을 못값고
이것저것 저것이것 / 옛 몸뚱이를 다 짤라 팔아도 / 장모 공을 못값네

■ 시어머니 타령

시어머니 시어머니 / 원생년이 시어머니
이제나 디질까 저제나 디질까
아드레만에 디졌네 / 찹살 한되 꾸어다
사제밥을 했더니 / 잘래나먹고 되살아났구나
허야디아

시엄시는 디지무는 / 두름방에다 담어서 / 한칼꾸로다
머개를 막어 여시톨에다 묻어라
떠떠 떠도리 / 그것이 제일 좋은 수로다

■ 곰보타령

곰보 곰보 곰보야 / 하이도 큰 동네 곰보야
네가 내 집안에 와서 / 니가 내집을 왜 또왔냐
수십년에 술값을 받으려 / 니가 내집을 왔느냐
주면주고 말면말제 / 곰보술값을 다줄까
시암시 술값은 홀닷냥 / 며늘년 술값은 열닷냥
시암시 상투로 전당만 했구나

■ 성주타령 외 3편

타랑 타랑이 나간다
 무슨 타랑이 나가나
 타랑 타랑이 나간다
 무슨 타랑이 나가나

(1) 성주타령

성주로다 성주
 성주 근본을 물으면
 경상도 완도평
 저기 안에 솔씨바터
 허툼 더툼 딛졌더니
 속있나고 꺾있나서
 밤으로는 밤이슬맞고
 낮으로는 양지짜야
 그 솔이 점점 자라나서
 장자목이 되었구나
 한도막 푹 잘라서
 상지동을 씩위라
 두도막 푹 잘라서
 머리쟁이를 엮어라
 그 뒤에 띠진 사흘만에
 봉덕새가 날아들어
 활개 한번을 푹툼치면

이천석이 불어나고
활개 두 번을 툑툑치면
사천석이 불어나고
이들을 나면 효자를 낳고
딸을 나면 열녀를 낳고
소를 키면 황소가 되고
말을 키면 복말이 되고
돼야지를 키면 진돈만 되고
개를 키면 황구만 되고
닭을 키면 봉황이 된다

타랑 타랑을 했구나
무슨 타랑을 했냐
성주 타랑을 했구나
어허 품바가 영종네
품바 품바가 영종다
니가 잘하면 내 아들
네가 못나면 니 예비
품바 품바가 잘한다

(2) 장모타령

타랑 타랑이 나간다
무슨 타랑이 나가냐
장모 타랑이 나간다

머리를 잘라 가발을 풀아도
 장모공은 못 갠어
 눈을 빼서 전기다마로 풀아도
 장모공은 못 갠어
 코는 잘라 연기통으로 풀아도
 장모공은 못 갠어
 이빨을 빼서 골패짝으로 풀아도
 장모공은 못 갠어
 손은 잘라 구두창으로 풀아도
 장모공은 못 갠어
 귀는 잘라 빼끼계로 풀아도
 장모공은 못 갠어
 어깨는 잘라 대칼쿠로 풀아도
 장모공은 못 갠어
 배꼽을 잘라 은복지계로 풀아도
 장모공은 못 갠어
 뱃가죽은 베껴 장구통으로 풀아도
 장모공은 못 갠어
 자지는 잘라 쇠말뚝으로 풀아도
 장모공은 못 갠어
 봉알은 잘라 니꾸사꾸로 풀아도
 장모공은 못 갠어
 다리를 잘라 쟁기손으로 풀아도
 장모공은 못 갠어
 똥구멍은 잘라 걸레도 풀아도
 장모공은 못 갠어

타랑 타랑을 했구나
 무슨 타랑을 했냐

장모 타랑을 했구나
어허 품바가 영종네
품바 품바가 영종다
니가 잘하면 내 아들
네가 못나면 니 예비
품바 품바가 잘한다

(3) 화토타령

타랑 타랑이 나간다
무슨 타랑이 나가나
화토타랑이 나간다

정월 송화 속작은 마음
이월 매조에 맺어 놓고
삼월 사쿠라 산란한 마음
사월 홍사리 쪽 늘어졌다
오월 난초 맺는 날이
유월 목단에 놓여 놓고
칠월 홍사리 홀로 누워
팔월 공산에 달도 밝다
구월 국화 굳은 마음
시월 단풍에 다 떨어진다
동짓달 오동이 많다고 하여도
비오끗만 못 하더라

타랑 타랑을 했구나
무슨 타랑을 했나
화토타랑을 했구나

어허 품바가 영종네
 품바 품바가 영종다
 니가 잘하면 내 아들
 네가 못나면 니 에비
 품바 품바가 잘한다

(4) 사랑타령

사랑 사랑 내 사랑아
 호박같이 둥근사랑
 열매같이 맺은 사랑
 가지가지 맺어 놓고
 우리 마당 집뜰정에
 워길소냐 워길소냐
 나무임에라 나무임에라
 어허 둥둥 내사랑아
 니가 내사랑 같으면
 사랑에 지어 내 못살겠다
 둥가 둥가가 내사랑아

타랑 타랑을 했구나
 무슨 타랑을 했냐
 사랑 타랑을 했구나
 어허 품바가 영종네
 품바 품바가 영종다
 니가 잘하면 내 아들
 네가 못나면 니 에비
 품바 품바가 잘한다



[고고문화유적]

1. 다수리 대성산봉수대
2. 대성산성지
3. 다수리 통머리고분
4. 다수리 통머리민묘
5. 다수리 목장지
6. 대리 지석묘 1
7. 대리 지석묘 2
8. 대리 유물산포지(장산현지)
9. 대리 대신터지석묘
10. 도창리 도창고분군
11. 도창리 백제석실분
12. 도창리 도창유물산포지 1
13. 도창리 도창유물산포지 2
14. 도창리 두동유물산포지
15. 도창리 두동지석묘
16. 오음리 오음유물산포지
17. 장산토성지
18. 팽진리 공수유물산포지

[역사문화자원]

1. 팽진리 김희중효자각
2. 대리 선정비군(5기)
3. 김용진시혜불망비
4. 장병준묘(가묘)
5. 도창리 도창비군
6. 전도시장공진방기념비

[생태문화자원]

1. 도창리 노거수림
2. 팽진리 성기바위
3. 다수리 다수보호수

범례

- 생태자원
- ▲ 역사문화
- 고고유적
- 고고면적자원
- 고고—선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13

장산면 長山面

2014년 11월 발행

| 발행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 신안군

| 인쇄 | 연기획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계공단길 141

TEL. 061) 452-3610

FAX. 061) 452-3683

출판신고 제 2013-000002 호



전남 목포시 송림로 41번길 11

TEL. 061) 260-1702~3

FAX. 061) 260-1704

<http://islands.mokpo.ac.kr>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TEL. 061) 271-1004

FAX. 061) 240-8000

<http://shinan.go.kr>